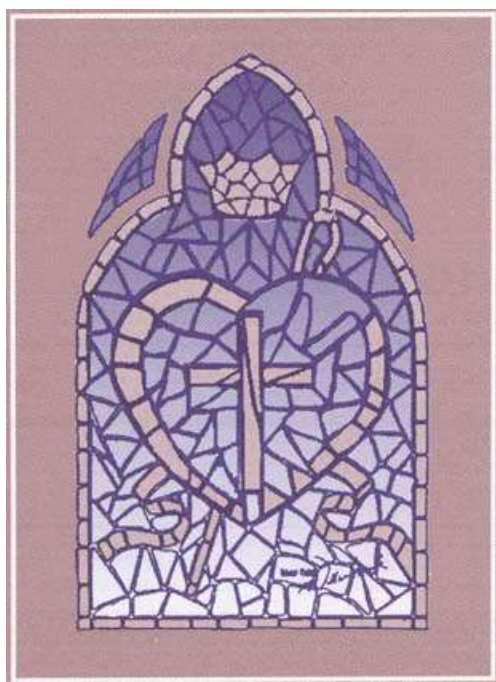


기독교 신앙과 삶

Christian Faith and Life

I

조동호 지음



세종문화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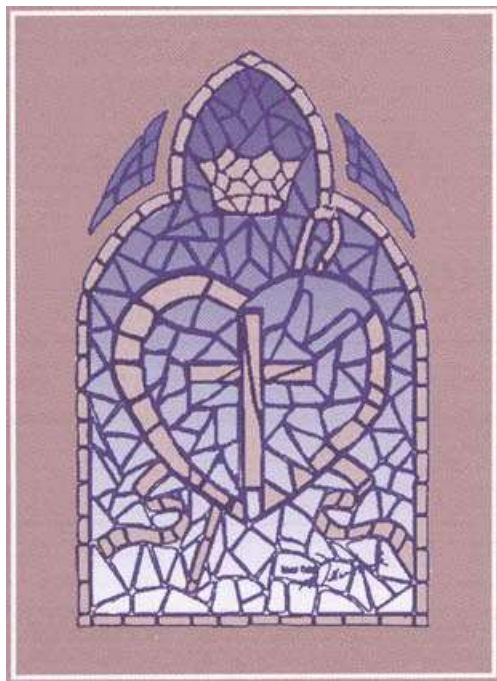
본서의 특징은
교육수준과 생활수준이 한층 높아진 현대인들이
그들의 지적인 욕구, 정신적인 욕구, 영적인 욕구를 함께
채울 수 있도록 기독교 신앙의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 쓰는데 있다.
본서를 통해서 목회자들은 필요한 설교 자료를 제공받게 될
것이고, 성도들은 기독교 신앙을 정립할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제공받게 될 것이다.

Christian Faith and Life

기독교 신앙과 삶

I

조동호 지음



세종문화사

머리말

21세기 미래 사회를 정보통신시대라고 말한다. 현대인들은 ‘아는 것이 힘’이던 시대를 보내고, 이제 ‘찾는 것이 힘’인 시대를 맞고 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정보피로 증후군’이란 새로운 현대병에 고통받기 시작했으며, ‘과로사’(過勞死)에 이어서 ‘정보사’(情報死)할만큼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시대에 살고 있다.

이런 정보과잉현상 속에서 오히려 상당수의 목회자들은 정보부재현상을 심각하게 겪고 있다. 불필요한 정보에 시달리는가 하면,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과 금전을 낭비하기도 한다. 매 주일 몇 차례씩 준비해야하는 설교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에 실리는 ‘이규태 칼럼’이 월 400만원 이상 쓰는 자료수집비와 이규태 개인의 집필과 정보처리 능력 때문에 가능하다는 사실은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목회자들이 설교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 것인지는 당해본 사람만이 알 것이다.

PC통신이나 인터넷을 사용하는 목회자들이나 서점에 자주 나가 보는 목회자들이 겪는 한결같은 경험은 자신의 취향에 맞는 쓸만한 자료가 많지 않다는 점일 것이다. 그 많은 설교집들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예화집들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목회자들은 여전히 참신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감출 수 없을 것이다.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매 주일 듣는 설교에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고 불평하면서도 신학서적들은 딱딱해서 읽지 않고, 설교집은 싱거워서 읽지 않는다. 성경연구에 관심이 있다해도 생업에 바빠서 시간을 쪼개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신앙교육을 목회자의 설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교육수준과 생활수준이 높아진 최근에는 성도들이 반복되는 단순한 설교 내용에 불평을 토로하면서 지적인 욕구, 정신적인 욕구, 영적인 욕구를 함께 채울 수 있는 내용 있는 설교를 갈망하고 있다. 한편 목회자들은 목회자들대로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지지 않은 채, 신앙생활에 관한 설교에만 치중하다보니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변화 없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맥이 풀리는 경험들을 하고 있다.

이런 큰 공백을 한 점이라도 채워본다는 뜻에서 부족하지만 용기를 내어 이 책을 목회자들과 성도들 앞에 감히 내놓기로 했다. 목회자들에게는 설교 준비에, 성도들에게는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책에는 1996년 10월부터 1997년 3월까지 6개월간 26번에 걸쳐 대전극동방송국 프로그램, '평신도 지도자 육성을 위한 신학강좌'를 맡아 '기독교인과 신앙'이란 주제로 행한 강연 자료와 1995년 8월부터 만 2년간 부천시 소재 사랑의 교회에서 행한 주일 아침 주제별 연속 설교 자료들이 일부 담겨 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1997년 7월 15일
황산별 연구실에서 조 동 호

차 례

제1장 창조주와 신앙 · 9

1.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 11
2. 창조신앙의 장점들 17
3. 부활의 주 예수 신앙 25
4. 임마누엘 성령의 신앙 32
5. 피조물 인간 38

제2장 구원과 신앙(1) · 47

1. 구원의 근원 49
2. 구원의 수단 56
3. 구원의 시간 61
4. 구원의 목적 67

제3장 구원과 신앙(2) · 75

1. 복음을 듣고 77
2. 예수를 믿고 84
3. 죄를 회개하고 91
4. 믿음을 고백하고 97
5. 침례를 받고 104

제4장 교회와 신앙 • 111

1. 교회, 뽑힌 사람들의 모임 113
2. 성도, 기름부음 받은 자 119
3.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125
4.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132
5. 성경, 교회의 기초 138
6. 주일 예배 144

제5장 고난과 신앙 • 151

1. 죄악의 존재 이유 153
2. 인간의 불행과 심판의 존재 이유 158
3. 신자에게 고난이 지속되는 이유 164
4. 고난 극복의 능력 170

제6장 성령과 신앙 • 175

1.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177
2.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1) 183
3.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2) 188
4. 성령은 어떻게 받는가 195
5. 성령은 언제 받는가 201
6. 성령충만이란 무엇인가 207

제7장 십자가와 신앙 • 215

1. 십자가와 예수 217
2. 십자가와 하나님 221
3. 십자가와 그리스도인 226
4. 십자가의 삶의 방식 230

제8장 대중문화와 신앙 · 237

- 1. 대중문화와 그리스도인 239
- 2. 대중문화의 정신 244
- 3. 대중문화의 극복 251
- 4. 대중문화와 미래사회 257
- 5. 대중문화의 세계관 264

제9장 헌신과 신앙 · 271

- 1. 헌신과 예배 273
- 2. 헌신과 신앙 279
- 3. 헌신과 봉사 286
- 4. 헌신과 사랑(1) 292
- 5. 헌신과 사랑(2) 299

제10장 사랑과 신앙 · 307

- 1.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309
- 2. 사람은 무엇이 필요한가 315
- 3. 사람은 무엇을 해야하는가 321

제11장 이상과 신앙 · 329

- 1. 성령과 환상과 꿈 331
- 2. 아브라함의 꿈과 믿음 337
- 3. 운명의 개척자 야곱 343
- 4. 하나님과 싸워 이긴 야곱 350
- 5. 역사는 하나님의 시험무대 357
- 6. 역사가 주는 교훈 363
- 7. 역사는 정신에 지배된다 369
- 8. 역사와 시간 376

제12장 영성과 신앙 • 383

1. 영성이 깊은 사람	385
2. 예수의 기도생활	391
3. 말씀의 하나님	396
4. 창조적 언어	403

제1장 창조주와 신앙

1.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
2. 창조신앙의 장점들
3. 부활의 주 예수 신앙
4. 임마누엘 성령의 신앙
5. 피조물 인간

제1장 창조주와 신앙

1.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 (창세기 1장 1-4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성서 66권을 주셨는데, 이 성서 66권은 성공한 사람들의 삶의 진솔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술한 고난과 역경의 삶 속에서 시련과 억압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나그네와 떠돌이의 삶 속에서, 노예와 포로의 삶 속에서, 압제와 탄압의 삶 속에서, 십자가와 박해의 삶 속에서 재기와 승리를 경험한 생생한 삶의 증언들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해 보기로 하였다. 그들은 어떤 환경에서 살았으며,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나서 몇 가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시련과 역경 속에서 살고 있었다. 둘째,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었다. 셋째, 그들은 이 신앙으로 그들이 당면한 난관들을 극복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신앙이 참으로 위대한 것이로구나 라고 깨달았다.

한편 마음 한 구석에서 이 세상에 어떤 모양으로든지 신앙을 갖지 아니한 사람이 있는가? 라는 생각이 떠올랐다. 사람은 누구

나가 믿는 구석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자기 능력을 믿든지, 돈을 믿든지, 부모를 믿든지, 지식을 믿든지, 주먹을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유교를 믿든지, 미신을 믿든지,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 이상 의지하는 곳이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들은 실패한다.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들은 불행하다. 어떤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소극적으로 산다. 어떤 사람들은 능동적으로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산다.

그런데 성서에 나오는 성공적인 삶을 산 신앙인들을 보니까, 그들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도 불구하고 매우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마음속에 질문을 던져 보았다. 어떻게 그들은 성공적일 수 있었고, 행복할 수 있었으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일 수 있었는가? 그리고 얼마 후에 해답을 얻었다. 그것은 신앙 내용의 문제였다. 그들이 믿었던 신앙의 내용, 그것이 그들을 그렇게도 훌륭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왔던 것이다. 그래서 성서에 나타난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첫째,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은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면서 또한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내용이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었다. 모든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었다. 우리도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 우리가 믿는 신은 창조적인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엘 샤다이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 내셨고, 흑암에서 빛을 있게 하셨고, 혼돈을 질서로 바꾸어 놓으셨다. 죽음의 상태에서 생명의 상태로 바꾸어 놓으셨다. 이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은 혼돈과 흑암의 세상에 살면서도, 죽음과 절망의 세상에 살면서도, 고난과 시련의 세상에 살면서도, 많은 장벽과 장애들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육지같이 건넌

으며, 반석에서 솟아 나는 물을 마셨으며,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으며, 요단 강을 건넜으며,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은 가나안 정착에서 멈추지 않았다. 가나안 정착 이후에도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끊임없이 생존의 위협을 받았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남과 북으로 갈리었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주전 722년에 앗수리아 제국에 의해서 점령당하였고, 남쪽 유다 왕국은 주전 605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처음으로 침략을 받은 후 짧은 기간은 70년, 길게는 173년간의 유배 생활을 했다. 그 이후로는 페르시아 제국, 헬라제국, 로마제국의 속국으로 지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새로 국가를 건국할 때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 없이 남의 나라에서 엄청난 수난을 겪으면서 살아야 했다. 남의 나라에 흩어져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은 지난 이 천년 동안 무려 1,200만 명 이상 살해되기도 했다. 아직도 이스라엘 민족은 아랍 여러 나라들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역사의 위대한 민족으로 남아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 엄청난 영향을 발휘하며 살고 있다.

이 엄청난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창조와 회복의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에서 비롯되었다.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며,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였다. 이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혼돈과 흑암의 세상에 살면서도, 죽음과 절망의 세상에 살면서도, 고난과 시련의 세상에 살면서도, 많은 장벽과 장애들에도 불구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으로 극복하고 이겨냈던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운데 골리앗과 소년 다윗의 이야기

가 있다. 어린 소년 다윗이 물매 돌 다섯 개로 3미터 거인 골리앗 장군을 물리쳤다는 이야기는 작은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골리앗과 같은 큰 나라들의 위협 속에서, 골리앗과 같은 커다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했던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다.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으로 유대인들은 역사 속에서 고난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 600만 유대인이 히틀러에 의해서 학살당했던 제 2차 대전 때에 나치의 학살을 피하여 성당 지하실에 숨어살던 무명의 어느 유대인은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서도 성당 벽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나는 밤이 아무리 캄캄해도 아침 동녘이 밝을 것을 믿노라. 나는 하나님이 아무리 잠잠해도 그가 살아 계심을 믿노라.” 이런 내용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고백이다. 이 믿음이 결국 그를 죽음의 절망에서 살려내고 마는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를 좌절과 시련에서 희망과 용기로 끌어내고 마는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한다. 이런 믿음이 두려움을 몰아낸다. 이런 믿음이 새 힘을 준다.

둘째,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의 내용은 세계가 하나님의 뜻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은 어떠한 시련에도 불구하고 결코 좌절하지 않는 것이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만물을 다스린다.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은 만물을 움직이신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섭리아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는 목적 없이 흘러갈 수 없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 돌고 도는 역사일 수도 없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는 역사이며, 하나님의 지배아래서 진행된다. 그리고 모든 결과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시다.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

에 마지막을 가져오실 분이시다. 마지막 때에 무서운 심판이 있을 예정이다. 착한 신앙인에게는 큰상을, 못된 불신자에게는 무서운 벌을 주실 예정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실천에는 결코 실패함이 없다. 하나님의 뜻 속에는 연단과 훈련이 있을 뿐이지 실패와 패배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는 절망과 좌절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반드시 승리한다.

신앙인들이 만들어 가는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 속에서 활동하신다. 신앙인들을 돕고 계신다. 그들을 아주 그리고 영원토록 구원하실 뜻을 품고 계신다. 창조의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다. 비록 이 우주가 인간들로 인해서 타락되었지만 하나님은 이 우주를 재창조하실 것이다. 비록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하여 타락하였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회복하시고 흑암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인도하셨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인도하셨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셨다.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사자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투기장에 전사로 끌려가기도 하였다. 그들은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먹지 못했지만,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의 주인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로마 군인들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사자 굴에 들어가는 것을 겁내지 않았다. 매맞고 감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그 당시의 고난이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에 비교하면 짧은 것이요, 오히려 가벼운 것이라고 고백했다. 그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고백했다(고후 4:17). 주후 107년에

순교한 안디옥 교회의 감독 이그나티우스는 순교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 “내 몸에 불을 지르고 십자가를 지우며 사나운 맹수로 하여금 나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 놓도록 하라. 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뻐하리라. 온 세상을 통치하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이 내게는 더 영광스럽다. 사탄의 공격과 유혹을 받을 때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라. 우리의 육신은 상처를 입겠지만, 결국은 승리로 끝날 전투의 한 부분인 것이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려움을 피해만 가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 밀고 나가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약간의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참고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밀고 나가는 중에, 우리가 참고 인내하는 중에, 우리가 성실하게 노력하는 중에 살아 계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좋은 방향으로 창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파괴의 하나님이 아니라, 건설의 하나님이시다. 채찍으로 때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상처를 감싸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으로 승리한 20세기의 대표적인 인물은 아마 1880년에 출생해서 1968년에 죽은 헬렌 켈러일 것이다. 헬렌 켈러는 생후 19개월만에 병으로 인해서 눈멀고, 귀먹고, 말 못하는 병신이 되어 외부 세계와 완전히 단절되고 말았다. 헬렌은 불행했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표현했다. “나는 기쁨의 감정을 혼자 낄낄거림으로써 표현했고, 그 반대의 감정은 발로 차거나 할퀴는 것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때로는 주위를 감싼 고요함으로 인해서 질식할 듯한 비명을 지르기도 했다. 나는 그렇게 거칠게 그리고 제멋대로 살고 있었다.”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놓인 헬렌을 변화시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낸 사람이 있었다. 그가 바로 앤 설리반이었다. 그녀 자신도 눈병으로 인해서 반쯤 실명한 상태에 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설리반은 하나님을 믿는 창조적 신앙을 가지고 끊임없는 사랑과 헌신

으로 일곱 살의 헬렌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설리반은 헬렌의 손에 사물을 느끼게 하고는 그녀의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그 사물의 이름을 적어 주는 방식으로 헬렌에게 단어부터 한가지씩 가르쳤다. 설리반 선생의 불굴의 신앙과 용기 그리고 헌신적인 지도의 결과로 헬렌은 삼 년 안에 점자로 읽고 쓰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열 여섯 살이 되었을 때에는 사립고등학교나 대학에 들어 갈 수 있을 만큼 말도 할 수 있게 되었다. 헬렌은 설리반의 헌신적인 교육과 지도는 물론 자기 자신의 불굴의 투지로써 장애를 극복하였고, 1904년에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 래드클리프 칼리지를 우등으로 졸업하였다. 삼중의 장애를 가지고서도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하버드 대학을 졸업했던 것이다. 그녀의 노력과 정신력은 세계의 장애인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평생을 눈멀고 귀머리 사람들을 돕는데 바침으로써 사람들에게서 ‘빛의 천사’라는 칭호까지 얻었다.

헬렌 켈러는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으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 냈고, 흑암에서 참 빛을 찾았고, 혼돈을 질서로 바꿨다. 앞 못보던 소경이 감촉으로 사물을 파악하였고, 듣지 못하던 귀머거리가 촉각으로 듣게 되었고, 말못하던 병어리가 세계를 여행하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하고 연설을 해냈다.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을 가졌던 두 여인의 장애자들이 만들어낸 인간 승리였다.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은 이와 같이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신앙이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는 신앙이다.

2. 창조신앙의 장점들

(히브리서 11장 1-3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생성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

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것 같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생각이고, 둘째는 우연히 진화되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생명 기원에 대한 창조론이나 진화론이 과학적 방법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어느 누구도 이 우주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하지 못한다.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과학적 사실로서 입증이 되기에는 우주는 시간적으로 너무 멀고, 공간적으로 너무 크다.

과학은 물체나 현상을 관측하고 관측된 현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원인과 결과를 탐구한다. 과학자는 관측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추리와 가정을 세우고 이론을 제안한다. 그리고 그 제안된 이론을 입증하기 위해서 반복된 실험을 하게 되고 같은 결과가 반복해서 나오게 되면 그 이론을 과학적 사실과 법칙으로 삼게 된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갈릴레오는 물체가 낙하할 때의 속도를 관찰하고 나서 무게가 다른 물체라도 낙하하는 시간이 같다는 가설을 세웠다. 그리고 그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서 당대에 제일 높은 건물인 피사의 탑에 올라가 여러 차례에 실험을 반복하였다. 그 실험 결과 그의 가설이 진실 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주장을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생명 기원에 대한 창조론이나 진화론이 이러한 과학적 방법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창조나 진화과정을 반복해서 실험해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주 생성의 문제는 실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실험을 통해서 과학적 사실로서 입증될 수 없다. 다만 그것이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 졌거나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을 뿐이다. 성서가 말하는 창조설은 과학으로 입증된 사실이기보다는 신앙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고백된 신앙의 내용이며, 일부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진화설은 자연의 증거에 근거한 과학적인 결론이기보다는 자연에서 지지를 찾는 철학적 가설일 뿐이다.

여기에는 분명히 관점의 차이 또는 세계관의 차이가 있다. 신앙의 관점에서 믿음으로 기록된 성서는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이 우주가 무에서 만들어졌으며, 흑암에서 생명이, 혼돈에서 질서가 주어졌다고 말한다. 이 우주의 시작과 종말을 말한다. 만물을 만드신 분이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말한다. 창조의 주제는 한 마디로 생명이요, 삶의 목적이요, 구원이다.

그러나 진화적 관점에서 우주의 생성을 말하는 일부 과학자들은 이 우주가 대략 180억 년 전에 엄청난 폭발과 함께 갑작스럽게 생성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우주는 매우 느린 속도이긴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무질서와 큰 혼란의 상태로 죽어가고 있다고 말한다. 진화의 주제는 한 마디로 죽음이요, 우연이요, 멸망이다.

신앙인의 창조설이나 무신론자의 진화설은 과학의 문제이기보다는 오히려 관점이나 세계관의 문제요, 신앙과 선택의 문제이다. 그리고 신앙에 따라서 인간의 언행심사의 방향이 결정되며, 가치관에 따라서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기도 한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워싱턴 포스트지 95년 송년특집호에 지난 일 천년간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들과 가장 악한 인물들이 실렸다. 워싱턴 포스트지가 뽑은 가장 악한 사람은 찰스 다윈과 히틀러였다. 찰스 다윈은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논리로 폭력과 인종주의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제공했고, 히틀러는 이 이론에 따라 육 백만 유대인을 학살했기 때문이다. 세계대전의 발발은 바로 다윈의 적자생존의 논리에서 출발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올바른 세계관이 필요하다. 다음은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 창조신앙의 장점들이다.

첫째, 창조는 이 물질세계가 본래 좋은 것임을 말해준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는 악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하고 있다.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본래 나쁜

것은 아니다. 만일에 나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것을 악하게 사용하는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인간도 본시 악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인간은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진 인격체로서 만들어졌다. 인간은 본시 하나님과, 인간과, 물질과 함께 계약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다. 이 계약이 이행되고 못되는 것은 인간의 선택의 의지에 달려 있다. 인간이 이성적 동물이요, 인격체라는 점은 인간이 곧 책임적 존재라는 의미를 갖는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한 일에 쓰일 도구로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셨고 허락하셨다. 그러나 책임적 존재인 인간이 선하게 쓰겠다는 약속을 파기하고 그것을 악하게 사용했을 때에 흉기로 변하여 악이 발생되고 죄가 인간세계에 유입이 되었다. 악은 하나님의 피조물의 좋은 것들을 악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욕망이 인간의 신이 될 때 발생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악한 것이 없다. 그 모든 것들은 선하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자세가 있다. 우리는 고대 헬라세계의 영지주의자들처럼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나누어 이원론적으로 살지 않아야 한다.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는 악한 것이 없다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선용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한다. 그리고 악한 것을 정죄하기보다는 새롭게 하는 영으로 재창조해가야 한다. 하나님은 죽어야 마땅한 인간들을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새사람으로 재창조하셨고, 타락한 이 우주도 멸하시기보다는 구속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롬 8:18-23; 벧후 3:10-13).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재창조의 영이다.

둘째, 창조는 이 우주와 우주의 역사에 목적과 방향을 제시해 준다. 우연히 발생한 우주는 목적도 방향도 없다. 단지 죽음을 향해 달려갈 뿐이다. 그러나 인격자이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의도적으로 만드셨다면, 반드시 이 우주는 그

목적과 가는 방향이 있을 것이다. 성서는 이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 졌다고 말하며, 머지않아 전개될 새로운 세계 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고 사는 사람은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결코 흔들림이 없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엄청난 시련을 만나도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듣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창조신앙만이 참으로 뚜렷한 역사의식을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 줄 수 있다.

셋째, 창조는 인간의 삶에 목적과 의미를 부여한다. 인간이 우연히 이 세상에 왔다가 사라지는 진화의 부산물이라면 삶에 목적이나 의미를 기대할 수 없다. 그러나 신이 인간을 만드셨다면, 인간은 자기의 존재이유를 물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셨고, 그것이 인간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 인간은 마땅히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을 돌려야 하며, 이 우주를 관리하고 보존해야 할 책임적 존재가 된다.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다면, 각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의 소명이 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그 사람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인간은 우연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운 좋은 혹은 운 나쁜 존재가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하나님이 주신 천직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부르심을 받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요, 또 장차 영화롭게 될 자들이다(롬 8:30).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롬 11:29)고 성서는 말한다. 그러므로 기독교 창조신앙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뚜렷한 소명의식과 직업의식을 심어 줄 수 있다.

넷째, 창조는 과학과 학문을 가능케 한다. 이 물질세계는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만드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일정한 법칙이

존재하게 되고 문제에 대한 예측과 진단과 처방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또한 만들어진 세계는 영원하지도 절대적이지도 않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기 때문에 인간이 믿고 의지하고 살 만한 곳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신실하시며 이성적인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가 만드신 이 우주는 인간이 신뢰하고 살아 갈 만하며, 합리적이며, 예측이 가능하며, 과학과 학문이 가능한 곳이다. 이 우주에 질서와 법칙이 있다는 것은 곧 이 우주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고 운영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한다. 20세기를 사는 인간이 이루어낸 과학문명도 따지고 보면 모두가 이미 존재했던 것들을 발견해 낸 것에 불과하다. 과학과 학문이 발전되면 될수록 만드신 이의 놀라운 창조의 숨씨가 함께 드러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인간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다만 발견하고 조립할 뿐이다.

신앙에 관계없이 창조를 일종의 신비라고 말하는 과학자들이 있다. 물질이 만들어지면 똑 같은 양의 반물질이 함께 만들어지게 되고, 만들어진 물질과 반물질이 다시 만나게 되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폭발과 함께 소멸해 버리기 때문에 창조되어 현재 존재하는 물질이 반물질과의 만남을 피하여 살아 남아 있다는 것과 반물질은 사라지고 물질만 남아 있다는 사실이 신비 중의 신비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폭발 이론을 믿는 과학자들 중에도 일부는 초자연적인 힘 또는 하나님 같은 분이 물리학의 법칙을 무시하고 반물질이 없는 상태로 현 물질을 만들었다고 믿는다.

우주에 질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신의 존재를 가장 잘 입증해 주고 있다고 말한다. 진화론자들은 생물학적인 질서가 돌연변이와 자연도태에 의해서 발전되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우주의 질서가 맹목적인 우연에 의해서 생겼다고 말하지만, 우주를 하나의 사건으로 볼 때, 그것이 어느 정도의 질서를 가지고 생성될 확률은 마치 원숭이가 피아노 앞에서 마구잡이로 건반을 두

들려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곡을 연주할 확률보다도 훨씬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한다. 사실 그럴 확률은 거의 없다. 현대 과학은 이 우주가 마치 팽팽하게 태엽이 감긴 시계가 얼마 후 태엽이 풀리고 죽는 것과 같이 고도의 질서에서 출발해서 무질서를 향해 가고 있고 결국은 죽게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무질서한 상태에서 점차 고도의 질서로 옮겨간다고 말하는 진화론자들의 우주 생성에 관한 설명은 설득력이 없는 것 같다. 무기물질에서 단세포가 발생하는 화학진화나 단세포에서 고등생물로 진화되는 생물진화 가설은 열역학 제 2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창조는 윤리에 대한 기초를 제공한다. 오직 한 분 초월자이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법칙과 옳고 그름의 표준을 세울 권리를 가지고 계신다. 이 우주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만든 자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단지 청지기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뜻을 우선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성서에 담겨져 있다. 성서는 믿음의 조상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생생한 삶의 고백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창조는 인간이 피조물임을 가르친다. 창조는 인간이 결코 신이 될 수 없음을 가르치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치에 서야 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예배를 위한 기초이다. 우리는 항상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해야 한다.

인간이 피조물이라는 인식은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창조는 인간이 부족한 존재임을 가르친다. 창조는 인간이 죄인임을 가르친다. 창조는 인간에게 겸손과 용서와 인내와 사랑을 가르친다. 창조는 또한 모든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야 할 존재임을 가르친다. 인간은 채워가는 존재이지 이미 채워

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일곱째, 창조는 인간에게 청지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가르친다. 하나님은 창조자의 권리로서 모든 것을 소유하신다. 우리가 소유한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맡은 청지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유한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것이다. 만일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되돌려 드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창조는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라는 겸허한 자세로 살 것을 가르친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자유롭게 말씀 한마디로 무에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 삶의 본질적인 중심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조물된 우리 인간은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만물을 맡아 잘 관리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

신앙은 우리 인간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존재 방식이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창조신앙이란 큰 물줄기로 이어지고 있다. 성서 시대를 살아간 믿음의 조상들은 이 창조신앙 속에서 부활의 신앙과 인간은 죄인이며 피조물이라는 인간론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게 되었고, 이 신앙 속에서 재창조의 정신과 확고한 역사 의식과 소명의식을 갖게 되었다. 성서 속에 나타난 신앙인들은 또한 이 창조신앙 속에서 과학과 학문의 가능성을 발견하였고, 믿음과 실천의 규범을 발견하였다. 이 뿐 아니라, 성서 속에 나타난 신앙인들은 이 창조신앙 속에서 인간 본연의 모습과 임무와 책임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 창조신앙 속에서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

3. 부활의 주 예수 신앙 (로마서 10장 9절)

기독교 역사를 살펴 볼 때, 교회는 박해와 시련 속에서 태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독교의 창설자이신 예수는 소외되고 불쌍한 민중의 편에 있었기 때문에 종교지도자들과 로마 당국으로부터 미움을 받아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무덤에 갇혔다. 만일 예수께서 무덤에 갇혀 영원토록 나오지 못하셨다면 기독교는 탄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무덤을 박차고 나오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살아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서 영광을 받고 계신다. 여기에서 기독교는 탄생할 수가 있었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갇혔지만, 고난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무덤을 박차고 나온 부활의 주 예수 신앙의 기초 위에 기독교가 세워졌다. 그리고 그로부터 기독교인들은 예수와 같이 미움받고 배척 당하고, 맹수들에게 찢겨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가면서도 부활의 주 예수 신앙으로 언제나 새 힘을 얻고 새 출발할 수 있었으며 예수처럼 승리와 영광을 얻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부활의 주 예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기독교는 처음부터 박해와 배척이라는 엄청난 악조건에서 출발했다. 기독교는 주후 30년 예루살렘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그리고 처음 삼 백년 동안은 로마제국으로부터 약 십여 차례에 걸쳐서 엄청난 박해와 시련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들 고난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온 유럽을 기독교 나라로 정복하고 말았다. 이 엄청난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처음부터 유대인들의 박해를 감당해야 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

정도였다. 사도 바울이 살아 생전에 여러 번 감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한 것이 유대인들 때문이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사십에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고,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아(고후 11:23-25) 죽었다가 산 적이 있었다. 그러나 박해자들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꺾을 수 없었고, 오히려 정복당했다. 이 엄청난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로마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았다. 당시에 로마제국은 황제를 신격화시켜 예배하도록 강요했다. 율리우스 시저, 아우구스투스, 클라우디우스, 베스파시아누스, 티투스 황제가 사후 로마 상원에 의해서 신으로 선포되었다. 네로는 자신을 신으로 착각한 황제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에 주화에 신이란 단어를 새겨 넣었다. 그리고 큰 도시들에서는 이 황제숭배를 위해서 신전을 짓고 제사를 바쳤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황제숭배를 거부하고 제사를 바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신론자라는 누명을 쓰고 사나운 맹수들에 찢겨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투기장에 끌려나가 대중이 보는 앞에서 살해되기도 했다. 그러나 박해자들은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꺾을 수 없었고, 오히려 정복당했다. 이 엄청난 힘이 어디에서 왔을까?

둘째, 신앙인들은 박해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 예수 신앙으로 이 모든 시련을 극복했다. 그들에게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절망을 절망으로 생각지 않았고, 죽음을 죽음으로 생각지 않았다. 그들은 현실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밝아오는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간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고후 4:17-18).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롬 8:17-18).

이와 같은 믿음은 부활의 주 예수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신앙이 바로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엄청난 힘의 근원이었던 것이다.

주후 44년에 헤롯 아그립바 1세가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죽이기 시작했다. 그 첫 번째로 야고보를 잡아 죽였다. 야고보의 순교에 대해서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야고보를 법정으로 끌고 가던 호송원이 야고보의 믿음을 보고 감동이 되어 자기도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였다. 도중에 호송원이 야고보에게 자기도 예수를 믿겠다고 말하고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빌었다. 이에 야고보는 잠시 생각하더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평안히 당신에게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입맞추었다. 이 같은 대화가 오고 간 다음에 두 사람은 사형장으로 끌려가 함께 목베임을 당하였다. 죽음을 불사하는 야고보의 큰 믿음이 박해로 인해서 꺾이기보다는 오히려 호송원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던 것이다.

주후 51년 바울과 실라는 마게도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 옷이 찢기고 실신하도록 매를 맞고 손발이 묶인 채로 깊은 옥에 갇혔다. 그러나 이런 시련도 바울과 실라의 믿음을 꺾지 못했다. 그들은 밤중쯤 되어 정신이 들었다. 그들은 곧 기도하고 찬송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손발이 풀렸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빠어 자결하려 했다. 이 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당신의 몸을 상하지 마십시오.”라고 했다. 간수가 등불을 들고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묻기를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라고 바울은 말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다. 복음을 듣고 난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자기와 모든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데려가 음식을 차려주었다. 이 후로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 일행의 선교에 헌금으로 적극 동참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박해와 시련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주 예수 신앙인들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다. 박해자에게 꺾이기보다는 오히려 박해자들을 개종시키는 놀라운 힘을 발휘했다. 이 놀라운 능력이 부활의 주 예수 신앙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초대교회의 순교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107년에 순교한 이그나티우스는 이렇게 말했다. “그대들은 나 때문에 타협하지 말라. 또는 내가 석방되기를 바라지도 말라. 나는 밀알이 되고 짐승의 이빨에 가루가 되어 하나님의 깨끗한 빵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에게로 오는 자유를 얻을 것을 나는 믿는다.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다면 불 가운데나 십자가 위에나 짐승의 아가리나 뼈가 가루가 되어도, 손과 발을 잘리더라도, 아무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있을 뿐이다.”

우리 나라에도 로마제국의 황제숭배 때와 비슷한 박해가 있었다. 일제시대에 많은 신앙인들이 일본이 강요했던 신사참배를 거부함으로써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가혹한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살해되기도 하였다.

일본은 옛날의 천황이나 무사들의 영을 섬기는 신사(神社)라는

것을 조선에 만들고 전 국민을 참배케 하였다. 이는 조선인의 충성을 시험하고, 군국주의의 정신적 단결을 도모하고자 함이었다. 이 신사는 읍 면 단위에까지도 세워졌다. 합병 후 일본은 천황의 사진에 경축일마다 절을 하게 하였고, 1925년 1월에는 남산 중턱에 조선신궁(朝鮮神宮)을 만들어 천조대신(天照大神)과 명치천황(明治天皇)을 제신(祭神)으로 모시고 참배케 하였다. 1924년 11월 강경에서는 신사참배에 불응한 여선생과 수십 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그만 둔 사태가 벌어졌고, 1935년에는 평양의 기독교 학교들에게 강력하게 신사참배를 강요하였다.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목회자들과 신도들은 구속되었고 무진 매를 맞고 가혹한 고문을 당하며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주기철 목사를 비롯해서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하였다.

우리 나라 순교사를 보면, 신앙 때문에 박해받아 순교한 사람이 일제시대나 6.25동란 때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18세기말과 19세기초에도 있었다. 이 때에 수 차례에 걸친 조정의 박해 때문에 많은 천주교인들이 순교를 당하였다.

200년 전 처음으로 천주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성균관의 몇몇 유생들을 포함한 유학자들이었다. 이들의 대부분은 남인 시파에 속한 이 벽, 이승훈, 정약용, 정약중, 정약전, 권철신 등과 같은 실학과 유생들이었다. 이들 가운데 정약중과 그의 부인 유소사 그리고 그의 아들 정하상을 비롯한 자녀들이 각각 다른 시기에 순교를 당하였다. 어느 날 유소사가 꿈을 꾸었는데 순교한 남편이 말하기를 “나는 천국에 방 여덟 개가 있는 집을 마련하였는데 다섯은 벌써 찻고 셋만 남았소. 그러니 생활의 곤궁함을 잘 참고 견디시오. 그리고 꼭 우리 곁으로 오도록 하시오.”라고 하였다. 천주교인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자 유소사의 조카가 시골로 피난하여 오라고 집까지 마련해주었으나 그녀는 “나는 늘 순교하기를 원했는데 이제 그 기회가 왔으니 아들 정하상과 함께 순교할 생각이다.”라고 말하며 거절했다. 그녀는 1839년 7월

에 붙잡혀 고문을 당했다. 문초를 다섯 번 당하는 동안에도 타 오르는 믿음의 열정으로 예수의 고초 당하심과 죽으심을 이야기 하고 자기의 문초 당함에 대해서 감사하였다. 당시 국법에는 노 인을 목베어 죽이는 것을 금하였으므로 그는 마침내 매맞아 죽 었다.

이런 엄청난 박해들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 은 그들에게 부활의 주 예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 부활의 주 예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초기 한국인 신자들은 죽음에 대 한 두려움을 멈추고 미래에 대한 희망 속에서 언제나 성실한 삶 을 살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이 뿌린 순교의 피가 씨앗이 되어 오늘날 전국 방방곡곡에 십자가가 세워지지 아니한 곳이 없다. 우리 나라와 비슷한 문화를 가진 일본은 우리 보다 200년이나 앞선 1549년 7월 프란시스 사비에르(Francis Xavier)라는 예수회 신부의 선교로 기독교를 받아 드렸고, 당시의 통치자였던 오다 노부나가와 후계자인 도요토미 히데요시(풍신수길) 때에도 자유 로운 포교활동이 허락되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일본은 당연히 기독교 국이 되었어야 마땅한데도 일본의 기독교인 인구는 아주 적은 수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에 우리 나라는 선교사도 없이 중국에서 들여온 신앙서적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접했던 신앙인 들은 처음부터 모진 박해에 시달려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 인구는 남한 인구의 사 분의 일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숫자로 발전을 했다. 이토록 한국에서 기독교가 발전하는 것은 초기 신자들이 흘린 순교의 피 때문이 아닌가 생 각된다. 성도들의 순교는 부활을 믿는 신앙을 말하지 않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신비이다.

셋째, 우리 신앙인들도 부활의 주 예수 신앙을 가져야 한다.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말한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의 부활 하심에 근거해서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기 초는 부활이다.

기독교의 구원하는 믿음도 예수를 구세주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정도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동의하고 받아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또한 부활 할 것을 믿는 것이다. 이 믿음의 기초 위에 기독교가 세워졌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은 “네가 말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한 것이다.

부활이란 말은 죽음에서의 새 생명을 말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치 죽음의 세계와 같아서 온갖 죄악과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하다. 예수께서 무덤 속에 갇혔던 것처럼 우리도 때때로 땀 새나고 썩고 침침하고 답답한 무덤 같은 현실 속에 갇힐 때가 있다. 신문이나 텔레비전 보도에 따르면, 우리 나라 청소년 가운데 상당수가 스트레스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시험 때문에 심지어 초등학교 학생들까지도 스트레스 받는다는 말을 스스로없이 한다. 연세대학교에서 행한 설문조사에서 서울시내 초 중 고등학생 중 상당수가 학업성적이 떨어질 경우 자살이나 가출 등 극단적인 행위 충동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서시대와 상황은 달라도 우리 갖자는 나름대로 좌절과 실패와 번민과 시련을 경험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다. 그러나 부활의 주 예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낙심에도 불구하고, 좌절에도 불구하고, 시련에도 불구하고, 거듭거듭 재기하고 새로 시작하는 능력을 이 부활의 신앙 속에서 갖는다.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시련도 죽음도 가혹한 고문도 사자굴도 십자가도 두렵지 않다는 것이 앞서 간 신앙인들에 의해서 입증되었다. 이 믿음 가지면 우리도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 갈 수가 있다. 언제나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언제나 재기할 수 있다. 오뚝이처럼 일어설 수가 있다.

4. 임마누엘 성령의 신앙 (요한복음 14장 16-20절)

우리 주님에게는 예수라는 이름 말고 다른 이름이 있었다. 그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이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마 1:23)는 뜻이다. 또 예수께서는 하늘로 올리우시기 전에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마 28:20)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다. 이 천년 전에 세상을 떠난 분이 어떻게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것인지 궁금하지 않는가? 예수의 이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요 14:16-20).

이 약속은 구약의 예언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성부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주후 30년 오순절 날 성령께서 오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성령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믿는 모든 이들의 마음의 성전에 계시면서 구원을 이루시고, 마음에 평화를 심어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큰 축복을 보증하시며 약속하시며 앞당겨 미리 맛보게 하시며 천국생활을 누리게 하신다(고후 1:22; 엡 1:13-14). 또한 성령은 우리 마음과 가정과 교회와 신앙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며 인간 공동체에 변혁과 개혁의 능력을 심어 주신다.

성령께서는 우리 죄인에게 찾아 오셔서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딤후 3:5) 하시며, 점진적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 하시며(롬 8:16),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롬 8:26),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언제나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신다(롬 8:28).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미리 맛보며 체험하며 복되게 산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선취 신앙이라고 말한다. 선취란 성령의 능력으로 미리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맛본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첫째는 우리 구원을 이루시는 일이오,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는 일이다. 우리 희망을 앞당기는 일이오, 우리의 소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 가게 하시는 일이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크게 다른 점이 있다. 먼 옛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 것으로 잘못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 그 후로 유대인들은 남의 나라의 침략을 받고 성전이 약탈당하는 아픔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나 온 우주에 편만해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내주 하시고 동거하실 것에 대한 기대는 성전이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에 의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실제로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전체 민족과 함께 하셨어도 개개인의 마음속에는 계시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예언자들의 예언은 주후 30년 오순절 날 성령의 오심으로 이루어졌고 성령의 오심으로 새로운 시대인 교회시대가 시작되었다. 이 때부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신앙인의 마

음속에 함께 하셨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가기보다는 불행하게 살아간다. 천국과 같은 삶보다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 때가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인생살이를 '고(苦)'라고 말한다. 백팔번뇌와 여덟 가지 고통 즉 출생의 고통, 노화의 고통, 질병의 고통, 죽음의 고통, 얻지 못하는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 원수 덩어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고통, 기타 수만 가지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생활이 복잡해진 요즘에는 입시 지옥이니, 교통지옥이니, 취업경쟁이니, 예전에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각종 질병의 발생으로 예전의 백팔번뇌나 여덟 가지 고통보다는 훨씬 더 많고 강도 높은 번뇌나 고통으로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다.

이러한 삶을 복된 삶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도, 이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도 매일 매일 영생을 맛보며 산다. 실질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삶을 맛보며, 누리며, 체험하며 살아간다. 이것이 구원의 기쁨이요, 축복이다. 찬송가 493장 3절에 이런 가사가 있다.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임마누엘 성령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 것이다.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북군의 패배 소식이 각지에서 들려왔다. 이 때 노예출신의 유명한 흑인 웅변가 더글러스는 많은 회중 앞에서 연설을 하는 중이었다. 이 패배의 소식이 연

설장에 전해졌을 때 그를 비롯한 흑인 청중들은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흑인 노예폐지를 위해 싸우고 있던 북군의 패배는 자기들이 역경에서 벗어나 행복해질 기회가 없어진 것을 뜻하기 때문이었다. 사람들이 실망과 낙담으로 침울해 있을 때 갑자기 누군가가 큰 소리로 외쳤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 소리나는 쪽을 바라보았다. 그 소리는 어느 늙은 노파에게서 나온 외침이었다. 사람들은 무엇인지 모르는 감동이 마음에 와 닿았다. 그 노파는 다시 말했다.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약자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큰 용기를 얻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남북전쟁은 북군의 승리로 끝났다.

예수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에 큰 폭풍을 만난 적이 있었다. 강한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서 배에 물이 차고 기울기 시작했다. 제자들은 몹시 당황해 하면서 주무시던 예수께 도움을 청했다. 이 때 예수께서 깨어나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고 고요 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하여졌다.

복음서에 나오는 이 광풍진압 이야기는 신앙인의 삶의 이야기이다. 갈릴리 호수는 세상이다. 우리가 건너야 할 세상이다. 배는 교회를 말한다. 우리가 타고 있는 배는 때때로 불어닥치는 돌풍에 큰 위기를 맞기도 한다. 호수 저편은 안전한 장소, 우리가 가기를 소원하는 축복의 땅이다. 그런데 그 곳에 갈려다보면 때때로 폭풍을 만나 고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세 가지이다. 첫째, 이 배에 예수께서 타고 있었다는 점이다. 예수께서 함께 타고 계셨던 것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이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은 닥쳤다는 점이다. 예수를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살다보면 광풍을 만날 때가 있고 소나기를 만

날 때가 있고 장애물에 부딪힐 때가 있다. 셋째,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은 광풍을 만나 몹시 당황하였다는 점이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겪는 모습일 것이다. 처음에 그들은 피곤해 주무시는 예수를 깨우지 않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폭풍을 헤쳐 나가 보려고 했을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갈릴리 호수에 익숙한 어부출신들이었다. 자신들의 힘과 경험을 살려 어떻게든 예수를 안전하게 모시겠다는 생각도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 그 엄청난 폭풍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절망감이 감돌았다. 여기서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우리가 망하고 마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우리가 멈춰서고 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좌절과 실망감이 그들을 짓누를 그 때에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다. 그들에게 늘 함께 하시는 능력의 주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말이다. 그 때서야 그들은 예수를 서둘러 깨웠다. “주님,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시렵니까? 주님, 일어나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깨웠다. 이 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명령했다. “잠잠 하라. 고요 하라.” 신기하게도 예수의 이 명령에 폭풍이 그치고 파도가 잔잔하여 졌다(막 4:40). 폭풍 치고 파도일어 혼란스럽던 상황이 갑자기 고요하고 잔잔해 지면서 제자들은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에 온 몸에 힘이 쭉 빠져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잠시 전에 느꼈던 성난 파도처럼 혼란스럽던 마음이 사라지고 어느새 평화롭고 잔잔한 본래의 아름다운 갈릴리 호수의 모습처럼 아늑함을 마음에 느낄 수가 있었다.

이 이야기는 시대적인 정황으로 볼 때, 외부로부터 불어오는 박해의 돌풍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위태로움에 처한 모습을 묘사한 이야기이다. 초기 교회들은 로마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아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해 있었다. 갈릴리 호수에 제자들을 태운 작은 배가 돌풍에 위기를 만난 것처럼 이들 교회들도 박해로 인해서 전복할 위기에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박해와

고난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혹은 “하나님, 당신은 살아 계십니까?”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라고 외치면서 당황해 하고 있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예수를 배신하기도 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은 무서운 박해와 고난과 죽음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능히 극복할 수 있었다. 승리할 수 있었다.

한 젊은이가 불확실한 장래와 안정되지 못한 생활로 인해서 참으로 걱정이 태산 같았다. 그 때 그는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성경 안쪽에 다음과 같은 글들을 적어 놓고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읽곤 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잘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무엇인가 좋은 일이 내게 생길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나의 생활 중심에 계신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내게 좋은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 그 때마다 그는 큰 용기를 얻곤 했다. 이와 같이 임마누엘의 신앙은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다. 이런 믿음은 어떻게 보면, 훈련에 의해서 크게 자란다고 볼 수 있다. 자신의 마음속에 좋은 그림을 그리고 좋은 일이 생길 것을 기대하고 좋은 일을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따라서 불안을 떨쳐 버리고 나쁜 일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언제나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분이 내게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키워야 할 것이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울 때에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다윗의 믿음은 어느 누구보다도 강했다.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불려나갔을 때에 다윗은 사울 왕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 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삼상 17:34-37).

또 다윗은 골리앗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너는 칼과 창과 단 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삼상 17:45-47).

다윗의 이 믿음이 바로 임마누엘 신앙이다.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하나님이 자신에게 함께 하심을 믿는 이 신앙이 있었기에 다윗은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하여 이길 수가 있었다.

5. 피조물 인간

(창세기 1장 26-31절)

기독교의 인간론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신앙에서 출발한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 분이시고, 사람은 만들어진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사람이 스스로 피조물 됨을 깨닫게 될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사람다운 바른 삶을 살아 갈 수 있다. 앞에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 ‘창조신앙의 장점,’ ‘부활의 주 예수 신앙,’ 그리고 ‘임마누엘 성령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제 창조신앙의 마지막 주제로써 ‘피조물 인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하나님 한 분만이 참 신이다. 그밖에 것들은 다 만들어진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귀나 그 세력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아도 된다. 마귀이든지 귀신이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다 만들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되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존재가 되지 않는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그들은 마귀나 귀신들에게 음식을 장만해서 제사를 드린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귀나 귀신들에게 제사를 바치지 않는다.

혹시 마귀를 본 적이 있는가? 아마 없을 것이다. 마귀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마귀를 통해서 나타나는 악한 모습들은 얼마든지 볼 수 있다.

1993년에 미국 텍사스주에서 데이빗교라는 사이비 종교집단이 단체로 불에 타죽은 사건이 있었다. 데이빗이라는 교주가 선량한 신도들을 속이고 나쁜 일을 일삼다가 경찰에 발각이 되었다. 교주는 연방경찰과 대치한 상태에서 건물에 불을 질러 90여명의 신도를 불에 타 죽게 한 악마였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건물이 불에 타면서 내 뿜는 연기 속에 악마의 얼굴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난 사실이 사진에 의해서 발견되었다. 솟아오르는 연기가 악마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청소년들의 우상인 헤비메탈 가수들 사이에서도 악마적인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사탄 숭배자임을 자랑스럽게 노래하기도 하고 행동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일

부 헤비메탈 록음악 가수들은 마귀 분장을 하고 나와서 노래를 하기도 한다. 우리 나라의 김종서라는 가수는 한때 이 음악에 빠져서 정신분열증세를 보인 적이 있다. 이로 인해서 그는 군복무를 면제받았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다.

요즘 학교 주변에 야쿠자 뺑치는 폭력서클이 설치고 있다는 신문 기사를 읽었다. 중학생 10명중 6명이 매를 맞고 돈과 옷과 운동화를 빼앗긴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학교에서는 힘센 아이들이 가방을 들게 하거나 물고문까지 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이런 폭력 때문에 자살하는 학생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폭력서클은 선량한 학생들을 괴롭히는 악마의 모습이다.

헤르만 헤세가 쓴 『데미안』은 싱클레어라는 소년이 프란츠 크로마로부터 심하게 시달림을 당하는 이야기로 시작된다. 이 소설에서 프란츠 크로마는 적어도 싱클레어에게 있어서는 악마나 다름없는 놈이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런 저런 상황 속에서 악마의 모습들을 보기도 하고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것들로부터 많은 유혹을 받기도 한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유혹들을 뿌리치지 못하고 말려 들어가 비참하게 되는 것을 본다. 우리는 마귀의 유혹들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야 될 줄 믿는다. 특히 요즘 청소년들 사이에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는 가출, 마약, 본드 흡입, 부탄가스 흡입, 약물사용, 음주, 흡연, 폭력 등은 마귀의 유혹이다. 이런 것들은 청소년들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병들게 하고 장래를 망치게 하는 무서운 질병이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유혹을 받을 때마다 과감히 ‘안돼,’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성서는 우리 신앙인들이 마귀의 세력과 싸워 필경은 이긴다고 말하고 있다. 마귀의 세력이 일시적으로 이기는 것 같지만, 싸움의 결국은 신앙인들의 승리로 끝나도록 계획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인들은 승리자이다.

창조주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은 처음부터 그 결말이 예견된 싸움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귀는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피조물은 결단코 창조주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마귀가 아무리 힘이 세고 지혜로워도 하나님을 당할 수는 없다. 마귀는 그리스도와 성도들에게 도전 하지만 결단코 승자가 될 수 없다. 그가 성도들을 이길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둘째, 마귀가 가진 권세는 일시적이다. 그의 권세는 하나님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또 제한적으로 허락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서 권세를 빼앗아 그를 무력하게 만들 것이다. 셋째, 마귀의 운명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 그의 운명은 영원히 유황으로 불타는 지옥에 갇히는 것이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피조물이다. 넷째, 마귀의 속삭임은 모두가 거짓이다. 마귀는 성도를 유혹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한다. 마귀의 가르침은 사람으로 멸망에 이르게 한다.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이 같은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마귀의 유혹과 악한 세력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대항해야 한다.

둘째,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예배드려야 할 의무를 지닌다. ‘인간이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은 인간이 결코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며,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위치에 서야 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이 예배를 위한 기초이다. 우리는 항상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드셨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을 동물과 구별되게 하며, 하나님과 닮게 하는 어떤 것이다. 하나님이 소유한 것을 인간이 가진 것으로는 단 한가지 인성 또는 인격(personality)일 것이다. 인격에는 지성(혹은 이성), 감정, 의지, 그리고 관계성이 있다. 그리고 이 인격

성은 하나님과 천사와 인간만이 가진 공통적인 특성일 것이다. 물론 동물들에게도 다소의 지능과 감정과 의지와 관계성이 있지만, 인간처럼 그 지성으로 학문을 창출할 수 없고, 그 감성을 음악, 무용, 미술과 같은 문화 예술로 승화시킬 수 없으며, 본능 말고는 의지적 결단을 기대할 수 없다. 관계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동물들도 사회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인간들이 가진 도시문명과 같은 복잡한 형태의 사회구조나 관계형성을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 인성의 요소는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에게는 예배자로서, 만물에게는 청지기로서, 예배와 찬양, 관리와 보전의 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우리 인간은 지성과 감성적인 활동보다는 옳은 삶의 결단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성에 크게 관심 한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예배와 신뢰의 관계이다.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와 섬김의 의무를 가진다. 인간끼리의 관계는 사랑과 섬김의 관계이다.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는 관리와 보전의 관계이다. 인간은 자연만물에 대해서 청지기의 사명을 갖는다. 그리고 이 모든 관계는 신뢰와 책임이 우선되어야 할 약속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예배와 경배를 드려야 할 관계, 인간이 동료 인간에게 사랑과 섬김을 베풀어야 할 관계, 인간이 자연을 관리하고 보전해야 할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고리는 신뢰와 책임이다.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악은 책임적 존재인 우리 인간이 이런 약속과 책임을 다 하지 않는 데서부터 발생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피조물로써 하나님께 예배와 경배를 드려야 한다. 이것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올바른 삶의 태도이다.

셋째, 우리 인간은 다 부족한 죄인이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천국문을 통과하는 꿈을 꾸었다. 그는 '죄인'이라고 쓴 딱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이것을 가지고서는 천국문을 통과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 밑에 ‘그러나 그다지 큰 악인은 아니다.’ 라고 써넣었다. 그러나 그는 천국문 앞에서 거절당하고 말았다. 그래서 딱지에 ‘착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고 있다’ 라고 고쳐 썼다. 그러나 그는 또 천국문 앞에서 입장을 거절당하고 말았다. 그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쓸모 없는 죄인이다.’ 라고 다시 고쳐 썼다. 그러나 그는 다시 거절당했다. 그는 결국 여러 가지 심사숙고한 끝에 ‘죄인’이라고 써 있는 그대로 제출해 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는 천국문을 통과할 수 있었다.

이 이야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사람 앞에서도 부족한 존재이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깨닫고 있다는 사실은 인간으로써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창조는 인간이 부족한 존재임을 가르친다. 창조는 인간이 죄인임을 가르친다. 창조는 인간에게 겸손과 용서와 인내와 사랑의 필요성을 가르친다. 창조는 또한 모든 인간에게 스스로 노력해야 할 존재임을 가르친다. 인간은 부족을 채워 가는 존재이지 이미 채워진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다. 완전하게 지음 받지 못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 죄인이란 결국 하나님이 바라시는 점수에 미치지 못한 자를 말한다. 그런데 세상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이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사람이다. 자신을 아는 사람은 남의 허물을 용서한다. 형의 허물을 용서한다. 동생의 허물을 용서한다. 친구의 허물을 용서한다. 부인의 허물을 용서한다. 남편의 허물을 용서한다. 자녀의 부족함을 용납한다. 오히려 자녀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그를 위로하며 권면하고 용기를 북돋우어 준다.

나는 누군가?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의 허물을 용서해야 할 때가 종종 있다. 새 출발의 필요성을 느낀다. 그런데 내게는 창조와 부활의 신앙이 있기에 언제나 새 출발이 가능하다. 내게는 연약한 나 자신을 도우실 성령이 계시기에 언제나 용기를 잃지 않을 수 있다. 나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언제나 다시 일어난다. 내 곁에는 언제나 임마누엘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한 분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넷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청지기이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에 양주(楊朱)라는 사상가가 이런 말을 했다. “나의 몸은 나의 것이 아니요 자연의 것이다. 하지만 이미 태어난 몸이라 그것을 온전케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내가 가진 물건은 나의 것이 아니요 자연의 것이다. 하지만 이미 내가 얻어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 그것을 내버릴 수는 없다. 몸은 본디 생명의 주인이요 물건도 몸을 키우는 주인이다. 비록 태어난 자기 몸을 온전케 한 다해도 자기 몸을 자기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비록 얻어 가진 물건을 내버리지 않는다고 해도 그 물건을 자기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직 성인만이 몸과 물건을 자연의 것으로 알고 공유의 것으로 생각한다.”

양주의 이 사상은 우리의 몸이나 소유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자연 즉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므로 잘 가꾸고 돌보되 내 것이라는 욕심을 버리고 모두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지식이든지, 자신의 능력이든지, 자신의 재물이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류 사회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서 바쳐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창조자의 권리로서 모든 것을 소유하신

다. 우리가 소유한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심지어 나의 몸도 나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맡은 청지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유한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것이다. 창조는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겸허한 자세로 살 것을 가르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조물된 우리 인간은 통치자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만물을 맡아 잘 관리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신앙은 우리 인간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삶의 방식이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창조신앙에서 출발한다. 성서 시대를 살아간 믿음의 조상들은 이 창조신앙 속에서 부활의 신앙과 인간은 죄인이며 부족한 자라는 인간론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게 되었고, 이 신앙 속에서 재창조의 정신과 확고한 역사의식과 소명의식을 갖게 되었다. 성서 속에 나타난 신앙인들은 또한 이 창조신앙 속에서 과학과 학문의 가능성을 발견하였고, 믿음과 실천의 규범을 발견하였다. 이 뿐 아니라, 성서 속에 나타난 신앙인들은 이 창조신앙 속에서 인간 본연의 모습과 임무와 책임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이 창조신앙 속에서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다.

제2장 구원과 신앙(1)

1. 구원의 근원
2. 구원의 수단
3. 구원의 시간
4. 구원의 목적

제2장 구원과 신앙(1)

1. 구원의 근원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짧은 말씀 속에 아주 중요한 구원의 원리가 담겨있다.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 이 세 마디 말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다. 특히 ‘은혜를 인하여’와 ‘하나님의 선물,’ 이 두 마디 말은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심을 설명하는 용어들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의 근원이다.’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성서는 죄인이 구원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는 모든 법을 완전히 지켜 그 공로의 대가로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둘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첫째 방법은 ‘자력구원’이 되겠고, 둘째 방법은 ‘타력구원’이 되겠다. 자력구원은 ‘자기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사는 것이고, 타력구원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선물로 받는 것이다. 자력구원은 전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수련으로

남의 도움 없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타력구원은 자기 노력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의존하는 것이다. 자력구원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오르막길에 있고, 타력구원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 내려오는 내리막길에 있다.

어느 길에 가능성이 있을까? 자력구원일까, 아니면, 타력구원일까?

인간이 만든 대부분의 종교들은 자력종교에 해당된다. 오르막길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는 타력종교에 해당된다. 내리막길을 택하고 있다.

자력과 타력을 단순 비교한다면, 자력이 타력보다 훨씬 더 매력이 있어 보이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말이다. 실제로 우리는 타력에 의해서 조종이 되기보다는 자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자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타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훨씬 능력 있고 용기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구원은 자력으로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이다. 자력이란 말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구원에 있어서는 전혀 가치가 없는 말이다.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창조주이신 데, 인간은 불완전하고 거룩치 못한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특징은 ‘거룩하다’ 또는 ‘완전하다’에 있다. 그러나 피조물의 특징은 ‘부족하다’ 또는 ‘죄인이다’에 있다. 하나님은 자기 노력 없이도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데에 비해서, 인간은 절대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과 같은 완전성과 거룩성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이 피조물에게 요구하는 자력점수는 언제나 백 점 만점이다. 그러나 피조물은 결코 그렇게 높은 점수에 도달할 재간이 없다. 처음부터 그런 능력은 주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기독교는 일찍부터 인간의 자기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자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하도록 가르쳐 왔다.

하나님은 정의로 꾸중을 일삼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언제나 감싸주시는 어머니와 같은 분이시다. 우리가 그 분을 찾아 백방으로 노력했을 때 그분이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푸근한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그분을 마음으로 영접할 때에 그분이 만나진다. 어려운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만나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쉬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나진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부족한 노력과 자구책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이고 완전한 구원의 길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제시한 구원의 길은 아주 쉽고 값이 없고 남녀노소나 빈부귀천의 차별이 없는 완전한 구원의 길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 또한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 그분을 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찾아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력구원은 불가능하다.

자력구원은 이론으로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 길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누구도 통과할 수 없는 막힌 길이 되고 말았다고 로마서는 말한다.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에서 자력구원의 불가능성을 피력했다. 첫째, 이방인들이 여러 형태의 신들을 섬기지만,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둘째, 도덕과 윤리를 지키며 성실하게 사는 도덕군자들도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 셋째,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도 그들의 행위를 통해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 넷째, 모든 인간은 그들의 죄 때문에 자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이와 같이 바울은 인간들이 추구하는 구원을 위한 모든 행위들은 무용하다고 말한다. 모든 피조물은 죄인이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죄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야고보서 2

장 10절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말한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였다. 또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한다.

19세기 덴마크의 실존철학자 키엘케고르도 사도 바울과 동일한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그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비로소 거짓된 자아(自我) 안전의식에서 벗어나, 불안과 공포와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중병에 걸린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드림으로서 참다운 자아를 찾게 된다고 피력했다. 키엘케고르는 인간들의 구원을 위한 행위를 네 가지로 지적한 바 있다.

첫째, 굳어진 습성과 우유부단함 속에서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술잔을 손에 들고 가라오케 판을 벌린다. 그러나 그 잔치가 아무리 즐거울지라도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이미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의 잔치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의 쾌락은 절망과 권태와 불안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어서 시간이 지나 갈수록 깊이를 알 수 없는 죽음의 늪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이생뿐임’을 주장하면서, ‘죽으면 그만이다. 실컷 먹고 마시자.’ 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하나님은 없다. 내세도 없다. 오직 이생뿐이다.’ 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둘째, 높은 이상을 가지고 옳은 일을 위해서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정의롭게 살기를 원하며, 주체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살아간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불굴의 용기로 막아낸다. 맡겨진 책임을 성실히 수행한다. 삶의 허

무에 맞서 고상하게 살려고 노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윤리적인 삶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절망의 바다에서 결국 침몰되고 만다. 자력구원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도덕과 윤리를 지키며 성실하게 사는 도덕주의자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셋째, 수준 높은 삶을 살기 위해서 종교에 입문하여 신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다. 종교에 입문한 사람들은 신 앞에서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세속적인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힘과 노력만으로 부와 명예와 권세와 건강과 같은 모든 세속적인 집착에서 벗어나 신 앞에 바로 서려고 하면 할 수록 마르틴 루터가 수도원에서 체험했던 것처럼 좌절감에 쓰러지고 만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의 삶이 이 범주에 속한다.

넷째, 불안과 공포와 절망 속에 살고 있는, 중병에 걸린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겸손하게 받아드림으로서 참다운 자신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고, 예수는 거룩한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의 본성을 인간들에게 보여 주셨다. 예수는 인간이 불가능의 장벽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한편, 하나님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무섭게 치리 하셨고,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 주셨다. 또 한편, 하나님은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을 용서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셨으며 인간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자신을 발견함으로써 절망과 좌절을 극복하게 된다. 여기에 기독교인의 실존이 있다. 키엘케고르는 사람이 기독교의 진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게 될 때에 그는 참으로 자아이해를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을 의존하는 사람들이 이 범주에 속한다.

한 때 율법주의자요,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깨달은 바가 이것이요, 카톨릭의 수도승이었던 루터가 탐속 골방에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계시록 13장에 성도를 괴롭히고 미혹하는 두 짐승이 등장한다. 첫째 짐승은 사탄에게 조종되는 권력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둘째 짐승은 사탄에게 조종되는 종교인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첫째 짐승은 우상숭배를 강요하는 박해자의 상징이고, 둘째 짐승은 이단사설을 강요하는 종교가의 상징이다. 첫째 짐승을 적그리스도라고 말한다. 적그리스도는 총칼로서 성도를 위협한다. 둘째 짐승을 거짓선지자라고 말한다. 거짓선지자는 거룩한 하나님으로 가장하여 성도를 미혹한다.

지난 수천 년간 신앙인들은 외부로부터 물리적인 박해와 내부로부터 이단의 도전을 받아 왔다. 이 물리적인 박해는 언제나 적그리스도의 세력에서 비롯되었고, 이단의 도전은 언제나 거짓선지자의 세력에서 비롯되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종들의 메시지는 언제나 두 가지 주제로 나타났다.

첫째,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의 승리자이시다. 하나님을 대항하여 이길 자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산성이시다.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깃발이시다.’가 주제였다.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자가 없다.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길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누리는 권세가 제한적이며, 장차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 아무라도 권세를 가질 수 없다(롬 13:1). 세상에서의 권세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영원한 것이 아니며,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권세를 빼앗아 그들을 무력하게 만드실 것이다.

둘째,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의 근원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다.’가 주제였다. 거짓선지자의 무리들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피조물은 아무리 권세 있고 지혜가 많아도 하나님의 권세와 지혜에 비교될 수 없는 부족하고 거짓된 존재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인간의 가르침은 결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적그리스도의 수를 666으로 표기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숫자는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또는 ‘부족하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또는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망하였도다.’ 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수는 777로 표기한다. 이 숫자는 소위 상투스(sanctus)라 부르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는 뜻이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이다. 완전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 인간은 부족하다. 그리고 부족하기 때문에 남을 구원할 수가 없다. 예수의 수는 888로 표기한다. 인간을 구원하고도 ‘남는다,’ 또는 ‘넘친다’는 뜻을 가진 숫자이다. 필요를 채우고도 남기 때문에 남을 도울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길밖에 없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가진 세력이 그들의 것이 아니며, 그들의 가진 권세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거짓선지자의 세력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주장이 거룩을 가장한 거짓 교리에 불과 하기 때문이다. 적그리스도와 거짓선지자의 무리들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것은 마지막 날에 그들은 자신들의 생명조차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불과 유황과 연기로 타는 불 못에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종교나 철학으로도 안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구원에 이르는 길밖에 없다.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이 길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

나눔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구원의 길이다. 이 길만이 죄인이 의지하여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원이다.

2. 구원의 수단

(로마서 10장 9-13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혹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라는 말을 자주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한다. 그런데 이 때에 ‘구원’ 혹은 ‘의롭다 하심’의 기초가 되는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믿음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믿음의 종류에는 네 가지가 있다. ‘구원하는 믿음’, ‘순종의 믿음’, ‘은사의 믿음’, 그리고 ‘교리의 믿음’이 있다.

먼저 ‘구원하는 믿음’은 마음으로 뜨겁게 믿어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와 머리로서 냉철하게 믿어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진술 또는 내용에 동의하는 것을 포함한다. 마음으로 뜨겁게 믿어지는 믿음은 주관적 신앙이고, 머리로서 냉철하게 믿어지는 믿음은 객관적 신앙이다. ‘구원하는 믿음’은 주관적 신앙과 객관적 신앙을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이 ‘구원하는 믿음’은 초신자의 구원에 필요한 믿음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을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받아드리는 감성적인 신앙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믿음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리로서 믿고 받아드리는 이성적인 신앙에 관심을 보이기보다는 주정적인 신앙에 더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는 양적인 성장에 비해서 질적인 성장이 크게 미흡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그런데 이성적인 신앙, 머리로서 냉철하게 믿는 객관적인 신앙에는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면이 있다. 무엇을 얼마큼 어느 선까지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 믿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그리고 뒷부분에서 이야기되어질 신자들이 꼭 알아야 할 건전한 '교리의 믿음'과 어떻게 구분 지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은 정확한 해답을 주는 것 같아 적어보겠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성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구원의 조건은 입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마음으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머리로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또 생명의 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성으로 창조와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창조와 부활이 부정되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은 창조와 부활이다. 그래서 매주일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아주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신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배 중에 고백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성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한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혹시 아는가? 성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이심을”(롬 4:17)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아브라함은 자신이나 사라가 신체적으로 너무 늙어서 자손을 가질 수 없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죽었던 태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분에게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은 이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고 성서는 설명하고 있다(롬 4:18-22

절). 따라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믿음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롬 4:24) 것이라고 말한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는 것이다.

오순절 성령 강림 직후에 제자들이 다른 여러 나라의 말로 말할 때에 이를 기이히 여겨 몰려든 군중들을 향하여 베드로가 모든 사도들을 대표하여 행한 설교의 내용은 ‘예수 다시 사셨다’는 엄청난 선포였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이 예수를]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행 2:23-24)고 베드로는 말하였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신앙인의 공동체인 교회는 바로 이 부활의 기초 위에 세워졌고, 이 신앙 위에 의심 없이 선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점이다.

둘째, ‘순종의 믿음’은 믿음이 있다는 증거나 그 결과를 말한다. 이를테면,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생활을 말한다.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순종의 믿음 또는 성화의 믿음이라고 말한다. 이 믿음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다. 이 믿음은 신앙인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할 성화의 믿음이다. ‘구원하는 믿음’이 아무리 좋더라도 ‘순종의 믿음’이 나쁘면 신앙인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못하고 만다. 이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말씀이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 .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표준새번역).

셋째, ‘은사의 믿음’은 성령께서 특정인에게 특별사역을 위해서 주시는 남을 위한 믿음이다(고전 12:9; 13:2). 은사란 그 특성상 구원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실 때에 주시는 일시적인 선물이다. 따라서 이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이나 ‘순종의 믿음’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신앙인이 반드시 가져야 할 믿음은 아니다.

넷째, ‘교리의 믿음’은 앞에서 언급한 ‘구원하는 믿음’ 속에 있는 머리로서 냉철하게 이루어지는 ‘동의를 믿음’을 좀더 구체화시킨 믿음의 내용을 말한다. 이 ‘동의를 믿음’은 ‘신앙의 내용’ 또는 ‘신앙고백의 내용’ 또는 ‘지식의 믿음’을 말한다. 건전한 기독교 교리가 여기에 속한다.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조와 같은 신앙고백서가 여기에 속한다.

그런데 ‘교리의 믿음’은 구원을 받는데 영향을 주기보다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단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신앙을 유지하는데 크게 영향을 준다. 그러나 때때로 이 믿음은 신앙인에게 오히려 울무에 걸리게 하는 역기능을 하기도 한다. 구원받는데 반드시 필요한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 것까지 본질로 착각함으로써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단이기주의에 빠뜨리고 남을 쉽게 이단으로 몰아붙이는 교만에 빠지게 하기도 한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단에 빠져드는 이유도 ‘교리의 믿음’에 치우친 때문이다.

‘구원하는 믿음’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나누는 분리대이고, ‘순종의 믿음’은 곡식의 등급을 매기는 저울이고, ‘은사의 믿음’은 그릇의 크기를 재는 잣대이고 ‘교리의 믿음’은 울타리와 같은 것이다. 울타리가 너무 넓으면 들어와서는 안될 사람들까지 들어오게 되고, 울타리가 너무 좁으면 들어가야 할 사람까지도 못 들어가는 문제가 있다. ‘교리의 믿음’이 가질 수 있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구원에 본질이 되는 부분은 통일시키고, 본질이 아닌 부분은 자유로이 하게 하며, 모든 일에는 사

량으로 한다는 대원칙이 인정되어야 한다.

여기서의 주제는 '순종의 믿음'이나 '은사의 믿음' 또는 '교리의 믿음'이 아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참고로 언급했을 뿐이다. 여기서의 주제는 '구원하는 믿음'이다. 구원하는 믿음은 구원의 문으로 들어서는 유일한 수단이고, 통로이다. 지금부터 '구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구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에서 난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성서를 열심히 읽어야 한다. 예배 때마다 열심히 출석해야 한다. 열심히 듣고, 열심히 읽는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드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진다.

둘째,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생긴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고 했다. 예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 예수님!"하고 불러야 한다. 그 분이 내 마음에 찾아오실 때에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고, 평안의 기쁨이 밀려온다.

셋째, '구원하는 믿음'은 마음으로 뜨겁게 예수를 영접할 때에 생긴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바울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의 구주를 마음에 영접해야 한다. 예수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자리를 잡게 될 때에 모든 악한 생각이 물러가고,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고, 기쁨과 평안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다.

넷째, '구원하는 믿음'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에 생긴다. 남녀가 결혼식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랑을 고백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예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해야

한다. 로마서 10장 10절에서 바울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다. 또 9절에서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고 했다.

이렇게 예수의 말씀을 읽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구원하는 믿음이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이루어진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은 말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인간이 살길은 오직 한 길뿐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고 구원을 받는 길뿐이다.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는 믿음뿐이다. 믿음은 생존을 위한 것이다. 생존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영원히 살 수 없다. 참만족을 누릴 수 없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심령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 갈등과 불안을 해결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인간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 받을 수 없다. 하나님만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나를 빚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보내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시다. 환자가 능력 있는 의사를 찾아가야 병을 치료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가야 문제를 해결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3. 구원의 시간

(베드로전서 3장 21절)

앞에서 두 번에 걸쳐 ‘구원의 근원’과 ‘구원의 수단’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의 근원이다.’ ‘믿음은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이다.’ 라는 주제로 살펴보았다. 여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간 즉 구원받는 시간에 관해서 살펴 보려고 한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 말씀은 구원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수단으로서 믿음을, 구원이 주어지는 성격으로서 선물을 가르치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받는 시간은 언제쯤일까? 믿음을 갖는 순간일까? 믿음이 어느 정도 발전된 다음일까? 침례를 받을 때일까? 성령을 받을 때일까? 이러한 물음을 염두에 두고서 먼저 성경말씀을 몇 곳 찾아보겠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2장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로마서 6장 3-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입었느니라.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이상의 말씀들은 침례가 구원과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간과도 관련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 주고 있다. ‘믿고 침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는다. 믿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말씀들을 토대로 ‘침례를 받는 시간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일치된다. 침례를 받는 시간과 죄사함이 선포되는 시간이 일치된다. 침례를 받는 시간과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시는 시간이 일치된다. 침례를 받는 시간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마음의 성전에 내주 하시는 시간과도 일치된다’는 주장을 펼칠 수가 있다. 이쯤에서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침례가 구원을 받는 원천이거나 수단이 아니라 시간이란 점이다. 우리는 이미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의 근원이다.’ ‘믿음은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이다.’라고 선언한 바 있다. 따라서 침례는 구원을 받는 근원도 수단도 아니다. 침례가 믿음의 행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수단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확실한 것은 침례가 구원의 시간과 관계된다는 점이다.

침례가 구원의 시간과 관련된다는 이런 교리가 충분히 납득이 될 만큼 설명이 가능할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교리가 잘못 이해되어져서 ‘믿는 순간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이 굳

어져 있는 오늘날의 신앙인들에게 과연 설득력 있는 설명이 가능할까? 그 가능성을 시도해 보려고 한다.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이다. 이 공동체의 정식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침례를 받아야 한다. 교회가 행하는 예식 가운데 가장 성스럽고 중요한 예식이 성만찬이다. 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침례를 받아야 주어진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책이 있다. 집사도 있고,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목사도 있다. 이러한 직책은 침례를 받은 사람만이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직책을 뽑는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도 침례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침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교회 공동체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 학습을 받고 있는 예비회원이기 때문에 투표권도 없고 피선거권도 없다. 학습이 끝나는 대로 침례를 받고 정식회원이 된다. 그 때에 비로소 투표권이 주어지고 피선거권이 주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나라와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고, 또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말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낙원을 말한다.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나타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한다. 교회와 낙원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될 약속과 인침과 보증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이며, 단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맛보고 경험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 낙원은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온전하게 경험하는 곳이지만,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아직 부활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부활의 몸으로 새롭게 태어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다.

아무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

작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례를 받은 사람에게서 시작이 되고 맛보아 진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교인의 자격이 주어지는 침례와 관련해서 살펴본 것이다.

침례식은 그리스도와 신자가 혼인을 서약하는 시간이다. 결혼하는 커플이 혼인서약을 하듯이 침례를 받는 사람도 그리스도 앞에서 서약을 한다. 말하자면,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매우 중요한 시간인 것이다. 물론 결혼을 준비하는 남녀가 혼인을 결정하기까지에는 많은 만남과 사귀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고,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시간들 즉 남녀가 서로 사랑했던 시간들 때문에 아무도 그들을 부부라고 말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들을 연인들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혼례식을 마친 후에는 당당한 부부사이가 되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침례식도 신자가 그리스도와와의 사귀의 시간들을 통해서 사랑을 확인하고, 그에게 평생을 맡기기로 결단한 다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룩한 예식인 것이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임산부의 뱃속에 있는 태아를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자가 없을 것이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혹은 세 명이든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분명히 생명체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름도 없고, 생년월일도 없고, 주민등록증도 없고, 인구 조사 때에 대한민국 국민으로 카운트도 되지 않는다. 임산부의 몸에서 양수를 터뜨리고 나와야 비로소 시민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침례식은 학습교인이 정식교인이 되는 시간이며, 교적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시간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교적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운동시합에 출전해서 일 등을 했다고 가정해보자. 시상식은 내일 다른 시합이 모두 끝난 다음에 거행된다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일 등을 했으면 됐지, 그까짓 상장과 부상은 받아서 무엇에 쓰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뒷날 시상식에 나가지 않았고

영원히 상을 받지 못했다고 가정해보자. 물론 이미 상을 받은 거나 다름없다. 일 등을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장 없는 일 등을 언제까지나 사랑할 수 있을까?

초신자가 침례를 받기 전에 받는 학습교육이나 사랑하는 남녀가 혼인식을 하기 전에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과정이나 출산 전 태아의 성장과정이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씨뿌림이 없이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것처럼 결실이 있기까지의 성장과정은 매우 중요하며, 성장과정이 있음으로 결국 결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장과정보다는 결실을 보고 기뻐하고 만족해한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믿음을 갖게 된 동기나 과정을 기억하기보다는 침례식 날짜를 쉽게 기억하게 되는데 잊어버리더라도 침례증서가 남아 있어서 확인이 가능하다. 결혼한 부부는 처음 만나 사귄 때의 일을 기념하기보다는 결혼한 날짜를 기념일로 지킨다. 사람마다 출생일을 기억했다가 생일잔치를 하기도 하고 선물을 주고받기도 한다.

생일을 기억하는가? 결혼 기념일을 기억하는가? 질문이 어리석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구원받은 날짜를 기념하지 못할 이유도 없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침례 받은 날짜를 기억하든지 못하든지, 그 날을 구원받은 날짜로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침례는 우리의 구원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고 중요한 기독교 예식이다.

침례가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구원이 침례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예수의 보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성령의 치료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죄인의 상태를 편두통환자로 생각해보자. 이 환자는 자기의 병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펜잘을 먹으면 곧 바로 편두통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그 사실을 믿고 있다. 그래서 약

국에 나가 펜잘을 산다. 그리고 생각한다. “이제 곧 낮겠지? 펜잘을 샀으니 말이야.” 이 환자의 편두통이 이 환자의 믿음 때문에 사라지는가? 아니다. 적어도 물과 함께 손에 있는 펜잘을 먹기까지는 말이다. 이 약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죄인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믿음이나 침례 때문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때문이다. 그러나 침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작용하는 바로 그 시간인 것이다.

침례는 죄사함을 받고, 새로 거듭나며,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시간이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그리스도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 침례는 성령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며, 성화의 삶이 시작되는 시간이다.

마지막으로 침례는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예식이며 죄와 싸우는 십자군에 입단하는 시간이다.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지만 이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는 죄와 부단히 싸워야 한다. 마르틴 루터는 침례를 순간적인 구원의 문제로 보지 않고 영구적인 개혁과 변혁의 문제로 보았다. 왜냐하면, 신자가 살아 있는 한 부단히 침례가 의미하는 바를 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죄된 모든 것을 부단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죽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부단히 사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4. 구원의 목적

(에베소서 2장 8-10절)

앞에서 우리는 ‘구원의 근원,’ ‘구원의 수단,’ 그리고 ‘구원의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한다.

첫째, 죽은 나무에는 봄이 찾아오지 않는다. 겨울이 되면 나무마다 잎이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어 모든 나무가 죽은 것같이 보인다. 그래서 겨울 동안에는 죽은 나무와 살아있는 나무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봄이 되면 살아 있는 나무와 죽어 있는 나무가 구별이 된다. 살아있는 나무는 봄에 싹을 내고 꽃을 피운다. 여름에는 풍성한 가지와 잎으로 열매를 만든다. 가을에는 싱싱하고 풍성한 열매를 제공한다. 그러나 죽어 있는 나무는 계절에 관계없이 싹을 내지 않고 열매를 만들지 않는다. 이와 같이 우리는 나무의 상태를 보고 그 나무가 산 나무인지 죽은 나무인지를 판가름한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예수에 의해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어 있는 사람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로 인하여 죽어 있기 때문에 선행의 싹이 없고 꽃이 없고 열매가 없다. 그러나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살아 있기 때문에 선행의 싹이 있고 꽃이 있고 열매가 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사람의 신앙 상태를 보고 그 사람이 살아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죽어 있는 그리스도인인지를 판가름한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활동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이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는 우리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지만”(롬 10:9),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확신으로 믿음을 키워 가야한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가? 우리가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는가? 청산유수 같은 기도솜씨만으로 우리의 믿음을 뿔낼 수 있는가? 많은 액수의 헌금만으로 우리의 믿음을 뿔낼 수 있는가? 잦은 금식과 기도회의 참석만으로 우리의 믿음을 뿔낼 수 있는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관한 비유에서 예수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십일조를 바치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책망하고 있다(눅 18:10-14). 바리새인들은 예복을 즐겨 입고, 장터에서 인사 받기를 즐기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즐기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즐기며,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세리나 죄인보다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눅 20:45-47).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금식’은 하면서도 옳은 행실이 없는 신앙인들의 삶을 다음과 같이 책망하고 계신다.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베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께서 너희를 기쁘게 받으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 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러 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들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 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양식을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 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사 58:1-7).

이와 같이 하나님은 행함이 없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기뻐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은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통해서 드리는 산 예배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의 믿음이 아무리 좋았더라도 신앙인의 삶 속에서 묻어

나는 믿음이 나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이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 2장 14-26절의 말씀이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 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 .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둘째, 봄이 나무에게 필요한 모든 계절은 아니다. 봄은 나무에게 필요한 출발점이고, 여름은 가을을 준비하는 성숙기이며, 가을은 열매를 맺는 결실기이다. 따라서 나무에게 필요한 것은 봄의 생동과 여름의 풍성함과 가을의 열매이다. 열매가 궁극적인 목적은 아닐지라도 봄과 여름은 가을에 맺히는 열매를 위한 것이다. 예수께서도 마가복음 4장 28절에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고 말씀하셨다.

봄에 피는 목련과 개나리, 진달래와 벚꽃, 매화와 라일락 등의 꽃은 아름답다. 신자에게 있어서 중생 또는 거듭남의 체험은 얼었던 대지와 두껍고 딱딱한 외피를 뚫고 나오는 새싹과 더불어 죽은 것 같았던 목련과 개나리, 진달래와 벚나무, 매화와 라일락에서 눈부시게 피는 꽃의 감동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봄 한철에 불과하다.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면서 봄의 감동은 식어져 버리고 잊혀져 버린다. 봄에 느꼈던 감동이 여름에 찾아오는 신록의 풍성함에 압도되고 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록의 풍성함도 여름 한철에 불과하다.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면 여름의 감동은 식어져 버리고 잊혀져 버린다. 한 나무의 진가는 찬바람이 불면서부터 나타나기 때문이다. 나무마다 다가올 찬 겨울을 맞

기 위해서 몸의 수분을 빼지 않을 수 없게 되고 그 풍성했던 잎을 떨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잎이 떨어질수록 열매가 많은 나무는 사랑을 받게 되고 열매가 없는 나무는 초라한 모습으로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된다.

예수께서도 열매 없는 나무를 싫어하셨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마지막 주간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길가에서 잎이 풍성한 무화과나무 한 그루에 관심을 보이셨다. 그러나 잎사귀밖에는 아무 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제부터, 너는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라고 저주하셨다. 그러자 무화과나무가 곧 말라 버렸다(마 21:19). 예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도 열매 없는 나무를 책망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한 그루 심어 놓고,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해서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세 해나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해서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눅 13:6-7).

셋째, 나무는 결국 그 열매를 보고 안다.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6-20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 열매로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찍어서 불 속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로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다.

갈라디아서 5장 16-25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나쁜 열매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한다. 나쁜 열매는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노와 이기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거리는 연희와 또 이와 비슷한 것들”이며,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것들

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 한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 . .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10절의 말씀에서도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님은, 아무도 그것을 자랑할 수 없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라고 하셨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라는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옛날에 한 농사짓는 여인이 있었다. 그 여자는 매우 악한 여자였다. 그런데 그 여자는 생전에 선한 일이라고는 하나도 한 것이 없이 죽고 말았다. 그래서 악마는 그 여자를 잡아서 지옥의 불바다 속에 집어 던져 넣어 버렸다. 그러나 그 여자를 보호하는 천사는 서서 그 여자가 한 일 중에서 무언가 하나님께 말씀드릴 선한 것이 없을까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다. 그랬더니 그 천사는 그 악한 여인이 언젠가 그녀의 농터에서 파를 한대 뽑아서 그것을 어떤 거지 여자에게 준 것이 생각이 나서 그 일을 하나님께 말씀 드렸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천사더러 말씀하셨다. “그러면 저기 있는 저 파 한대를 가져다 불바다 속에 있는 저 악녀에게 내밀어주고 그것을 붙잡게 하고 그녀를 끌어 당겨서 구출해 보아라. 그리고 만일 네가 그 꾀대로 그 악녀를 불바다로부터 끌어내는데 성공한다면 그녀를 천당에 가게

해도 좋다. 그러나 그 팻대가 부러진다면 그녀는 지옥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 천사는 얼른 달려가서 그 팻대를 불바다 속에서 신음하는 그악한 여자에게 내밀면서 “이봐요, 이 팻대를 꼭 잡아요, 내가 끌어당길 터이니 말이에요.”라고 외쳤다. 그리고 그 천사는 조심스럽게 악녀가 매달린 팻대를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천사가 바로 팻대를 끌어당기기 시작한 그 순간에 그 불바다 속에 있던 다른 죄인들이 그것을 보고 자기네들도 살려고 그 악녀에게 매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원래 고약하고 악한 여자인지라 그 악녀는 다른 죄인들이 함께 매달리지 못하게 발길로 차냈다. “이것은 나를 위한 구원의 팻대이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야. 이것은 내 팻대이지 너희들 것이 아니야.”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그녀가 그렇게 외치는 순간 그 팻대는 그만 부러지고 말았다. 그 악녀는 불바다 속에 다시 떨어지고 말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삶을 위한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인다운 생활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바울은 말하기를, 불신자들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롬 6:16)고 했다. 이뿐 아니라,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빌 2:12)고 충고하고 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의에게 종’ 또는 ‘하나님께 종’이란 말로써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와 성결의 생활을 강조하였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노력과 선행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주시고 있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계신다. 구원과 함께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제3장 구원과 신앙(2)

1. 듣고
2. 믿고
3. 회개하고
4. 고백하고
5. 침례받고

제3장 구원과 신앙(2)

1. 복음을 듣고 (마태복음 13장 10-23절)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는 몇 가지 단계가 있다.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것이다.

초창기 기독교인들의 회심체험의 과정을 적고 있는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2장 37-38절: 주후 30년 5월 28일 성령께서 강림하신 오순절날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있다.

8장 5-13절: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설교를 듣고, 믿고, 다 세례를 받고 있다.

8장 26-40절: 에티오피아의 내시도 빌립의 복음을 듣고, 믿고, 신앙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있다.

9장 1-18절: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믿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있다.

10장 1-48절: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고, 세례를 받고 있다.

16장 12-15절: 바울 일행의 유럽 선교 때에 빌립보에서 몇몇 여성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믿고, 세례를 받고 있다.

16장 25-34절: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었던 빌립보의 간수와 그의 가족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믿고, 세례를 받고 있다.

18장 8절: 회당장 그리스보와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필요한 다섯 가지 과정을 말하고 있다. 구원은 운동선수가 올림픽에서 딴 금메달에 비교될 수 있다. 올림픽에서 크게 부각되는 것은 금메달이다. 금메달을 목에 건 사람들에게는 명예와 포상금이 주어진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메달 그 자체에만 관심을 두지, 금메달을 따기까지의 힘들었던 훈련과정은 생각지 않는다. 대개의 사람들은 결과만을 보고 말하지 과정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과정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은 운동 선수나 코치나 감독과 같은 몇 사람에게 불과하다. 구원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신앙인 대부분은 구원이란 결과만을 중요시하지, 구원을 받는데 필요한 과정에 대해서는 소홀히 생각한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생각 때문에, 믿으면 됐지, 무슨 놈의 과정이냐는 식으로 말한다. 그러나 운동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았다고 해서 메달을 따기까지의 뼈를 깎는 훈련과정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이 구원이란 메달을 이미 땄다할지라도 구원을 얻기까지의 과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메달이 값지지만, 메달을 따기까지의 과정도 중요한 것처럼, 구원은 그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아주 값진 것이지만, 구원을 받기까지의 과정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성서가 말하는 구원의 과정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구원의 과정은 복음을 듣는 과정이

다.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자가 복되다’란 주제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성서는 ‘복음을 듣는 자가 복되다’고 말한다.

한 생명이 태어나기까지에는 난자와 정자가 만나고, 수정되고, 10개월 정도 태아로 자라고, 양수를 터뜨리면서 어머니의 배에서 나오는 과정을 거친다. 젊은 남녀가 만나 부부가 되기까지에도 만남이 있고, 사귀이 있고, 사귀이 신뢰로 바뀐 후에 사랑을 고백하게 되고, 결혼식을 올리게 된다. 이와 같이 한 생명이 태어나는 과정이나 만남으로 태어나 부부로 맺어지는 과정에서도 첫걸음은 언제나 만남이다. 만남이 없이는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구원도 복음과의 만남, 예수와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이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다’고 말한다.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은 이밖에도 성서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열왕기상 10장 8절: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의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으로다.

시편 138장 4절: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 오며.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시편 1장 1-3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와 같이 말씀을 듣고 읽고 사모하는 자는 다 복을 받는다.

둘째,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하신다.

사회 문제가 복잡해지면서 각종 상담소가 많아졌다. 매우 좋은 현상이다. 그런데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들어주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은 현대인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이다. 사람들은 남에게 이것저것 많은 말을 하려고 하면서도 남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 제발 제 기도에 귀 좀 기울여 주세요.”라고 외칠 뿐이지, “하나님, 제게 많은 말씀으로 속삭여 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대부분의 기도는 눈을 감고 가만히 앉아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기보다는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이것저것 좋게 해 달라는 부탁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 비해서 성경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명령하고 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사야 55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예레미야 13장 15절: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마태복음 11장 15절: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2-3장: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와 같이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자가 복되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셨던 번영과 안정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셋째, 성서는 복음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주 모일 것을 권하고 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씀하고 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다.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에는 텔레비전 시청이나 자동차 여행과 같은 일로 시간을 빼앗기는 일이 좀처럼 없었다. 이 때에 교회에 출석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변화 받아 나라의 큰 일꾼이 된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마부꾼에 머슴 출신으로 한국인 최초의 목사가 된 김창식, 점쟁이 출신의 맹인 전도사 백사겸, 백정 집안 출신의 백정 해방 운동의 선구자 박성춘, 보부상 출신의 만주 선교 개척자 이화춘, 개화 정치 사상가 유성준, 경무관 출신의 사회 운동가 김정식, 기독교 윤리 계몽 운동가 윤치호, 성경에서 부국강병책을 구한 민족주의자 이상재, 독립협회를 창설한 서재필, 민족 계몽에 헌신한 민족 운동가 이승훈, 의병장 출신의 순국 전도사 구연영, 남대문 시장바닥의 민중 목회자 전덕기, 6.10만세 사건 때 만세 부른 신학생 천세봉과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돈이 있고, 자동차가 있어서 주말이면 영화 구경, TV나 비디오 시청, 컴퓨터 게임이나 통신, 각종 스포츠 경기를 구경하거나 직접 스포츠 센터나 필드에 나가서 에어로빅, 헬스, 수영, 테니스, 골프와 같은 운동을 하기도 하고 명산을 찾아 등산을 하기도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일

이면 성경책 들고 교회로 가기보다는 여가를 즐기기 위해서 도시를 빠져나간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자구책으로 컴퓨터 통신을 통한 사이버 교회나 TV를 통한 교회를 구축하기도 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산에서 주일 아침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면서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교회가 옮겨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오늘날의 심각한 문제는 모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점에 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힘써야겠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

전라남도 신안에 문준경이라는 부인이 있었다. 이 분은 한신대학교의 상담학 교수인 정태기 박사의 큰어머니 되시는 분이 다. 이 분이 자식을 낳지 못해 시집으로부터 소박을 당했다. 집을 나온 문준경 아주머니는 서울에 올라가 한강 물에 몸을 던져 죽기로 마음먹었다. 죽을 장소를 물색하느라 한강 근교를 지나게 되었다. 그런데 어디선가 찬송과 기도 소리가 힘차게 들려왔다. 마음이 끌렸다. 찬송소리가 나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어차피 죽기로 작정하였으니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 내키는 곳에 일단 가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찬송소리가 난 곳은 교회당이였다. 성결교회의 이성범 목사님의 부흥집회였다. 이 집회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문준경 여인은 변화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 자신과 같이 소박당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시가 집에서는 쓸모 없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쓸모 있는 일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기서 이 여인은 죽기를 포기하고 무엇인가 보람있는 일군이 되기로 작정했다. 이후 이 여인은 이성범 목사를 4년간 따라 다니며 열심히 듣고 배웠다. 신앙에 확신을 얻고 자신

감을 갖게된 문준경 여인은 자기를 소박시킨 고향으로 내려갔다. 거기서 이 여인은 전도인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였다. 이 여인의 전도로 그 지역에서 목사가 무려 38명이나 배출되었다고 한다. 이 가운데는 신학교 교수도 몇 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안다. 한 여인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받은 복의 숫자이다.

우리 민족 운동사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남강 이승훈이다. 그는 3.1운동에 주역으로 가담하였을 뿐 아니라, 일제하 민족 교육의 요람이었던 오산 학교를 설립한 사람이다. 이승훈은 불학무식한 상민 출신에다가 여덟 달만에 어머니가 죽고, 열 한 살에 할머니와 아버지를 잃은 고아 출신의 장사꾼이었다. 그는 어린 나이에 낫그릇 공장에 사환으로 들어가 심부름을 하였다. 요령 피우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여 주인의 신임을 받았다. 점차 비중 있는 일을 맡게 되었다. 장사꾼들 사이에 신용 있는 사람이란 말을 듣게 되었다. 열 다섯 살 되던 해에는 결혼까지 했다. 결혼 후에는 주인집에서 낫그릇을 외상으로 얻어다 시장을 떠돌며 장사를 시작했다. 장사에 성공하여 사업가로 변신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을 만난 이후에는 신민회에 가입하여 민족 운동에 뛰어 들었다. 그러나 그를 진정한 민족 운동가로 변화시킨 것은 ‘십자가의 고난’이란 독립협회 관서지부장이었던 한석진 목사의 설교였다. 이 설교를 듣고 복음을 받아들여 기독교인이 되면서부터 이승훈은 한층 더 완숙해졌고, 기독교 신앙 안에서 민족 운동의 이념과 정신을 찾을 수가 있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을 고백했다. “내가 오늘까지 온 것은 내가 한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모두 신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나는 본래 불학무식합니다. 나는 이 뒤에 선 동상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무 것도 아는 것이 없었으나 신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과연 신이 나를 지시하시며 도우심뿐입니다.”라고 말했다.

복음을 듣는 자는 과연 복되다. 구원과 복의 첫걸음은 복음을 듣는 것이다.

2. 예수를 믿고

(사도행전 16장 16-34절)

‘복음을 듣는 자가 복되다’에 이어서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 성서에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참으로 많다. 그 가운데 몇 개만 소개하겠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마태복음 9장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누가복음 17장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들 가운데 여섯 개를 소개하였다. 그런데 이들 말씀들을 잘 살펴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의 뜻이 단순히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수는 12년간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또 사마리아 출신의 문둥병 환자에게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영혼구원을 받는 것이나 병이 낫고 건강하여 지는 것이나 범사에 형통한 축복이 모두 구원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말의 뜻 속에는 영혼의 구원은 물론이오 육체의 건강과 행복도 포함된다.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습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다. 어느 여름날이었다.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하루를 즐겁게 놀았다. 저녁때가 되자 메뚜기는 아쉬움을 안고 하루살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애, 하루살이야, 우리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놀자, 응?” 이렇게 말했다. “내일? 내일이 뭔데?” 하고 하루살이는 무슨 소리냐는 듯이 메뚜기에게 물었다. “내일이란, 캄캄한 밤이 지나면 다시 오늘처럼 날이 밝아 오는 데 그게 바로 내일이야.” “치! 오늘처럼 날이 밝아, 거짓말.” “어어, 거짓말이 아니야.” “세상에서 넘어가 버리고 있는 저 해를 보라고. 저게 어떻게 해서 다시 떠올라 밝아진다는 거냐.” “내참, 애, 하루살이야, 내일이란 건 정말 있어.” “뭘 있어, 다 죽지! 그저 네가 날 놀려 보겠다는 거겠지.” “어유, 답답하구나 정말.” 메뚜기는 분명히 존재하는 미래적인 내일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지만, 하루살이는 도무지 미답지 못한 코웃음만 흘릴 뿐 이해를 못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메뚜기가 개구리와 함께 놀게 되었다. 그 풍요로운 자연의 낭만이 깃든 여름이 가고, 소슬바람 낙엽 지는 가을도 지나자 개구리는 메뚜기에게, “애, 메뚜아! 우리 이제 그만 놀아야 할까 보다. 날씨가 추워 오니까 우리 내년이나 다시 만나서 놀자.”라고 말했다. “뭐라고?” “내 년에 다시 만나 놀자고. 내 년이 뭔데?”라고 메뚜기가 물었다. “내년이란 시냇물이

다시 졸졸 소리내어 흐르고, 새들도 다시 노래하구, 온 산과 들에 다시 꽃이 피는 새로운 해를 말하는 거야.”라고 개구리가 말했다. 그러자 메뚜기가 이렇게 받아쳤다. “치! 거짓말. 시들은 꽃이 어떻게 다시 피어나니? 너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야. 너 같은 개구리를 친구로 생각한 것이 후회막급이다. 새들이 다시 저귀고 꽃들이 다시 핀다고, 웃기지 마라, 제발.”

그렇다. 하루만 살다 죽는 하루살이는 내일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이고, 겨우 한 해만 살다 죽는 메뚜기는 내년을 이해할 수 없는, 넘을 수 없는 어떤 세계였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마찬가지이다. 만일에 누가 본적도 없고 볼 수도 없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면, 내일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하루살이나, 내년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메뚜기나 무엇이 다르겠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거나 의심하는 사람은 메뚜기나 하루살이와 같이 사후가 없는 사람이다. 하루살이가 내일의 존재를 부인한다고 해서 내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메뚜기가 내년의 존재를 부인한다고 해서 내년이 없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나 사후의 세계를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거나 사후의 세계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참으로 많다. 우리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일부이다.

바울 서신 가운데 빌레몬서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은 겨우 한 장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글이다. 이 글은 골로새 교회의 신자이며 노예를 소유하고 있었던 빌레몬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이다. 빌레몬에게는 오네시모란 노예가 있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에게 큰 피해를 주고 도망을 해 버렸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로마법에 의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된 오네시모는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아

주 중요한 일군이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를 돌려보내기로 하였던 것이다. 일단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어 사죄케 하고 손해를 끼친 액수만큼 바울이 갚아 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바울에게 되돌려 보내줄 것을 부탁했다. 바울은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내가 갇혀 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를 두고 그대에게 간청합니다.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 쓸모 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나의 마음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어서, 내가 복음 때문에 갇혀 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하여 나에게 시중들게 하고 싶었으나, 그대의 승낙이 없이는 아무 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하여금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가 잠시 동안 그대를 떠난 것은 아마 그대로 하여금 영원히 그를 데리고 있게 하려는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그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으로, 곧 사랑 받는 형제로 그대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가 나에게 그렇다면, 그대에게는 육신으로나 주 안에서나 더욱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대가 나를 동지로 생각하면 나를 맞이하는 것과 같이, 그를 맞아 주십시오. 그가 그대에게 잘못된 일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든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놓아 주십시오.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 주겠습니다. 그대가 내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몬 1:10-19).

천한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공한 삶의 모습이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인인 빌레몬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주인에게 불복종하여 재산 피해를 입혔고, 사람들에게 쓸모 없던 노예 오네시모

가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후에는 새 사람이 되었고, 바울과 주인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일제 시대 항일 민족 운동의 본거지였던 만주 북간도 지역에 기독교 복음이 처음 들어간 것은 1907년이었다. 의식 있는 망명 기독교인들이 한인촌을 형성하고 조직적인 민족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일제에 항거하는 기독교 민족 운동의 거점이 되었던 곳이다. ‘선구자’란 노래로 유명한 북간도에서도 용정은 항일 민족 운동의 중심지였다. 박무림, 정재면, 김약연, 구춘선, 서춘, 문치정, 윤동주 등 기라성 같은 민족 운동가들을 배출한 간도의 용정촌, 그 곳에 복음을 듣고 처음으로 찾아간 인물이 이화춘 목사이다.

이화춘은 1871년에 태어나 일곱 살 때에 부모형제를 잃고 고아가 되었다. 나루터에서 뱃꾼으로 일하던 덕보라는 나쁜 사람이 부모형제를 물에 빠져 죽게 한 후에 재산을 탈취해 갔기 때문이다. 어린 이화춘은 부모형제를 잃고 재산을 빼앗긴 채 할머니와 함께 살았으나 할머니 마저 열 두 살 때에 돌아가셨다. 이때 이화춘 목사는 외가댁에 살면서 가게의 점원으로 들어가 5년간 일을 배운 후에 열 여덟의 나이로 패물점을 차려 자립하였다. 그러나 보부상으로서의 그의 삶은 고생과 실패의 연속이었다. 가문을 멸망시킨 원수 덕보에게 복수하려다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되었다 풀려났고, 보부상이 되어 중앙 정치에도 관여했으나 그것도 실패했고, 금광에 손을 댔다가 전염병으로 망하는 등 비운의 연속이었다. 스물 일곱에 결혼하여 생활의 안정을 되찾긴 했으나 스물 아홉 되던 1899년에 얻은 아들이 몸이 실하지 못하여 첫 돌이 되어도 그냥 갓난 아이 티를 벗지 못하고 늘 칭얼대며 보냈다. 걱정이 되어 동네 무당에게 물어보니 악귀가 들려서 그렇다며 돈 천냥을 들여 굿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가난한 살림에 돈 천냥 구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화춘은 자신의

기구한 인생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다.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 화풀이할 곳만 찾아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전부터 알고 지내던 개성 상인 방씨를 찾아 개성 장안으로 들어갔다. 마침 방씨는 집에 있었는데 마당에 들어서면서 보니 방씨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무엇인가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이화춘이 가까이 가서 인사를 해도 모른 채 하고 한참 동안 중얼거리고 있다가 얼마 후에야 그는 이화춘을 맞으며 “노여워하지는 않았소?” 하며 손을 잡으면서 영접하였다. 이화춘도 마루 위로 오르면서 물었다. “자네 무엇을 믿는가?” 방씨가 하는 말이 “응, 요즈음 천주학을 배우고 그 도리가 훌륭하여 믿게 되었네.” 하며 방씨는 웃으면서 대답을 했다. 방씨가 천주교인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개성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천주교인이 있어 1866년 병인 교난 때 6명의 개성 교인이 순교 당하였다. 따라서 천주학을 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성에 널리 알려져 있는 터에 친구 방씨가 천주학을 하고 있는 것이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 천주학에 관한 것이었다. “천주학을 하면 죽어서도 눈을 뻐간다.”고 알고 있던 이화춘에게 방씨는 천주학에 대한 그릇된 선입견을 조목조목 들어 풀이해 주었다. 천주를 믿으면 인간이 복을 받고 또한 모든 악귀가 무서워 달아난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악귀가 달아난다는 말에 귀가 번쩍 트였다. 천주교 교리는 문제가 아니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괴롭히고 있는 악귀를 몰아낼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었다. 그것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말이다. 이화춘은 천주학을 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방씨에게서 『인가귀도』란 책을 빌려 왔는데 그 책은 1894년에 감리교 출판사에서 낸 조그만 전도 책자로 내용은 타락했던 가정이 회개하고 온 가족을 교회로 인도한 후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다. 아이에게 붙은 악귀를 쫓아낼 수 있다는 말에 부인도

믿기로 동의하였다. 마침 방씨를 만난 그 다음 주일은 고랑포에 천주교 공소가 완성되어 십자가를 쫓는 날이었다. 부부는 그날 미사에 참석하였다. 사흘 후엔가 집에서 기르던 돼지 새끼 다섯 마리와 검정개가 이유 없이 거품을 토하고 죽는 일이 일어난 후 아이의 병은 깨끗이 나았다. 이들 부부에겐 너무도 분명한 기적이었다.

이화춘은 좀더 신앙을 철저히 하고 싶은 생각에서 개성으로 다시 옮겼다. 북부 거리에 조그만 상점을 냈다. 당시 개성에는 병인 교난 때 순교한 교인의 집에 천주교 성당이 있었다. '은행 나무집'으로 일반인들에게 알려진 이 성당은 본래 서울의 약현 본당 관할 공소로 있다가 1901년 본당으로 독립되면서 프랑스인 루블레 신부가 주임 신부로 부임하여 시무하고 있었다.

그런데 개성으로 옮긴 후 오히려 이화춘은 신앙의 갈등을 느끼게 되었다. 그것은 개성 성당 신부의 음주 때문에 시작되었다. 천주교 경문인 『12단』을 사려 갔다가 저녁 식사중인 신부가 소주를 많이 마시는 것을 보고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성당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신앙의 결단으로 금주를 결심한 그로서는 술 마시는 신부를 보고서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찾아간 곳이 개신교 예배당이었다. 개성에 있는 남감리회 예배당에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인삼재배용으로 쓰이던 움막을 개조한 교회였다. 이화춘은 여기서 세례를 받고 곧이어 성서를 파는 매서인이 되어 전에 장사 다녔던 지방을 전도하며 다니게 되었다. 이후 이화춘은 권사 직분을 받아 전도사로 일하다가 협성신학교를 제1회로 졸업한 후에 개신교 최초의 목사가 되었던 것이다. 부모 잃은 고아요, 천한 보부상에 지나지 않았던 이화춘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목사가 되어 한국 기독교 회사에 족적을 남겼던 것이다.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달라진다. 사람이 변화된다. 새로운 사람이 된

다. 노예가 자유인이 되고, 보부상이 목사가 되고, 천한 삶을 살던 사람이 고결한 삶을 살게 된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다.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건강의 구원을 받는다. 범사가 형통하는 축복을 받는다.

3. 죄를 회개하고

(누가복음 18장 10-14절)

회개는 인간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인의 덕목이다.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죄 뿐아니라, 부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선생님과 제자 사이, 이웃과 이웃 사이의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덕목 중의 하나이다. ‘내 탓이오’ 라고 말하는 회개운동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야 한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갈 수 없다.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국회에서, 사회 곳곳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가깝게는 현재 내 안에, 또는 내 주변에 있고, 멀리 미래의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현재이든 미래이든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지 않고서 경험되어질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회개와 반대되는 말로서 용서라는 말이 있다. 용서는 회개의 범주에 속한 것이면서도 묘한 뉘앙스를 지닌 말이다. 사람에게 따라서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전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회개 쪽보다는 용서 쪽에다 비중을 두고 사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번에 한번만 봐주겠습니다. 용서해 주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살기를 원하고 있다. 또 그런 기분으로 살아간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해 주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진정한 회개는 생활의 변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제멋대로 사는 삶은 회개한 사람의 삶이 아니다. 절제되고 통제된 삶, 성결된 삶을 사는 것이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의 삶이다. 정직하고 성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남을 돕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이다. 주일을 잘 지키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는 것도 참으로 좋은 일이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회개를 통해서 생활의 변화, 삶의 변화, 의식의 변화가 이루어 져야 한다.

우리 사회가 거둬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가 많아서가 아니다. 교인은 많아도 회개한 신자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에게 어느 무엇에 있어서도 지지 않으려는 신자, 신령한 은사와 물질적인 축복에 대한 욕심은 많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기를 거부하는 신자, 성서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에 부덕을 끼치고 있고, 천국 문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회개는 겸손에서 비롯된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남의 허물을 들추기에 앞서 먼저 자기 자신의 허물을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된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받게 됨은 물론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사람들과 화평을 누린다.

모든 싸움과 분쟁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된다. 자신의 잘못을 먼저 시인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의 가정은 화목된 가정이고, 회개하는 사람들의 교회는 화목된 교회이며, 회개하는 사람들의 직장은 행복한 직장이다. 오늘날 우리가 듣고, 보고, 겪는 그 많은 다툼은 결국 아무도 회개하려 들지 않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이런 우화가 있다. 한 마을에 웅고집과 자린고비가 이웃에 살았는데, 웅고집은 샘이 많았고, 자린고비는 탐이 많았다.

웅고집과 자린고비는 각기 한 섬지기 논을 나란히 하여 농사를 짓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해 이 둘의 논 사이에 있는 논둑이 장마에 무너지고 말았다. 그러자 자린고비가 웅고집에게 논둑을 같이 손질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웅고집은 자신의 논은 위쪽에 있으니 아쉬운 쪽에서 고치라고 말했다. 그러자 자린고비는 웬일인지 아무 말 없이 둑을 고쳐놓았다.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났다. 웅고집은 자기 논이 먹혀 들어갔다고 우겼고, 자린고비는 그전과 같다고 우겼다. 결국은 한 뼨도 못되는 논을 가지고 서로 송사를 벌여서 3년을 끌었다. 서로 감정을 돌워 다투다 보니 이겨야겠고, 그러다 보니 그 고을 원님에게 뇌물을 줘야 했다. 결국은 한 섬지기 땅을 모두가 잃게 되었다. 한 뼨의 자투리땅을 찾으려다 웅고집은 망했고, 한 뼨의 남의 땅을 가로채려다 역시 자린고비도 망해 버렸다. 그리고 두 사람은 철천지원수가 되었다고 한다. 오늘날에도 법원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망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재판에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다. 웅고집과 자린고비에게 필요했던 것은 한쪽이 다른 쪽을 용서하고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서로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었다.

누가복음 18장 10-14절을 보면, 바리새인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눈에 많이 띄는 곳에 서서 자기의 의를 들어내는 기도를 하고 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이런 사람의 행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속은 썩어 있는 사람들이다. 교만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남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약간의 의로운 행위로서 구원에 이를 자는 아무도 없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세상의 어느 인간도 자신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분명한 어조로 강조하고 있

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는 자는 교만한 자이다. 하나님은 결코 이런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가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 출석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내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부족과 허물과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 하고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결단코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세리는 어떠했는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 멀찌감치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며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라고 통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 비록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죄 많고 천하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세리와 같은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신다.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자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회개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성경말씀은 강한 어조로 오늘도 우리들에게 회개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에스겔 18장 30절: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 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러시아에 일흔 살 먹은 노인이 살고 있었다. 그는 한평생을 죄악 속에서 살아왔다. 그러다가 병을 앓게 되었다. 그러나 누워 치지를 앓았다. 그러다가 죽음에 임박해서야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주여! 당신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강도에게도 낙원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리고 죽었다. 그가 죽고 난 후에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천국 문에 도착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문 뒤에서 베드로가 말했다. “천국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누군가? 그는 살아 생전에 어떤 일을 했는가?” 이 물음에 천국의 고발인은 노인이 저질은 온갖 죄악을 낱알이 아뢰었다. 반면 착한 일은 한 가지도 없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다. “죄인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썩 물러가라.” 노인이 말했다. “베드로 사도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인간은 약한 자이며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죽음을 앞에 두고 겻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괴롭게 기도하실 때에 당신은 눈까풀이 무거워 잠을 자고 말았고, 예수는 세 번씩이나 졸고 있는 당신을 깨우시며 기도하라고 일렀습니다. 나도 그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당신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놓고도 그가 대제사장들에게 심문을 받고 있을 때에 그가 보는 앞에서 그를 세 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나도 그와 마찬가지로입니다. 또 당신은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하고서 그곳을 떠나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셨지요. 나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나를 천국에 들여보내 주세요.”

그러자 베드로는 잠잠해 버렸다.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천국 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문 뒤에서 다윗이 말했다. “천국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누군가? 그는 살아 생전에 어떤 일을 했

는가?” 이 물음에 천국의 고발인은 노인이 저질은 온갖 죄악을 낱낱이 아뢰었다. 반면 착한 일은 한 가지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자 다윗이 말했다. “죄인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썩 물러가라.” 노인이 말했다. “다윗 왕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리고 인간의 허약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옥상에서 가난한 자의 아내를 보시고 마음속에 죄가 싹터 가난한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암몬 자손의 칼로 그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부자이면서도 가난한 자의 손에서 마지막 양을 빼앗고 충성을 다하는 군인을 죽였던 것입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짓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일로 하나님께 통회하며 회개하고 용서를 빌었을 때를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나를 천국에 들여보내 주세요.”

그러자 다윗은 잠잠해 버렸다. 노인은 다시 잠시 서 있다가 다시 천국 문을 마구 두드리며 들여보내 달라고 애원했다. 그러자 문 뒤에서 요한이 말했다. “천국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누군가? 그는 살아 생전에 어떤 일을 했는가?” 이 물음에 천국의 고발인은 노인이 저질은 온갖 죄악을 낱낱이 아뢰었다. 반면 착한 일은 한 가지도 말하지 않았다. 그러자 요한이 말했다. “죄인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썩 물러가라.” 노인이 말했다. “이제야 말로 나를 천국에 들여 넣어 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윗은 인간의 허약함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들여 넣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도 요한이여, 당신은 당신 속에 있는 많은 사랑 때문에 나를 천국에 들여 넣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쓰신 글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형제들이여, 서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당신이 지금에 와서 어떻게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몰아 내시

겠습니까?” 그러자 천국의 문이 열리고 요한이 회개한 죄인을 끌어안으며 그를 천국 안으로 맞아 들였다.

이 에피소드는 톨스토이가 쓴 민화집에 나오는 「회개한 죄인」이란 이야기이다. 비록 착한 일을 하지 못했고 나쁜 일만 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천국에 들여보내 주신다는 이야기이다.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사랑하신다. 아무리 죄가 많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신다.

우리가 진정으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부족과 허물과 죄악을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로서 회개하고, 둘째로는 사람에게 회개해야 한다. 우리 마음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우리 가정에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가정에 화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부부관계가 나빠지고 부모와 자식간의 사이가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남만을 탓하고 자신의 탓을 인정하려 들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용서를 빌 줄 아는 신자, 남편에게 또는 부인에게 용서를 빌 줄 아는 부부, 부모가 자식에게 또는 자식이 부모에게 용서를 빌 줄 아는 가정,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친구, 용서를 구할 줄 아는 형제,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이웃이 될 적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 질 것이다. 회개의 운동을 일으키자.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

4. 믿음을 고백하고

(로마서 10장 9-10절)

로마서 10장 9-10절 말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는 말씀 말고도, 성서는 여기저기서 예수를 시인하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증언하고 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가복음 12장 8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요한일서 4장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마가가 쓴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행하신 18개의 기적을 소개하고 있다. 이 기적 이야기는 마가복음 전체내용 가운데 약 25%에 해당되는 상당한 분량이다. 마가는 우리에게 예수를 능력이 많으신 분으로 소개하고 싶었던 것이다.

마가복음의 기적들을 살펴보면, 마가는 두 개의 바다기적 즉 배 안에 계시면서 광풍을 잔잔케 하신 기적(4:35-41)과 배를 향하여 물위로 걸어 오셔서 광풍을 잔잔케 하신 기적(6:45-51), 두 개의 급식기적 즉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 천명을 먹이신 기적(6:35-44)과 떡 일곱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사 천명을 먹이신 기적(8:1-10), 두 개의 신체장애자 치유 기적 즉 귀먹은 병어리를 고치신 기적(7:31-37)과 뱃새다 장님을 고치신 기적(8:22-26)을 거의 평행과 대칭을 이루도록 배열하고 있다.

이 가운데 두 개의 신체 장애자 치유기적은 마가복음에만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아주 독특한 기적들이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도 20개씩의 기적이 소개되고 있지만 이 두 개의 신

체 장애자 치유 기적은 생략되어 있다.

장애자 중에 한 사람은 귀먹고 어눌한 사람이었다. 예수와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 예수는 이 사람을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보시며 탄식하셨다. 그리고 그에게 향하여 ‘에바다’ 즉 열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의 귀가 열리고 혀의 맺힌 것이 풀려 말도 하고 예수께서 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또 한 사람은 예수를 볼 수 없는 소경이었다. 이 사람은 벳새다에 사는 사람이었다. 예수는 소경의 손을 붙드시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 그리고 그의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셨다. 그러자 그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지만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자 예수는 다시 그의 눈에 안수하셨다. 그리고 소경은 완전히 눈을 뜨게 되었고, 보고 싶었던 예수를 볼 수 있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두 개의 기적이 소개되는 과정 속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꾸짖는 말씀이 나온다. “너희가 . . .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치 못하느냐? 내가 떡 다섯 개를 오 천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열 둘이니이다. 또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일곱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막 8:17-21).

제자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있었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이 보고 듣는 것은 피상적이고 표피적인 것들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의 그 많은 기적과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도 확실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지 못

했던 것이다. 그러나 귀먹고 어눌한 자의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렸을 때에, 또 소경의 눈이 뜨였을 때에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보고,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다.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고백이 이들 두 개의 기적이 행하여진 바로 다음에 배치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제자들의 무지와 몰이해가 강조된 직후에 귀먹은 병어리가 고침을 받고, 제자들의 불신이 강조된 직후에 장님이 고침을 받는다. 이렇게 귀가 뚫리고 눈이 열린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전반부에서 예수의 기적들을 18개나 소개하면서 예수를 자연의 위협에서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주님, 굶주린 자를 먹이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정신적 신체적 장애자들을 돌보시고 고치시는 메시아로서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예수를 이런 능력 있는 분으로 듣고 볼 때에 비로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앙고백은 이와 같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마가가 그의 복음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소경의 눈이 열리고, 병어리의 귀가 뚫릴 때, 제자들이 예수를 능력의 주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 그분의 말씀을 경청할 때에 비로소 예수를 우리의 구세주로 신앙고백하고 마음에 영접할 수 있는 것이다.

플라톤은 그의 「동굴의 비유」에서 동굴 속에 결박된 채로 살아가는 죄수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개의 세계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죄수들은 태어날 때부터 손이 몸 뒤로 결박되어 있고, 목도 뒤로 돌리 수 없게 되어 있어서 동굴의 벽 쪽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죄수가 바라보는 벽에는 여러 가지 그림

자가 나타나고 있었는데 죄수는 이 그림자가 실제로 있는 현실이라고 믿고 살았다. 그러던 중 한 죄수가 그 결박에서 풀려 나와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 그 순간 그는 새로운 실재 세계를 발견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동굴의 벽 쪽에 비쳐진 것은 실재가 아니라 그림자였던 것이다. 그림자를 실재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탄의 결박에 매인 채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실재를 볼 수 없다. 실재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 앞에 보이는 허상을 실재로 잘못 알고 살아간다.

실재를 보기 위해서는 사탄의 결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탄의 결박에서 벗어나면 자신이 경험했던 이 세계가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사탄의 결박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고 실재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일이다. 그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영안이 열리고 진정한 영의 귀가 열려서 실재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참으로 의롭고 평화로운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은 공이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아무 것도 없는 것이다. 이 없는 것에 집착하고 욕심을 내다보면, 실재를 놓치게 되기 마련이다. 허공을 쫓는 사람이 되고 만다. 그러나 이 세상을 그림자로 볼 수 있는 사람, 공으로 또는 무로 볼 수 있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행복과 축복의 실재이신 예수님을 찾게 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우리의 구세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나라 이조 말엽 개화당의 거두 김옥균 선생이 개화운동에 실패하고 역적으로 몰렸을 때, 그의 친누나 한 분이 관현에 붙잡히지 아니 하려고 10년 세월을 땅굴 속에서 지낸 일이 있었다. 시대가 뒤바뀌어져서 그녀가 그 흑암의 동굴 속에서 나와도

좋게 되었을 때 그녀는 앞이 먼 장님이 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빛 아래 있지 못한 인간의 시력은 자연적으로 쇠퇴해 버리기 때문이었다. 우리 눈이 보배라 하지만, 빛과 접촉되어 있는 눈이 아니면 눈은 그 보는 능력을 상실하고 마는 법이다. 태양광선이 나 기타 어떤 광선이 도무지 없는 곳에서는 인간이 보는 기능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생각하면 빛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된다.

성서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란 말이 나온다. 이 말은 구체적으로 동굴 속이나 깊은 감방 속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하겠지만, 이것을 정신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상태, 마땅히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는 상태,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상태, 눈도 캄캄하고 귀도 캄캄하고 앞길도 캄캄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런 사람은 결단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예수를 평범한 인간 이상의 사람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다.

결혼을 앞에 둔 젊은 남녀는 사랑한다는 고백 없이 부부가 될 수 없다. 부부가 하나가 되는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그 결혼이 가능케 하는 것은 사랑의 고백이다. 또 이 사랑의 고백은 결혼 전에만 하는 것이 아니다. 결혼 후에도 수시로 해야 한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이다. 교회와 예수와의 관계는 부부관계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수시로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물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때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두 번째 또 물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또 대답했다.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

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세 번째 또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때에 베드로는 예수께서 세 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대답했다.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사실 이 대화에서 예수는 베드로에게 첫 번과 두 번째 질문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헬라어로 ‘아가파스 메’ 즉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듯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던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미 예수를 세 번이나 부인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예수께서 물으시는 질문대로 “내가 당신을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없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필로 세’ 즉 “내가 당신을 친구로서 사랑한다.”라고 대답했다. 결국 예수는 세 번째 질문에서 ‘아가파스 메’ 라고 묻지 아니하시고, ‘필레이스 메’ 하느냐고 물으셨고, 베드로도 ‘필로 세’ 라고 대답했다. 예수는 이 세 번째 질문에서 “네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느냐?”고 묻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친구로써 사랑하느냐?”고 물었던 것이다.

어쩌면 베드로의 대답이 훨씬 인간적이었는지 모른다. 연약한 인간으로서 조건 없이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해야 한다. 그것이 비록 조건적인 사랑일망정 또 베드로의 고백처럼 자신감 잃은 고백일망정 사랑을 고백해야 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제부터는 당신만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당신을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겠습니다.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에 예수는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또 축복해 주실 것이다.

5. 침례를 받고

(마가복음 16장 16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내용은 침례에 관한 것이다. 설 명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성서에 나타난 말씀을 찾아보겠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2장 16절: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로마서 6장 3-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입었느니라.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이제 이들 성경구절들을 가지고 누가 침례를 받아야 하고, 어떻게 받아야 하며, 왜 받아야 하는지, 받고 나면 무슨 유익이 있는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19세기 초 미국인 알렉산더 캠벨은 침례에 대해서 아주 많은 글을 발표했다. 캠벨은 침례에 대해서 언급할 때마다 침례의 방법과 대상과 목적과 그 축복에 대해서 말하곤 했는데, 이 방법이 아주 유익하고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우리도 이들 주제별로 침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까 한다. 지면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피하고 간략하게 침례를 행하는 방법과 대상과 목적과 그 축복들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첫째, 침례의 방법이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대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는 행하여진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것처럼 침수세례가 사도 교회의 전통이다. 약식세례도 오랜 교회 전통의 하나이긴 하지만 성서적으로나 언어학적으로 또 그 의미로 볼 때에 침수세례가 침례의 원형이다. 물론 물의 많고 적음에 구원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요즘같이 인스턴트 식품과 웨스트 푸드에 인이 박힌 세대가 진정한 의미의 침례를 경험하고 온갖 죄악으로 점철된 과거의 삶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물 속에 장사 지내 버리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물에서 나와 새롭게 시작되는 새 삶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자신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참 삶의 가치와 행복을 찾는 구원의 경험으로서 갖게 되는 평생에 한번 하는 침례는 침수로 하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침례를 받아야 할 사람이다. 침례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고, 또

그 신앙을 사람들 앞에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한 사람이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하였고, 로마서 10장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였다.

반복해서 말하자면, 피침례자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마태복음 16:16)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자신의 믿음을 여러 사람 앞에서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위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로 믿고 또 이를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침례를 받을 수 있는 참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셋째, 침례를 받는 목적과 그 축복이다.

침례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인 지상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시간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상교회의 시민이 되는 시간이다. 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는 새 계약, 즉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엄숙한 서약식을 말한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시민권 획득의 시간을 말한다.

침례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에 동참하는 시간이다. 침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새로 거듭나며,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며,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성별, 인종, 사회적 신분의 분단의 벽을 초월하는 새로운 인간으로 회복되는 엄숙한 기독교 예식이다. 침례를 받음으로써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성령을 모시게 된다. 예수는 성령을 세상에 보내심으로써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키고 계신다. 또 침례를 통해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의 자녀로 인침을 받고,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미리 맛보며,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보증 받는다. 이런 뜻에서 침례를 받는 시간은 성령을 통해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시작이며,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부단히 자기 변혁을 꾀하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도록 새로운 힘을 부여받는 시간이다.

침례와 성령세례는 하나라고 성서는 말한다. 요한복음 3장 5절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 5절은 세례는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우리가 . . .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고 적고 있다. 여기서 한 몸이란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말한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은 침례 받은 자이다. 그런데 바울은 이 침례 받은 자를 일컬어 “한 성령으로 세례 받은 자 또 한 성령을 마신 자”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바울이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하나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침례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디도서 3장 5절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와 같이 침례는 죄사함과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천년 동안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중요한 예식이다. 물론 침례 때문에 죄사함이 주어지고 구원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축복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인하여, 믿음을 통해서, 선행을 위해서, 침례 가운데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중생의 새롭게 하심과 씻음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성서는 우리의 구원을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수단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목적으로서 우리의 선행과

성화를 위해서 성령의 역사와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이미 앞에서 언급한바 있다.

그렇다면 침례의 위치는 무엇인가? 성서가 말하는 침례의 자리는 성령께서 중생의 사역을 일으키시는 시간 혹은 장소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성서는 침례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와 함께 장사되며, 그와 함께 일어나고, 죄사함을 받으며, 새 생명으로 입문하며, 성령을 받으며, 주안에서 기쁨의 삶을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은 ‘침례 안에서’(in baptism)라는 어휘이다. 이 말은 골로새서 2장 12절에 사용된 말로서 ‘침례 가운데서’ 즉 ‘침례라는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침례는 “인간의 영혼에 주시는 구원의 축복이며, 죄사함은 물론 하나님의 가족에 입적되어 누리는 모든 축복들을 받는 즉각적인 시간이며 매개체이다” 라고 신학자 알렉산더 캠벨은 말한다. 그의 이러한 견해는 골로새서 2장 12절과 기타 여러 성경구절들을 통해서 볼 때 매우 성서적이다.

침례식은 마치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하는 시간이나 사랑하는 남녀가 혼례식을 거행하는 시간과 같은 개념으로 생각될 수 있다. 출산의 개념은 중생의 시간으로 혼례식의 개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시간으로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새 생명이 산모의 몸에서 10여 개월 성장해 온 점이나 혼례 전에 남녀가 상당한 준비기간을 갖고 서로의 사랑과 신뢰를 확인했다는 점을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생명이 세상의 빛을 보는 때는 출산의 때요, 사랑하는 남녀가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는 시간도 혼례 때인 것처럼 성화의 차원에서 중생의 거듭남과 죄씻음은 물론 칭의의 차원에서 의롭다 하심을 입는 공식적인 시간은 침례 때인 것이 분명하다. 물론 이러한 놀라운 역사는 물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요,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사역에 의해서 이루어짐은 말할 것도 없다. 디도서 3장 5-7절과 고

린도전서 6장 11절의 말씀과 에베소서 2장 8-10절의 말씀들, 그리고 로마서 3장 21절에서 5장 21절의 구원에 관한 모든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단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침례 안에서 재판장 되신 성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대속의 보혈을 친히 흘리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의사이신 성령께서는 우리의 죄를 씻고 부패한 상처를 싸매시는 대 수술을 감행하심으로서 옛 사람을 물 속에 장사시키시고 새 생명으로 재생시키신다. 물론 이 수술작업의 근원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은총이요, 조건은 신자의 믿음이다. 침례는 단지 시간상의 문제를 해결할 뿐이다. 이런 점에서 마르틴 루터가 말했듯이 침례는 인간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다. 인간이 침례식을 거행하지만 하나님을 대행할 뿐이다. 따라서 침례는 하나님의 권위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며, 인간 쪽에서는 헌신과 변혁과 개혁의 의지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뿐이다.

마지막으로 침례는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예식이며 죄와 싸우는 십자군에 입단하는 시간이다. 죄인은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새 생명으로 부활하지만, 침례가 뜻하는 바가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유혹을 극복하게 하신다. 침례를 받은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긴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간주된 의인이지 실질적인 의인은 아니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의 말대로 신자는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의인이라 함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하여 침례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뜻이요, 죄인이라 함은 '아직' 이루어 가야 할 성화의 문제가 남아 있다는 뜻이다. 우리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지만, 이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는 죄악과의 부단한 투

쟁이 필요하다. 루터는 침례를 순간적인 구원의 문제로 보지 않고 영구적인 개혁과 변혁의 문제로 보았다. 왜냐하면, 신자가 살아 있는 한 부단히 침례가 의미하는 바를 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죄된 모든 것을 부단히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죽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부활과 합하여 부단히 사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다섯 차례에 걸쳐서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성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다. 듣고,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침례 받는, 이 다섯 가지 과정은 하나로 연결되는 과정이다. 중간에 어느 것 하나가 빠져도 좋고 있어도 좋은 것이 아니다. 듣고,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침례 받는, 이 다섯 가지 과정은 구원의 열차를 달리게 하는 다섯 가지 중요한 부품이다. 이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기차는 달리지 못한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며, 구원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침례를 받아야 한다.

제4장 교회와 신앙

1. 교회, 뿔힌 사람들의 모임
2. 성도, 기름부음 받은 자
3.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4.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5. 성서, 교회의 기초
6. 주일 예배

제4장 교회와 신앙

1. 교회, 뽑힌 사람들의 모임 (베드로전서 2장 9-10절)

교회에 관한 모든 내용은 성경 속에 담겨 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었던 신앙인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신앙고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의 신앙고백과 신앙체험이 담긴 성경 속에서 교회의 성격, 본질, 조직, 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먼저 베드로전서 2장 9-10절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 정의부터 살펴보겠다.

첫째,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뽑힌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베드로전서 2장 9-10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구절에서 ‘택하신 족속,’ ‘소유된 백성,’ ‘불러내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란 단어에 주목해 보기 바란다. 이 단어들은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뽑힌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명백하

게 밝히는 것들이다.

신약성서에 ‘교회’란 말이 192번 나온다. 신약성경은 헬레니즘 시대의 생활용어였던 코이네 헬라어로 쓰여졌다.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한다. 이 말은 ‘불러냄을 받은 회중’ 또는 ‘뽑힌 사람들의 공동체’를 뜻한다.

우리 나라에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있고, 각 도에는 도의회가 있고, 각 시에는 시의회가 있다. 이들 의회는 국민이나 도민이나 시민들로부터 뽑힌 사람들로 형성된다. 그리고 이들이 모이는 장소를 의사당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의회와 의사당은 다르다. 의회는 뽑힌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를 말하고, 의사당은 의회가 모이는 장소를 말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와 예배당은 다르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뽑힌 선민을 말한다. 그리고 예배당은 하나님의 선민이 모이는 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교회는 건물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교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구약성서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회중이 하나님의 교회였다. 그들이 바로 뽑힌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강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신약성서에 의하면, 오직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교회이다. 그들이 진정한 의미의 선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선민의식 없이 살아간다.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이라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뽑힌 진정한 선민이라는 의식이 전혀 없거나 부족하다.

‘교회’는 ‘뽑힌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다. 의회가 뽑힌 사람들의 모임인 것같이 교회는 뽑힌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런데 의회원은 사람들로 부터 뽑힌 자이지만,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뽑힌 자이다. 우리 신앙인들이 자궁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뽑힌 자들이기 때문이다.

의회원은 자기를 뽑아 준 사람들의 권한을 대행할 뿐이지만, 성도는 하나님에게 뽑혀서 죄를 이기고 평화를 누리며,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누린다.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깊은 늪 속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성도는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으로 건짐을 받고, 영생을 약속 받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되고, 새로운 삶과 소명으로 부름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이다. 이런 점에서 의회원과 교인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우리 신앙인들이 자긍심을 가져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뽑힌 자들이기 때문이다.

둘째,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며, 교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다. 베드로전서 2장 9-10절에 나오는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란 단어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기 바란다. 이 단어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들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다. 이 나라는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었고,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창설되었으며,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신성한 조직체이다.

사도행전 1장 4-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고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남기고 있다. 그 때 제자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입니까?”라고 물었다. 이 질문에 예수께서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다.

예수와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나눈 이 찰박한 대화 속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약속’은 ‘성령의 임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

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이해했다는 점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주전 6세기경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배생활 당시에 활동했던 예언자들은 마지막 시대에 이루어질 사건으로 세 가지를 예언해 놓고 있다. 이 세 가지 예언이 바로 '메시아 출현,' '성령 강림,'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예언이 주후 30년에 모두 이루어지고 있다. 주후 30년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셨으며, 그로 인해서 교회가 출범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메시아로 오셨고, 인류 구원을 위한 큰 뜻을 이루셨으며,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 성령으로 하여금 교회를 탄생케 하셨다. 이 교회가 바로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이다.

이 나라는 유대인들을 위한 유대인의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이 나라는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이며, 거룩한 나라이며, 영적인 나라이다. 이 나라가 바로 교회이다. 그리고 교인은 이 나라의 시민이다.

교회는 세상나라가 아니다. 교회는 육적인 나라가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교회는 신령한 나라이다. 이 나라의 시민은 아무나 될 수 없다. 원하는 대로 될 수 없다. 오직 뽑힌 사람만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공로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뽑혔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사실 때문에 지난 이 천년 동안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지 않았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앞 다투어 순교할 수 있기를 자청했

다. 예수를 안 믿겠다고 말하면 살 수 있다는 유혹, 우선 목숨을 구한 뒤 훗날 더욱 철저하게 믿으면 된다는 유혹을 뿌리치고 박해자들 앞에서 당당하고 조리 있게 예수신앙의 중요성을 변론했다. 그래서 “예수쟁이가 되면 말 잘하는 귀신이 붙는다”는 말이 생겼다.

1814년 충청도 청양 출신의 김시우는 반신불수로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처지였으나 배교자의 밀고로 교인들이 잡혀갈 때 자기는 불구자라고 해서 잡아가지 않자 울면서 함께 잡히기를 애원했고, 마침내 체포되어 고문을 당하자 옛 중국 고사를 들어 교리를 유창하게 변론하였고, 이에 창피를 당한 감사가 그의 턱을 부수어 더 이상 말을 못하도록 했다.

1799년 충청도 해미 감옥에서 옥사한 박취득은 감옥에서 음식과 물을 주지 않아 8일 동안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한 끝에 기절하고 말았다. 옥졸들은 그가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다. 그러나 그 이튿날 깨어난 박취득은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다시 감옥에 찾아가 “나는 굶겨도 죽지 않고 때려도 죽지 않으니 차라리 목을 매서 죽이시오”라고 죽기를 간청했다. 이렇듯 우리 조상들은 예수 믿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순교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김시우와 박취득과 같이 순교를 자청한 사람들의 수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셋째, 교회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이다.

본문에 나오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 . .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말씀에 다시 한번 주목해 보기 바란다. 이 말씀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들이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선민과의 관계가 어떤 성격을 갖는가를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선민을 택하시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선민의 사명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

선민의 성격, 선민의 사명, 또는 선민의 목적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봉사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교육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상에서 뽑아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자의 훈련을 받으며,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도모코자 함이다. 교회는 세상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과 분리되어 격리될 수 없다. 세상 속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세상 속으로 흩어져 전도하며, 봉사하며, 구제의 일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제사장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제사장의 하는 일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일이다. 이 일을 가장 위대하게 해낸 분이 예수이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대제사장이라고 칭하고 있다.

출애굽기 19장 5-6절 말씀을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시내산 계약 때에 말씀하셨다. 이 계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뽑힌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지만,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충실히 해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배턴이 교회로 옮겨지게 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 선민으로 삼으신 것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주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전도와 봉사와 구제의 도구로 삼기 위함이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18-19절을 보면,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란 말이나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말은 모두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말하는 것이다. 이 사명을 받은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뽑힌 선민 공동체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이다.

2. 성도, 기름부음 받은 자 (고린도전서 1장 1-3절)

예수 믿고 예배당에 출입하는 사람을 ‘교인,’ ‘기독교인,’ ‘크리스천,’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 이 가운데 기독교인,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같은 말이다. ‘기독교인’은 한자에서 온 말이고, 영어 발음 그대로인 ‘크리스천’은 헬라어인 ‘크리스티아노스’에서 온 말이며, ‘그리스도인’은 헬라어인 ‘크리스토스’에서 온 말이다. ‘교인’이란 말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 혹은 회원이란 의미가 될 것이다. ‘교인’이나 ‘그리스도인’이 모두 소속감을 나타내는 말이지만, 교인이라는 말은 타 종교인에게도 포괄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기독교인만을 지칭하는 의미가 희박한 반면,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만을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에 소속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말이다.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최초로 쓰인 곳은 안디옥이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는 기록이 있다. 미국 신시나티 신학대학원에서 헬라어를 공부할 당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의 근원을 찾기 위해서 ‘일컬음을 받다’는 뜻의 헬라어 단어 ‘크레마티조’(κρηματιζω)를 연구해서 학기말 과제로 제출한 적이 있다. 헬레니즘 시대에 기록된 헬라어 문헌들과 사전들을 샅샅이 뒤지고 연구해서 고생 끝에 얻어낸 결론은 이 말의 중요성이 소속감에 있다는 것이었다. 사업하는 사람을 사업가라 하고, 이발하는 사람을 이발사라 하듯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게 된 것이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는 기록은 바울과 바나바의 노력으로 안디옥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많아졌다는 뜻이요, 그들에 대한 언급이 잦아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란 용어가 생겼다는 뜻일 것이다.

예수와 그리스도를 어떻게 구별해야 할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 예수는 구원자란 뜻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란 예수의 직책을 말한다. 이 예수의 직책과 관련된 말이 ‘그리스도인’이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주제가 바로 ‘그리스도인’에 관한 것이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기름부음 받은 자’ 또는 ‘뽑힌 자’를 뜻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말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다. 또 ‘기름부음 받은 자’는 특별히 ‘선택된 자’ 또는 특별히 ‘뽑힌 자’를 뜻한다. ‘교인’도 ‘뽑힌 자’ 또는 ‘불러냄을 받은 자’란 뜻이다.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회중’ 또는 ‘뽑힌 자들의 모임’을 뜻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교회’와 ‘교인’의 뜻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뜻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구약성서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를 뽑을 경우 선지자가 그들의 머리 위에 올리브 기름을 부어 임직했다. 예를 들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은 머리에 기름부음을 받고 왕이 되고 있으며(삼상 10:1; 16:12; 왕상 1:45). 사독은 기름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되고 있다(대상 29:22). 또 엘리사도 기름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되고 있다(왕상 19:16).

‘그리스도’는 이 세 가지 직책 즉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의 직책을 모두 수행하는 특별한 사람을 말한다. 유대인들은 이 분을 ‘메시아’라 불렀고, 헬라인들은 ‘그리스도’라 불렀다. 이 그리스도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분이 바로 예수이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 즉 작은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예수나 그리스도인이나 실제로 구약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머리에 기름부음을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나 그리스도인을 일컬어 ‘기름부음 받은 자’라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또 어떻게 예수와 그리스도인은 ‘기름부음을 받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일까?

기독교와 유대교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유대인들은 성서를 문자적이고 육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려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서를 영적이고 신령한 측면에서 이해하려 한다. 성서에 관한 이런 이해의 차이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이 천년 전에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반면, 아직도 일부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구약의 방법이 아니라 신약의 방법인 침례를 통해서였다. 초대교회는 침례 또는 세례를 하나님의 기름부음의 예식으로 이해했다. 구약시대에는 기름부음을 받은 자에게 성령의 외적인 능력의 임재가 있어서 기름부음을 확증했던 반면, 신약시대에는 침례를 받은 자에게 성령의 내적인 구원과 성화의 임재가 있어서 기름부음을 확

증했기 때문이다.

구약성경에 보면, 기름부음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외적인 능력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한 예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와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는 말씀이 있다. 예수께서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위로 올라오셨을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있었고, 이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하셨다. 또 사도행전 19장 5-6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12명의 초신자에게 침례를 베풀고 안수하였을 때에 성령의 임재와 은사를 체험하고 있다. 이런 전통 속에서 초대교회는 침례 직후에 기름을 찍어 이마에 바르며 십자가를 그 어주었고, 안수하였다. 이는 성령의 임재를 기원하는 성스런 견신례의 전통이었다. 이 전통이 말씀과 은혜사모에 치중하는 개신교에서는 점차 사라져 가고 있고, 일부 교단에서만 입교예배를 통해서 유아세례를 받은 자에게 견신례를 행할 뿐이다. 어찌 보면,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기름부음과 침례는 결국 성령의 임재를 가져오는 성례였고, 성령의 임재와 증거는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직의 수행자가 되는 자격이란 점을 알 수 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신약성서는 예수와 초대교회 신앙인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임재는 물론이요, 성령의 임재로 나타난 해야될 수 없이 많은 표적들을 소개함으로써 이를 증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뿐 아니라, ‘그리스도인’도 ‘기름부음 받은 자’요, 특별히 ‘뽑힌 자’란 사실을 반드시 마음에 새겨 둘 일이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메시아직을 수행하는 작은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는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의 직책을 모두 수행하는

특별한 사람을 말한다. 그런데 예수는 예언자의 직책을 수행했을 뿐이지, 왕과 대제사장직은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실제로 수행하지 않았다. 예수는 다윗 왕의 혈통을 타고났지만, 당시의 정치적 상황은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 예수 당시에는 로마당국이 임의로 점령지역에 왕과 총독을 임명하고 있었고, 심지어 대제사장까지도 말 잘 듣는 허수아비로 임명했던 때였다. 또 이스라엘 민족이 고대했던 메시아는 가장 이상적인 위대한 통치자로서 정치, 군사, 종교에서 매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야할 특별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런 인물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매우 비관적이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때로부터 예수는 왕으로써, 대제사장으로써, 대예언자로서 높임을 받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어떻게 이해했고, 또 어떻게 신앙고백 했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들이 이해한 그리스도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해한 방법과 전혀 달랐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로마제국의 압제로부터 유대인들을 해방시키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과 다윗 때에 누렸던 영광을 되찾아 줄 정치적 지도자로 여겼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죄와 사망의 권세와 사탄의 세력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만 왕의 왕으로써, 또 친히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불편함을 제거시키는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써 중보자와 구세주의 사명을 완수하시고 화해의 길을 열어 주신 대제사장으로써, 또한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대예언자로서 이해했다. 그리스도는 또한 교회의 머리로써, 만 왕의 왕으로써,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유의 주로써(엡 4:6; 골 3:11), 장차 나타날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으로써,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신 대제사장으로써(히 4:15), 하나님의 숨은 비밀과 구원의 소망을 친히 드러내신 대예언자로서 고백되어지고 있다(히 1:1-3).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그것은 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즉 주님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며,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열흘만에 강림하신 성령의 강력한 증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상황적 증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따로 설명할 계획이지만, 주제인 그리스도인에 관한 중요하고 또 반드시 기억해야할 사실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메시아의 세 가지 직책을 위임받은 작은 그리스도란 점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죄악과 자아와 유혹을 다스리는 왕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며,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신앙과 행동으로 고백하는 예언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디딤돌이 되는 헌신적인 제사장적 삶을 살아가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또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메시아직을 수행하는 작은 그리스도란 점을 반드시 마음에 새겨 둘 일이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이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셋째, 그리스도인은 주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은 자이다. 그리스도인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의

칭호를 받은 자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로 미리 작정하시고, 뽑으시고, 부르셔서, 의롭다고 칭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소유(행 20:28)라고 말한다. 또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이라고 말한다(고전 12:27; 엡 1:23, 4:12, 5:30).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셨다”고 한 바울의 말대로(고전 12:13),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요, 성스런 그리스도의 몸의 각 부분인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곧 ‘그리스도의 소유’이며,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롬 8:1)이다.

또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마 16:16), 그 분을 생명의 구세주로 자신의 중심에 모신 사람을 말한다(롬 8:9). 이렇게 마음으로 또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롬 10:9) 믿는 자들이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름부음 받은 자’요, ‘뽑힌 자들’이다. 또 ‘그리스도인’은 메시아직을 수행하는 작은 그리스도이다. 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3.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누가복음 17장 20-21절)

앞에서 ‘뽑힌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와 ‘기름부음 받은 자인 성도’란 제목으로 교회와 교인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교회가 설립된 시기와 장소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사람들은 교회가 설립된 때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공생애와 관련해서 교

회 설립시기를 생각하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예수 부활과 관련해서 생각하기도 한다. 그러나 교회가 시작된 정확한 시기는 주후 30년 오순절 아침 9시경에 예루살렘에 강림하신 성령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견해가 정설로 되어 있다. 카톨릭교회에서는 이 날을 주후 30년 5월 28일 일요일로 산출한다.

교회가 시작된 장소는 넓은 범위에서 보면 유대 땅의 수도 예루살렘이 확실하다. 그러나 구체적인 장소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장소를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그 때 모인 사람의 수를 120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견해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설립된 구체적인 장소를 예루살렘 성전 뜰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초기 예루살렘교회의 집회장소를 성전 뜰 가장자리에 있었던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믿는다.

교회가 시작된 시간과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그렇다. 교회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없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교회가 시작된 시간과 장소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제목을 ‘교회의 시작’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라 한 것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며, 교인은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배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부터 쓰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점에 유의해 주기 바란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교회사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주후 30년 오순절 아침 9시경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성령의 오심으로 성령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되었으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침례를 받고, 예수의 이름아래 모인 공동체의 출범으로 이 땅에 시작되

었다.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마 4:17) 라고 선포하신 말씀은 바로 이 때를 두고 하신 것이다. 여기에서 ‘천국’이란 말은 예수께서 많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유대적 표현에 불과하다. 따라서 ‘천국’이란 말은 반드시 하늘에 있는 나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 예수께서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마 28:20)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요 14:16)라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말씀도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예수는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고, 이 성령이 오순절날 아침 9시경 성전 뜰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강림하심으로써 교회가 시작되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이다.

개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침례 또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개인의 심령에 시작된다.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고, 침례를 받고, 예수의 이름아래 모인 신자들로 인해서 시작된 것처럼,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침례 또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성령의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으로 개인의 심령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종말론의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시작되지 아니한 미래의 나라이다. 그래서 대개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나라로 알고 있다. 실제로 죽은 다음에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성서는 그 나라를 낙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낙원은 아직 시작되지 아니한 미래의 나라는 아니다. 미래의 나라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실존하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낙원과 교회는 둘 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하나

님의 나라이다. 낙원은 육체가 없는 성도들의 천상의 나라이고, 교회는 육체를 가진 성도들의 지상의 나라이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영원한 나라인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는데, 낙원과 교회는 이 때를 위한 일시적인 나라들이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는 지상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위한 임시적인 나라이며, 낙원은 천상에 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위한 임시적인 나라이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영원한 나라인 새 하늘과 새 땅이 세워지고, 낙원의 성도들은 부활하여 이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교회의 성도들은 거룩하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 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는 ‘이미,’ ‘지금 여기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미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맛보는 곳이며, 믿음으로 이 완전한 나라에 다가 가는 곳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 서로 사랑하며 살 것이다. 행복하게 살 것이다. 기쁘게 살 것이다. 감사하며 살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 것이다. 성도인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다.

둘째, 오순절 성령강림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오심으로 성령과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되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다.

주전 6세기경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 유배된 시기를 전후해서 썩트기 시작한 메시아 사상은 나라 잃은 민족에게는 둘도 없는 희망의 메시지였다. 이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같은 유명한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빼앗긴 주권의 회

복이 메시아의 출현과 성령강림으로 성취될 것을 예언했다. 또한 메시아 출현과 성령강림의 때에 이루어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마지막 시대의 출범을 알리는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설명되었다.

기독교는 이 예언들이 모두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오순절 성령강림의 때인 주후 30년 교회가 시작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순절이후 제자들에게 일어난 방언과 병고침과 같은 수많은 표적들을 성령의 오심으로, 또 이 때에 출범한 교회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으로 확신하고 있다.

사도행전 1장 4-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당부하셨다. 그 때 제자들은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입니까?”라고 물었다. 이 질문에 예수께서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대답하셨다.

예수와 제자들이 나눈 이 찰박한 대화 속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예수님은 메시아 시대의 출범을 알리는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성서가 예언한 새 시대를 성령시대로 지칭하셨다. 예수님은 성서가 예언한 마지막 시대를 성령시대로 지칭하셨다. 이 시대가 바로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시대요, 메시아 시대이며, 마지막 시대이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시대가 메시아 시대라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한 이 시대가 메시아 시대가 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

리가 되시며, 교회를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교회는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었고,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창설되었으며,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천년 전 성령과 함께 시작되었고, 지금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중심지인 예루살렘과 그 성전에서 시작되었다.

예루살렘은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도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수도를 상징하기도 한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고 계신다. 우리 모두는 장차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이 거룩한 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런 맥락에서 성령이 오순절 아침에 예루살렘에 강림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인 교회가 출범했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마음의 고향이다.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고 평화의 왕으로서 입성하신 곳이 예루살렘이며, 만 왕의 왕, 심판주의 주로서 다시 강림하실 곳도 예루살렘이다.

성령이 성전 뜰에 모인 사도들에게 처음 강림하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인 교회가 하나님을 모신 성전에서 시작됐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성령강림의 장소로 마가의 다락방이 사실처럼 믿어져 왔지만 우리가 성경을 잘 읽게되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가의 다락방은 제자들의 숙식장소에 불과했다. 물론 초대교회가 가정에 모여 예배나 기도 모임을 가졌고(행 5:42, 12:12), 교회도 가정교회가 대부분이었지만(롬 16:5; 골 4:15; 몬2; 고전

16:19), 정작 교회가 처음 시작된 것은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라 성전 뜰에 있는 솔로몬 행각이었다.

사도행전 초반부를 잘 살펴보면, 마가의 다락방이 언급된 날짜와 120명이 모여 가롯 유다 대신에 맛디아를 뽑아 사도의 반열에 합류시킨 날짜가 다르고, 또 이날들과 오순절 성령강림의 날짜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가의 다락방이 언급된 날짜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지 40일째 되는 날이며, 성령이 강림한 오순절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이다. 그리고 120명이 모여 가롯 유다 대신에 맛디아를 뽑아 사도의 반열에 합류시킨 날짜는 40일과 50일 사이에 있는 어느 한 날짜이다. 분명한 것은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간 날짜와 오순절까지에는 열흘의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예루살렘교회가 함께 모인 장소는 주로 솔로몬 행각이었다.

초대교회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 세 번 기도했다. 이 시간은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로 정해져 있었다(시 55:17; 119:164; 단 6:10; 행 2:15; 3:1; 10:9). 성령이 강림한 시간은 아침 9시 기도하는 시간이었다(행 2:15). 예수의 제자들도 기도 시간에 기도한 것을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요한과 베드로는 기도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앓은뱅이를 고쳤다. 또 베드로는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고 고넬료 가정에 초대를 받았으며, 고넬료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

오순절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명절이다. 예루살렘에서의 명절행사는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명절에는 순례자들을 포함해서 언제나 사람으로 홍수를 이루었다. 더욱이 그 시간이 기도시간일 경우에는 더 심했다(눅 24:53; 3:11; 5:12). 이 시간에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이 다락방에 머물러 있었으리라고는 상상하기 어렵다. 또 성령이 강림하시고 방언의 역사가 있었던 때와 즉각적으로 일어난 청중들의 반응을 보면 그 장소가 많은 사람들이 운집한 장소였지, 제자들만 모인 다락방

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수 개 국어를 말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은 교회창립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였다. 지중해를 끼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서 성지 순례차 모여든 많은 사람들에게 일시에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교회는 이스라엘의 회복된 나라요, 성전 예배의 전통성을 이어받고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성령과 함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기 바란다. 우리 신앙인들은 육체적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 이와 같은 복된 사실을 마음 속 깊이 새기고 받아 드리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뽑힌 사람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답게, 멋지게,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4.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

(골로새서 1장 18-23절)

앞에서 세 번에 걸쳐서 ‘뽑힌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기름부음 받은 자인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교회와 교인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교회는 특별히 뽑힌 사람들의 공동체이다. 그러나 이 공동체의 머리는 인간이 아니다.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다. 권사도 아니고, 집사도 아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아무 것도 아니란 뜻이 아니다. 조직체로서의 교회는 질서를 위해서 반드시 집사 권사 장로 목

사와 같은 직책과 제도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교회는 단순히 인간들의 집단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집단이기 때문에 이 조직의 우두머리는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다. 이 자리를 탐내는 자는 적그리스도이다. 적그리스도가 멀리 있지 않다. 그리스도를 자기 머리보다 높은 곳에 세우지 아니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요, 우상숭배자이다.

흔히들 교회를 방주에 비교한다. 방주에 탄 사람들은 특별히 뽑힌 사람들이다. 그러나 방주의 선장은 인간이 아니다. 또 교회를 구원열차에 비교한다. 구원열차에 올라탄 사람들은 특별히 뽑힌 사람들이다. 그러나 구원열차의 기관사는 인간이 아니다.

노아의 여덟 식구가 탄 방주를 움직인 분은 하나님이었다. 방주에는 기관실이나 키나 돛대가 없었다. 방주를 움직인 사람은 노아의 여덟 식구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최고 책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둘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 주고 산 하나님의 것이다(행 20:28). 교회는 예수의 목숨만큼이나 특별한 것이다. 외아들의 목숨과 맞바꾸어 얻은 것인 만큼 매우 고귀한 것이다. 교회가 특별하면 할수록 교회는 인간들의 것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교회당의 주인은 인간일 수 있다. 교회당이 세워진 땅주인은 인간일 수 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위에 군림하면서 주인 행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이다.

셋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몸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다. 내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의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자신이 주인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종'에 비교

했다. ‘종’이란 말은 ‘억매인 자’ 즉 ‘노예’란 뜻이다. 바울 당시에 노예의 신분은 짐승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신분을 그리스도 앞에서 노예로 낮추었다. 이뿐 아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일컬어 ‘하나님의 종,’ ‘순종의 종,’ ‘의의 종’이라 하였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대하여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종은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초대교회가 실제로 왕이 아니었던 예수를 왕으로 인정했던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성경에 보면, 예수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았고, 민중으로부터 왕으로 환영받았다. 예수는 로마 총독 빌라도로부터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는 심문을 받았으며, 예수는 “네 말이 옳도다.” 또는 “내가 왕이다.”(요 18:37) 라고 대답했다. 또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달고 고난을 받으셨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었던 적은 없다. 예수 당시 유대지방은 분봉왕 헤롯대왕의 아들 아켈라오가 죽은 주후 6년부터 41년까지 왕 없이 로마의 총독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다. 비록 민중이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세운다해도 로마는 이를 허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정황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 고백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예수는 결코 유대인들이 바라는 정치 군사적 메시아가 아니었고, 유대인들이 원하는 왕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왕으로, 또 대제사장으로 인정했다. 왜 그랬을까?

예수의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따라서 예수의 나라는 문자적인 유대인의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 나라가 바로 교회이다. 그러므로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나 메시아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요, 진리의

왕이요, 구세주이시다.

예수를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참 예수의 제자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다.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는 사람은 예수를 대항하는 적그리스도이다. 그러나 예수께 굴복하고 예수를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참그리스도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와 성도의 소유권(ownership)이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성도들의 주인이 되시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 그 자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요즘 직장 잃고 고개 숙인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최근 각 기업체에서 밀려나는 사람, 물려나는 사람, 쫓겨나는 사람이 추풍낙엽 같다고 한다. 최근 조기퇴직 바람으로 썰렁해진 직장인들 사이에 명퇴, 동퇴, 황퇴, 조퇴라는 말들이 유행한다고 한다. 명퇴는 명예퇴직, 동퇴는 겨울에 하는 명예퇴직, 황퇴는 황당한 명예퇴직, 조퇴는 조기퇴직을 줄인 약어들이다. 그래서 직장인들 사이에는 “명태가 좋으냐, 조기가 좋으냐?” 또 백수 건달은 ‘가택관리사’라는 자조적인 유행어까지 나돈다고 한다.

어디 이뿐인가? 사회 전반에 퇴직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과민성 대장염을 호소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고, 남아 있는 사람들도 ‘남의 일이 아니다’는 ‘생존자 증후군’(Survivor's Syndrome)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예수를 우리 가정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는 일이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교회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일이다. 그리스도를 우리 가정 공동체의 몸으로 인정하는 일이다. 이 어려운 현실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기독교적인 방법은 자신을 해결사로 믿는 착각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자신이 문제해결의 열쇠를 쥔 주인공이란 착각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이런 해결사병에는 뼈때루를 주어야 한다. 성도들의 해결사는 그리스도이시다. 문제해결의 열쇠는 그리스도께서 쥐

고 계신다. 그분을 진정으로 머리와 주인으로 인정하는 곳에 참된 교회가 있고, 그분을 진정으로 교회의 몸으로 인정하는 곳에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머리와 주인과 몸으로 인정한다면, 모든 일의 결정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이다. 교회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가 아니다. 따라서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 놓인다면, 모든 일의 결정에 있어서 제일 먼저 ‘그리스도라면 이 일을 어떻게 결정하실 까’를 생각하게 될 것이고, 그 분의 뜻과 생각을 존중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삶의 중심에 놓인다면,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진다면, 그 분만이 존귀하게 되며, 그분만이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며, 그분만이 따름과 실천의 대상이 되실 것이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한다.”고 했다.

인간 사회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모두가 다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이기적으로 살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만일 욕심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가 내리실 결정으로 결정하고, 모든 영광을 그리스도에게 돌린다면, 우리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 질 것이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나 자신의 임의대로 살수 없고, 우리의 가정은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주관하지 못하며, 오직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관하

시며,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목사나 장로나 집사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뜻과 성서의 가르침에 의해서 일의 우선 순위가 결정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주종관계는 질그릇과 같아서 깨어지기 쉽다. 인간관계는 언제나 이해관계에 얽혀 있기 때문이다.윗사람에게 문제가 있든지 아랫사람에게 문제가 있든지 인간의 주종관계란 언제나 이해관계 속에서 손익계산에 좌우된다. 그로 인해서 빚어지는 법정투쟁은 말할 것도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명예퇴직을 당하는 사람은 오히려 괜찮은 편에 속한다.

주종관계의 비극은 우리 나라 전직 대통령들 가운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영부인 이순자가 88년부터 쓰기 시작했다는 회고록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쏟은 우정은 전설에 가깝다고 적고 있다.

전두환은 노태우를 일찍부터 후계자로 생각했을 뿐아니라, 대통령 수업을 철저히 시켰고, 결국 대통령까지 만들고 있다. 전두환은 노태우를 청년기에 만나 40년 우정을 쌓고 있다. 그들은 단순한 친구관계가 아니라 동지관계였다고 한다. 수십 년간 그들은 언제나 같은 세계, 같은 응지, 같은 시간 속에 있었고, 중국에는 감옥에까지 함께 가고 만다. 그러나 그들의 주종관계는 권력 앞에서 산산이 깨어지고 말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박정희는 동향이며 동기생인 김재규와 깊은 우의와 신뢰를 쌓았지만 결국 그들의 주종관계는 권력 앞에서 배신과 죽음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되시는 그리스도는 결단코 우리를 배신하거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

든 일을 우리 배후에서 작용하시며 예수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그분을 인정하는 일뿐이다. 그분께 우리의 모든 권한을 내어 드리고 그분이 결정하고 일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신뢰하는 일뿐이다. 사람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

5. 성경, 교회의 기초 (에베소서 2장 19-22절)

앞에서 네 번에 걸쳐서 ‘뿔뿔히 흩어진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 ‘기름부음 받은 자인 성도,’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교회와 교인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교회의 기초인 성경’이란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졌다.

에베소서 2장 19-22절은 교회의 기초에 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19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외국인으로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히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가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말씀은 교회와 교인의 신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란 놀라운 사실을 밝히고 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은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공동체라고 말한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는 말씀이 있듯이, 이 말씀은 지상에 세워진 최초

의 교회가 사도들의 가르침에 기초했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신약성경이 기록되어 정경으로 확정되기까지 교회는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에 도전을 많이 받았다. 이 때 정통과 이단을 식별하는 방법으로 권장된 것이 사도들이 세운 교회였다. 사도들이 가르친 대로 가르치고, 사도들이 행한 대로 행하는 것이 정통교회요, 사도들이 가르치지 아니한 것을 가르치고, 사도들이 행하지 아니한 것을 행하는 자들은 이단자였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바른 교회였고,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 위에 서지 아니한 교회는 잘못된 교회였던 것이다. 그리고 성경은 사도들의 가르침과 전통을 담고 있는 유일한 책이다.

성경은 신앙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필요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여기서 필요란 박해자들에게 기독교를 변호하고,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신앙을 버리는 배교자를 막고, 이단자들의 감언이설에서 신앙인들을 보호하고 지키며, 교회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며, 늘어나는 교인을 교육하며, 예배 때에 사용할 자료들을 말한다. 선교 현장에서 요구되는 이런 필요들 때문에 사도들과 그 후계자들은 글을 써서 교회에 보냈으며, 후대에 이 글들이 모아져 신약성경을 이루었다. 이런 점에서 성경은 교회 그 자체이며, 교회가 세워진 터이며, 반석이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는 에베소서 2장 20절 하반 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교회의 기초와 관련해서 예수와 성령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을 지을 때에 모서리에 놓이는 큰돌로서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건물의 방향과 각도가 결정된다. 모퉁이 돌 가운데는 세로 2미터, 가로 4미터나 되는 돌도 있다고 한다. 모퉁이 돌이 건물을 세우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는 점에서 예수는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 따라서 교회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를 중심으로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는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 하셨다. 여기서 반석은 베드로가 16절에서 예수께 대답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신앙고백을 말한다. 따라서 교회는 베드로의 사도직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다. 베드로의 신앙고백은 신약성경 27권의 말씀을 요약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공동체이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은 성경이다. 성경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정하는 유일한 규범이다.

모든 인간 공동체에는 그 공동체를 움직이는 법규가 있고, 각 나라마다 헌법이 있다. 몇 사람이 모이는 작은 단체에도 회칙이라는 것이 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회칙이나 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각 교회는 교회대로 운영방침을 적은 회칙이나 헌장을 만들어 운영하고, 교단은 교단별로 총회를 조직하고 총회 헌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각 교회나 교단이 정한 법규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법규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지자체의 법규들이 국가가 정한 모범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각 교회나 교단의 법도 모범인 성경에서 벗어나서는 안될 것이다.

교회는 오직 하나이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일한 헌법은 오직 성경뿐이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정한 유일무이한 규범이다. 따라서 각 교회나 교단에서는 성경에서 벗어난 법규나 교

리를 만들어 내지 않도록 성경연구에 충실해야 하며, 해석상의 차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 사람이 만든 어떠한 법도 성경의 권위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 성경대로 믿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분명히 이단이다.

셋째, 하나님의 나라의 헌법은 하나님이 만들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물론 성경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사람의 언어로 역사의 현장에서 기록되었다. 어찌 보면, 성경은 인간의 글이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이 기록한 특별한 글이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손만으로 완성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여와 간섭 하에서 이루어졌다.

그것은 마치 무대에 펼쳐지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아서, 관객들은 연기자들의 몸동작과 대사를 듣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면서 드라마에 빠져들지만, 결국은 그 드라마를 쓴 작가의 말을 듣고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것과 같다. 또 그것은 마치 관현악 연주와 같아서, 청중들은 많은 연주자들이 제각기 다른 악기로 연주되는 음악을 듣고 깊은 감동에 빠져들지만, 결국은 작곡자가 의도한 한가지 주제 음악을 듣게 되는 것과 같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과 천년의 역사 속에서 기록되었지만, 일관된 주제와 동일한 사상과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성경이 하나님의 관여와 간섭 하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활동하신다. 또 하나님은 자신의 활동들을 선택된 사람들을 통해서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감동하신다. 해석이나 설명이 없이는 하나님의 행동을 아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사건이나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아무리 중요한 사건들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그 사건들을 설명해 놓지 않았다면, 가공되지 아니한 원석같이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주의 종들이 이 사건들 속에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과 구원의 뜻을 알아듣고 이해될 수 있는 글로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가공된 보석처럼 빛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보석이 아무리 귀중해도 서랍 속에 묻혀 있다면, 아무 가치가 없고, 사람들이 착용하여 빛을 발할 때에 그 진가가 발휘되듯이, 성경도 읽혀지고 삶 속에서 적용될 때에 살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진가가 발휘된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나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대부분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입증된 것들이다.

성경은 기적에 대해서 말할 때는 언제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란 세 단어를 함께 쓰고 있고(2:22; 고후 12:12; 살후 2:9; 히 2:4; 롬 15:18), 반드시 기적의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

‘큰 권능’(power/δυνάμεις)은 기적의 근원 즉 하나님의 큰 능력 행함을 말한다. ‘기사’(wonders/τέρατα)는 표적과 함께 쓰이고 언제나 복수형이며, 기적의 결과 즉 큰 권능을 보고 마음에 느껴진 결과들, 예를 들면, 놀람, 경악, 기이함 등을 말한다. ‘표적’(signs/σημεία)은 확증, 입증을 의미하며, 기적의 목적을 말한다.

큰 권능은 표적을 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진다. 큰 권능은 전달된 하나님의 뜻이 진실된 것임을 입증하는 표적이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와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모세는 큰 권능을 행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과 이스라엘의 해방을 입증해 보인다. 엘리야는 큰 권능을 보임으로 바알은 죽은 신이고, 야훼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입증해 보인다(왕상 17:24). 예수는 큰 권능을 행함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해 보인다(행 2:22). 사도들은 방언을 말하고 큰 권능을 행함으로 교회를 창립하고 성경을 기록한다. 이와 같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나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은 대부분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입증된 것들이다.

성경은 지난 2천년 동안 유럽 사회 속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온 불멸의 책이며, 일찍이 출판된 책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책으로 인정받고 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의 보고에 따르면, 1996년 말까지 성경이 쪽복음 하나라도 번역된 언어가 무려 2,123개에 이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는 베스트 셀러이다.

미국의 인기 가수 마돈나 같은 여인도 ‘텔레비전은 독’이라고 비난하면서 3개월 된 자신의 딸이 텔레비전을 보는 대신에 성경을 읽으면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할 정도이다(영국 월간지 『쉬』 2월호).

재임에 성공한 미국의 대통령 클린턴은 부인 힐러리 여사가 받쳐든 성경 위에 손을 얹고 헌법 규정에 따라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선서를 했다. “나, 윌리엄 제퍼슨 클린턴은 미합중국 대통령직을 충실히 수행하고 최선을 다해 미합중국 헌법을 유지-보호할 것을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때부터 지금까지 관례가 되어버린 비공식 취임선서 내용이다.

김익두 목사는 원래 황해도 강패였다. 당시 그는 소도둑으로도 유명했지만, 술 마시고 부리는 행패는 타인의 추종을 불허했다.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고 변화되어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다니니까, 전에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이 의아해 하면서 물었다. “도대체 자네는 그렇게 좋아하던 술과 담배를 끊고 어떻게 살아가나?” 그 때 김익두 목사가 대답하기를, “나 요즘 약 두첩씩 매일 먹고 있네.” “뭐야? 약을 두첩씩이나 먹고 있다고?” “그렇다네! 이 약을 먹고부터 술과 담배보다 더 좋은 축복이 쏟아지고 있네.” 그러자 친구들이 무척이나 궁금해

하면서 “우리도 좀 가르쳐 주게나.” 하며 졸랐다. “정 그렇다면 가르쳐주지. 그 두첩의 약이란 신약과 구약이라는 약일세. 이 약만 먹으면 몸과 마음에 든 어떤 병이라도 모두 고칠 수 있지”라고 말했다. 그후 그는 친구들에게 정성스레 신약과 구약을 먹여 그들의 몸과 정신의 병을 고쳐주었다고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비롯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인간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가장 살기 좋은 곳이 아니겠는가? 행복과 사랑이 있는 곳, 평화와 즐거움이 있는 곳이 아닌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만끽하고 싶은 사람은 성경을 가깝게 하기 바란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초이다. 모든 축복은 성경에서 비롯된다.

6. 주일 예배

(히브리서 10장 23-25절)

기네스 기록에 의하면, 미국 일리노이주의 로라우드 다아브(Rolaud Daab)는 57년간 3,000 주일을 한번도 빠뜨리지 않고 주일예배에 개근하는 대 기록을 세우고 있다.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시의 레니 파우어즈(Lennie Powers)는 다아브보다 일년이 부족한 56년간 2,936 주일을, 또 조지아주의 몰간(Morgan) 부인은 45년간 2,340 주일을 주일예배에 개근하고 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주일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것일까? 무슨 이유로 기독교는 일요일날 모여 예배하는 것일까?

우리는 다섯 번에 걸쳐 교회와 교인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한마디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말하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뽑힌 사람들을 의미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이며,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 나라의

대통령은 그리스도이시며, 이 나라의 헌법은 성경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가 모이는 날 즉 주일예배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구약시대의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은 안식일에 성전이나 회당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배우면서 하나님과 연대하고 공동체의 결속을 다졌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안식하신 날이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다(출 20:8-11). 우리는 하루가 밤 12시에 시작되지만,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 해질 때인 6시경에 시작된다. 우리 시간보다 여섯 시간 정도 먼저 시작된다. 따라서 안식일은 금요일 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말한다. 안식일이 금요일 저녁에 시작되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인들은 안식일 예배를 금요일 저녁에 드린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떤 식으로 얼마나 엄격하게 지켰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잘 나타나 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십계명은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 번씩 기도할 뿐 아니라, 안식일 날을 매우 엄격하게 지켰다.

탈무드에 비친 안식일 법에는 안식일에 여인이 거울을 보아서 안 된다고 되어 있다. 왜냐 하면, 거울을 보다가 흰 머리카락이 있어 이를 뽑을 경우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또 안식일에는 900 미터 이상 여행을 하거나 물건을 공중으로 던져 같은 손으로 받아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된다고 한다.

‘바리새인들의 39가지 안식일 금지법’을 살펴보면, 안식일에는 가장 일상적인 일까지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씨뿌리거나 밭 갈지 말 것,’ ‘곡식 단을 묶거나 거두지 말 것,’ ‘곡식을 타작하거나 까불지 말 것,’ ‘곡식을 뺏거나 찌지 말 것,’ ‘채질하지 말 것,’ ‘반죽하거나 굽지 말 것,’ ‘털 깎지 말 것,’ ‘빨래하지 말 것,’ ‘때리지 말 것,’ ‘염색하지 말 것,’ ‘매듭을

짓거나 풀지 말 것,' '바늘로 두 번 깎지 말 것,' '짐승을 잡거나 죽이지 말 것,' '두 글자를 쓰거나 지우지 말 것,' '집 짓거나 헐지 말 것,' '불을 끄거나 켜지 말 것,' '한 집에서 다른 집으로 물건을 옮기지 말 것' 등이다.

최근에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에 치즈가 들어간 햄버거를 파는 맥도날드에 대해서 보수주의자들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이 절기와 음식에 관한 법을 얼마나 엄격하게 지키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하고 엄격한 안식일 법을 무시해 버리고 대부분 유대인들이었던 초대교회는 일요일날 모여 예배를 드렸다. 사도행전 20장 7절, 고린도전서 16장 2절, 그리고 계시록 1장 10절과 교부들의 글을 보아서 알 수 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성도들이 모여 성만찬 예배와 말씀의 예배를 드리고 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는 “매주일 첫날에” 실시하는 헌금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10절을 보면, “주의 날에”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어 여러 환상들과 큰 음성들을 보고 듣고 있다. 성경에 쓰인 “안식 후 첫날,” “매주일 첫날,” 그리고 “주의 날”은 모두가 일요일을 나타내는 유대-기독교적 표현이다.

성경에 포함되지 아니한 교부들의 문헌에도 일요일 예배가 강력하게 추천되고 있다. 주후 90년경에 기록된 『디다케: 열두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주일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성만찬과 감사예배를 드렸다고 적고 있고, 주후 97년에 이그나티우스가 쓴 서신이나 주후 70년경의 바나바 서신에 의하면,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말고 주일을 지키도록 권면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더 이상 받지 않으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도 주후 150년경의 순교자 저스틴이나 거의 모든 교부들이 주일 예배를 강조하고 있다.

교부들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예배한 시

간이 주일 새벽이나 밤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낮 시간을 배제하고 새벽이나 밤에 예배한 이유는 그 당시에는 일요일이 공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며, 신자들 중의 상당수가 노예나 하류 계급이어서 일요일날에도 일을 했기 때문이었다.

일요일이 법적 휴일이 되고, 예배당이 건축되기 시작한 것은 313년 콘스탄틴 황제 때부터였다. 그 전까지는 주로 예배가 가정에서 행하여졌고, 부유한 사람의 집 넓은 방이나 예배당으로 개조한 집에서 이루어졌다. 성경도 가정교회들에 대한 증거를 많이 갖고 있다(롬 16:4; 고전 16:19).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우 엄격한 안식일 법을 어기고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다는 점은 범상한 일이 아니다. 왜 그랬을까? 왜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을 지켰을까? 그 이유를 몇 가지 간략하게 알아보겠다.

첫째, 일요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다. 부활은 기독교가 가르치는 핵심내용이다. 초기 신앙인들은 사탄의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날에 모였다. 초대교회는 이 날을 '안식 후 첫날,' '주 첫날,' 또는 '주의 날'이라고 불렀다. 특히 '주 첫날'을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이라 하여 줄여서 '주일'이라고 불렀다.

둘째, 일요일은 교회시대의 출범과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가져온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다. 오순절 성령의 오심은 구약시대를 신약시대로, 율법시대를 은혜시대로, 이스라엘시대를 교회시대로, 하나님이 없는 시대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대로 바꾸어 놓았다.

셋째, 일요일은 교회가 처음 시작한 날이다.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베드로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교회가 처음 시작된 오순절 날은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이었다(레 23:1-26).

넷째, 구약의 모든 예언이나 의식들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에게 그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식

일이 주일로 완성에 이르게 된 것이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다. 창조와 부활은 죽음의 상태를 생명의 상태로 바꾸었다는 점과 생명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안식일 예배는 구약시대의 예배 형태로서 신약시대의 주일 예배의 모형 또는 그림자에 지나지 않았다. 유대교는 그리스도의 교회 속에서, 안식일 예배는 주일 예배 속에서 완성되었다. 기독교를 실제로, 유대교를 그림자로 본 것이 초대교회의 확신이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인 안식일에 쉬셨다. 하나님이 피곤하셨거나 무기력하셨기 때문에 쉰 것이 아니다. 창조작업을 마치셨기 때문에 쉬셨다. 이 쉼이 하나님의 첫 번째 안식이었다. 만물의 창조는 이때 모두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역시 일곱째 날인 안식일에 쉬셨다. 하나님의 첫 번째 안식은 사탄이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을 타락케 하여 죽음에 넘어뜨림으로써 파괴되고 말았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는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다. 예수의 이 일은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모든 구원 사역을 말한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큰 소리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다. 그리고 나서 24시간을 온전하게 무덤에서 안식일을 지키셨다. 예수의 이 안식이 하나님의 두 번째 안식이었다.

그러나 기독교는 무덤 속에서 안식하는 종교가 아니라, 무덤을 박차고 일어난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인류에게 가져다주신 제 2의 안식은 무덤에 계셨던 안식일에 지키지 아니하고, 무덤을 박차고 나오신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에 지킨다. 이 일을 가능케 하신 분이 성령이시다.

첫 번째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친 다음 날 즉 토요일이었고, 두 번째 안식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다음 날 즉 토요일이었지만, 세 번째 안식은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증거 하시고, 성령이 성취하신 참 안식,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진정한 쉼을 가져다주는 ‘주의 날’이다. 이 세 번째 안식이 주점을 이긴 날이오,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신 날이오, 하나님의 나라가 출범한 날이오, 온 세계에 구원의 복음이 선포된 날이다. 따라서 이 세 번째 안식의 의미는 ‘일하지 않는다’는 육체의 쉼보다는 ‘참 평안을 누린다,’ ‘해방을 만끽한다,’ ‘참 자유를 누린다’와 같은 마음과 정신과 영혼의 쉼을 말한다.

이 세 번째 안식은 하나님의 무죄 선포와 예수의 대속의 피와 성령의 중생의 씻음으로 ‘이미’ 시작된 안식을 바탕으로 ‘지금, 여기에서’ 성취시켜 가는 현재 진행중인 안식이다.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평화가 넘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정한 쉼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성령이 충만하고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진정한 쉼의 복을 누리는 가정이다.

세 번째 안식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된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영원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성도들은 완전한 쉼과 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네 번째 안식이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였고, 히브리서 4장 10-11절은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로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다. 또 계시록 7장 15-1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 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라고 하셨다. 이 쉽이 온전한 안식이다.

기독교 예배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인 교회가 창립된 날에 드려진다. 예수는 안식일 전인 금요일에 운명하셨고, 안식일 후인 일요일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런 면에서 토요일인 안식일은 죽음과 생명을 갈라놓았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죄로 죽고 새 생명으로 부활한 사람들이다. 내면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시작한 사람들이요, 참 안식을 누리기 시작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폐지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 즉 ‘주님의 날’에 모여서 부활의 축제를 갖는 것은 당연하고 합당한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불수록 더욱 힘써 주일을 지켜야겠다.

제5장 고난과 신앙

1. 죄악의 존재 이유
2. 인간의 불행과 심판의 존재 이유
3. 신자에게 고난이 지속되는 이유
4. 고난 극복의 능력

제5장 고난과 신앙

1. 죄악의 존재 이유

(로마서 1장 18-32절)

이번에는 ‘고난과 신앙’이란 주제로 ‘죄악의 존재 이유,’ ‘인간의 불행과 심판의 존재 이유,’ ‘신자에게 고난이 지속되는 이유,’ 그리고 ‘고난 극복의 능력’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죄악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

임어당 박사는 그의 저서 『생활의 발견』에서 기독교의 중요 교리 몇 가지를 비판적으로 언급하기를 기독교는 악마의 기원조차 만족스럽게 설명하지 못하면서 죄의식만 강조하는 모순이 많은 종교라고 힐난했다. 당연히 그의 주장은 성경이 설명하는 죄악의 존재 이유를 바로 알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죄악의 존재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의지’를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의지’를 알면 ‘죄악의 존재 이유’를 밝힐 수 있고, ‘죄악의 존재 이유’를 알면 ‘고난의 존재 이유’도 알게 된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했고, 로마서 1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인간 속에 있다고 했다. 인간에게 하나님

을 알만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 때문일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을 동물과 구별시키며 하나님을 닮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물질이기보다는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 관계에서 특별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인간본성의 질을 말한다.

먼저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이 관계는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과의 삼각관계를 말한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예배와 신뢰의 관계이다.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와 섬김의 의무를 가진다. 인간끼리의 관계는 사랑과 섬김의 관계이다.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는 관리와 보전의 관계이다. 인간은 자연만물에 대해서 청지기의 사명을 갖는다.

그런데 이 특별관계는 계약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특별한 삼각관계를 계약관계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 계약관계를 이어주는 연결고리는 신뢰와 책임이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은 계약관계 속에 있다. 인류사회에 존재하는 모든 악은 책임적 존재인 인간이 이 계약을 파기할 때에 발생하는 불편한 관계에서 파생되고, 죄는 이 악에서 생겨난다.

둘째, 하나님의 형상의 형태를 살펴보겠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 본성의 질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본성의 질은 인성에서 찾을 수 있다. 지성, 감성, 의지, 그리고 사회성은 신과 인간만이 가진 공통적인 특성이다. 물론 다른 동물에게도 다소의 지능과 감정과 의지와 사회성이 있지만, 인간처럼 그 지성으로 학문을 창출할 수 없고, 그 감성을 문화 예술로 승화시킬 수 없으며, 본능 말고는 의지적 결단을 기대할 수 없다. 사회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동물들도 사회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인간들처럼 복잡한 형태의 사회구조나 관계형성을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 인성의 요소는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인간은 하나님에게는 예배자로서, 만물에게는 청지기로서, 하

님에게는 예배와 찬양, 만물에게는 관리와 보전의 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의 예배자로서 인간이 관심하는 신학과 신앙은 지성과 감성적 활동보다는 결단과 관계성에 크게 관심 한다.

셋째,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인간은 형상의 형태 즉 인성만 가지고 창조된 것이 아니다. 실질적인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되었다(엡 4:24; 골 3:9-10).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실질적인 지식과 의와 거룩함은 죄로 가려졌다. 따라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갈 5:19-21) 같은 것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의 내용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갈 5:22-23)와 같은 것이다.

죄악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고 인간을 책임적인 존재로 만드신 데에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기 위해서 인성을 주셨는데 인성 속에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사회성이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인성을 주신 것은 스스로의 특권을 제한하신 것이다.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 하시고 계약 속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절대자의 주권을 제한하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과 체결된 모든 약속을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닌 책임적 존재가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서 관계가 깨지게 되고, 불편한 관계 속에서 악이 파생하게 되고, 악이 자라서 죄를 짓게 한다.

인간이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 한 이 땅 위에 죄악의 존재는 필연적이다. 그게 싫어서 인간이 로봇으로 살아가야 한다면,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일 수 없다. 창조에 관한 한 하나님의 선택은 가장 합리적이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는 악한 것이

없다. 문제는 언제나 인간의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인간은 언제나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약속대로 따먹지 않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다. 인간이 필연적으로 선악과를 먹을 수밖에 없고,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리려는 운명론자들의 소행이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로 살아가는 한 수많은 계약 속에 살아간다. 이 계약이 잘 지켜지지 않는 곳에서 죄악이 존재하는 이유를 밝힐 수 있다.

앞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기 위해서 절대자의 주권을 제한하신다고 설명하였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 행사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했고, 로마서 1장 19절에서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인간 속에 두셨다고 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이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이 주권 행사를 방해할 자가 없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또는 ‘목적의지’라고 말한다.

둘째,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라’ 또는 ‘하지 말라’는 명령들이 있다. 이 명령의 말씀 또는 계명이나 율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인간이 결정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싫든 좋든 간에 그 결정을 인간의 자유의사에 맡기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절대자의 주권을 제한하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훈계의지’라고 말한다.

셋째,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또는 부끄러운 욕심에 또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적고 있다. ‘내어버려 두셨다’는 말씀을 세 번이나 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허락의지를 나타낸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간이 결정하는 일을 말한다.

하나님의 훈계의지나 허락의지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면서 인간을 책임적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또한 이 땅 위에 왜 죄악이 존재하는지를 설명하는 이유인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격자로 만드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신 만큼 인간들로부터 배반과 진노를 경험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절대자의 주권을 제한하기를 그만 두지 않으신다.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기를 멈추지 않으신다. 인간들이 자신들에게 부여된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책임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엄청난 고통 중에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게 하실 망정 하나님은 인간을 인간답게 대우하기를 멈추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절대자의 주권을 제한하신 것은 실로 엄청난 희생이면서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다. 역설적인 표현이 되겠지만 이 세상에 죄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 때문이다. 이 세상에 죄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때문이다. 이것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로마서 5장 20절의 말씀의 참 뜻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이 절대자의 주권의 제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자식이 저지른 범죄를 부모가 떠안듯이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저지른 죄값을 대신 받기 위해서 절대자의 신분을 버리셨고 인간이 되셨으며, 극형인 십자가 형까지 받으셨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절대자의 특권을 제한하시고, 생명까지 버리신 반면, 우리 인간들은 책임을 저버리거나 떠넘기기 바빴고, 하나님을 배반했으며, 하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엄청난 죄를 범하고 말았다. 이런 진실을 뼈아프게 받아 드리면서 책임적 존재로써 하나님과의 약속, 인간 사회 속에서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이 세

상에 죄와 고통이 존재하는 이유조차도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죄와 고난을 극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

2. 인간의 불행과 심판의 존재 이유

(창세기 2장 16-17절)

앞에서 ‘고난과 신앙’이란 주제로 ‘죄악의 존재 이유’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인간의 불행과 심판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

앞에서 우리는 인간을 인성을 갖춘 책임적 존재라는 말로 정의를 내려보았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계약관계 속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절대자의 주권을 제한하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과 체결된 모든 약속을 지키고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닌 책임적 존재가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데서 관계가 깨지게 되고, 불편한 관계 속에서 악이 파생하게 되고, 악이 자라서 죄를 짓게 된다’고 죄악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였다.

여기서의 주제는 ‘인간의 불행과 심판의 존재 이유’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간의 불행은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데서 비롯되는 것이며, 인간을 책임적인 존재로 예우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의 약속이행여부를 묻게 된다는 점이다. 심판이 존재하고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타는 불 못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인간이 로봇으로 만들어졌다면 심판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사회성을 가진 인격체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절대자의 주권을 제한하시면서 까지 인간을 인격자로 예우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의 삶의 결과를 묻고 심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본래 좋았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가운데 나쁜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있어서는 안될 것이 너무나 많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 그리고 각종 사고와 범죄와 질병으로 만연되어 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무엇이 그 원인일까? 보기 좋았던 세상이 보기 흉한 모습으로 변해 버린 이유가 무엇일까? 세상이 혼탁하고, 인간이 불행해 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인간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인간의 무책임에서 비롯된다. 창세기 2장 16-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는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다. 인간 편에서는 선악과를 먹지 않겠다는 약속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을 축복하시겠다는 약속이다. 따라서 인간의 책임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책임은 인간을 축복하시는 것이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명령이나 훈계로 나타난 것이다. 십계명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씀은 그 결정이 전적으로 인간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이다.

인간은 누구나 계약자의 입장에서 살아간다. 루소는 인간 사

회를 계약사회라고 말했고, 실제로 우리 인간은 법이든 관습이든 약속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먼 옛날 아담이 하나님과 선악과를 놓고 서약을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후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은 침례 때에 하나님과 교인들 앞에서 서약을 한다. 부부는 결혼식 때에 하나님과 친지들 앞에서 서약을 한다. 국민은 태어나면서부터 국가와 약속관계를 맺는다. 국가의 법은 국가와 국민 사이에 합의된 약속이다.

약속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십계명과 같은 법을 주신 것은 약속관계를 지속시키고, 자유를 제한하며, 책임을 지우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인간이 약속을 지키고, 주어진 자유를 제한하며, 책임 있게 살아가는 길목마다에 선악과가 열려 있다. 이 선악과는 창세기 3장 6절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하고, 지혜롭게 할만큼 탐스럽다” 열매라고 했다. 사람의 관심을 끌고, 본능을 자극하며, 사람을 유혹하기에 충분한 열매였다. 이 열매는 세 가지 유혹거리를 가지고 있다. 첫째 입으로 들어가는 것들의 유혹, 둘째 눈으로 보는 것들의 유혹, 셋째 머리로 생각하는 것들의 유혹이다. “먹음직도 하고”라는 말씨는 먹거리 종류의 유혹거리를 말한다. 의식주와 같이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에서 많이 나타난다. “보암직도하고”라는 말씨는 볼거리 종류를 통한 유혹거리를 말한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적인 욕구에서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지혜롭게 할만큼 탐스럽다”는 말씨는 두뇌를 통해서 나오는 유혹거리를 말한다. 부와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많이 나타난다. 남을 짓밟고 일어서기 위한 사악한 두뇌플레이가 여기에 속할 것이다. 이런 유혹에 아담과 이브가 무너졌다. 이스라엘 민족이 넘어졌다. 우리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

그리스 신화에 ‘판도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판도라는 제우스로부터 에피메테우스와 살도록 인간세계에 보내어진 여인이

다. 판도라는 ‘모두의 선물’이란 뜻이다. 제우스는 정말 모두의 선물이 될 만큼 멋진 여인을 에피메테우스에게 선물했다. 두 사람은 행복했다. 하루하루가 새로웠다. 그런데 판도라는 제우스한테 받은 상자가 하나 있었다. 제우스는 판도라에게 절대로 그 상자를 열어보아서는 안된다고 일러주었다. 상자를 열어 보는 순간에 모든 행복은 끝나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판도라는 아무래도 그 상자 속이 궁금했다. “그 속에 무엇이 있을까? 왜 열어 보아서는 안될까? 살짝만 열어본다면 별 탈 없겠지?” 이런 저런 생각을 하면서 판도라는 무심결에 상자의 뚜껑을 열고 말았다. 아뿔싸, 판도라가 상자의 뚜껑을 열자마자, 상자 속에 있던 괴상한 형체들이 순식간에 밖으로 나오고 말았다. 놀란 판도라가 엉겁결에 뚜껑을 닫았을 때에는 하나만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나머지는 다 날아가 버리고 난 다음이었다. 상자 속에서 날아 나온 것들은 온갖 질병과 죄악들, 전쟁과 재해, 폭력과 살인 등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었다. 그리고 상자 속에 남은 것은 오직 한가지 희망뿐이었다. 그래서 인간은 그 때부터 불행에 몸을 맡기고 희망에 의지하여 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선악과와 판도라의 상자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인간이 책임감을 가지고 약속을 지키면 행복할 수 있고, 무책임하게 약속을 저버리면 불행하게 된다는 교훈이다. 행복한 가정, 성숙한 사회, 살기 좋은 나라는 약속이 지켜지고 책임이 완수되는 곳이다.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약속과 책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유혹들이 있다. “약속은 지킬 필요 없다. 약속을 저버리면 더 멋지고 더 재미있고 더 신나게 살 수 있다.” 이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하고, 지혜롭게 할만큼 탐스런” 유혹들이 곳곳에 널려 있다. 이런 유혹들을 믿음으로 이기는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란다.

둘째, 인간의 책임은 자동차에 달린 브레이크에 비교될 수 있다. 교차로에 접근하는 운전자가 경고 신호 또는 정지 신호를 확인하고서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그대로 달린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그에게 발생할지는 설명하지 않아도 상상이 될 것이다. 좌회전하고 있는 차와 충돌하거나 교차선 도로를 직진하는 차와 충돌하거나 또는 길을 건너는 보행자들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할 것이다. 그 운전자는 밟아야 할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1997년 2월 23일 영국 에딘버러에 있는 로스린연구소의 아이언 윌머트 박사가 6년생 암 양의 DNA 유전자를 조작하여 유전적으로 똑같은 새끼 양을 낳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한 이후로 ‘인간 복제’가 사람들의 화두로 부각되고 있다.

인간복제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옴으로써 벌써부터 사람들은 인간 존엄성의 상실과 대 재난을 염려하기 시작했다. 복제술의 발달은 인간에게 가져다 줄 많은 유익에도 불구하고 자연질서의 파괴는 결국 인류에게 엄청난 재앙을 가져다 줄 것이다. 복제된 인간의 신체 일부를 강제로 떼어내 다른 인간에게 넘겨주는 잔혹한 행위를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히틀러나 후세인과 같은 독재자나 지존파와 같이 잔악한 무리의 대량 복제로 불운한 생을 마쳐야 될지도 모른다. 이와 같은 엄청난 비극의 뭉은 인간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다.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될 것으로 생각했으나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비극을 초래했던 것처럼 인간 복제는 또 다른 인간 바벨탑의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인간 복제가 그리 대단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그와 같은 능력을 인간에게 부여하셨다. 그리고 원본과 복사본이 다르듯이 창조와 복사는 엄연히 다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복제품을 만드는 것이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생명을 창조해 내거나 죽음을 막을

수 없고 죽은 자를 또한 살려낼 수 없다.

그리고 인간의 능력이나 노력의 결과가 인간에게 언제나 유익한 것도 아니다. 두 얼굴을 가진 야뉴스처럼 인간의 기계기술 과학문명에는 양지와 음지가 있고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있으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이브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하고, 지혜롭게 할만큼 탐스럽기 도한” 선악과를 보고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던 것처럼, 인간들은 음지를 버리고 양지만을 택하거나 마이너스를 버리고 플러스만을 택하거나 부정을 버리고 긍정만을 택하지 못했다. 만일 인간이 자신에게 부과된 책임을 무시한 채 또 정지신호를 확인하고서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채 달려간다면, 그의 운명은 엄청난 비극으로 끝나고 말 것이다. ‘인간 복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경고신호 단계를 넘어서 이제 정지신호 단계에 도달했다.

하나님은 인간을 모든 만물보다 뛰어난 동물로 만드셨다. 동물하고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 인간을 기계처럼 운전자에 의해서 작동되도록 만들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발적으로 활동하도록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조작 당하는 기계처럼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동의 자유를 주셨다. 그 대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책임의 중요성과 자유의 한계선을 그어 주셨고, 인간의 행동에 따라 상도 주고 벌도 주기로 결정하셨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경고하셨다. 그러므로 심판은 반드시 있다.

심판이 있을 것으로 믿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첫째 심판이 있어야 정의롭기 때문이다. 만일에 심판이 없다고 한다면, 인간은 인간답게 살기를 거부할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사회를 보더라도 재판관이 있고, 각종 시험 때마다 심판을 세워 공정한 시험이 되도록 애쓰는 것을 볼 수 있다.

둘째, 세상에서의 심판과 상벌제도는 반드시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경고의 표시이다. 인간세계의 심판은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증거이다. 살아 생전에 우리 인간들은 여러 가지 형태의 상을 받기도 하고 벌을 받기도 한다. 어떤 건축가가 튼튼하고 보기 좋은 건물을 짓고 부와 명성을 얻었다면, 그 건축가는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것이다. 또 어떤 건축가가 부실 공사로 인해서 자신이 건축한 건물이 붕괴되었다면, 그는 이미 벌을 받은 것이다. 그는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잃게 될 것이다. 교통법규를 지키고 조심운전을 하는 사람은 안전을 보상으로 받지만,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과속운전을 일삼는 사람은 남에게 해를 가할 뿐아니라, 자신도 크게 다치거나 죽게 된다.

인간은 발달된 언어나 첨단 기구를 이용할 만큼 고등한 동물이다. 인간은 기계과학문명과 도시문명을 이루었으며, 법을 제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사회제도를 만들만큼 고등한 동물이다. 또한 인간에게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이성이 있고, 감정을 자제하여 미술이나 음악, 연극이나 춤과 같은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본능적인 충동을 억제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추궁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에게 책임을 물어 심판하신다. 히브리서 기자는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말하고 있다.

3. 신자에게 고난이 지속되는 이유

(로마서 5장 1-11절)

앞에서 ‘고난과 신앙’이란 주제로 ‘죄악의 존재 이유’와 ‘인간의 불행과 심판의 존재 이유’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신자에게 고난이 지속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 신자에게 고난이 지속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이해된다.

첫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앞에서 설명한대로 인간에게 고난이 지속되는 이유를 약속 불이행과 무책임성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의 권리를 희생하면서 까지 인간과 계약관계를 맺는다. 이로써 인간은 로봇처럼 살지 아니하고 이성과 감성과 의지와 사회성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약속관계, 인간끼리의 약속관계, 자연과의 약속관계에서 살게 된다. 그런데 인간은 본의든 타의든 자기가 맺은 약속들을 잘 지키지 않는다. 약속이 깨지면서 관계가 깨지게 되고 관계가 깨지면서 불편해지고 불안해진다. 불편해지고 불안해지면서 불신과 반목이 커진다. 성경은 이런 관계를 원수된 관계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이 원수된 관계를 화목된 관계로 바꾸기 위해서 친히 외아들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었다. 이 하나님의 행위를 두고 우리는 아가페의 사랑 또는 희생적인 사랑이라고 말한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이 은총을 받아드리고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신자들은 원수된 관계를 화목된 관계로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을 잘 알고 또 잘 믿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삶 속에서는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 본의든 타의든 이런 이유 때문에 신자들이 고난을 당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은 그 분이 인간과의 원수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약속을 저버린 인간의 책임을 인간에게 묻지 않고 스스로 그 책임을 지셨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평화가 깨지고 불안과 고통이 커지는 것은 남의 책임을 자신이 감당하기는커녕 자신의 책임까지도 남에게 떠넘기기 때문이다.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도 책임지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고난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둘째, 신자에게 고난이 지속되는 이유는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에 따라 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성과 감성과 의지와 사회성을 주시고 책임적 존재로 살아가게 하셨지만, 결국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며, 약속대로 살지 못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피조물의 한계점을 깨닫지 못한 채 불완전한 이성이나 양심에 호소하여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보려고 한다.

인간의 이성이나 양심은 인간의 본능을 통제하는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만 완전 통제는 불가능하다. 인간의 본능은 하나님이 자연에 내린 생명력이며 귀중한 선물이지만, 본능은 길들이기에 따라서 천사도 되고 마귀도 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시고 책임성을 부여하신 목적이 마귀의 속성을 통제하고 천사의 속성을 개발하라는 것인데, 결론은 인간의 이성이나 양심이 불완전하다는 것이다. 사회가 타락할수록 인간의 이성이나 양심도 비례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타락한 존재로써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성령에 따라 살지 아니하면 구원받은 신자일지라도 결코 고난을 극복하지 못한다.

셋째, 인간의 고난은 육체의 타락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신자에게 고난이 지속되는 이유는 신자의 육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구원은 영혼구원과 육체구원 또는 현재구원과 미래구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현재구원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현재구원의 특징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영혼구원, 둘째 마음의 평화, 셋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바로 현재구원의 특징들이다.

현재구원은, 교회사적으로 볼 때, 주후 30년 오순절날 성령 강림과 교회 출범으로 시작되었고, 개인적으로 볼 때,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침례 받고 거듭남으로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

라가 교회와 함께 교회 안에서 또는 신자의 심령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이다. 그리고 신자가 받은 축복은 영혼구원과 성령의 임재와 심령의 평화이다.

현재구원의 성격에 관해서 살펴보겠다. 현재구원은 미래구원의 약속, 인침, 보증, 선취를 뜻한다. 신자와 함께 하시는 성령은 하나님께서 신자와 맺은 미래구원의 계약서이며, 도장이며, 보증금이며, 미래구원을 미리 받아 누리는 경험 그 자체이다. 따라서 현재구원은 완성된 구원이 아니라, 성령의 약속과 보증과 인침 속에서 완전한 구원을 향해서 다가가는 '현재 진행중인 구원' 또는 '맛봄의 구원' 또는 '앞당김의 구원'이다.

현재구원은, 교회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성령의 활동으로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지속되는 것을 뜻하며, 개인적으로 볼 때, 신자가 점진적으로 성화 되는 것을 뜻한다.

이제 미래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미래구원은 개인구원론에서 볼 때 육체의 부활을 말하고, 우주구원론에서 볼 때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한다. 육체 부활과 우주 회복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진다. 예수께서 이 천년 전 처음 세상에 오셨을 때에 현재구원이 시작된 것처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때에 미래구원이 시작된다. 미래구원은 인간의 구원뿐 아니라, 자연만물의 구원까지도 포함한다.

현재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영혼구원이며, 약속과 도장찍음과 보증과 맛봄의 구원이다. 미래에 우리가 받게 될 구원은 육체구원이며, 배고프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며,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는 완전한 구원이다. 신자들은 이 구원을 보장받고 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을 신자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도장찍고 선금주어 약속하고 보증한다. 그러나 아직 육체구원을 약속으로만 받고 실제로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신자라도 육체로 인한 고난을 피할 길이 없다.

톨스토이는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라는 글에서 세상의 악은 인간의 육체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빈곤이나 사랑 또는 증오나 공포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인간의 육체가 인간에게 근원적인 문제들을 야기한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피조물의 문제는 육체에서 비롯된다. 인간이 육체를 갖지 않았다면, 가장 기본적인 욕구조차도 느끼지 못할 것이며 고통도 죽음도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는 인간의 구원을 불교와 같이 수련이나 수도에다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육체의 회복인 부활에다 맞추고 있는 것이다.

고난은 결국 육체의 타락에서 비롯된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고난은 쉬지 않는다. 인간의 고통이 자연의 재해로 인한 것이든, 자기 죄로 인한 것이든, 신앙 때문에 당하는 것이든, 신령한 몸을 덧입기까지는 어느 누구라도 육체로 인한 고통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신자들은 고난을 즐거워한다고 바울은 고백한다. 구원받은 신자들은 미래구원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다. 고난은 인내와 연단 과정을 통해서 신자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바를 이루게 하기 때문이다. 신자들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신자들은 신령한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되고, 회복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다.

신자들이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단지 장래의 소망 때문만은 아니다. 신자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때문이다. 성령이야말로 신자들의 소망의 보증이 되시고 인침이 되시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졌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의 이 은총을 누리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을 안고 기뻐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한다.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낳고, 그러한 끈기는 희망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우리가 받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 죄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때가 이르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다. 옳은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별로 없다. 혹 착한 사람을 위해서는 죽겠다고 나설 사람이 더러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얻었으니 그리스도의 덕분으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게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던 때에도 그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하물며 그분과 화해가 이루어진 지금에 와서 우리가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한 일이 아니겠는가? 게다가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덕분으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공동번역).

이제 정리를 해 보겠다. 우리는 ‘죄악의 존재 이유’에서 고난이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배웠다. 신자에게 고난이 지속되는 이유도,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고난 때문에 책임의 중요성도 깨닫게 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배우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반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무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 주신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평화를 주신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모든 축복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여전히 우리에게 지속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영혼구원뿐이고, 아직 육체구원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육체구원은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미래의 축복이다. 영혼구원은 가까운 장래에 이루어질 육체구원의 약속과 인침과 보증과 맛봄에 해당된다. 이 미래 축복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도장찍어 주신다. 성령으로 미래 축복을 미리 맛보게 하시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완전히 이론 존재가 아니라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이다. '이미' 우리가 받은 것과 '아직' 우리가 소망하는 것 사이에는 죄도 있고, 고난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긴다고 바울은 말한다.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4. 고난 극복의 능력 (로마서 8장 1-39절)

앞에서 '고난과 신앙'이란 주제로 '죄악의 존재 이유,' '인간의 불행과 심판의 존재 이유,' 그리고 '신자에게 고난이 지속되는 이유'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고난 극복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

앞에서 말한 대로 현재구원과 미래구원 사이에는 고난이 상존한다. 그런데 현재구원과 미래구원 사이에서 미래구원의 축복을 현재어로 끌어당김의 역사와 현재구원을 미래구원의 완성에로 밀고 가는 역사를 성령이 하신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

라를 가져오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가신다. 바꾸어 말하면, 현재구원과 미래구원 사이에 고난이 상존하기는 하지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끌어 당겨 맛보게 하시고, 소망 중에 인내하게 하시고, 연단 받게 하시고,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시면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계신다. 이 성령의 능력이 바로 환난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바울은 말한다. 고난을 극복하되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말하고 있다.

바울은 로마서 6장부터 8장에서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설명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7장 14절까지에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리스도인의 의무 즉 순종에 대한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정당성 또는 필연성을 논했다. 여기서 새로운 삶은 현실적으로 영적 구원에 국한된다.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까지에서 바울은 순종의 어려움을 탄식한다. 인간의 육체가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죄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인간의 근본문제는 죄성을 지닌 육체에 있으며, 이 육체의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루어질 것으로 약속되어 있다. 여기에 미래구원에 대한 성도들의 소망이 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인간이 죄성을 지닌 육체를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중생과 함께 은혜의 선물로 주신 성령의 능력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넉넉히 이긴다고 말한다. 결국 순종의 어려움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극복된다는 것이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고난 극복의 능력에 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8:1)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인간을 해방시켰기 때문이다(8:2). 또한 인간의 육신이 연약하여 이를 수 없었던 율법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대신 이루셨기 때문이다(8:3).

그 방법은 인간의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죄성(罪性)이 가득한 육신을 입히셨으며,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인간의 죄를 전가시키셨다.

그 목적은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사는 사람들을 구원키 위함이며(8:4), 하나님의 영에 지배되고 하나님의 영의 의도와 목표에 방향이 정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다(8:5-6). 성령의 감동 감화와 인도를 받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산다. 그러나 그 반대로 육적 분위기에 지배되고 그것으로 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육의 의도와 목표를 따르게 된다. 그 결과는 사망이다. 따라서 성령의 내주 동거 감화 인도가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8:9).

둘째,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8:18)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종말론적으로 볼 때, 근본적으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데 있다. 제 1차로 칭의와 성화를 통해서 인간의 죄 문제와 부패문제를 해결하시고, 제 2차로 주의 재림의 때에 부활을 통해서 생노병사(生老病死)의 인생고(人生苦)는 물론 육욕과 죄성을 완전하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신령한 몸’ 혹은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시며, 죽은 자들도 부활시킬 것이다. 제 3차로 주의 재림의 때에 온 우주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이때 비로소 사막에 꽃이 피고, 독사 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은 기쁨의 그 나라가 올 것이다.

셋째,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8:37)는 것이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속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이다(8:26-27).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간구하여 주시기 때문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 하신다.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 하신다(8:34).

우리가 성령의 능력 속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유익하게 이끌어 주시며(8:28),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이다(8:29-30).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편이면 누가 대항하겠습니까? 외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를 누가 고소하겠습니까? 의롭다고 칭하신 이가 하나님이 신데 누가 정죄 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8:31-36) 라고 바울은 반문한다.

이제 마지막으로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 조금만 깊게 생각해 보면, 고난에도 많은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첫째,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이 죄의 삯이라는 점에서 고난은 죄를 억제하는데 도움이 된다. 아픔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아픔을 통해서 옳고 그릇된 것을 배우며, 자연의 이치를 터득하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는 손을 데고 나서야 불의 무서움을 배우게 되고, 바늘에 찔리고 나서야 그 아픔을 알게 된다. 모든 병이나 사고가 반드시 당사자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으나, 모든 고난이 죄에서 기인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며, 인간의 타락이 없었던들 생로병사의 인생고는 없었을 것이다.

둘째, 고난은 축복을 기약하는 연단이며, 그 정도나 시간에 있어서 제한되어 있다. 우리에게 닥치는 시련이 무한정 계속되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감당하기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막힘의 위기 속에는 반드시 트임의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바울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 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전 10:13)고 말했고,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다.”(고후 4:17)고 말했다.

셋째, 고난은 영적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은 잠시 살다가는 장막이요, 영원한 처소가 마련되어 있다는 소망을 저버리지 않게 하며, 고난을 통해서 또한 이웃의 고마움을 알게 되고, 서로 돕고 의존하는 이웃 사랑의 필요성을 깨우치게 된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사랑을 몰랐던 사람들이 사랑을 알게 되고, 강박한 사람이 회개하여 주께 돌아오며, 나밖에 모르던 사람이 남을 인식하는 새 삶을 찾게 되기도 한다. 특히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식어 가던 사람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 분의 축복을 체험하게 된다.

넷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난이 오기도 한다. 예수 때에 고침을 받은 병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들이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은 이유를 예수께서 베다니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 탓을 예수께 돌렸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함이라”고 말씀하셨다.

다섯 째,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유 때문에 고난이 오기도 한다. 욥의 경우처럼 인간에게 비밀로 붙여진 하나님만이 아시는 이유 때문에 고난이 올 수도 있다.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든 지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은 고난을 극복하는 능력이시다.

제6장 성령과 신앙

1.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2.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1)
3.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2)
4. 성령은 어떻게 받는가
5. 성령은 언제 받는가
6. 성령충만이란 무엇인가

제6장 성령과 신앙

1.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사도행전 5장 1-5절)

앞으로 몇 번에 나누어 성령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성령은 어떤 분이신 가부터 살펴보겠다.

첫째, 성령은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다. 사도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교회를 속인 것은 성령을 속인 것이며, 성령을 속인 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사도행전 5장 4절에서 심하게 꾸짖었다. 또 예수는 자신을 꾀방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사람의 모든 죄와 꾀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꾀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마태복음 12장 31-32절에서 경고하셨다. 히브리서 저자도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는지 생각하라”고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 경고하였다. 이들 성구들을 통해서 보건대, 성령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초월적인 신이다. 누구로부터 만들어진 영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이다. 시작된 때가 없고 만들어진 때가

없으며, 영원 전부터 영존 하시는 영이시다. 그러나 다른 영들, 이를테면, 천사나 마귀와 같은 영들은 시작된 때가 있고, 만들어진 때가 있는 영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영원하지 못하며, 제 위치를 지키지 않았던 마귀의 영들은 멸망 받게 된다.

성서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다. 신학에서는 이 세 분을 세 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한 분이라고 말한다. 한 분 하나님 안에 세 분의 인격자가 계시다고 보는 것이다. 아버지로써의 인격자와 아들로써의 인격자와 성령으로써의 인격자를 말하는데 이 세 분의 인격자들이 결국 한 분 하나님 안에 계신다는 뜻이다.

태양은 하나이지만 그 빛은 일시에 온 누리를 비춘다. 그리고 그 빛 속에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은 광선이 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감각으로 느껴지지도 않지만 이 빛은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직진한다. 일 초에 지구를 일곱 바퀴 반을 돌 수 있는 빠른 속도이다. 그런데 이 빛이 사물에 닿으면 반사를 한다. 이 반사하는 빛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물을 볼 수 있다. 또 빛은 사물에 닿으면 굴절을 한다. 이 굴절하는 빛으로 인해서 열을 발산한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광선이 물체에 부딪칠 때 반사하는 빛을 통해서 보게 되고, 굴절하는 빛을 통해서 파스함을 느낀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다. 아버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다. 옛적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었고 본 사람도 없다. 하나님은 강렬한 불꽃같아서 불에 닿은 하루살이가 살수 없듯이 하나님을 본 피조물은 살수가 없다. 따라서 천사이든 귀신이든 사람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가 없고 다만 반사된 빛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만 볼 수 있고, 굴절된 빛을 통해서 봄벌처럼 파스하게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을 계시라고 말한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을 올바르게 볼 수 있게 하는 가장 확실한

계시이며 반사의 빛이다. 성서는 하나님을 보좌에 앉아 계신 분으로 또 예수를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보석으로 장식되고 높은 곳에 설치된 대리석 의자에 앉아 계신 분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는 다만 하나님의 권세와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의자에 앉아 계실 만큼 작은 분도 아니고 형체를 가진 분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여 주심으로써 당신의 권세와 위엄과 영광을 알게 하신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사되는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고 배우고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은혜주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달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

또 성령은 우리 안에서 봄별처럼 따스하게 내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시는 굴절의 빛이다. 성서는 성령을 ‘호흡,’ ‘생수,’ ‘비둘기,’ ‘불꽃,’ ‘기름,’ ‘도장,’ ‘보증금’ 등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성령이 호흡이거나 생수이거나 비둘기이거나 불꽃이거나 기름이거나 도장이거나 보증금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이들 표현은 단지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오아시스의 물이 갈증을 풀어주듯이 삶의 답답증을 풀어주며, 온유하며, 타오르는 불꽃처럼 정열과 온기를 느끼게 하며, 기름처럼 윤기 나게 하며, 계약서에 도장 찍고 보증금 주어 약정을 맺듯이 신자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증한다는 뜻일 뿐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써 영존하시면서 아들과 영과 함께 혼연일체를 이루신다.

물은 액체로서 변화가 무상하다. 물은 샘물이 되기도 하고, 강물이 되기도 하고, 바닷물이 되기도 한다. 구름이 되기도 하고,

비가 되기도 하고, 서리가 되기도 하고, 안개가 되기도 하고, 수증기가 되기도 한다. 또 물은 유연해서 어떤 형태의 그릇에도 잘 적응한다. 또 물은 동식물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귀중한 자원이다.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마시며 농사짓고 공장 돌리는데 필수적이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은 물처럼 변화무상하시며 제각기 다른 신자의 마음속에 거주하신다. 물처럼 하나님도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명의 근원이다.

물은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두 개의 수소 분자와 한 개의 산소 분자로 구성되어 있다. 수소는 주기율표 1주기 제1번에 속하는 원소이다. 수소는 무색 무취의 가장 가벼운 기체로서 존재하며, 경수소와 중수소로 나뉘어진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물질 세계인 이 자연 세계 속에 존재하고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다. 물이 두 개의 수소 분자와 한 개의 산소 분자로 구성되어 있듯이 하나님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성령은 산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산소 없이 살 수 없듯이 성령 안에서 살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생수 없이 살 수 없듯이 성령 안에서 살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호흡이 끊어지면 죽듯이 성령 안에 살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기름이 끊어지면 기계가 멈추듯이 성령 안에 살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불꽃이 사그러들면 싸늘해지듯이 성령 안에 살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불이 꺼지면 암흑이듯이 성령 안에 살지 않으면 죽은 것이다.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른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생수처럼 삶의 답답증을 풀어주며, 산소처럼 삶의 숨통을 트이게 하며, 기름처럼 톱니바퀴를 돌리며, 불꽃처럼 어둠을 밝히며 따뜻하게 한다.

둘째, 성령은 인성을 지닌 인격자이다. 성령은 여호와 증인

이나 단일신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비인격적인 권능이나 에너지가 아니다. 만일에 성령이 이단자들의 주장대로 비인격적인 권능이나 에너지에 불과하다면 성령은 인간에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다. 인간에게 말씀하실 수도 없고 판단하실 수도 없으며 도와주실 수도 없다.

그러나 성령은 인격자이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사회성을 가지고 계신다. 생각도 하시고 판단도 하시고 느끼기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말씀도 하신다. 성령과 인간은 동일하게 인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느낌을 나눌 수 있고, 교제할 수도 있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

성령이란 단어가 중성명사로 되어 있어서 인성을 생각하는데 다소 부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 같다. 아버지란 말은 그 자체가 인격자로서의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아들이란 말도 역시 ‘사람의 아들,’ ‘아기 예수’ 또는 ‘목수의 아들’이란 별칭과 함께 예수의 인성을 생각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성령은 비둘기, 기름, 바람, 불, 생수, 도장, 또는 선수금이란 말로 표현되고 있어서 비인격적인 권능이나 에너지로 생각되기 쉬운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인성을 지닌 인격자이다.

예수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보혜사’에서 ‘다른’(αλλος)은 ‘다른 종류’가 아닌 ‘같은 종류’의 또 하나를 뜻하기 때문에 ‘다른 보혜사’란 예수와 같은 다른 또 한 분의 인격자를 말한다. 예수는 인격자이다. 그러므로 성령도 인격자이다. 또 ‘보혜사’(παρακλητος)란 ‘다른 사람 곁으로 불려온 사람’을 뜻한다. 누군가를 곁으로 부를 때는 도움을 받자는 데 있고, 초청에 응한 사람은 도움을 주자는 데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혜사는 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볼 때 변호사에 해당되고, 질병에 관련해서 볼 때 의사에 해당되고, 인생문제에 관련해서 볼 때 상담가에 해당

된다. 이들이 인격자들인 것같이 성령도 인격자이시다.

예수께서 성령을 '다른 보혜사'라고 하신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뜻을 내포하고 있다.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는가? 예수는 의사처럼 병든 자들을 고쳐 주셨고, 귀신들린 자들을 고쳐 주셨고, 변호사처럼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변호하셨고, 상담가처럼 수가성 여인의 인생문제를 상담하셨고, 니고데모의 신앙문제를 상담하셨다. 구조대원처럼 광풍 만난 제자들을 구해 주셨고, 예언자처럼 생명의 말씀을 들려 주셨다. 이와 같이 성령도 의사처럼 육신의 병과 영혼의 병을 고쳐 주시며, 변호사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또 상담가처럼 우리가 연약하여 환난과 고통과 죄와 악의 수렁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새 힘과 새 소망을 주신다. 또 예언자처럼 귀 있는 자들이 마땅히 들어야 할 말씀들을 교회들에게 선포하신다. 또 성령은 안내자처럼 믿는 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와 같이 인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고 우리와 교제할 수 있다. 성령은 우리와 같이 지적인 활동, 감성적인 활동, 그리고 의지적인 활동을 하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야 한다.

성령은 하나님이시며 인격자이시다. 성령은 영원하시며,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다. 성령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 까지 우리 곁에 항상 함께 계신다.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신다. 성령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신다. 성령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찾을 때에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신다.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2.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1)

(고린도후서 1장 21-22절)

앞에서 우리는 성령의 신성과 인성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성령은 굴절의 빔처럼 우리 안에 따스하게 내재하시며, 산소처럼 우리 영혼에 귀중한 분이시다. 성령은 의사처럼 영혼의 병을 고쳐 주시며, 변호사처럼 억울함을 도우시며, 상담가처럼 연약함을 도우시며, 교사처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제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성령의 사역에 관해서 살펴보겠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포괄적인 사역과 구체적인 사역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성령의 포괄적인 사역은 우리 구원을 보증하시고 실현시키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통합시키는 일을 말하고, 성령의 구체적인 사역은 죄인의 심령 속에 작용하시는 구원의 사역과 은사로 나타나는 증거적인 사역을 말한다. 여기서는 성령의 포괄적인 사역에 관해서 살펴보고, 다음 글에서 성령의 구체적인 사역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성령께서 하시는 포괄적인 사역 가운데 첫 번째로 중요한 사역은 우리 구원을 보증하시는 일이다.

고린도후서 1장 21-22절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적고 있다. 이 말씀은 성령의 활동에 관한 네 가지 중요한 문구로 되어 있다. 이들 문구들을 차례대로 살펴보겠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셨다’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화목제물 삼으시고 우리와의 관계를 원수된 관계에서 화목된 관계로 바꾸시고 그 관계를 견고케 하셨다는 뜻이다. 여기서 화목제물되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화친을 위해서 준비하신 조공 또는 선

물을 뜻한다. 선물이 원래 제사상에 올린 음식을 뜻했듯이, 화목 제물은 허물 많은 인간이 진노한 신에게 바치는 뇌물이며, 조공이란 원래 힘이 약한 나라가 힘센 나라에 화친을 위해 바치는 선물이듯이 화목제물은 떡값이나 촌지와 같이 뇌물의 성격을 지닌 것이다. 또 국가사이에 맺은 화친을 강제하기 위해서 힘이 약한 나라는 힘센 나라에 왕자를 볼모로 잡히거나 공주를 시집 보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바쳐야 할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로 화목제물을 삼으시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와 화친을 맺으셨고, 또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이 화친을 견고케 하셨던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화친은 우리 약하고 허물 많은 인간들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능력 많은 신 하나님이 솔선해서 자기 외아들을 희생시켜 맺은 화친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인간과 인간 또는 국가와 국가 사이에 맺은 화친보다도 견고한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외아들로 화목제물을 삼으셨을 뿐 아니라, 이제 그 아들을 외아들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사 죄값으로 죽어야 마땅할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롬 8:29; 히 1:6).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이 화친을 더욱 견고케 하셨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뽑으셨다는 뜻이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은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를 뽑을 경우 선지자가 그들의 머리 위에 올리브 기름을 부어 임직했다. 예를 들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은 머리에 기름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으며(삼상 10:1; 16:12; 왕상 1:45), 사독은 기름부음을 받고 제사장이 되었고(대상 29:22), 엘리사는 기름부음을 받고 선지자가 되었다(왕상 19:16). 둘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뽑으시고 그 사실을 성령으

로 도장찍으셨다는 뜻이다. 성경에서 기름부음받은 자들이 모두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것을 본다. 한 예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기름 뿔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와 그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는 말씀이 있다. 셋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사실을 성령으로 보증하셨다는 뜻이다. 신약시대에는 침례가 기름부음의 상징이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은 우리가 침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성령으로 보증하셨다는 뜻이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시고 물위로 올라 오셨을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있었고, 이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재 하셨다. 또 사도행전 19장 5-6절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12명의 초신자에게 침례를 베풀고 안수하였을 때에 성령의 임재와 은사를 체험하고 있다. 이런 전통 속에서 교회는 침례 직후에 기름을 찍어 이마에 바르며 십자가를 그어주고 안수하였다. 이를 교회는 견신례 또는 견진례라 부른다.

셋째, ‘하나님이 우리를 인 치셨다’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와 화친하시고 그 계약서에 성령으로 도장찍으셨다는 뜻이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 치심을 받았다.”고 하였고,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 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다. 1장 13절의 ‘약속의 성령’에서 ‘약속’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구원의 약정서를 말하고, ‘성령’은 그 약정서에 찍힌 인감을 뜻한다.

넷째, ‘하나님이 이 일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말씀이다. ‘보증’이란 말을 헬라어로 ‘아라본’(ἄραβών)이라

고 한다. 이 말은 파피루스에 보존되어 있는 사업계약서에 등장하는 말로써 그 의미는 '계약금' 또는 '선금'을 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외아들 예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약정금으로 주셨다는 뜻이다. 이는 우리 구원이 견고하다는 것을 뜻한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에서 바울은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지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 하시는 포괄적인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 구원을 보증하는 일이다. 성령은 우리 구원의 보증을 예수의 재림 때까지 계속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는 이미 끝난 사역이 있는가하면 아직도 끝나지 아니한 사역이 있다. 이미 끝난 사역은 아들 예수를 통해서 완성시킨 구원사역을 말하며, 아직 끝나지 아니한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시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말한다. 신약성서로 볼 때, 복음서는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사역을 설명하는 책이고,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계속적인 구원사역을 설명하는 책이다. 따라서 교회시대인 현시대는 성령이 활동하는 시대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지속되고 있는 시대이다. 이 지속적인 성령의 구원사역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우리 구원을 예수의 재림 때까지 보증하는 일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포괄적인 사역 가운데 두 번째로 중요한 사역은 이 시대를 매우 독특한 시대로 만드는 일이다.

성령은 우리 구원을 보증하시는 불모가 되시며, 구원계약서에 찍힌 인감이 되시며, 계약 후에 주는 계약금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맛보게 하신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불모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계약금을 바쳐야 할 터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거저 주시기 위해서 외아들을 희생시키셨고, 성령까지 선물로 주시면서 당신의 약속을 확증 하셨다. 이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성령은 우리 구원을 보증하는 볼모가 되시며, 구원계약서에 찍힌 인감이 되시며, 계약 후에 주는 계약금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맛보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는 이 시대는 매우 독특한 시대가 되는 것이다.

주후 30년 오순절날 하나님은 성자 예수 대신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고 성령이 활동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 주셨다. 비록 이 시대는 어둡고 혼란스럽지만, 성령은 믿음의 사람에게 밝고 안정된 미래를 열어 주신다. 비록 이 시대는 절망적이고 불확실하지만, 성령은 믿음의 사람에게 오고 있는 희망의 시대를 열어 주신다. 비록 이 시대는 악하고 고통스럽지만 성령은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당겨다 주신다. 성령은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당겨다 주실 뿐 아니라, 성령은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가신다. 성령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체결된 구원계약서의 도장찍음이 되시며, 보증금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이 시대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임마누엘 시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미리 경험하는 은혜시대로, 하나님의 선민이 되게 하는 교회시대로 만드는 능력이시다.

성령께서 하시는 포괄적인 사역 가운데 세 번째로 중요한 사역은 그리스도인들을 한 몸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시키는 일이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고 적고 있다. 이 말씀은 성령의 활동에 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첫째,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말씀은 성령께서 계층간의 차별을 없애 주신다는 뜻이다. 신분이 높고 낮은 사람, 돈이 많고 적은 사람, 잘나고 못난 사람, 희고 검은 사람, 강하고 약한 사람, 남자나 여자와 같이 우리 각기 다른 사람들을 성령은 한 몸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녹아들게 하는 용광로이다.

성령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에도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주인이나 머슴이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차별이 없다. 로마서 3장 22절과 10장 12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했으며,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선언했다.

둘째,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는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같은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침례 받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편입되었다는 뜻이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공동체 즉 신약시대의 선민 공동체인 교회를 말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인들은 이 몸의 지체들이다. 성령은 이 지체들을 평안의 매는 줄로 하나되게 하신다(엡 4:3). 성령은 이 계약 공동체의 구원을 도장찍어 보증하시고 실현시키신다. 성령은 이 지체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며, 피차 형제자매 되게 하신다.

3.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2)

(로마서 8장 28-30절)

앞에서 우리는 신자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실현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통합시키시는 성령의 포괄적인 사역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성령께서 죄인의 심령 속에 작용하시는 구원의 사역과 은사로 나타나는 증거적인 사역에 관해서 살펴보겠다.

먼저 성령께서 하시는 구원의 사역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성령께서 하시는 구원의 사역은 회심 이전, 회심 중, 회심 이후의 사역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회심 이전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미리 뽑으신 자들을 부르시는 인도자의 일이고, 회심 중의 사역은 부름에 응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의사의 일이고, 회심 이후의 사역은 거듭난 자들을 돌보시는 보혜사의 일이다.

바울은 로마서 28-30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 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 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일, ‘부르신’ 일, ‘의롭다 하신’ 일, ‘영화롭게 하신’ 일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미리 정하신’ 일과 ‘의롭다 하신’ 일은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부르신’ 일과 ‘영화롭게 하신’ 일은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다. 그리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 모든 일의 근거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인해서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자로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우리를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일에 성령께서 깊이 관여하셨고 주도적으로 일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구원사역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여 뽑으신 자들을 부르시는 인도자의 일이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다.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여 뽑으신 자들을 부르신다.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여 뽑으신 자들을 가르치신다.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여 뽑으신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 하신다(요 15:26). 진리의 성령께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여 뽑으신 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요 16:13). 성령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뽑으신 자들을 부르시고 가르치시고 증거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전 12:3). 이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회심 이전의 구원사역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두 번째 구원사역은 죄로 인해서 중병에 걸린 인간을 치유하시며 살리시는 의사의 일이다.

성령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의 영이시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의 영이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신다(롬 8:11). 이 일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의 역할과 성령의 역할을 구분 지어 말할 때에 흔히 하나님을 재판장에, 그리고 성령을 의사에 비교한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인간의 법적 문제와 관련해서 믿는 자에게 무죄를 선포하신다. 이를 우리는 칭의라고 부른다. 그리고 의사이신 성령은 인간의 본질 문제와 관련해서 병들고 찢은 곳을 도려내고 수술하신다. 이를 우리는 성화라고 부른다. 하나님의 칭의 하심은 믿는 자의 죄 문제를 일시적이고 순간적이며 영구적으로 해결해 버린다. 성령의 성화는 죽음에 이르게 하던 죄인의 병을 수술로 치유하신다. 이를 우리는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고 부른다. 중생 또는 거듭남의

사역이 바로 성령께서 죄인 가운데서 행하시는 회심 중의 사역이다.

회심 중의 성령의 사역에 관해서 디도서 3장 5-7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고린도전서 6장 11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하신다. 이 두 곳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중생의 씻음’과 ‘거룩함’과 ‘새롭게 하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이 매우 특별한 분들의 집중적인 관심과 특별한 대접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죄의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을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 주셨고, 무죄를 선언해 주셨고, 물로 씻고 수술해서 거듭나게 하여 주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관해서 말할 때에 믿음을 강조한다. 그러나 믿음과 구원의 관계를 분명히 알지 못한다. 믿음은 구원의 수단이지 능력은 아니다. 구원의 능력은 오직 성령이시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를 편두통이라고 생각해 보자. 편두통은 의사에게 찾아가 진찰을 받고 처방을 받으면 치유될 수 있다. 이 사실을 믿고 어떤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 치료를 받았다. 의사가 처방한 대로 시간에 맞춰서 약을 복용했다. 그러자 편두통이 사라지고 말았다. 여기서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 간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었다. 그러나 병이 치료된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의사가 처방한 약 때문이었다. 환자에게 믿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의사가 처방한대로 물과 함께 약을 먹지 않았다면 그

의 편두통은 사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의사는 성령을 말하고, 물은 침례를 말하며, 약은 성령의 치유 능력을 말한다. 이와 같이 죄로 병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의 활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죄로 병든 인간을 치유하며 살리는 일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세 번째 구원사역은 거듭난 자들을 돌보는 보혜사의 일이다. 이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회심 이후의 구원사역이다.

성령은 우리 영혼의 주치의(主治醫)이시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는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과 “우리로 저(성령)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디도서 3장 7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사역은 우리를 죄의 병으로부터 살려내는데서 끝나지 않는다. 성령은 죄의 병으로부터 살려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 과정을 우리는 점진성화라고 부른다. 이 점진성화의 과정은 마치 죽을병을 수술로 고친 의사가 환자가 완치될 때까지 계속해서 돌보듯 성령께서 거듭난 자들을 천국 문에 이를 때까지 책임지고 끝까지 돌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성령은 우리 모든 신자들의 주치의(family doctor)이다.

성령은 우리 영혼의 변호사이시다. 검사에 해당되는 고소자 마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쉬임없이 우리를 변호하신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 하신다”는 로마서 8장 16절의 말씀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처럼, 회심 이후의 성령의 사역은 변호사처럼 우리를 사탄의 고소로부

터 보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일이다(롬 8:27).

두 번째로 성령께서 하시는 증거적인 사역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의 개인적이며, 내적이며, 보편적이며, 항구적인 구원의 사역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이제 성령의 공적이며, 증거적이며, 제한적이며, 도구적인 사역에 관해서 살펴볼 것이다.

성령의 증거적인 사역에 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란 매우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다.

사도행전 2장 22절: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 하셨느니라.

로마서 15장 18절: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히브리서 2장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의 나눠주신 것으로써 저희와 함께 증거 하셨느니라.

이들 성구들에서, 첫째, ‘권능’(power/δυνάμει)은 기적의 근원 즉 성령의 역사인 큰 능력 행함을 말한다. 둘째, ‘기사’(wonders/τέρασι)는 기적의 결과 즉 성령으로 나타난 큰 능력을 본 사람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결과들, 예를 들면, 놀람, 경악, 기이함 등을 말한다. 셋째, ‘표적’(signs/σημεῖοις)은 기적의 목적 즉 성령의 큰 능력 행함으로 얻어진 확증 또는 입증을 의미한다. 성령의 큰 능력 행함은 바로 이 표적을 위한 것이다.

성령의 큰 능력 행함은 예언자가 전한 하나님의 뜻의 진실성을 입증, 증거, 또는 확증하는 표적이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와 전해지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성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면, 첫째, 모세의 기적은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을 위한 표적들이었고, 엘리야의 기적은 야훼가 참 하나님이심을 입증하는 표적이었다(왕상 17:24). 둘째, 예수께서 행하신 능력들은 그가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표적이었다(행 2:22). 셋째, 사도들의 방언과 능력 행함은 교회 창립과 신약성경의 완성을 위한 표적이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는 말씀과 고린도전서 12장 7절의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처럼 성령의 은사는 공적이며, 증거적이며, 제한적이며, 도구적이며, 봉사를 위한 선물 즉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선물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나타나는 큰 권능 행함을 일컬어 증거적인 사역이라고 말한다.

성령의 증거적인 사역들 가운데 교회 창립과 관련해서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기적이 바로 주후 30년 오순절 아침 9시경에 성전에서 있었던 제자들의 방언 사건이다. 오순절 아침 9시란 시간은 오순절 사건을 바로 이해하는 바로미터(barometer)와 같은 것이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삼대 명절 중의 하나였고, 성전은 전국에 단 한 곳 예루살렘에만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이나 오순절과 같은 명절에 성지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경건한 유대인들의 간절한 희망사항이었다. 따라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국내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외국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개종한 이방인들까지도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매우 혼잡스런 날이다. 더욱이 아침 9시는 모든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다. 유대인들은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정한 시간에 기도를 드린

다. 따라서 오순절 아침 9시 기도시간에 성전 영내는 몰려든 사람들로 무척 비좁았을 것이다. 바로 이 장소에 성령께서 일찍이 배운 일도 없고 남보기에도 시골티가 풍겨나는 제자들에게 세계 여러 나라의 말로 유창하게 말하게 하자 이를 보고 놀란 사람들이 제자들을 에워쌌고 베드로는 이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전파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배우지 아니한 외국어로 말하는 큰 권능을 보고 베드로의 설교를 믿지 않을 수 없었던 사람들의 수가 삼천 명이나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증거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성령은 우리 구원을 위해서 안내자로서 의사로서 변호사로서 도우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적과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신다.

4. 성령은 어떻게 받는가 (갈라디아서 3장 1-5절)

우리는 그 동안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세 번에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성령세례란 무엇이며 어떻게 받는가’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성령세례가 무엇인가에 관한 견해는 사람마다 다소 차이가 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구원사역과 관련해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즉 성령의 동거와 내주를 ‘성령세례’ 또는 ‘성령으로의 세례’라고 말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성령의 증거적 사역과 관련해서 성령의 은사들 체험을 ‘성령세례’ 또는 ‘성령충만’이라고 말한다. 어휘가 어떻게 사용되든 지간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세상 끝날 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성령이 주후 30년 오순절날 이 세상에 임하셨고, 또 이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신령한 은사들(고전 12:11)이 있다는 점이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고,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있는데,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단수로 '선물'(δωρεά)이고, 신령한 은사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수로 '선물들'(χαρίσματα)이란 점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후 30년 오순절 날에 이 세상에 임하신 임마누엘 성령 즉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성령을 성령세례라 부르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신령한 은사들을 성령세례라 부르고 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행 1:4) 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란 무엇을 말한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임마누엘 성령을 말한 것일까, 아니면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들로 주시는 은사들일까?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세 가지이다. 첫째,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들로 주시는 신령한 은사들은 하나님이신 성령이 아니라 성령께서 증거를 위해 행하시는 비인격인 권능이란 점이다. 둘째, 비인격인 성령의 권능은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오순절 이전 예수에게도 있었고, 제자들에게도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셋째, 구약과 신약시대를 구별짓고, 이 시대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임마누엘 시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미리 경험하는 은혜시대로, 하나님의 선민이 되게 하는 교회시대로 만드는 것은 비인격인 성령의 권능이나 은사들이 아니라, 권능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들을 선물들로 주시는 인격자이신 성령이시다 는 점이다.

먼 옛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

에 머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다가 바벨론 제국의 침략을 받아 성전이 욱보이고 파괴된 이후,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에(사 66:1)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행 7:48)고 믿었다. 그리고 이 당시에 활동했던 에스겔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은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겔 36:27) 고 예언했다.

이런 맥락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 선물들로 주시는 은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인격자이신 성령이시며, 그 분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물로 임하실 때를 일컬어 성령세례라고 말하는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성령에 의해서 은사들로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인격인 성령의 은사들을 모신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성전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을 모신 우리는 모두가 신내림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인격자이신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를 근원과 수단으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첫째, 성령으로의 세례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과 함께 값없이 주어진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세례도 사도행전 2장 38절과 갈라디아서 3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의 ‘믿음으로’ 주어진다고 되어 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를 근원으로, 우리의 믿음을 수단으로 이루어진 것 같이 성령세례도 하나님의 은혜를 근원으로, 우리의 믿음을 수단으로 값없이 선물로 이루어진 것이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죄로 인해서 중병에 걸린 인간을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일이다. 따라서 성

령이 빠진 구원은 상상할 수도 없다.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시고 또 이루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성령은 어떨까? 행위로 얻는 것일까? 은혜의 선물일까? 우리에게 구원을 시작하시고 또 이루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면, 구원을 먼저 받고 성령을 나중에 받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성령으로의 세례를 선물로 언급하고 있고, 어떤 일의 보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선물은 성격상 아무 공로 없이 거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세례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는다는 것을 다음의 성구들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요한복음 7장 38-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도행전 11장 16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니라.

우리는 이들 성구들에서 특별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말씀

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가운데서 사도행전 2장 38절은 믿고 침례를 받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의 뜻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그 이유는 첫째, 신령한 ‘은사들’은 헬라어로 ‘카리스마타’(χαρίσματα)라는 복수로 쓰이는 데 반해서, 여기에 사용된 ‘선물’은 헬라어로 ‘도레아’(δωρεά)라는 단수로 쓰였기 때문이다. 둘째, 성령은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은사들은 때때로 불신자들에게도 일시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셋째, ‘성령을 선물로’는 모든 기독교인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약속이지만, 은사들은 일부 성도에게 제한될 뿐 아니라 주어지는 은사들의 종류도 받는 사람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넷째, 교회를 세상과 구별짓는 담은 성령이 선물로 주시는 은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성령이기 때문이다. 다섯째, 교회와 성도는 성령의 은사들이 거주하는 성전이 아니라, 임마누엘 성령이 거주하는 성전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성령은 구원과 함께 선물로 주어진다. 성령세례를 고행스런 기도와 헌금 또는 믿음이외의 것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미 받은 바 성령을 깨닫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가 자전과 공전을 거듭하는 지구에 살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듯이 성령을 모시고 살면서도 성령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고, 성령을 모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신앙인들이 참으로 많다. 구원과 함께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이 귀한 사실이 각박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값진 복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증거적인 사역을 위해서 필요에 따라 신령한 은사들을 나누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고, 14장 1절에서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고 했다.

둘째, 성령으로의 세례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과 함께 주어진다. 신약성서가 27권이나 되고, 사도행전에 실린 설교가 24개나 되지만, ‘성령을 받으라’ 또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권유한 설교가 없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이미 성령을 소유한 자라는 전제하에서 모든 말씀들이 기록되어있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엡 5:18), “성령을 좇아 행하라”(갈 5:16, 25), “성령을 소멸치 말라”(살전 5:19),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엡 4:30)는 말씀들로 되어 있다. 단 한 곳 요한복음 20장 21-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열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는 파송의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은 ‘성령을 받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취임식(離就任式) 때의 이임사(離任辭)와 같은 것으로써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을 대물림한 것과 같이(왕하 2:9), 예수께서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성령의 영감을 대물림하여 사도직을 수행케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2-5절은 분명하게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사실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나, 듣고 믿음으로나?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 . .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나, 듣고 믿음에서나?

이와 같이 죄값으로 사형을 받아 마땅한 우리 대신에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무죄를 선언해 주신 하나님께서 죄의 병으로 죽음에 이른 우리에게 성령까지 선물로 주시고 그로 하여금 우리를 살리게 하셨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다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은혜의 선물로 화목제물로 삼으셨고, 은혜의 선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으며, 이를 보증하고 확증하기 위해서 성령까지 선물로 주셨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5. 성령은 언제 받는가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는 그 동안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성령세례란 무엇이며 어떻게 받는가’를 네 번에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성령세례는 언제 왜 받는가’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인간의 구원은 믿음이나 침례 때문에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삼위 하나님의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아들 예수의 대속의 죽음을 공덕으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을 무죄로 선언해 주신다. 이때 의사이신 성령께서 범죄와 타락으로 죽어가던 우리를 씻기시고 치유하시고 살리신다. 이를 거듭남, 중생, 또는 초기 성화라고 부른다. 우리를 죽음의 위기에서 살리신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진찰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신다. 이를 점진성화라 부른다. 한 마디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시작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면서 변호하시고 상담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증하시면서 구원을 완성하신다.

이렇게 성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구원을 책임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성령과 구원은 결코 무관하지 않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성령 받지 못했다고 할 수 없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구원받지 못했다고 할 수 없다. 구원을 받았으면 성령을 받은 것

이고, 성령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렇다면, 성령세례는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 구원받고 난 후에 이루어지는 것일까? 믿음을 갖자마자 이루어지는 것일까? 아니면, 침례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일까?

첫째, 성령세례는 침례의 때에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다.

로마서 8장 29-30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씀처럼,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믿음과 침례 이전에 이미 결정된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씻고 거룩하게 하는 일은 성령께서 하신다.

그런데 성경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와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갈 3:2,5)는 말씀들이 있다. 이 말씀들에 근거해서 믿음을 갖는 순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성령세례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고,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행 8:16)는 말씀에 근거해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방언과 같은 은사를 체험하게 될 때 성령세례를 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침례를 받기 전에 이미 성령세례를 받았다’(행 10:47)는 사도행전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세례와 구원은 일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와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는 말씀은 구원과 성령세례를 받는 수단이나 통로를 의

미하는 것이지, 구원과 성령세례를 받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의 문제는 수단의 문제와 별도로 생각되어야 한다. 그리고 성령세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며, 방언과 같은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성령세례와 은사는 구별되어야 한다. 성령세례 없이도 방언 할 수 있고, 성령세례 받고도 방언하지 않을 수 있다. 구원받지 않고도 방언 할 수 있고, 구원받고도 방언하지 않을 수 있다. 성령세례와 방언이 반드시 일치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구원과 성령세례는 반드시 일치된다. 구원이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령세례 없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사도행전은 초대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누가는 하나님의 성령세례를 성령의 은사와 크게 구별 없이 겹으로 드러난 사건만을 보도하고 있고, 성령세례의 신학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성령세례를 방언이나 신유와 같은 성령의 은사로 오해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성령세례의 신학적인 의미는 바울 서신에서 발견된다. 바울 서신들은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을 담고 있다. 누가가 쓴 사도행전이 사건을 보도한 역사책이라면, 바울이 쓴 서신들은 사도행전에 실린 사건들을 해석한 신학적인 글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고, 바울 서신을 통해서 그 사건들이 갖는 신학적인 의미를 알 수 있다. 따라서 성령을 통한 교회시대가 시작된 시점을 알려면 사도행전을 읽어야 하지만, 성령세례는 누가 언제 어떻게 왜 받는지를 알려면 바울 서신을 읽어야 한다.

바울 서신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구원과 성령세례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 선물은 만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이루어지고 선물이 주어지는 정확한 시간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응답 속

에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성령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응답에도 깊이 간여하신다. 그러나 이 간여의 때를 일컬어 구원과 성령이 주어진 때라고 보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응답은 믿음과 회개와 신앙고백과 침례로 나타난다. 믿음은 복음의 씨가 발아된 것이고, 회개와 신앙고백은 발아된 싹이 자란 것이고, 침례는 자란 싹이 결실을 낸 것이다. 복음은 씨앗이고, 믿음은 싹이고, 침례는 결실이다. 믿음은 사랑의 싹이고, 회개와 신앙고백은 사랑의 고백이고, 침례는 혼례식이다. 죄인에게 싹튼 믿음의 씨앗이 자라 중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예수의 사랑을 받아드리려 애정을 고백하고 신랑으로 맞이하겠다고 결단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이시다. 그러나 성령은 혼례식을 약정하고 보증하기 위해서 신부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혼례식 이전의 성령의 활동과 혼례식 이후의 성령의 활동을 구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자는 죄인이 아니라, 거듭난 자이다.

옛날 어떤 나라에 왕이 한 분 계셨다. 왕에게 아주 훌륭한 젊은 왕자가 있었다. 어느 날 왕자는 공원을 산책하다가 병들어 고생하는 아가씨를 만나게 되었고 연민의 정을 느꼈고 도와주고 싶었다. 그래서 왕의 주치의(主治醫)를 보내어 가난과 병으로 고생하는 그 아가씨를 돕도록 하였다. 의사는 병든 아가씨를 치료만 하지 않고 왕자와 아가씨 사이를 부지런히 오고 가며 징검다리를 놓았고 둘 사이에 사랑이 무르익어 혼인을 결정하게 되었다. 왕은 이 사실을 알고 흔쾌히 혼인을 허락하였고 의사로 하여금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였다. 왕은 외아들의 혼인식을 성대하게 치러 주었고 결혼 선물로 신부에게 그들을 도왔던 의사를 하사했다. 그 때부터 의사는 신부의 건강체크는 물론 모든 일을 도와 왕자와 행복하게 살도록 배려를 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꾸며낸 것이지만, 의사가 혼인 전에 왕자와 아가씨 사이

를 오가며 다리를 놓은 일과 혼인 후 신부의 결혼 선물로써 신부를 돕는 일이 다르듯이, 성령께서 회심이전과 회심 중과 회심 이후에 하시는 일과 성격이 다르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는 에베소서 2장 8-10절 말씀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는 골로새서 2장 11-13절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침례 가운데서,’ ‘선한 일을 위하여’ 이루어진다고 가르친다. 이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과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나 듣고 믿음에서나.”는 갈라디아서 3장 2-5절의 말씀도 성령세례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의 ‘믿음으로,’ ‘침례 가운데서,’ ‘성화’를 위해서 주어진다고 가르친다. 이로 보건대, 구원의 바탕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수단은 믿음이고, 시간은 침례요, 목적은 선행이다. 성령세례 또한 그 바탕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수단이 믿음이고, 시간이 침례요, 목적이 성화이다.

성령세례는 침례의 때에 구원과 함께 주어진다. 요한복음 3장 5절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 4장 5절은 세례는 하나라고 말하고 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우리가 . . .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다”고 적고 있다. 여기서 한 몸이란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말한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자격은 침례 받은 자이다. 그런데 바울은 이 침례 받은 자를 일컬어 “한 성령으로 세례 받은 자 또 한 성령을 마신 자”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침례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디도서 3장 5절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좇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다.

둘째, 성령세례는 거룩한 삶과 성화의 삶을 목적으로 구원과 함께 주어진다.

앞에서도 설명한바와 같이 성경은 구원의 목적을 선한 일에 두고 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고 하였고, 고린도후서 5장 18절은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하였다. 그밖에도 마태복음 5장 9절은 화평케 하는 자의 받을 복을 언급하였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롬 14:19)을 말씀하셨고, 우리의 지체를 순종의 종(롬 6:18), 하나님께 종(롬 6:22),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롬 6:19)고 하셨으며,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엡 4:24)고 권면하셨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다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가시는 일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다 주시는 일을 ‘의롭다 하심,’ ‘칭의’ 또는 ‘현재구원’이라고 부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가시는 일을 ‘성화’ 또는 ‘미래구원’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다 주시는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가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여 가게 하시는 목적은 우리 인간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일을 성령께서 도와서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며, 화평의 일을 하며, 덕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고 갈라디아서 5장 22-26절에서 말씀하셨다.

기독교 구원의 특징은 임마누엘에 있다. 따라서 구원받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이 시점을 믿음의 때로 보든지 또는 침례의 때로 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것은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이다.

6. 성령충만이란 무엇인가

(에베소서 5장 18-21절)

우리는 그 동안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성령세례란 무엇이며 어떻게 받는가,’ ‘성령세례는 언제 왜 받는가’를 다섯 번에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성령 충만’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성령 충만은 신앙 성숙하고 다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값없이 구원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점에 있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별,

연령, 신분, 빈부, 열심에 관계없이 공평하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나 성결이나 신앙 성숙의 성취 정도는 사람마다 제 각기 다르다. 또 성령 충만은 성령세례하고도 다르고, 신앙 성숙하고도 다르다.

바울 서신을 보면,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엡 4:13) 이른 사람이 있는가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고전 3:1; 엡 4:14)와 같은 사람도 있고, “영에 속한 사람”(고전 2:15; 3:1)이 있는가하면, “육에 속한 사람”(고전 2:14; 3:3)이 있고, “주께 합당이”(골 1:10)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사람을 따라”(고전 3:3) 행하는 사람도 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른 사람,’ ‘영에 속한 사람,’ 그리고 ‘주께 합당히 행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보다는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말한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육에 속한 사람,’ 그리고 ‘사람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기보다는 신앙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을 말한다.

신약성경을 보면, 빌립보교회가 신앙적으로 성숙한 교회였고, 고린도교회가 미성숙한 교회였던 것을 알 수 있다. 빌립보서 1장 3-5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고 칭찬한 반면,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라고 책망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영에 속한 자’도 있고, ‘육신

에 속한 자'도 있고, '젖을 먹는 사람'도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란 사람'도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써 얼마나 성장했느냐가 곧바로 성령 충만의 정도를 결정짓는 것은 아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성령 충만한 경우가 적지 않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 신앙 성숙은 오래 믿을수록 성경을 많이 배울수록 점진적으로 자라 갈 수 있지만, 성령 충만은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적지 않다. 그 이유는, 첫째, 성숙이 점진적인데 비해서 충만은 일시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성숙은 성장과 일치하고, 충만은 건강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는 미성숙할지라도 건강할 수 있고, 노인은 성숙할지라도 병약할 수 있듯이, 동일한 은혜로 값없이 구원과 성령으로 세례 받고 선민이 된 사람들 가운데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신앙은 미성숙하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고, 어른과 같이 신앙은 성숙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신앙 연륜이 짧은 사람이 긴 사람보다, 성경 지식이 짧은 사람이 많은 사람보다, 많이 배운 사람보다 덜 배운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보다 어린 사람이, 높은 직급의 사람보다 낮은 직급의 사람이 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를 평가하는 잣대가 아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를 평가하는 저울이 아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를 평가하는 시험대가 아니다. 성령 충만은 큰 권능의 은사를 받았느냐 하찮은 은사를 받았느냐를 평가하는 척도가 아니다. 성령의 은사를 더 많이 받았거나 더 유용한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다. 예수의 달란트 비유 가운데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받은 사람,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의 차이는 은사의 차이이지 충만의 차이는 아니다. 은사의 크기가 충만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성령 충만의 정도는 성령과 얼마큼의 친분을 갖고 있으나, 성령과 얼마나 자주 교제하며, 순종하며, 기쁘시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꽃꽂이용 스펀지가 물을 충분히 머금고 있는가의 문제는 스펀지의 모양과 크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듯이, 성령 충만도 은사의 크기나 종류에 있지 아니하며, 성경 지식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며,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 결정되지 아니하고, 얼마나 자주 성령의 음성에 귀기울이며 순종하는가에 달려 있다. 모닥불이 충분히 잘 타고 있는가의 문제는 불을 지피는 나무의 종류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듯이, 성령 충만도 사람의 배우이나 소유나 신앙 연륜에 따라 결정되지 아니하고, 얼마큼 성령의 뜻을 따라 사는가에 달려 있다. 컴퓨터를 얼마나 잘 다루는가의 문제는 컴퓨터의 종류나 기종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듯이, 성령 충만도 사람의 능력이나 지능에 따라 결정되지 아니하고, 성령을 얼마큼 깊이 알고 사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와 같이 성별, 연령, 신분, 빈부, 열심에 관계없이 어떤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언하며’(눅 1:67), ‘성령에게 이끌리며’(눅 4:1),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며’(행 2:4),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행 4:31), ‘칭찬을 들으며’(행 6:3), ‘환상’(행 7:55)을 보는가 하면, 한편 다른 사람은 ‘성령을 소멸하며’(살전 5:19) ‘성령을 근심하게’(엡 4:30) 한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8-21절에서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하였던 것이다.

둘째, 성령 충만은 성령세례와 다르다.

성령세례와 성령 충만이 몇 가지 다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세례 받다(βαπτισθήτω)’라는 말은 계속적인 동작의 뜻이 없

다. 그러나 동사 ‘충만 하라(πληροῦθε)’는 말은 계속적인 뜻이 담겨 있다.

성령세례는 명령이 아닌 반면, 충만은 명령이다.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성령에 의해서 가득 채워져라’는 뜻이다. 꽃꽂이용 스펀지가 물에 충분히 젖어 있어 꽃의 수명을 연장하듯이, 충전용 배터리가 전력이 충만하여 힘차게 기계를 돌리듯이 성령의 생수와 능력으로 충만 하라는 뜻이다.

성령세례는 경험이 한번으로 끝나지만, 성령 충만은 경험이 반복된다. 출생은 한번뿐이지만, 생일은 반복되는 것처럼, 성령은 구원과 함께 침례의 때에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받지만, 성령 충만의 체험은 반복된다. 중생의 거듭남은 단 한 번의 경험이지만, 거듭남의 기쁨은 반복해서 경험될 수 있고, 성령세례는 한번으로 지속되지만, 성령 충만은 반복된다. 성령 충만은 마치 온돌방에 불을 넣듯이, 관상용 화분에 물을 주듯이, 배터리를 충전하듯이 성령 충만의 경험은 언제나 반복된다. 우리가 성령을 다시 받을 필요는 없지만 성령 충만은 반복해서 받아야 한다. 말라비틀어진 스펀지처럼 메마른 영혼이 되면 안 된다. 전력이 소모된 축전지처럼 능력 없는 영혼이 되면 안 된다. 시들어 가는 초목처럼 목마른 영혼이 되면 안 된다. 냉랭한 온돌방처럼 차가운 영혼이 되면 안 된다.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불을 반복해서 지펴야 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생수가 반복해서 넘쳐흐르게 해야 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반복해서 힘껏 발휘되게 해야 한다.

셋째,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대로 성령을 소멸치 않는 것이다. 우리는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한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은 방문을 열어 놓아 온기를 빼는 것과 같다. 물 꼭지를

열어 놓아 식수를 흘리는 것과 같다. 자동차의 미등을 켜놓아 배터리를 방전시키는 것과 같다. 우리 가슴에 냉기가 돌게 해서 는 안 된다. 우리 가슴을 메마르게 해서 는 안 된다. 우리 자신이 방전된 배터리처럼 힘없는 인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성령의 불 을 지펴 식어진 가슴을 데워야 한다. 메마른 가슴에 성령의 생 수를 채워 시원하게 해야 한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전하여 힘차 게 살아가야 한다.

두 번째,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근 심시키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약정하시고 성령으로 도장찍어 보증하 신다. 이렇게 성령이 우리 구원을 이루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4 장 30절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 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 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신다. 이는 성 령의 인도하심을 거역하지 말라는 것이다. 성령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도우시며(롬 8:26),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 여 친히 간구하시며(롬 8:27), 우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의 뜻을 따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말을 지어 주신 다(롬 8:28). 우리가 성령의 이와 같은 일들을 거절할 때, 우리의 구원은 점차 멀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성령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성을 가진 성 령에게 효도하고, 우리는 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말씀 에 순종해야 한다.

세 번째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좇아 행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령을 좇아 행해야 한다. 갈라디아서 5장 16-23 절은 우리가 성령을 좇아 행하면, 성령을 거슬리는 육체의 욕심 을 극복할 수 있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된다고 하였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 과 시기와 분 념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 함과 방탕함”과 같은 육체의 욕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

어가는 것을 가로막지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였다. 사람은 성령의 도움으로 구원의 길에 접어들게 되고,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게 된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라도 구원에 도달할 자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좇아 행해야 한다.

성령세례는 영구적이지만, 성령 충만은 거둬서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치 먼길을 자동차로 여행하는 것과 같다.

제7장 십자가와 신앙

1. 십자가와 예수
2. 십자가와 하나님
3. 십자가와 그리스도인
4. 십자가와 삶의 방식

제7장 십자가와 신앙

1. 십자가와 예수 (마가복음 15장 1-47절)

앞에서 ‘창조주와 신앙,’ ‘구원과 신앙,’ ‘교회와 신앙,’ ‘고난과 신앙,’ 그리고 ‘성령과 신앙’에 관한 주제로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십자가와 신앙’이란 주제로 ‘십자가와 예수,’ ‘십자가와 하나님,’ ‘십자가와 그리스도인,’ 그리고 ‘십자가와 삶의 방식’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먼저 ‘십자가와 예수’에 관해서 살펴보겠다. 십자가는 중죄인을 처벌하는 사형 틀이다. 고대 페니키아인들이 처음 십자가를 형틀로 사용한 이래 이 방법은 여러 나라에 수출되어 예수 때에는 아주 보편적인 처벌방법이 되었다. 죄인의 몸을 십자가 틀에 묶고 손과 발에 큰못을 박아 매다는 이 처형법은 너무 잔인해서 로마인들은 노예나 흉악범인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래 전 유대인들은 헬라제국이나 로마제국의 압제 하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독립전쟁을 일으켰다. 따라서 많은 유대인들이 반란죄 및 내란음모죄로 체포되어 십자가에 처형당하곤 했다. 예수께서도 부패한 성전의 지도자들에 대항해서 성전을 정

화시켜 보려고 하셨지만, 결국에는 성전 모독죄 및 반란죄로 대제사장 가야바에 의해서 정죄되고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언도 받게 되었다.

그러면 죄인들은 어떤 식으로 십자가에 처형되었을까? 1968년 예루살렘의 기밋트 하미브타르 발굴에서 1세기경의 무덤이 발견되었다. 이 무덤의 유골함 속에는 요한난 벤하콜이라는 20대 남자의 유골이 들어있었다. 이 유골 중에는 매우 굵고 커다란 쇠못이 박혀있는 발뒤꿈치 뼈도 있었다. 발뒤꿈치 뼈에 대장장이가 불에 달궜서 망치로 두들겨 만든 굵고 기다란 쇠못이 박혀있었다. 이 못에 붙은 나뭇조각들을 살펴본 결과 못이 나무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못의 뒤끝이 안쪽으로 구부러져 있었고, 십자가 자체는 올리브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다. 그리고 못은 죄수의 발등이 아니라, 발뒤꿈치 옆 복사뼈 밑에 박혀 있었으며, 아카시아 나뭇조각이 죄수의 발을 받치고 있었다.

유골함 속에는 부러진 정강이뼈도 있었다. 이 뼈는 죄수가 십자가에 처형된 후에 살아 있는 죄수를 절명시키기 위해서 큰 나무망치로 쳐서 부러뜨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발견된 손과 손목뼈에서는 손바닥이 아닌 손목 위 두 개의 팔뼈 사이에 큰못을 친 흔적이 발견되었다. 이는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의 체중을 지탱시키기 위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참고로 2천년 전에 시행됐던 십자가 처형식을 재구성해보겠다. 우선 죄수가 십자가형의 언도를 받으면, 상의를 벗긴 채 나무 기둥의 허리부분에 양손이 묶인다. 그러면 죄수의 몸은 기억자 모양이 되고 죄수의 벗은 등이 하늘을 향하게 된다. 그 등을 향해서 로마군인이 날카로운 동물의 뼈나 철조각이 달린 채찍으로 기진 할 때까지 때린다. 죄수의 몸에 채찍이 닿을 때마다 피가 튀기고 살점이 도려내 진다. 이토록 체벌을 받은 후에 죄수는 십자가의 가름대를 어깨에 짊어지고 형장을 향해 걷는다. 형장에 도착하면, 죄수가 짊어지고 온 가름대를 기둥에 맞춘다. 그

리고 땅에 눕혀진 십자가 위에 죄수를 눕힌다. 죄수의 두 발은 세로 기둥의 받침대에 올려지고 차렷자세 모양으로 두 발을 모은다. 이 때의 몸은 바로 눕힌 상태가 아니라 가로로 눕힌 상태가 된다. 죄수의 두 발이 세로 기둥에 나란히 모아진 상태에서 복사뼈 바로 밑에다 대못을 박는다. 굵고 울퉁불퉁한 대못은 두 발의 복사뼈를 관통한 다음 나무에 깊이 박히게 된다. 그리고 나서 죄수의 상체를 비틀어서 바로 눕힌다. 다음에는 끈으로 양 팔 목을 가름대에 묶고 양손의 손목뼈 사이에 못을 박는다. 이렇게 한 다음 십자가를 세워 고정시킨다. 상체가 뒤틀린 상태로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은 대단한 통증을 느끼지만 그렇다고 쉽게 죽지는 않는다. 낮에는 뜨거운 땀과 밤에는 추위를 견뎌야 하고, 때로는 날짐승의 공격을 받으며, 고통 중에서 서서히 죽게 내버려둔다. 그러나 죄수를 급히 죽어야 할 경우에는 큰 나무망치로 정강이뼈를 쳐서 부러뜨린다.

그러면 왜 이와 같이 잔인하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예수께서 못 박히셨을까?

첫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타락한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의 질투 때문이었다. 유월절 식사 후에 체포된 예수에게는 신성모독죄, 성전모독죄,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한 국가 반란죄 등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예수를 재판한 빌라도 총독은 예수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 만일 예수에게 죄가 있었다면, 그것은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인과 세리와 같은 주변부 민중의 친구가 되며,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돌본 죄뿐이었다. 또 예수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정치인들처럼 율법의 문자적 해석이나 구전법에 얽매이기보다는 율법의 정신에 따라 생활하셨다. 법 이전에 사랑을 실천하셨다. 안식일 법을 어길지라도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억울한 죽음이었다.

둘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코자 하신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죽음이었다. 그분의 죽음은 인류의 죄값으로 인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류를 대신해서 죽은 고귀한 죽음이었다. 이 사실이 그분의 부활로써 입증되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다. 이 사실이 성령의 오심으로 밝혀졌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죄짐을 감당케 하시고 인간을 구원과 생명으로 선택하신 은혜의 사건에 나타났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죄인인 우리 인간이 못 박혀야 할 그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힌 ‘사람의 아들’인 동시에 모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에게 구원과 축복과 생명을 예정하셨고, 자기 자신에게는 십자가의 저주와 죽음을 예정하셨다. 저주와 죽음을 당해야 할 인간에게 축복과 생명을 예정하셨고, 자기 자신에게는 인간이 당해야 할 저주와 죽음을 예정하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의 몫을 자기가 취하는 대신에 자기의 몫 곧 축복과 생명을 인간에게 주기로 결정하셨다. 이것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은혜이다.

셋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코자 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려고 예수께서 스스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다.

누가복음 9장 5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 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세 번씩이나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 당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예언하셨다.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출세와 성공의 장소로 생각

했던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예수는 죽음을 결심 하셨다. 예수는 성공한 갈릴리 지역과 그를 환영하고 인정해준 민중을 떠나서 그를 죽이려하는 정치인들과 종교인들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인류의 구원을 희망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 민중의 뜻은 예수께서 왕이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예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는 것이었다. 제자들의 마음은 궁전에 있었고, 민중의 마음은 해방에 있었지만, 예수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의 실현에 있었다. 제자들은 보이는 예루살렘에 삶의 목표를 세웠고, 개인의 출세와 성공 그리고 명예와 권력에다 목표를 세웠지만, 예수는 보이지 아니하는 참 예루살렘에 삶의 목표를 세웠고, 개인의 성공과 출세보다는 소외당하고 고통 당하는 민중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며, 이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실현에다 목표를 두었다.

이렇게 예수께서 큰 뜻을 품고 온 몸으로 희생하셨을 때에 수치와 죽음의 십자가는 변하여 축복과 생명의 십자가가 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삶을 찾고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 것은 이 천년 전 예수께서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지 아니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이다. 진실로 예수는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아니하시고, 섬기러 오셨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던 것이다.

2. 십자가와 하나님

(로마서 3장 23-26절)

앞에서 ‘십자가와 신앙’이란 주제로 ‘십자가와 예수’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십자가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

앞에서 우리는 예수께서 수치와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들을 첫째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의 미움, 둘째 인류를 구원코자 하신 하나님의 뜻, 셋째 하나님의 뜻을 실현코자 하신 예수의 뜻에서 찾아보았다.

여기서는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코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왜 하필 십자가에 나타났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왜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게 하셨을까? 외아들의 희생이 없이는 인류를 구원하실 수 없었던 것일까?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말씀만으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아들로 하여금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하지 않았을까?

로마서 3장 26절을 보면,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다.”라는 말씀이 적혀 있다. 이 말씀 중에서 ‘자기도 의로우시고’와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신다’라는 구절은 좀 전에 품었던 의문점을 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이유가 ‘자기도 의로우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신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신다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인 공의와 사랑을 모두 만족시키고자 하신 하나님의 전지 하신 지혜에서 나온 절묘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살펴보겠다.

첫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엄하게 심판하셨던 것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시다. 하나님은 속임수가 없고 편견이 없으시다. 신명기 32장 4절에 “그

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 무망하신 하나님이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라고 적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정의는 죄를 용납치 않는다.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죄값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은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을 요구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진실한 분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죄를 처벌하셔야 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의 방법을 택했고, 대속의 가능성을 지닌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받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의롭게 되실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신앙인들은 십자가가 죄인을 위해서만 필요했던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실제로 십자가는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가 죄인에게만 필요했던 것은 아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본질을 위해서도 필요했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도 의롭게 하였고, 예수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셨던 것이다.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죽어야 했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실 수 있는 가라는 이중 해결의 방법이 요구되었던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십자가는 단순히 죄 문제의 해결책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속성과 결부된 심각한 선택이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국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었다.

둘째,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던 것이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은 또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다. 하나님은 불같은 공의의 속성에도 불구하고 죄 많은 인간을 벌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외아들로 대신 죽게 하셨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의 값을 외아들로 하여금 대신 받게 하셨다. 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사랑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누구도 멸망 받기를 원치 않는다(벧후 3:9; 딤후 2:4).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만족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은 만족되지 못한다. 이런 곤경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도 의로우시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도 의롭다 하실 최선책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리고 예수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희생양이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이 큰 일을 하실 수 있었다. 인간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화목제물은 죄 없고 흠이 없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써는 아무도 그 조건에 도달할 자가 없었다. 따라서 하나님은 온전한 신성을 지닌 온전한 인간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코자 하셨으며, 그 대안으로 외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예수는 완벽한 하나님으로써 이 세상에 보내어져 완벽한 사람으로 사셨다. 하나님은 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셨다.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었다. 베드로전서 2장 42절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했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고 했다.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했고,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다.

예수는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과 동등한 위치에서 인류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그가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의미는 그가 우리의 형벌을 친히 대신 받으셨다는 의미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켜 놓으셨다.

예수는 우리 대신 친히 그 무서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다. 그분은 우리 때문에 저주아래 놓여지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돌이켜 놓으셨으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 대신 목숨 바쳐 행하셨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었다. 또한 성도라 부름을 입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형벌을 받음으로서 우리도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형벌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은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사그라졌다. 그리고 우리는 용서함을 받았다. 우리의 죄는 단순히 씻어지거나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형벌을 당하심으로써 용서되어진 것이다.

이 큰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다.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 것이며,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요 3:16).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의로움이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짊어지신 죄의 대가가 그분의 것이 아닌 것과 같다(고후 5:21).

이 큰 축복이 우리에게만 거저 주어진 선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거저가 아니다. 하나님은 값없이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값으로 정할 수 없는 엄청난 희생을 외아들을 통해서 치러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길을 열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죽게 하였고, 우리 죄를 사하셨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은 누워 떡 먹기 식의 값싸고 쉬운 것이 아니라, 의롭고 정의

로우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보혈의 대가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우리가 간구한 죄사함이 응답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형벌이 치러졌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형벌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것이다.

3. 십자가와 그리스도인 (누가복음 9장 23절)

앞에서 ‘십자가와 신앙’이란 주제로 ‘십자가와 하나님’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십자가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

십자가는 본래 수치와 고난과 죽음의 표지이다. 그러나 이 시련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십자가, 은총의 십자가, 혹은 승리의 십자가로 바뀌게 된다.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희롱을 당하시고 살점을 떼어내는 날카로운 채찍을 맞으신 후에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음의 장소 끌고다까지 힘겹게 올라가셨다. 그리고 그 곳에서 대못에 박혀 십자가에 처형 당하셨다. 그런데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은 한결같이 이러한 십자가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회피하지 말고 잘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면, 누구든지 예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고 있다.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감당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각자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감당하라는 것이다.

복음서 저자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라고 권한 이유가 무엇일까?

첫째, 믿음을 버리는 배교의 위협 때문이다. 초대교회는 박해

로 인해서 몹시 위태로운 지경에 있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실로 수치와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섬길 수가 없었다. 예수신앙 그 자체가 많은 사람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날카로운 채찍과 몽둥이로 심한 매를 맞게 되고, 사나운 짐승의 사냥거리가 되기도 하고, 십자가에 처형되기도 하는 무서운 형벌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저버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교회들에게 “처음행위를 가지라”(2:5), “죽도록 충성하라”(2:10), “회개하라”(2:16)고 경고하고 있다. 이 말은 배교 행위에서 돌이키라는 뜻이다. 또 “굳게 잡으라”(2:25),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3:3), “네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3:11), “네가 열심을 내라”(3:19)는 말씀들로 권면하고 있는데, 이 점이 복음서 기자들이 자기 십자가를 강조한 한가지 이유일 것이다.

둘째, 십자가를 진 후에는 반드시 승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당하신 후에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모든 사람의 주로서 높임을 받으셨다. 그 분은 장차 만 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며,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서 8장 17-18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침례 또는 세례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합하여 물 속에 자신의 죄로 물든 과거를 묻어 버리고,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영광의 삶,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합하여 날

마다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박는”(갈 5:24) 사람들이며,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박차고 부활하신 것처럼, 십자가를 짐 같은 고생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이 지는 수치와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는 은총과 구원과 승리와 영광의 십자가로 부활하게 된다. 이런 믿음 때문에 복음서 저자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였다. 끝까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 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2:7),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2:1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주겠다”(2:17), “새벽별을 주리라”(2:28), “이기는 자는 . . .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 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3:5),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3:12),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3:21)는 계시록의 말씀들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복음서 저자들이 이 ‘자기 십자가’를 강조하는 방법은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요한은 예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에 “자기의 십자가”(19:17)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공관복음서 기자들은 특별히 성도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짊어져야 할 “자기 십자가”(마 16:24; 막 8:34; 눅 9:23)를 강조하고 있는 데, 누가는 여기에 “날마다”라는 낱말을 덧붙여 쓰고 있고, 마가는 초대교회 성도의 한 사람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 당시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진 일을 언급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복음서 기자들이 강조했던 십자가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억지로라도 짊어져야 할 자기의 십자가였다.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끌고

다로 향하여 가신 것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언덕으로 올라간 것처럼, 예수신앙 자체가 죽음을 의미했던 당시의 신자들에게 복음서 기자들은 과감하게 이 수치와 죽음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짊어지도록 예수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하고 있다.

복음서의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다. 첫째, 신앙생활 자체가 감당하기 힘든 자기 십자가 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것을 신앙의 자기 십자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신앙을 저버릴 수 없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이요 승리의 지도자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결국 이기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하며, 신앙의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짊어져야 한다.

둘째, 사람에게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육체적인 자기 십자가가 있다. 삶 자체가 십자가이다. 생로병사가 고난의 십자가이다. 가난한 것, 많이 배우지 못한 것, 인물이 잘나지 못한 것, 질병을 앓고 있는 것, 똑똑하지 못한 것도 자기 십자가일 수 있다. 이런 십자가를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한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인 사도 바울은 신앙의 십자가와 자기 열등감의 십자가를 가장 잘 짊어진 사람이다. 바울은 예수신앙을 위해서 옥에도 많이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 유대인들에게 39대의 곤장을 다섯 번 이상이나 맞았고, 태장을 세 번 이상 맞고, 세 번 이상 파선 당하여 물귀신이 될 뻔했고, 주리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으며 살다가 결국에는 사형을 당하여 죽었다(고후 11:23-27). 그러나 그는 그의 생애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딤후 4:7) 승리의 삶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바울은 자신이 “사탄의 사자” 또는 “육체의 가시”라고 말한 신체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바울은 외모에도 불품이 없었다. 작

은 체구, 맞닿은 양미간, 매부리 코, 대머리에 흰 다리를 가진 사람이었다. 바울은 말주변도 없었다. 이런 외적인 것들이 갈라디아교회와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정도였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약점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애에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기독교를 바울의 종교라고 말할 정도로 로마제국의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그의 선교에 의해서 뿌리를 내렸고 열매를 맺었으며 중국에는 전 로마제국을 복음화하고 말았다.

복음서 기자들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눅 9:23)는 제자 직에 관한 이 말씀을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고백과 예수의 수난 예고 다음에 배치하고 있다. 이는 참 제자의 길에 대한 설명을 위한 의도된 배치일 것이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 . .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만에”(막 8:31) 다시 살아나신 것과 마찬가지로 신앙을 고백하고 주의 가신 길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제자들은 예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진 후에 라야 예수처럼 승리하게 될 것을 가르친 것이다. 바울의 말씀과 같이 시련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우리의 꿈을 이루게 될 줄로 믿는다(롬 5:3-4).

4. 십자가의 삶의 방식

(고린도후서 5장 17-21절)

앞에서 ‘십자가와 신앙’이란 주제로 ‘십자가와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십자가와 삶의 방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다.

우리 인간들이 발전시킨 모든 학문이나 종교는 인간의 문제와 그 원인을 규명하고 또 해답을 찾는 일에 관련되어 있

다고 본다. 해답을 찾는 방법과 출발점은 비록 다르지만 그 모든 것들이 도달하려고 하는 목표는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목표는 인간의 행복한 삶에 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길, 참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 일과 관련된다.

우리가 열거할 수 있는 모든 학문의 분야, 즉 인문, 사회, 정치, 경제, 문화, 과학, 모든 분야가 인간의 복된 삶을 약속하는 유토피아 건설과 관련된다고 본다. 분야는 다르지만 종교가 추구하는 역할도 이와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불교에서는 삶 자체를 고통이라고 해서 인생팔고(人生八苦)와 백팔번뇌(百八煩惱)를 말한다. 4고(四苦), 즉 생(生)·노(老)·병(病)·사(死)에, 사랑하는 자와 이별하는 고통인 애별리고(愛別離苦), 원수와 만나는 고통인 원증회고(怨憎會苦),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고통인 구불득고(求不得苦), 그리고 오온(五蘊), 즉 나를 구성하고 있는 색(色/육체)·수(受)·상(想)·행(行)·식(識)의 다섯 가지 요소가 너무 치성(熾盛)한 고통인 오온성고(五蘊盛苦) 즉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고통을 더하여 8고라고 한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불교가 추구하는 구원일 것이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사람의 온갖 고통과 번뇌의 원인을 욕심과 집착에서 찾는다.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괴롭고, 삼라현상은 인연으로 모였을 뿐, 헛된 것이며, 만유는 그 실체가 없으므로 무상한 것이요, 온갖 것이 다 헛되어 실재가 없으므로 나와 나의 소유가 없는 이치를 터득하여 욕심을 버릴 때 인간은 비로소 구원된다고 본다.

유교에서는 인간의 고통의 원인을 인간의 일곱 가지 감정에서 찾는다. 이를 칠정이라고 하는 데, 칠정이란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과 수치와 더러움과 욕심을 말한다. 이 칠정을 억제하고 불쌍하고 가련히 여기는 측은지심, 자기의 옳지 못함을 부끄럽게 여기고 남의 잘못을 미워하는

수오지심, 사양할 줄 아는 사양지심, 그리고 옳고 그른 것을 가리는 시비지심을 가질 때 인간은 비로소 인간답게 된다는 사단을 말한다.

공자(孔子)는 어느 날 제자인 자로(子路)가 곁에 있는 줄도 모르고 배고프다는 말을 문득 함으로써 평생을 후회했다고 한다. 도학자(道學子) 김굉필(金宏弼)이 어머니에게 드리고자 정성 들여 말린 굴비를 고양이가 물고 달아나는 것을 보고 곁에 제자인 조광조(趙光祖)가 있는 줄을 깜박 잊고 화를 내며 고양이를 꾸짖었다. 그 때 조광조(趙光祖)는 성색을 드러낸 스승의 잘못을 직언 했고 김굉필(金宏弼)도 제자에게 그것을 사과하고 있다. 이처럼 유교에서는 배고프다는 기본적인 인간 본능이나 희비애노(喜悲哀怒) 같은 기본적인 인간의 성색마저도 드러내지 않는 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었다. 인간의 본능이나 욕망이나 성색을 자신의 정신적 역량으로 억제하거나 조절할 수 없는 미숙한 인간에게 그것을 규제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교육인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른 것이 없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의 고통과 고난의 원인을 죄에서 찾는다. 죄의 원인을 관계의 단절 또는 불편에서 찾는다.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고, 인간과 인간이 단절되고, 인간과 자연이 단절될 때 최악이 발생된다고 성서는 말한다. 그 반대로 하나님과 인간이, 인간과 인간이, 인간과 자연이 결속하고 연대할 때 구원의 축복이 있다고 말한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연대하고 이웃과 연대하고 자연과 연대하는 관계개선, 관계회복, 또는 해원상생(解冤相生)에서 오는 축복을 두고 말한다. 그러나 이 축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확립된 나라에서 누리게 될 미래적인 것이기에 기독교의 선교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혹은 우리의 삶

속에 앞당겨 끌어오는 운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미래에 나타날 정의와 평화의 나라를 말한다. 그러나 이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미 이 지상에 세워졌고, 불완전하고 미완성이긴 하지만 점차 그 완성을 향해서 한 거름씩 전진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교회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된 삶을 미리 맛보고 체험하고 누리는 신앙 공동체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침례 또는 세례의 때에 신앙인의 삶 속에 시작되었고, 체험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그 완성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다.

인간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파기함으로서 수치감과 소외감과, 불안과 초조와 죄의식을 경험하게 된다. 또 아담과 이브는 서로 책임을 회피함으로서 서로 불화와 반목하게 된다. 또 자연은 인간들에게 그들의 수탈의 결과로 생명나무 보다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냄으로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는 불편하게 발전된다. 따라서 성서가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불화와 반목으로 인한 수치와 소외(疏外)와 거리감(疏遠) 즉 관계의 단절을 말한다. 이를 성서는 “원수”된 관계라고 말하고 있고, 그 반대의 개념인 구원을 “화목”된 관계라고 말한다. 죄는 또한 원수된 관계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죄악들을 말하고, 구원은 화목된 관계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축복과 즐거움을 말한다. 여러 가지 축복이라 함은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진실, 온유, 절제, 보호, 나눔과 같은 것을 말하고, 여러 가지 죄악이라 함은 우상 숭배, 마술, 음행, 추행, 방탕, 원수 맺는 것, 싸움,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당파심, 질투, 술주정, 사치와 낭비, 착취, 파괴, 훼손과 같은 것이라고 성서는 말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침례 또는 세례서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약속관계를 맺게되고, 부부는 결혼서약을 통해서 계약관계를 맺게

되고, 자연인으로서 모든 인류는 사회계약을 통해서 인간관계, 국가사회와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를 맺게 된다. 따라서 모든 관계는 신뢰와 책임과 약속의 지킴 속에서 이루어진다. 그렇지 못했을 때에 불행이 찾아온다. 침례 또는 세례서약이 깨지고, 혼인서약이 깨지고, 사회계약도 깨지면 인간사회는 건잡을 수 없이 미쳐 돌게 된다. 오늘의 왜곡된 현상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그러므로 성서는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신뢰성과 책임성의 회복 즉 관계성의 회복에서 찾고 있고, 또 제시하고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회복, 이웃과의 관계회복, 자연과의 관계회복은 우리 인간들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하나님은 이들 삼각관계의 회복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십자가의 자기부정과 희생의 정신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 하셨다.

십자가의 정신은 좁게는 나 자신과 가정의 행복과 넓게는 이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독교적인 방법을 말한다. 성서는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상태를 원수된 관계라 말하고, 구원받은 인간의 상태를 화목된 관계라고 말한다. 이 원수된 관계를 화목된 관계로 전환시키신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십자가의 방법이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범죄로 인한 진노를 푸시고 원수된 죄인들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하나 밖에 없는 아들로 친히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화목제물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신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 인간이 마련한 희생제물을 뜻하지만, 성서가 말하는 화목제물은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벌하기보다는 오히려 먼저 화해의 길을 모색하는 자기부정과 희생의 정신을 말한다. 이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의 평화, 가정의 평화, 공동체의 평화, 더 나가서는 모든 인류가 더불어 함께 사는 지구촌의 평화를 앞당겨 올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미

리 맛보며 누릴 수 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후 5:17-20).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과 병들어 신음하는 자연만물과의 사이에서 이 십자가의 정신 또는 아가페적인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디딤돌이 되고 빛과 소금이 되는 맡겨진 화목의 직책을 잘 수행해 나갈 때, 하나님이 피조물 안에, 피조물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임마누엘의 현실, 즉 하나님이 죽고 없는 것 같은 이 악한 세상에, 하나님이 계신 현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 뒤집혀진 세상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현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정의의 나라, 의와 평강이 하수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앞당겨 올 수 있으리라 믿는다.

사람들은 자기 감정의 표출로서 묶은 자가 풀어야 한다는 뜻의 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그러나 이 말은 원한을 풀고 더불어 함께 살아야 한다는 해원상생(解怨相生)이나 하나님의 삶의 방법인 화목제물에 철저하게 대립되는 용어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는 삶의 자세는 자기 낮춤과 자기 비움의 행위였다. 그분은 우리 인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 주기까지 희생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길을 보여 주셨다. 이러한 삶의 방식이 우리 모두의 거듭되는 훈련과 노력으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현실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세계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정의의 나라이다. 성서는 이 나라가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약속하고 있지만, 이 약속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상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비로소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된다. 그리고 믿음의 소유자는 몹시 불완전한 모습이긴 하지만 자신의 마음과 가정과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 인간은 죄성으로 가득한 육체를 소유하고 살기 때문에 쉽게 성숙한 단계에 이르지 못한다.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날마다

죄성을 죽이고 영성을 살려 가는 노력하는 사람과 가정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는 가깝게 다가온다. 신학자 몰트만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십자가와 부활 속에 드러나 있고 또 약속되어 있는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이기 때문에, 이 세계 속에 “이미 주어져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자신을 언제나 새롭게 변화시키고 변혁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과 변혁의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약속된 미래의 축복은 하루하루의 성실한 삶을 통해서 언제나 미리 맛보아 지고 체험되어 져야 할 것이다. 예수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아야 한다.”고 말씀 하셨다. 이와 같이 자기를 비우고 날마다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행실을 따라가는 것이 행복한 삶의 고귀한 방법이라고 믿는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가르쳐 주신 행복한 삶의 방식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의 방식이다. 이 삶의 방식이 바로 성서가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가는 삶의 방식이며, 하나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삶의 방식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주는 것이다.

제8장 대중문화와 신앙

1. 대중문화와 그리스도인
2. 대중문화의 정신
3. 대중문화의 극복
4. 대중문화와 미래사회
5. 대중문화의 세계관

제8장 대중문화와 신앙

1. 대중문화와 그리스도인 (마태복음 5장 13-16절)

사막 한 복판에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그 나무 밑에는 샘물이 솟고 있었다. 뜨거운 사막 한 복판에 있는 그 샘물은 말 그대로 생명수였다.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나무 아래에 와서 쉬면서 샘물로 목을 축이곤 했다. 그런데 그 샘물은 돈을 받고 샘물을 파는 임자가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일찍 샘터를 돌아보던 주인은 그 커다란 나무가 물을 흠뻑 머금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것이 이슬인 줄 모르는 주인은 생각했다. ‘만약 나무를 없애 버린다면, 나무가 머금고 있는 물도 모두 샘에 고일 것이고 그러면 장사도 그만큼 잘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인은 나무를 베어 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주인의 생각과는 달리 그 샘물은 며칠 지나지 않아 말라 버리고 말았다. 햇볕을 가려 주고 모래바람을 막아 주던 나무가 없어진 샘에서 물이 솟을 까닭이 없었다. 더 많은 물과 더 많은 돈을 욕심 냈던 것이 결국 모두를 잃게 하고 만 것이다.

오늘의 대중문화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이것이 사막 같은 인간의 삶 속에서 그들이 되고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을 제거해 버린 대중문화의 현주소가 아닐까?

인간은 동물과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다. 인간에게는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사회성이 있다. 짐승이라고 해서 지능이 없거나 감정이 없거나 의지가 없거나 사회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다른 동물에게는 인간에게 있는 이성이나 지성의 산물인 학문이나 과학의 발전이 없고, 감성의 산물인 고차원의 종교나 예술의 표현이 없다. 이성에 통제된 또는 절제된 의지도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인간의 사회활동의 산물인 독특한 문화도 기대하기 어렵다.

많은 동물들은 선천적으로 사회성을 갖고 있다. 나면서부터 소속 공동체의 사회환경에 예속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자라고, 그 속에서 배우고, 그 속에서 일하고, 그 속에서 죽는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 살면서 그들 나름의 질서와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에게는 문화라는 것이 없다. 오직 인간만이 문화를 형성하고 문화 속에서 살아간다.

문화에는 배움과 축적과 전승의 세 가지 특징이 있다. 모든 문화는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진행이 된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문화를 배우고, 배운 것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것을 가미하여 축적하고, 축적한 것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다. 이와 같은 과정은 다른 동물에서도 어느 정도 발전이 된다. 그러나 타고난 본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결과를 문화라고 하지는 않는다. 창조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독특한 지성과 감성과 의지, 특히 문화를 창조하고, 또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회성은 하나님께서 오직 인간에게만 주신 선물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선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에게도 동물적인 본능이 동전의 다른 면처럼 자리를 잡고 있다. 그렇다고 동물적인 본능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본능은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선물이고, 생명력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는 이 본능을 통제할 수 있는 이성이 있다는 점인데, 이성조차도

올바른 교양을 쌓지 못하면 오히려 저질 문화, 타락문화를 양성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불후의 명작인 ‘최후의 만찬’을 제작하면서 많은 고심을 했다. ‘최후의 만찬’에 나오는 예수와 가롯 유다의 모델을 어디에서 구할 것인가?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예수의 모델로 피에트로 반디네리라는 한 성가대원을 발견해 작품을 시작했다. 피에트로는 예수의 모델이 된 후, 로마로 음악 공부를 하러가서 나쁜 친구의 꼬임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한편 예수의 모델을 구해 작품 완성에 큰 성과를 보았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마지막 단계에 들어 장벽에 부딪혔다. 예수를 배반한 가롯 유다의 얼굴을 좀처럼 발견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중 다빈치는 마침내 모델을 발견했다. 그런데 그 모델은 다름 아닌 예수의 모델이 되었던 피에트로였다. 같은 인간이면서도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예수도 되고 유다도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도 교양의 정도에 따라서 짐승 같은 인간이 될 수도 있고 천사 같은 인간이 될 수도 있다. 이성이란 선천적인 인간본질의 덕성이기보다는 후천적인 교육에 의해서 교육된다고 볼 때, 18세기에 시작된 자연신론과 계몽주의, 19세기의 진화론, 20세기의 실용주의 철학과 세속인문주의가 주도한 대중문화와 학교교육은 실로 오늘의 문화를 저질문화로 이끌어온 맥이오 정신이었던 것이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들 정신이 지난 200여 년을 주도해온 교육계의 정신이다.

신상언의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라는 책의 내용을 빌리지 않더라도, 대중문화의 타락상이나 그 위력에 대해서는 대부분 감지하고 있는 줄 안다. “사탄이 대중문화 속에 죽음의 메시지를 집어넣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어둠의 세계로 몰아간다”는 증거는 도처에 깔려 있다. 록음악 속에도 있고, 음란소설이나 만화 속에도 있고, 영화와 비디오 테이프 속에도 있

다.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오락물을 비롯해서 구석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향락문화 속에 타락을 재촉하는 메시지들이 넘쳐나게 담겨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신상언의 책을 읽어보기 바란다.

여기서의 주제는 타락문화의 내용을 소개하는데 있지 아니하고, 이런 대중문화를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적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동지로 보아야 할 것인가? 구제 불가능한 환자로 보아야 할 것인가, 치료 가능한 환자로 보아야 할 것인가? 물 속에 사는 물고기가 물을 느끼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기운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없는 대중문화 과연 구원의 대상인가, 소돔과 고모라성처럼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할 대상인가?

문화신학자 폴 틸리히(Paul Tillich)는 “종교는 문화의 실체요, 문화는 종교의 표현양식” 이라고 말했다. 우리 문화 역시 종교의 표현양식을 빌어 축적되어 왔고, 무교와 불교 그리고 유교가 우리 문화의 실체를 이루고 있다. 우리 문화는 무교문화 위에 불교와 유교문화가 오랜 역사적 과정 속에서 습득되고 축적되어 전승된 혼합문화를 이루고 있다. 이 문화적 텃밭에 이미 200여 년 전부터 기독교의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가꾸어져 왔다. 그런데 이 복음의 씨가 성장은 쑥쑥 잘되고 있는데, 알곡보다는 쭉정이가 많아 결실이 많지 않다. 오랜 역사 속에서 축적된 전통 문화 위에서 기독교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독특한 기독교문화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역사가 짧아서인지, 아니면 복음이 왜곡 되어 전달되어서 인지는 몰라도 우리 나라에는 아직도 이렇다할 기독교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다. 기독교의 복음이 한국의 문화 속에 깊숙이 침투되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기독교인 인구는 많아도 기독교 문화, 기독교 정신, 기독교 복음이 사회 속에 침투되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기독교인들이 기복신앙이나 물량주의에 치우쳐 복음

의 깊은 뜻과 정신을 습득하지 못하고 이를 또 축적시키지 못하고 전달하지 못한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현주소이다.

문화신학자인 리처드 니버(Richard Niebuhr)는 “하나님은 문화를 초월한 존재이시나 문화를 자기와 인간 상호관계의 매개체로 사용하고 계신 분”으로 이해했다. 이 말은 창조신앙의 맥락에서 이해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신앙인들은 세속문화의 어두운 부분을 밝은 빛으로 이끌어내고, 혼돈된 부분을 바로 잡아 주고, 죽어 있거나 죽어 가는 부분을 삶의 부분으로 또는 생명으로 이끌어 내는 즉 그것을 정죄하기 보다는 창조적으로 변혁시켜 가는 주역들이 되어야 한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재창조의 정신이 강조될 때이다. 하나님은 혼돈과 흑암에 쌓인 세계를 빛과 질서의 세계로 창조하셨고, 멀지 않은 장래에 현재의 타락한 세계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우리 죽을 목숨도, 죄로 인해서 타락해 버린 우리의 몸도, 새롭고 영화로운 몸으로 덧입혀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타락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셨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추하고 더러운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의 삶의 방식은 버리거나 정죄하거나 징계하거나 멸하는 방식이 아니라, 언제나 새롭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고치게 하시는 창조적 삶의 방식이다.

니버는 『그리스도와 문화』라는 저술에서 문화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문화에 대한 부정적이고 배타적인 태도이다. 세속문화를 기독교의 적으로 생각하는 태도이다. 둘째, 서구문화를 기독교문화와 동일시하는 태도이다. 서구문화를 기독교문화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은 자연법을 통하여 문화를 창달하고 발전시켜 간다는 유토피아적인 태도이다. 넷째, 기독교와 문화를 대립 또는 긴장관계로 보는 태도이다. 다섯째, 복음으로 문화를

변혁시켜야 한다는 태도이다.

문화에 대한 이런 다양한 입장과 태도 가운데 가장 성서적인 태도가 무엇일까? 아마도 다섯 번째인 복음으로 문화를 변혁시켜 나가야 한다는 태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은, 그것이 비록 현재는 타락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징계하거나 멸망시키지 않고, 새롭게 고쳐 나가기를 원하신다. 흑암을 빛으로, 혼돈을 질서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나가기를 원하신다. 타락을 회복으로, 죄를 용서로, 멸망을 구원으로 바꾸어 놓기를 원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태도에서 볼 때, 비록 세상문화가 타락문화라 할지라도, 이를 적대적인 감정으로 보거나, 기독교문화로 착각하거나, 대립관계로 보기보다는 부패된 곳에 소금을 뿌려주고, 음침한 곳에 빛을 비추어 줌으로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로 잡아가는 자세가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일 것이다. 세속문화를 정죄하기 보다는 창조적으로 변혁시켜 가는 재창조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될 때이다. 복음의 씨란 결국 대중문화가 됐던 타락문화가 됐던 문화라는 텃밭에 뿌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적이 될 수도 그렇다고 동반자도 될 수 없는 것이다.

2. 대중문화의 정신

(데모데전서 4장 7-11절)

신상언이 쓴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라는 책을 보면, 대중문화가 현대인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주는 해악들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고 있다. “사탄이 대중문화 속에 죽음의 메시지를 집어넣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어둠의 세계로 몰아간다”는 것이다. 대중문화가 갖는 사탄적 요소들과 ‘잠재의식 메시

지'의 강렬함 때문에, 젊은이들 뿐아니라, 성인들까지도 천체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중문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용주의와 배금주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보다 외설적이며 신성모독적이고 반인륜적이며 비윤리적인 내용들을 서슴지 않고 예술이란 이름으로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돈을 쓰게 만들고 세속화를 주도해 간다. 전통과 권위와 가치와 진리를 왜곡시키고 짓밟아 버린다. 이런 허황된 문화에 집착하는 현대인들의 병리현상을 다음의 비유는 잘 묘사해 주고 있다.

정신과 의사에게 어떤 부인이 찾아왔다. 그런데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발작을 하면서 기물을 파괴하고 혈기를 부렸다. 간호사 두 사람을 불러서 가까스로 진정을 시킨 후에 진료를 시작하려던 의사는 환자가 오른 손 주먹을 꼭 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손을 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펴 수가 없어서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손가락을 하나 둘 펴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새끼손가락을 펴니까 딸그랑 하고 밑에 떨어지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퍼렇게 녹이 쓴 십 원 짜리 동전이었다.

그 환자는 자기 존재를 십 원 짜리 동전과 동일시했던 것이다. 십 원 짜리 동전을 잃어버리면 자기 존재가 전부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누가 와서 자기를 칼로 찌르고 그 동전을 빼앗아가지 않을까 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나날을 보냈던 것이다. 따라서 그녀는 동전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아 동전을 움켜쥐고 살았던 것이다.

현대인들을 이와 같이 파멸로 몰고 가는 정신이 무엇일까? 현대인들의 왜곡된 삶의 뿌리는 무엇일까? 잘못된 문화와 가치관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는 것일까? 우리를 잘못된 것에 집착하게 만들고 거기에 말려들게 하여 결국에는 파멸로 몰고 가는 위력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이번에는 대중문화의 뿌리를 찾아보도록 하겠다.

18세기경부터 영국에서는 자연신론이, 독일에서는 계몽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부터 사람들은 신앙보다는 이성을, 성경보다는 과학을 중시하는 합리주의를 시대사조로 삼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계시와 기적과 같은 초자연적인 요소들을 부정하기 시작하였다. 그대신 인간의 이성을 떠받들기 시작했다.

17세기말에 영국의 존 로크(1632-1704)는 인간을 환경의 산물로 보았고, 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완성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구세주의 필요성을 인정치 않았다. 성서가 주장하는 계시와 기적과 교리들을 믿지 않았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 것과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자연의 법칙으로 주셨다고 믿었지만, 이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한다고 믿지는 않았다. 이렇게 해서 존 로크는 창조주 하나님을 우주의 한 모퉁이에 가두어 버렸던 것이다.

미국의 제 2대 대통령 존 아담스,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작성한 제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제 4대 대통령 제임스 매디슨, 벤자민 프랭클린과 같은 사람들이 존 로크에 영향을 받은 자연신론자들이었다. 특히 토마스 제퍼슨은 성서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미신이라고 주장하였다.

계몽주의자들도 그리스도의 신성과 성경의 영감, 동정녀 탄생, 부활, 그리고 초자연적인 행위들을 미신으로 단정하였다.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이성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자신을 구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런 계몽주의를 “인간의 능력을 만능으로 믿는 신앙에 기초한 체계다.”라고 비판하였다.

영국의 자연신론이나 독일의 계몽주의는 한마디로 ‘하나님 없이 살라’는 메시지를 큰 목소리로 전하고 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당신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가르침은 성서의 가르침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다. 성서는 ‘인간은 죄인이

다,’ ‘인간은 피조물이다,’ ‘인간은 부족하다,’ ‘인간은 헛되다.’ 고 가르친다. 그렇다고 성서가 ‘인간은 무능하다,’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고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성서는 오히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한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았다고 말한다.

자연신론이나 계몽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는 인간을 높이 평가한다는 데 있지 않다. 인간을 높이 평가했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자연신론이나 계몽주의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종교의 왜곡된 가르침을 깨우치는 역할도 했다. 인간을 여러 가지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역할도 했다. 문제는 이들이 인간이 누구인가를 왜곡시켰다는 점에 있다. 피조물인 인간에게, 죄인인 인간에게, 부족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뱀의 속삭임으로 인간을 속였다는 점에 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하였으며, 바벨탑을 쌓게 하였던 것이다.

자연신론은 하나님 없는 역사를 강조하였다. 계몽주의는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으니, 인간은 홀로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9세기에는 자연신론과 계몽주의 위에 진화론이 더해졌다. 헤겔의 변증법적인 철학의 기초 위에서 쓰여진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은 하나님의 창조능력과 형상에 따라 지음 받은 고귀한 인간을 하나님 없는 동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하는 고독한 짐승으로, 죽음을 숙명으로 알고 살아가야 하는 거대한 인간 조직의 톱니바퀴 정도로 인간을 전락시키고 말았다. 인간사회를 동물사회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다윈의 진화론은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을 위한 폭력과 억압과 착취를 정당화시켰고, 하나님의 창조능력과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인간을 유물론적이고 기계론적이며, 숙명론적이고 인과론적인 동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

19세기에는 또 무신론이 더해졌다. 포이에르바히는 종교를 인간의 자기분열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고, 또 자기가 만든 신에게 스스로

지배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종교폐기론을 내세웠다. 칼 마르크스는 종교를 피압박 인민의 한숨이며, 무정한 세계의 감정이며, 영혼 없는 환경세계의 영혼이며, 인민의 아편이라고 격렬하게 비판하였다. 니체는 인간이 신 없이 죽음에 이르는 자유 속에서 자기의 운명을 사랑하고 극복해야 하는 '초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프로이드는 종교란 원시시대 인류의 오디푸스 콤플렉스와 관련된 강박관념의 신경증세이며 소원성취 욕망의 객관적 투영이라고 주장했다.

20세기에는 세속인문주의가 더해졌다.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무시하고 인과율만을 인정하는 합리주의와 실용주의는 20세기에 접어들면서 교육철학자인 존 듀이를 중심으로 세속인문주의를 탄생시켰다. 이들은 신과 종교에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이들 세속인문주의자들의 사상은 그들이 1933년과 1973년에 각각 발표한 인문주의자 성명서(Humanist Manifesto)에 매우 잘 요약되어 있다. 이 성명서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우주는 창조된 것이 아니며 자존한다.
2.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진화에 의해서 발생되었다.
3. 영혼은 육체와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4. 인간은 하나님 위에 있다. “계시, 하나님, 의식, 신조를 인간의 욕구나 경험 위에 놓는 전통적인 교조 또는 관료적인 종교들은 인종에게 해를 끼친다.”
5.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초월자를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도 없고, 의미도 없으며, 인류의 생존이나 성취 문제도 관련이 없다.”
6. 어떠한 神도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많지만, 인간들은 현재와 미래의 존재상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어떠한 신도 우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7. 지옥이나 천국은 없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약속이나 영원

한 저주에 대한 두려움은 모두 착각이며 해로운 것이다.”

8. 사후의 삶은 없다. “삶이 육체의 죽음 후에도 살아 남는다는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

9. 이성과 지성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이성과 지성은 인류가 소유한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다. 대용물은 없다. 믿음도 열정도 충분치 않다.”

10. “性분야에 있어서 정통 종교나 청교도 문화에 의해서 형성된 규제적인 태도는 성행위를 지나치게 억압한다고 믿는다.... 착취적이고 불명예스런 성적표현 형태를 인정하지 않지만, 피차 동의한 성인들의 성행위가 법이나 사회여론에 의해서 금지되지 않기를 원한다. 다양하고 많은 성개발 자체를 악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남에게 해가 되지 않거나 강요당한 것이 아니라면, 개개인은 그들의 성욕을 표현하며, 그들이 원하는 삶의 스타일을 추구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야 한다.”

11. 인공유산 시킬 권리는 인정되어야 한다.

12. 이혼할 권리는 인정되어야 한다.

13. 안락사로 품위 있게 죽을 개인의 권리는 인정되어야 한다.

14. 유전공학, 시험관 아기와 같은 과학연구는 윤리, 정치, 사회적 배경으로 인해서 비난받아서 안 된다.

이와 같이 세속인문주의자들은 인간의 이성을 지나치게 맹신 또는 과신하고 있으며,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이들의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성서에 나타난 신앙인들의 것과는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음을 금방 알아 차렸을 것이다.

인간이 추구하는 진정한 행복이 과연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대답은 ‘아니오’이다.

사슴은 언제나 자기 머리 위에 나 있는 뿔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러나 가늘고 홀쭉한 다리는 늘 불만이었다. 어느 날 사슴

은 샘에서 물을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사자가 나타나 사슴에게로 달려들었다. 사슴은 눈치를 채고 얼른 도망쳤다. 사슴은 탁 트인 초원을 달리기에 아주 훌륭한 다리 덕분에 쉽게 사자를 따돌릴 수 있었다. 그러나 수풀에 이르자 뿔이 나뭇가지에 걸렸다. 아무리 애를 써도 사슴은 따라오는 사자를 피할 수 없어 결국 사자에게 잡히고 말았다. 사자에게 잡힌 사슴은 눈물을 흘리며 힘없이 말했다. “아, 내게 큰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던 다리는 나를 살려 주었는데,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뿔이 나를 죽이는구나.”

그렇다. 인간은 죽음과 같은 극한 상황의 문턱에 이르러서 큰 쓸모 없다고 생각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을 아쉬워하며,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이성의 뿔 때문에 죽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들, 이를테면, 청소년 비행, 가정불화, 배금주의 또는 황금만능사상, 성공주의 또는 한탕주의, 비도덕성, 비윤리성과 같은 모든 문제들이 잘못된 학교교육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18세기 이후 학교교육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 지배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져 왔다. 인간은 진화된 고등동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가르쳐 왔다. 이런 정신적 바탕 위에서 축적된 문화가 오늘날의 대중문화이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대중문화와 세속적인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올바른 가치관, 올바른 세계관, 올바른 역사관을 가져야 할 때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놓고 고민하지 않으면 안될 때이다.

이번에 살펴 본 것은 대중문화의 정신이었다. 오늘의 대중문화가 모두 나쁘다거나 또 인간화 혹은 인간해방의 차원에서 모두 역기능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다. 대중문화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동전의 양면처럼 언제나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함께 작용한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속문

화가 미치지 아니하는 깊은 산 속에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등불을 켜들고 자신의 생활 주변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일일 것이다. 태양처럼 밝은 빛이 비추일 때는 작은 등불이 필요 없다. 그러나 태양이 없는 어두운 밤에는 곳곳에 많은 등불이 필요하다. 한 두 개의 등불로는 많은 지역에 빛을 줄 수가 없다. 어둠을 비추는 기독교인들의 등불이 많아질 때, 이 땅위에 진정한 기독교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줄로 믿는다.

3. 대중문화의 극복

(골로새서 2장 1-10절)

한 청년이 사랑에 빠졌다. 그런데 상대가 된 처녀는 아름답기는 해도 아주 표독스럽고 잔인한 취미가 있는 여자였다. 처녀는 청년에게 나를 사랑한다면, 그 증거로 당신 어머니의 심장을 가져다 달라고 말했다. 사랑에 눈이 먼 청년은 망설이긴 했지만, 결국 어머니에게서 심장을 빼앗았다. 그는 심장을 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처녀를 만나기 위해 달려갔다. 달려가다가 그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심장이 그의 손에서 빠져 나와 데굴데굴 굴러갔다. 그렇게 굴러가면서 어머니의 심장은 말했다. “아야, 어디 다치지는 않았느냐?”

대중문화를 사랑한 나머지 삶에서 하나님을 제거하라는 대중문화의 잔인한 청을 거절 못하는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과 이런 인간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인용해 보았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도시화로 인해서 세속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신학자 하비 콕스는 1965년에 출간한 『세속도시』에서 이미 이렇게 될 것을 예견하였다. 기술과 학과 정보통신의 발달, 확실한 근본 원리로부터 출발해서 바르

고 참된 진리를 찾기보다는 오히려 낱알의 정황에서 출발하여 근본 원리를 부정하려드는 귀납적 추리와 합리적인 분석 사고, 권위에 도전하는 반권위, 전통을 무시하는 반전통, 종교사상이나 진리의 다원화, 가치관의 다중화(多重化), 주체적 사고 등의 분위기 속에서 현대인들은 시간을 다투는 기동성,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익명성, 결과만 좋으면 과정을 따지지 않는 실용성, 하나님을 거침없이 모독하는 불경성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 현대인들은 경박한 합리주의와 이성주의에 사로잡혀 생명의 근원을 외면하고 있다. 향락과 욕망충족에 사로잡혀 정신세계가 황폐화되고 있다. 인과율의 법칙에 간혀 신앙의 신비현상을 미신으로 간주해 버린다. 그러나 분석심리학자 융은 신앙에 대한 이러한 무관심과 경시현상이 과학기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정신적 질병을 낳게 한다고 경고한다. 자연의 모든 현상을 기계론적인 인과율의 자연법칙으로만 설명하려 할 때, 인간의 정신세계는 깊이의 차원을 상실하게 된다. 내면의 정신세계는 공허하게 된다. 그리고 그 빈 공간 속을 배금주의, 향락주의, 기술만능주의로 채우게 된다. 그 결과 현대인들은 돈과 향락과 과학과 같은 강한 힘들의 노예가 되고 만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신학자 폴 틸리히는 현대인들이 물량적이고 피상적인 삶만을 추구함으로써 삶의 의미와 목적과 깊이의 차원을 상실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인간은 삶의 편리함을 위해서 도구를 만들고, 각종 오락기구와 물질을 만들어 내지만, 중국에는 그 자신이 그 도구와 물질의 노예가 되어 버리는가 하면, 그 도구와 물질에 의해서 자신의 몸을 망치는 일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남용과 방종으로 인한 질병, 산업재해, 교통사고와 같은 굵직굵직한 사건 사고들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경험하고 있다. 다른 한편, 현대인들은 여가활용의 발달로 인해서 잠시도 자신을 위해서 명상하거나 성찰하는 일이 없이 하루하루를 쫓기듯이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정신없는 생활 속에서 많은 현대인들이 내면적인 문제에 직면할 뿐아니라, 복잡하고 거대한 구조와 조직, 매우 기계적이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인 생활 방식,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그 돌파구를 사이비 종교나 유사 종교 등에서 찾고 있다. 일본인들은 음교에서, 남미인들은 인민사원교에서, 미국과 유럽인들은 데이빗교에서, 우리 나라 사람들은 오대양교, 승리제단, 통일교, 천부교와 같은 사이비 종교들에서 찾고 있다. 또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뉴 에이지(New Age) 운동, UFO현상, 신나찌운동, 히피운동, 헤비메탈 록뮤직과 같은 많은 형태의 종교현상들에서 자신들의 삶의 의미와 존재가치를 찾으려고 한다. 또 다른 한편의 현대인들은 비단 종교현상들에서만 뿐만 아니라, 증산도, 대순진리회, 요가수행, 태견, 철학, 문학, 또는 각종 예술을 통한 심신의 수련에서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기도 한다.

하비 콕스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종교적 세계관의 붕괴와 ‘종교가 없는 시대’를 예견하였다. 세속화의 진척에 따라서 현대 사회와 문화는 종교의 지배와 폐쇄적인 신학이나 철학적 세계관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며, 폐쇄적인 세계관과 초자연적인 신화와 거룩한 상징들은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그러나 그는 기술과학이 인간을 억압하는 엄청난 부조리에 대해서 언급하지 못했다. 기술문명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이 처할 정신적 인격적 억압을 무시해버렸다.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실업, 절인, 교통체증, 만성피로, 스트레스, 각종 산재(産災), 교통사고, 가치관의 혼란, 소외감과 불안감, 배금주의, 비인간화, 인간의 상품화와 부품화, 청소년 범죄, 가정파괴, 각종 폭행과 살인과 같은 사회문제를 간과해버렸다. 그 어느 때보다도 현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사실을 망각했다. 내면 문제에 직면한 현대인들에게 자아상실을 극복하고 성숙한 인간으로 사는 신앙화의 길을 제시하지 못했다.

영국의 카톨릭 문화사학자인 크리스토퍼 도오슨(Christopher Dawson)은 현대인이 문명의 위기에서 극복하는 길은 현대문명의 상실된 영역인 영적인 체험, 종교적인 신념, 영적인 환상, 그리고 높은 차원의 윤리적인 가치들을 재발견하고 회복시킬 때 가능할 수 있다고 피력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은 과학기술주의가 인간을 궁극적으로 해방 또는 구원할 것이라는 거짓된 인본주의적 메시아주의에 빠져서는 안될 것이다.

과학기술이 인간을 구원할 것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다. 과학기술이 인간을 구원하게 될 것이라는 인본주의적 메시아주의는 “이 우주 어느 구석에도 하나님은 없다. 우주는 우연히 생성된 진화의 산물이다. 인간은 가장 잘 진화된 동물이다. 영의 세계나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해야 한다. 또 구원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거짓이다. 인간은 결코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인간이 발전시킨 과학기술 가운데 의학을 예로 들어보겠다. 인간의 의학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가? 인간의 의학은, 의료사고가 빈번하고 아직도 충분히 발전되지 못한 분야가 많기는 하지만, 각종 질병에 대하여 그 원인과 치료방법을 찾아내어 병을 고친다. 또 생명을 연장시켜 준다. 이것이 인간의 의학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다고 이 의학이 인간을 구원시켜 주는가? 아니다. 의학으로서는 사람이 죽는 것을 결코 막지 못한다. 이것이 의학의 한계이다. 의학이 인간의 정신적 영적인 문제를 고칠 수 있는가? 아니다. 사람의 병 가운데 75 퍼센트 이상이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즉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의학계의 보고가 있다. 마음의 병은 인간의 과학기술로 치료되지 않는다.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이 온다고 해서 병 없는 세상이 오지 않는다. 잘 먹고 잘 사는 곳일수록 병원이 더욱 많고 약국이 더욱 많다. 결코 과학기술이 인간을 궁극적으로 해방시키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음의 몇 가지 과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한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첫째, 현대사회와 같이 관점이 다원화되고, 가치가 다중화되고, 신앙이 다중화되는 사회에서는 올바른 '가치관의 선택'이 우리 믿는 신앙인들의 과제이다. 전통적인 가치관이 도전을 받으면서 신세대의 특징인 다양한 가치관이 등장하고 있다. 해가 거듭될수록 옳고 그릇된 가치를 분별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신앙인들은 성서와 창조주 하나님 신앙에 바탕을 둔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야 하겠고, 하나님 없는 대중문화에 끌려 가서는 안되겠다. 유교에서는 시비지심(是非之心)이라고 해서 옳고 그릇된 것을 알고 행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했다. 값어치가 있고 없는 것, 중요하고 중요치 않은 것, 옳은 것과 옳지 못한 것을 구별하는 능력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신앙과 성서를 읽고 묵상하는데서 비롯된다. 성서를 많이 읽도록 하자.

둘째, 고도로 과학기술이 발달되고, 정보, 통신, 교통이 극대화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그늘진 곳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잘 산다는 미국에도 걸인이 많다. 특히 백악관 주변에서 많은 걸인들을 볼 수 있다. 일본에도 걸인이 많다. 이른 아침 도시 곳곳에서 길거리에 누어 자는 걸인들을 볼 수 있다. GNP 만불 시대에 접어든 우리 나라에서도 이른 아침 기차역 대합실에서 수많은 걸인들을 볼 수 있다. 이 분들이 모두 집이 없거나 가족이 없어서 걸인의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 역광장에서 나누어주는 사발면 한 그릇으로 허기를 메우는 수많은 노인들이 오갈 곳이 없는 집 없는 분들이 아니다. 시설에 수용된 상당수의 원아들이 그들을 부양할 부모나 친척이 없어 집을 떠나 사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모두 오늘의 이 사회가 만들어 낸 상처들이다. 이런 인간상실의 사회에서는 올바른 '인간형성'이 우리 믿는 신앙인들의 과제이다. 기계문명 사회에서의 인간은 거대한 조직으로 된

기계의 부속품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상품화되고, 부품화되기 때문에 쓸모 없을 때에는 가차없이 대체되고 만다. 샐러리맨들 가운데는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책상과 사물이 온데간데없이 치워져 있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인간상실의 사회에서는 신앙과 문화생활을 통해서 전인적인 인간성 회복과 인격 형성에 힘써야 한다.

셋째, 사회가 전문화되고, 분업화되고, 획일화되는 종파주의의 사회에서는 올바른 '공동생활'이 우리 신앙인들의 과제이다. 분업화와 자동화의 심화로 인간은 평생을 나사만 조이는 단순 노동을 위한 존재로 전락되고 말았다. 이런 때일수록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이웃과 사랑과 관심으로 연대하는 공동체 정신과 연대 정신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타자 속에 특히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고통 당하는 사람들 속에 계신다고 신학자들은 말한다. 톨스토이도 그가 쓴 민화를 통해서 사랑이 베풀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행한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십자가의 희생정신으로 원한을 풀고 더불어 함께 사는 생활 즉 해원상생의 삶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다. 요즈음 우리 젊은이들은 더치플레이를 한다고 들었다. 더치 플레이가 결코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지불능력이 없는 동료에게 지불을 요구하거나 소외시키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넷째, 상황이 급변화되고, 인간해방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에서는 올바른 '역사이해'가 우리 믿는 신앙인들의 과제이다. 급변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지성과 감성과 의지와 인간 상호관계에서 균형 잡힌 삶의 과정이 요구된다. 균형 잡힌 삶에는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이 필수적이다.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 또는 인간관 속에서 인간은 성숙하게 홀로 설 수 있고,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아 갈 수 있으며,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자신을 결단할 수 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올바른 가치 선택으로 가는 인간화의 길, 자아상실을 극복하고 성숙한 인간으로 사는 신앙화의 길, 더불어 함께 사는 방법의 문화화의 길, 새 결단을 위한 역사화의 길은 우리 신앙인들이 함께 연구하고 고민해야 할 과제들이다. 그리고 이 과제를 풀어줄 올바른 해답은 성서 속에 있다.

4. 대중문화와 미래사회

(로마서 12장 2절)

오늘날 우리 사회는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세속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사람들은 전통과 권위를 무시하고, 절대진리나 절대윤리를 부정하며, 진리의 다원화와 가치관의 다중화와 인간의 자율성을 주장하며, 시간을 다투는 기동성과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익명성과 결과만 좋으면 과정을 따지지 않는 실용성과 하나님을 거침없이 모독하는 불경성에 익숙해져 가고있다. 또 소유보다는 임대개념의 임시성과 일회성 문화에 익숙해져 가고 있고, 경박한 합리주의, 이성주의, 과학주의, 편의주의, 배금주의, 향락주의, 기술만능주의에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다. 이로 인해서 교회는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고, 교인들도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아주 가까운 장래에 경험하게 될 정보통신과 기술과학의 발전은 세속화의 속도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때에 우리 신앙인들은 바른 미래관을 가져야 하겠고, 바른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 줄로 안다. 그래서 대중문화와 미래사회를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보고자 한다.

학자들은 미래 사회를 종교 없는 사회, 니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없이 사는 초인적 사회, 하나님보다는 컴퓨터나

로봇에 의존하는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미래사회에 나타날 현상과 신앙생활에 미칠 충격들에 대해서 다양한 언어로 표현하고 있다.

첫째, 미래사회의 현상을 3T로 표현한다. 3T란 Transportation, Telecommunication, Travel의 머릿글자로써 교통, 통신, 관광을 말한다. 교통, 통신, 관광의 발달은 사람들을 교외나 해외로 빼돌리기 때문에 출석교인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서 휴양지 교회나 등산객을 위한 편의점식 교회가 등장하고 있다.

둘째, 미래사회의 현상으로 사이버펑크족의 증가를 들고 있다. 사이버펑크(cyberpunk)란 인공두뇌학이란 뜻을 가진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와 이상한 머리 모양이나 옷차림을 상징하는 펑크(punk)의 합성어로써 컴퓨터 세대 또는 X세대를 의미한다. 이들을 네티즌(netize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네티즌(netizen)이란 말은 컴퓨터 통신망을 의미하는 net와 시민을 뜻하는 citizen의 합성어이다. 사이버펑크족 또는 네티즌의 특징을 PANTS로 표현한다. PANTS란 Personal, Amusement, Natural, Trans-border, Self-loving의 머릿글자로써 개인주의, 흥미분위, 자유분방, 탈 성별 또는 탈 국경, 그리고 자기 사랑을 의미한다.

네티즌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고독한 존재들이 될 것이다. 대부분의 시간을 컴퓨터와 함께 보내기 때문에 사람과의 만남의 기회가 줄어들게 되고 자연히 공동체 또는 연대정신이 희박해진다. 컴퓨터를 통해서 가상현실을 경험하게 되고, 통신을 통해서 투명인간이 되기도 하며, 폭력성 영화나 포르노그래피를 즐기며, 성인용 사이트에 접속하여 해외 망측한 어른들의 타락을 경험한다. 이 모든 것이 자기 방에서 혼자 하는 일들이다. 여기에 네티즌의 비극이 숨어 있다.

네티즌들은 흥미본위로 살아간다. 외로움과 단조로움과 권태와 공허감에서 벗어나 보려고 짜릿한 맛을 추구한다. 그러나 쾌락의 수명은 짧기 때문에 더 강렬하고 색다른 새로운 경험을 추구하게 된다.

네티즌들이 주도하는 대중문화는 “많이 팔리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인기 있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라는 왜곡된 가치관과 실용주의가 낳은 타락한 세속문화이다. 네티즌들의 ‘재미’와 ‘흥미’본위의 삶이 바로 대중문화의 생리이자 생성원리이다. 결국 ‘재미’에 중독된 네티즌들은 어떻게든 기발하고 새로운 재미를 찾는데 온 힘을 쏟게되고 또 대중문화는 그 욕구를 충족시켜 돈만 벌면 된다는 배금논리에 의해서 지배된다.

네티즌들은 자연스럽게 자유분방한 것을 좋아한다. “내가 좋으면 그만이다. 누가 나를 판단할 수 없다.”라는 ‘나만의 느낌,’ ‘나만의 감정,’ ‘나만의 경험’을 소중히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의 목표가 마치 느낌과 감각인 것처럼 행동하고 말한다. 여기에 편승해서 대중문화도 “남에게 직접적인 피해만 주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부추긴다.

인터넷을 통해서 국경의 막힘 없이 온 세계를 넘나드는 네티즌들은 국경이나 성별과 같은 경계에 익숙하지 못하다. 그래서 남녀간의 성별이나 애국정신이 희박하고, 인터넷에 홈페이지와 같은 자기 공간을 구축해 놓고 나르시스와 같은 자기 도취에 빠져 살아간다.

마지막으로 네티즌들은 복잡한 것을 싫어하고 참을성이 약하다. 대부분의 일을 컴퓨터나 기계가 쉽고 빠르게 처리해 주기 때문에 복잡하고 골치 아픈 것 또는 피곤한 것을 싫어한다. 현대사회가 먹고 마시는 일에서부터 보고 듣고 물품을 구매하는 일까지 거의 모든 일에 있어서 편리성과

신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복잡한 것을 싫어한다.

셋째, 미래사회의 현상으로 거미시대의 등장을 말한다. 문화부 장관이었던 이어령 교수는 “21세기 정보사회의 마인드”란 주제의 강연에서 근대문명을 가능케 한 개미와 같은 조직중심 시대는 종말을 맞게 될 것이며, 앞으로 오는 시대는 거미와 같은 멀티미디어 시대라고 예견했다. 개미처럼 조직의 일원으로 살아가기보다는 거미처럼 인터넷망에 걸려드는 정보를 먹이로 외롭게 살아간다는 뜻이다. 따라서 ‘아는 것이 힘’이던 시대는 사라지고, ‘찾는 것이 힘’인 시대가 도래한다.

요즘 미국은 대학의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노트북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고, 필기도 노트북에 집적한다고 한다. 한편, 미국의 법학대학들의 교수들과 학생들은 렉시스 웨스트로우(Lexis-Westlaw)라는 법률정보 시스템으로부터 무료로 모든 판례, 정부 간행물, 신문, 잡지, 학술지 등을 24시간 온라인으로 공급받고 있어서 교수들과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판례집을 뒤지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한다. 컴퓨터를 통해서 집에서도 얼마든지 필요한 자료를 뽑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미래사회의 현상으로 사이버 스페이스를 말한다. 인터넷 통신망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서 세계 어느 곳이든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국경을 넘나들 수 있고, 필요한 정보를 얻고 홍보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이버 스페이스를 이용한 전자교회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재택 산업이 발달하여 재택 근무나 재택 수업 등이 일반화되는 때가 오면 재택예배도 가능해 지리라 본다. 이렇게 되면 자기 집 컴퓨터 앞에서 예배드리고 헌금은 홈뱅킹을 이용해서 교회구좌에 넣게 되고,

교회소식은 전자메일을 통해서 받아 보게되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도 경험하게 된다.

다섯째, 미래사회의 현상으로 정보통신의 가속도(speed)를 말한다. 전화선과 28,800bps 모뎀을 통해서 제공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보다 300배 빠른 인터넷 서비스가 케이블 TV 선을 이용해서 시범 실시되고 있다. 이쯤 되면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각종 정보를 모뎀이나 초고속 광통신 케이블을 통해서 문자뿐 아니라, 소리와 그림까지도 자기 방에 앉아서 책장 넘겨보듯 살펴볼 수 있게 된다. 현재도 스트림웍스 플레이어(Streamworks Player)와 리얼 오디오(Real Audio)라는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에서 다운(down) 받아 설치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되는 각종 텔레비전 방송이나 라디오 방송을 보기도 하고 청취할 수도 있다. 또 한번 듣고 흘러 버릴 수밖에 없던 방송 내용을 문자로 제공받아 사용할 수 있고, 다양한 종류의 신문 및 잡지의 기사 내용을 그림까지 포함해서 컴퓨터로 불러와 사용할 수 있다. 또 앞으로의 시대는 일방적으로 차려진 밥상을 받는 시대가 아니라, 자기 입맛 따라 골라 먹는 시대가 된다. 방송의 경우에도 몇 시에 무슨 프로그램이 방영된다는 식의 개념은 사라진다. 다양하고 특화된 장르의 준비된 프로그램들을 메뉴판에서 골라 보는 시대가 된다. 특정한 프로그램이 특정한 시간에 방영된다 하더라도 시청자가 이를 만드시 방영되는 시간에 시청할 필요가 없게 된다. 편리한 시간에 메뉴판에서 불러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설교가 케이블 TV나 인터넷을 통해서 음성과 화상서비스로 제공되는 때가 되면 언제 어느 때든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유명인사의 설교를 국내외를 막론하고 컴퓨터를 통해서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미래에는 텔레비전 교회나 인터넷상에 설치된 전자교회들이 보

다 다양한 설교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신자들이 시간에 쫓겨가면서 또 교통체증과 주차 난에 시달려 가면서 교회당으로 달려갈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고 걱정이 된다.

이런 현실에 직면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미래를 맞이해야 할까? 어떤 가치관과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 이 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첫째, 우리 신앙인들은 대중문화와 기술과학문명을 비판하기에 앞서 기독교문화로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과 정신을 키워야 한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신앙인들은 세속문화의 어두운 부분을 밝은 빛으로 이끌어내고, 혼돈된 부분을 바로 잡아 주고, 죽어 있거나 죽어 가는 부분을 삶의 부분으로 또는 생명으로 이끌어 내는 즉 그것을 정죄하기 보다는 창조적으로 변혁시켜 가는 주역들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은, 그것이 비록 현재는 타락하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다.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징계하거나 멸망시키기보다는 새롭게 고쳐 나가기를 원하신다. 흑암을 빛으로, 혼돈을 질서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나가기를 원하신다. 타락을 회복으로, 죄를 용서로, 멸망을 구원으로 바꾸어 놓기를 원하신다. 이런 하나님의 태도에서 볼 때, 비록 세상문화가 타락문화라 할지라도, 이를 적대적인 감정으로 보거나, 기독교문화로 착각하거나, 대립관계로 보기보다는 부패된 곳에 소금을 뿌려 주고, 음침한 곳에 빛을 비추어 줌으로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바로 잡아가는 자세가 바람직한 기독교인의 자세일 것이다. '네티즌을 주님께로!' 라는 운동을 펼쳐 볼 때가 된 것 같기도 한다.

둘째, 우리 신앙인들은 문화의 탈을 쓴 바알종교 또는 음

녀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은 주변 국가들의 바알종교가 갖는 세속적인 매혹에 빠져 야훼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들이 있었다. 고린도교회 신앙인 가운데도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베풀어지는 세속적인 유혹에 빠져 바른 신앙의 길을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 대중문화의 바알종교성이다.

셋째, 우리 신앙인들은 세속문화의 투쟁의지를 분명히 알아차려야 한다. 과학기술사회 건설 이면에는 ‘신 없이도 완벽한 사회’를 추구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적 메시아주의가 깔려 있다. 신앙인들은 과학기술주의가 인간을 궁극적으로 해방 또는 구원할 것이라는 거짓된 인본주의적 메시아주의에 빠져서는 안될 것이다. 성서는 ‘하나님을 대항하여 이길 자가 없다.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의 근원이다.’ 라고 말한다.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한다. 인간은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인간의 기술은 인간을 다소 편리하게 해줄 뿐이지, 궁극적으로 구원하지 못한다. 인간의 기술이 사람이 죽는 것을 막지 못하는 것 하나만 보아도 그 한계성을 알 수 있다. 인간의 바벨탑은 인간의 도피성이 되지 못하고 반드시 무너지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넷째, 우리 신앙인들은 바른 가치관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관점이 다원화되고, 가치가 다중화되고, 신앙이 다중화되는 현대사회에서는 올바른 ‘가치관의 선택’이 우리 믿는 신앙인들의 과제이다. 우리 신앙인들은 창조주 하나님 신앙에 바탕을 둔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야 하겠고, 하나님 없는 대중문화에 끌려 가서는 안되겠다. “많이 팔리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인기 있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재미 있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왜곡된 대중문화의 가치관과 실용주의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한다.

다섯째, 우리 신앙인들은 모이기를 폐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사람과의 만남의 기회가 줄어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공동체정신 또는 연대정신이 희박해진다. 또 현대사회는 전문화, 분업화, 획일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개인주의를 극복하고 사랑과 관심으로 이웃과 연대하는 공동체 정신과 연대정신이 필요하다. 교회에 모여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돌리고 친교를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는 모임을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알아야 한다.

5. 대중문화의 세계관

(골로새서 2장 6-10절)

어느 날 화전민과 어부가 서울 어느 초라한 여관에서 만났다. 초면인사 후에 해뜨고 지는 이야기가 나왔다. 산간벽지에 사는 화전민이 말했다. “태양은 동쪽 산봉우리 위로 떠서 서쪽 산봉우리 아래로 지지요.” 그때 어부가 말했다. “무식하긴 이 사람아, 태양은 바다 지평선 위에서 떠서 바다 지평선 너머로 진다오.”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여관 주인이 한심하다는 듯이 끼여들며 말했다. “여보시오, 어르신네들, 태양은 저 큰 빌딩숲 위로 떠서 커다란 저 건물들 사이로 진다오.”

개그 같은 이야기이지만, 먼 옛날 여행이 자유롭지 못했던 시절에는 이렇게 생각했을 법도 하다. 오늘날엔 어떤가? 지구촌이란 말이 일상화된 것만큼 인간들은 엄청난 기계기술문명을 이루었다. 스포츠계를 보라. 체력의 한계를 극복해 보려는 인간의 노력이 눈물겹지 않는가?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 달리고 던지기 위해서 선수들은 뼈를 깎는 훈련을 거듭한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이다. 컴퓨터업계를 보라. 더 많은 양의 자료를 더 빨리, 더 멀리 보내고 받고 처리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는가?

초고속 광통신시대가 앞으로 10년 안에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렇게 된다면,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무척 줄일 수 있게 된다.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 앉아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고,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백화점에 나가지 않고도 집에 앉아서 쇼핑할 수 있게 되고, 은행에 가지 않고서도 입출금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직 일반화되지는 않았지만, 지금도 이런 일들은 부분적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이 모든 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어느 정도 줄일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극복은 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인간이 육체를 가진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기계의 도움으로 시공의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얻을 수는 없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말고도 인간에게는 또 다른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다.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이다. 의학의 발전은 노쇠현상이나 질병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여기가 인간의 한계점이다.

한 여름에 땀흘려 일하는 개미 떼를 살펴 본적이 있을 것이다. 인간은 평면 세계에서 땀흘려 일하는 개미 떼를 한 눈에 내려다보고 관찰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의 앞에 놓인 일과 지나 온 길을 동시에 볼 수 있다. 그러나 개미는 인간처럼 그렇게 할 수 없다. 인간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이 공간 세계에 살고는 있지만, 자신의 앞일과 지나온 과거를 동시에 볼 수 없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다. 인간은 육체를 가진 사실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시련과 문제에 직면해야 한다.

그런데 인간의 삶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인간의 한

계상황을 인정하고,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을 신으로 착각하고 자신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삶의 길이 있다. 어느 길을 택하든지 그 길은 그 인간의 삶의 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그에 따른 가치관이나 세계관은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

첫째, 진단과 처방의 차이가 있다. 병든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진단과 올바른 처방이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인간은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있다. 왜 인간은 존재하는가? 왜 인간은 죽는가? 인간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선한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 고난의 이유는 무엇인가? 우주는 어떻게 생성되었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우주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근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끊임없이 추구해온 것이 인간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의 학문세계이다. 그런데 인간이 발전시킨 학문들은 인간문제에 대한 진단서이지 처방전이 되지 못한다. 인간은 죽음의 원인을 말할 수 있어도 그 죽음을 막을 수가 없다. 의사가 내 몸의 이상을 일시적으로 치료 할 수는 있어도 죽음을 막지 못한다. 죽음 앞에서 의사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인가? “최선을 다했다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장래 준비를 하십시오.” 과학자도 마찬가지이다. 우주의 현 배치나 상태에 대해서는 잘 알아도 이 우주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정확하게 말하지 못한다. 많은 이론들이 있지만,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사실이 되기에는 우주는 시간적으로 너무 멀고, 공간적으로 너무 넓다. 아무도 태초부터 살았던 이가 없고, 그 큰공간을 확보하지도 못했다. 그래서 대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모든 해답을 ‘우연이다. 숙명이다.’에서 찾는다.

그러나 성서는 명확한 해답을 제시한다. 이 우주의 시작과 끝을 말해준다.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밝혀 준다. 왜 인간이 존재하는지, 왜 인간은 죽는지, 인간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우주는 어떻게 생성되었으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밝혀 준다.

성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동의보감'이다. 인간의 근본 문제들에 대한 모든 처방이 이 책에 담겨 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궁금해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성서 속에 담아 놓으셨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기에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문제의 원인과 처방을 알고 계신다. 따라서 인간의 근본문제에 대한 해답은 성서 속에서 찾아야 한다.

둘째, 사망과 생명이란 가치관의 차이가 있다. 불신자에게는 죽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되고, 신자에게는 삶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된다. 신자의 세계관은 생명과 부활이지만, 불신자의 세계관은 죽음과 절망이다.

먼저 불신자의 세계관을 살펴보겠다. 과학자들은 이 우주가 약 180억 년 전에 엄청난 폭발(big bang)과 함께 갑작스럽게 생성되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 우주는 매우 느리긴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무질서와 큰 혼란의 상태로 죽어 가고 있다고 말한다. 건물이 낡아 가고, 사람이 늙어 가며, 산과 해변이 침식되어 가고, 지하자원이 고갈되어 가는 현상과 같이 또 더운물이 찬물에 섞이면 미지근한 물이 되어 다시는 더운물을 되찾을 수 없는 것 같이 태양도 언젠가는 차갑게 식고 별들도 소멸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아무리 건물을 새로 짓고 물을 다시 데운다 할지라도 이미 인간에게 주어진 에너지는 결코 늘지도 줄지도 않을 뿐더러 한번 소모된 에너지는 흩어져 모을 수 없기 때문에 무질서는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무질서가 승리하게 되어 우주는 멸망하게 된다. 이를 과학자들은 '열평형' 혹은 '열사망'(heat death)이라고 말한다. 이 이론은 빅뱅설과 열역학 법칙이 혼합되어서 나온 비관론이다. 이 비관론이 자연스럽게 우연론과 숙명론으로 발전된다.

프레드 호일(Fred Hoyle)이 제안한 우주팽창론은 우주의 종말

을 예고한 열사망을 피하기 위해서 나온 하나의 가설이다. 이 가설에 의하면 물질은 초기의 대폭발에 의해서 한꺼번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서서히 또는 영원히 계속되는 소폭발에 의해서 초당 약 5만개의 별이 새로 생겨나며, 이들 별들이 은하계를 이루어 팽창으로 생겨난 공백을 메움으로서 은하계의 밀도를 유지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우주는 우연이 시작되어 계속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물질을 만들어 내는 데에 필요한 기본 에너지는 누가 만들어 낸 것도 아니며, 공간이나 시간도 창조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존재했던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이론은 열평형 혹은 열사망으로 예언된 우주의 죽음을 피해 보고자 한 가설에 지나지 않는다.

한편 많은 과학자들은 창조를 일종의 신비라고 말한다. 물질이 만들어지면 똑 같은 양의 반물질이 함께 만들어지게 되고, 물질과 반물질이 만나면 언제나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폭발과 함께 소멸해 버리기 때문에 창조된 물질이 반물질과의 만남을 피하여 살아 남아 있다는 것과 반물질은 사라지고 물질만 남아 있다는 사실은 신비 중의 신비라는 것이다. 따라서 대폭발 이론을 믿는 과학자들 중에도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 물리학의 법칙을 무시하고 반물질이 없는 상태로 물질을 만들었다고 믿고 있다.

우주에 질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신의 존재를 입증하는 중요한 내용이다. 진화론자들은 생물학적인 질서가 돌연변이와 자연도태에 의해서 발전되었다고 말하기도 하고, 우주의 질서가 맹목적인 우연에 의해서 생겼다고 하지만, 우주를 하나의 사건으로 볼 때, 그것이 어느 정도의 질서를 가지고 탄생될 확률은 마치 원숭이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마구잡이로 건반을 두들겨서 우리가 잘 아는 노래를 연주할 확률보다도 훨씬 그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한다. 사실 그럴 확률은 거의 없다. 현대과학은 마치 팽팽하게 태엽을 감긴 시계가 얼마 후 태엽이 풀리고 죽는 것같이, 팽팽하게 고무줄이 감기어 하늘을 날던 모형비행기가 줄이

풀리면 땅에 처박히는 것처럼 이 우주는 고도의 질서에서 출발해서 무질서를 향해 가고 있고 결국은 죽게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무질서한 상태에서 점차 고도의 질서로 옮겨간다고 말하는 진화론자의 설명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자들은 우연성에서 우주적인 질서를 설명하고자 한다. 여기서 ‘우연’이란 말은 그들이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언어이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나이를 180억 년으로 보고 태양계의 나이를 45억 년으로 본다. 그리고 이 우주가 완전하게 멸망하려면 앞으로 40억 년 내지 50억 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다. 우리 대에는 이 우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말이지만, 결국에는 태양 에너지의 소멸과 함께 혹성들은 블랙홀들에 삼키든지, 우주적인 빙하시대를 맞든지, 그것도 아니면, 우주가 팽창을 멈추고 크게 수축되면서 불덩이에 휩싸이든지 하여 죽게 된다. 천문과학 서적인 『호라이즌』에서 마이클 시든은 이렇게 말했다. “해도 달도 별도 죽을 것이다. 은하계도 죽을 것이다. 온 우주가 죽을 것이다. 인구를 조절하고 자원을 재 순환시켜도 지구상의 생명엔 끝장날 때가 올 것이다.”

이와 같이 무신론자들은 죽음이야말로 정상적인 우주의 상태이며,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한다. 이 우주는 우연과 진화에 의해서 발생되었다가 이제 서서히 영원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믿는다. 여기서 ‘죽음’은 그들이 제시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언어이다. 무신론자들에게 삶은 비정상이며, 우연일 뿐이며, 덧없이 스쳐 가는 찰나적인 존재일 뿐이다. 따라서 ‘죽음’과 ‘우연’은 불신자가 보는 세계관이다.

그러나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언어, 가장 빈번하게 입에 오르내리는 언어는 ‘생명’이다. 죽음은 비정상이며 침입자이며 강도이다. 우주는 우연에 의해서 발생되지 않았다. 우주는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만들고 목적을 부여한 피조물이다. 그렇기 때문

에 이 우주는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 간다. 하나님이 돌보실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간다. 비록 우주가 지금은 타락해 있고, 인간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면, 이 우주는 회복될 것이며,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다. 죽음은 신자들이 정복할 최후의 원수일 뿐이다. 따라서 신자는 죽음 앞에서 꼭두각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것이다(롬 5:17). 그러므로 '영생'과 '생명'은 그리스도인의 사상이요, 세계관이요, 삶의 철학이다.

그러나 불신자의 세계관은 '우연'과 '죽음'이다. 이 두 언어는 불신자의 삶을 온통 지배한다. 불교에 '일체유심조'(一體唯心造)란 말이 있다. 만사가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뜻이다. '우연'과 '죽음'이란 언어가 인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는가? 그 인간은 언제나 "재수 없다. 운이 없다. 죽으면 그만이다.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라며 살아 갈 것이다. 인생을 비관적으로 염세적으로 부정적으로 폐쇄적으로 소극적으로 살아 갈 것이다.

신앙은 삶의 방식이다. 신앙인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산다. 승리할 것을 기대하며,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살아간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바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세 전에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불러주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의롭다하신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어둠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체험하며, 맛보며, 누리며 살아간다.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을 기대하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며, 낙심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다.

제9장 헌신과 신앙

1. 헌신과 예배
2. 헌신과 신앙
3. 헌신과 봉사
4. 헌신과 사랑(1)
5. 헌신과 사랑(2)

제9장 헌신과 신앙

1. 헌신과 예배 (로마서 12장 1-2절)

본 장에서는 ‘신앙과 헌신’이라는 제목 하에 ‘헌신과 예배,’ ‘헌신과 신앙,’ ‘헌신과 봉사,’ ‘헌신과 사랑’이란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자 한다. 먼저 ‘헌신과 예배’라는 주제부터 살펴보겠다.

첫째, 헌신에 대한 문자적인 뜻부터 살펴보겠다. 헌신(獻身)이란 말은 ‘바칠 헌’자에 ‘몸 신’자로 문자 그대로 ‘몸을 바친다’는 뜻이다. 이 말의 뜻을 국어사전은 ‘자기의 이해를 돌보지 않고 전력을 다함’이라고 적고 있다. 영어 사전에서는 헌신에 해당되는 ‘컴밋먼트(commitment)’라는 단어의 뜻을 ‘서약이나 약속의 행위’ 혹은 ‘서약이나 약속이 된 상태’ 또는 ‘금전적인 책임과 의무’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들 국영문 사전에서 풀이하는 헌신의 뜻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다.

목숨을 바쳐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경우이다.

경상도 하동군 옥종면에 삼장(三壯)골이란 마을이 있다. 삼장골이란 이곳 출신인 연산군의 스승 조지서(趙之瑞)가 세 번 장원

급제한데서 비롯된 이름이라고 한다. 또 세 번 장원해서 장하고, 죽어 가면서 스승의 도리를 지켜내 장하고, 죽여 한강에 버린 남편의 피를 치마로 거두어 고향에 묻고 수절한 그의 아내가 장하다 하여 삼장이라는 설도 있다.

연산군은 세자 때부터 공부논커녕 포악하기 그지없었다. 궁중에서 산책하던 중 사슴이 와서 옷을 핏았다 해서 쏘 죽였을 만큼 살상을 즉흥적으로 했다. 포악하고 유희만을 즐기는 세자, 이 세자의 스승들은 보복이 두려워서 방관하거나 추종하기에 급급한데, 유일하게 보덕(輔德) 벼슬에 있던 조지서만은 연산군을 책망하고 붙들어 앉히고 책을 던져 꾸짖기도 하면서 수난을 각오하고 스승의 길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이 예견했던 대로 연산군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맨 먼저 조지서를 잡아 ‘점진 살해’라는 가혹한 수법으로 복수를 하고 만다. 피범벅이 되도록 만들어 놓고 자신에게 가르친 도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면 살려 주겠다고 했지만, 끝내 굽히지 않고 죽음으로써 스승의 길을 걸었다. 조지서는 스승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목숨을 바쳐 지켰던 것이다. 조지서의 삶은 헌신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준 좋은 예라 하겠다.

자기의 이해를 돌보지 않고 전력을 다한 경우이다. 포항제철 창업 멤버로서 수석 부사장을 지낸 여상환 국제경영연구원장께서 한성신학대학 채플에 오셔서 들려주신 이야기이다. 1975년 당시 세브란스병원장이자 연세대 부총장이었던 민광식 박사와 카톨릭 의대 학장이었던 김학현 박사가 포항제철을 방문했다. 견학을 마친 이들은 그날 밤 포항제철 귀빈숙소에서 여장을 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때 민광식 박사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오늘 저는 포항제철 공장을 둘러보고 나서 무한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학도의 입장에서 한마디하겠습니다. 우선 큰 병원과 상의해서 사장 이하 고급간부들에게 건강진단을 받게 하십시오.” 이에 포항제철 간부가 “중역은 물론 전직

원들이 정기적으로 인근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답하자, “의례적인 신체검사 말고 정말 종합건강진단을 받게 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사장을 비롯해서 모든 사원의 눈빛이 광기를 뿜고 있습니다. 의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미친 사람들의 눈입니다. 이런 상태로 간다면 얼마 못 가서 탈진하고 맙니다. 1-2년 내에 중역들이 하나 둘씩 쓰러질 터이니 서둘러 대비하십시오.” 그후 한 달이 못 가서 부사장이 목디스크로 쓰러졌고, 제철소 소장이 디스크로, 관리담당 이사가 척추통증으로 입원하는 등 여기 저기서 건강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포항제철이 세계 3위의 철강회사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일에 미친 창업멤버들의 헌신에 있었던 것이다. 이해타산을 떠나서 전력을 다한 창업멤버들의 일에 미친 행위가 바로 헌신이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는 좋은 예라 하겠다.

자기의 이해를 돌보지 않고 전력을 다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 인으로써의 책임과 의무를 다한 경우이다.

1982년에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던 영화 불수레(*Chariot of Fire*)는 에릭 리델(*Eric Liddell*)의 전기인 『날으는 영국인』(*The Flying Scotsman*)을 영화로 만든 것이다. 에릭은 단거리 육상 분야에서 세계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그가 1924년 올림픽 경기 때에 결승전을 포기한 일이 있었다. 일등이나 다름없는 경기를 포기한 것이다. 그 이유는 결승전 경기가 주일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경건한 청교도였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위해서 경기를 포기했던 것이다. 예배를 위해서 올림픽 금메달을 포기한 것이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엄청난 희생이라고 생각된다. 에릭은 그후에 중국인을 위한 선교사가 되었다. 에릭은 분명 예배에 미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무를 다한 사람이었다. 이것이 헌신이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9절에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고 했다.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면,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형상 때문일 것이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고 말한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을 동물과 구별짓게 하며, 하나님을 닮게 하는 어떤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또 자연과의 관계에서 우리 인간이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는 인간본성의 질이라고 생각된다. 이 인간본성의 질은 인성에서 발견된다. 인간의 인성에는 지성(혹은 이성), 감성, 의지, 그리고 관계성이 있는데 신과 인간만이 가진 공통적인 특성이다. 물론 다른 동물에게도 다소의 지능과 감정과 의지와 관계성이 있지만, 인간처럼 그 지성으로 학문을 창출할 수 없고, 그 감성을 문화 예술로 승화시킬 수 없으며, 본능 말고는 의지적 결단을 기대할 수 없다. 관계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동물들도 사회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인간들처럼 복잡한 형태의 사회구조나 관계형성을 이룰 수 없다. 그러므로 이 네 가지 인성의 요소는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네 가지 요소 속에서 인간은 하나님에게는 예배자로서, 자연에게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에게는 예배와 찬양으로, 자연에게는 관리와 보전으로 올바른 관계를 형성해 갈 수 있다. 이 관계형성의 능력이 바로 인간본성의 질이며, 인성이며,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예배자로서 만드셨다. 따라서 예배는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무이다. 그리고 예배자로서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은 지성과 감성적 활동보다는 결단과 관계성이다. 이 결단과 관계성이 또한 예배자의 헌신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헌신은 결단의 문제이다. 헌신은 에릭 리델과 같은 믿음의 결단에서 비롯된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믿음의 결단에서 출발된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는 예배와 신뢰의 관계이다.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와 섬김의 의무를 가진다. 이 의무에 대한 믿음의 결단에서 헌신이 비롯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책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연결고리이다. 대인관계나 자연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원리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와 신뢰의 관계라면, 대인관계는 사랑과 섬김의 관계이다. 자연과의 관계는 관리와 보전의 관계이다. 그리고 신뢰와 책임이 이 모든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연결고리이다. 만일에 우리 인간이 스스로 책임적 존재임을 자각하고 예배와 섬김과 관리의 책임을 신뢰를 바탕으로 헌신적으로 수행해 간다면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헌신은 자신의 이해를 돌보지 않고 전력을 다하여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헌신은 결단의 문제이다. ‘정기적인 예배 출석을 열심히 하겠다.’ ‘예배 때의 마음가짐이나 몸가짐을 잘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말하며, ‘헌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마음과 정성을 바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 헌신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행위를 말한다.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고 말한다. 이 말씀을 요약하면, ‘산 제사는 영적 예배다’라는 말이 된다. ‘산 제사’에서 ‘산’에 해당되는 말 즉 ‘살아 있는’이란 말을 ‘영적’이란 말로 대신했다. 영적인 것은 살아 있는 것이고, 살아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이란 뜻이다. 그리고 제사와 예배를 동일한 것으로 설명했다. 예배가 제사이고 제사가 예배라는 것이다.

제사는 몸을 신에게 바치는 예배 행위를 말한다. 구약성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제단을 만들

었다가 하나님의 만류로 중단된 일이 있었고, 사사 가운데 입다가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한 후에 자기의 외동딸을 하나님께 바친 사실이 있다(삿 11:39). 그러나 몸을 바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동물로 대신하거나 음식물로 대신한다. 구약 시대에 성행했던 희생제사가 바로 예배자를 대신해서 동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대표적인 예가 되겠다. 제물을 바칠 때에 제물에 안수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예배자의 죄를 전가시키는 의식이었다. 이 때 신에게 바쳐지는 제물은 선물의 성격을 지닌다. 받는 자의 마음을 흡족하고 즐겁게 하여 그로부터 자비와 사랑과 용서와 축복을 되돌려 받는다.

헌신이란 말은 몸을 바친다는 뜻이기 때문에 순교나 제사를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몸을 바쳐 신에게 드리는 제사 행위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시대 변천에 따라 동물로 대신하던 제사도 바뀌어 이제는 성만찬과 말씀이 선포되는 영적인 예배로 바뀌었다. 성전의 희생제사가 성만찬 예배로, 회당의 성경연구가 말씀 예배로 전환된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몸을 바치는 헌신이다. 구약시대에는 자신의 몸 대신에 동물을 사서 바치곤 했는데 이런 맥락에서 헌금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값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기도와 찬양 또한 온몸으로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바치는 것이기에 이것 역시 헌신이다. 예배 때에 신령과 진정을 바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다. 솔로몬이 누린 지혜와 부귀영화가 하나님께 바친 일천번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헌신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는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하는 이유가 단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몸을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바치셨다. 화목제물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인간이 마련한 화목제

물이 있고, 하나님께서 마련한 화목제물이 있다. 인간이 마련한 화목제물은 범죄한 인간들이 진노한 신에게 희생제물을 바쳐 신의 진노를 풀게 함으로서 닥쳐올 재앙이나 형벌을 피해 보자는 선물 또는 뇌물의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화목제물은 인간의 범죄로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벌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죄범한 인간들을 위해서 친히 또는 내리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봉헌하심으로 또는 선물로 주심으로 인간에게 하나님과 화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 참 헌신의 의미는 인간의 의지로 마련한 희생제물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신 흠없는 화목제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에서 찾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써 헌신하고자 함은 선물이나 선물의 성격을 지닌 세속적인 예배 즉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이미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해서 우리의 적은 정성을 모아 드리고자 함이다. 따라서 개신교의 성만찬 예배는 천주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로 드리지 아니하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미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또한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기원하는 예배로 드리는 것이다.

흠없고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삼으시고,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저주와 형벌을 받게 하신 것이 인간에게는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외아들의 죽음이란 엄청난 대가를 치른 고통스런 희생이었다.

2. 헌신과 신앙

(출애굽기 19장 1-8절)

‘헌신과 예배’에 이어서 이번에는 ‘헌신과 신앙’이란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헌신과 신앙에 관련해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이 헌신과 약속과의 관련성이다. 헌신의 뜻을 ‘약속에 대한 의무를 이해득실과 상관없이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 또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몸을 바치는 것’이라고 종합해 볼 수 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걷고 또 걸어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 그들은 시내산 앞 광야에 가족 단위의 텐트를 치고 야영에 들어갔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는지를 너희가 보았다. 세계가 다 내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의 대표들을 불러 놓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전달했다. 모세의 말을 전해들은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이행하겠습니다.” 이 약속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선민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셨다. 이 약속을 우리는 시내산 계약이라고 말한다.

구약시대에 활동한 예언자들은 언제나 이 시내산 계약을 근거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을 꾸짖기도 하고,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친 불행의 원인을 찾기도 했다.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 계약에 충실했을 때에 축복을 받았고, 시내산 계약에 불성실했을 때에 외침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불행을 겪어야 했다. 그만큼 시내산 계약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남게 하는 중요한 고리의 역할을 했던 것이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로

부터 탈출하여 세례를 통해서 죽음의 바다를 건넜고, 이제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침례 또는 세례서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구세주로 모시고 죽도록 충성하여 섬기기로 약속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벧전 2:9) 삼으셨다. 그로부터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이 약속의 이행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두 남녀가 결혼식 때에 혼인서약을 한다. 남편은 부인에게, 부인은 또한 남편에게 각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 할 것을 맹세한다. 부부란 결국 이 약속으로 맺어진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피차에 사랑하며 혼인서약을 성실하게 지켜 갈 때에 행복이 있고, 어느 한 쪽에서 약속을 어기고 부정한 일을 했을 때에 불행하게 된다. 하나님과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 아담은 선악과라는 나무를 사이에 두고 서로 약속을 한다. 계약을 맺는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말했다. 에덴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좋다.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창 2:16-17)고 말씀하셨다. 아담과 이브도 그렇게 하마고 약속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악과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먹으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선악과에 무슨 독이 있어서 먹으면 죽는 것도 아니다. 이 나무는 혼인 때에 나누어 끼는 결혼식 반지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과 인간사이에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상징하는 증표이다. 이 약속이 지켜지면 선이고, 깨지면 악이다. 선은 행복이고, 악은 불행이다.

그런데 아담과 이브는 이 약속을 깨고 만다. 깨고 싶은 충동도 있었을 것이다. 깨고 나서 찾아 올 결과가 궁금했는지도 모

른다. 계약이 깨졌을 때에 인간에게 부과된 결과는 수치심과 불안과 초조함과 소외감과 죄의식이었다. 하나님과 인간은 아주 멀어지고 말았다. 인간은 하나님과 매우 불편한 관계가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불편은 결국 인간관계의 불편으로 확대되었다. 아담과 이브의 사이가 나빠졌고, 가인과 아벨의 사이도 나빠지면서 가정 불화의 악순환으로 발전되었다. 아담은 이브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이브는 뱀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더 나아가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의 파기를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렸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실과를 왜 먹었느냐고 물었을 때에 아담은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했다. 또 하나님께서 이브에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실과를 왜 먹었느냐고 물었을 때에 이브는 대답하기를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고 했다. “당신은 여자와 뱀을 만든 장본인이십니다. 여자 또는 뱀이 아니었던들 약속을 깨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이 깨진 것은 전적으로 이들을 만든 당신의 책임입니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깨지고 말았다. 인간관계도 깨지고 말았다. 심지어 가족관계도 깨지고 말았다. 그리고 인간 사회의 악순환은 결국 인간과 자연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말았다. 그래서 인간은 땀 흘려 일해야 입에 풀칠을 할 수 있게 됐고, 또한 자연을 착취하게 됨으로서 자연은 인간에게 엉덩퀴와 가시를 주게 되었다. 이렇게 시작된 자연계의 악순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는 것은 인간 사회에 헌신이 없기 때문이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부부는 결혼서약을 저버리고, 자녀는 부모와의 약속을 저버리고, 신앙인은 교회의 의무를 저버리고, 시민은 국가와 사회의 법을 무시해 버리기 때문이다. 인간 사회는 계약 사회이다. 계약이 지켜지지 않

으면 그 사회는 붕괴되고 만다. 우리는 약속에 충실해야 한다. 이것이 책임사회를 구현하는 우리 신앙인들의 헌신의 일부분이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헌신하지 못할 때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부부사이에 서로 헌신하지 못할 때에 부부는 멀어진다. 형제사이에 헌신하지 못할 때에 형제사이는 멀어진다. 인간이 마땅히 자연에게 베풀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자연을 훼손 할 때에 자연은 우리에게 불이익을 되돌려 준다. 우리가 속한 국가, 사회, 학교, 직장,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모두가 약속으로 합의된 공동체이다. 약속을 지키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헌신할 때에 그 공동체는 건실하게 발전된다. 헌신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둘째, 헌신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 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불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십일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고 하였다. 여기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열심히 봉사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죽기까지 신앙을 지키라는 부탁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침례 때에 고백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 때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제부터 당신만을 나의 구세주로 모시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이 약속을 몸을 던져 이행하는 것이 헌신이다.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 몸을 바치는 헌신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순교이다. 순교는 헌신의 꽃이다. 성서 66권 가운데 가장 심도 있게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점이다. 성서의 상당 부분이 박해 시대와 이단의 위협 속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초창기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이렇다 할 종교적인 지식이 없이도 십계명과 같은 기도문만 아침저녁으로 외우고서도 혹독한 고

문을 이겨냈고 순교를 마다하지 않았다.

1904년 서울에 사는 어떤 교인의 집에서 첫 부분과 뒷부분이 떨어져 나간 책 한 권이 발견되었다. 이 책은 현석문이란 사람이 쓴 일기로써 1839년 기해년 박해 때에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싣고 있다. 이 책 『기해일기』의 저자 현석문은 1801년 신유년 박해 때에 순교한 아버지 현계흠의 감화를 받고 신앙에 입문한 사람이다. 1839년 기해년 박해 때에 여동생 현경련이 체포되어 도끼에 찍혀 순교하였고, 현석문의 부인도 혹독한 고문을 받고 옥중생활 8개월만에 젓먹이 아들과 함께 생명을 잃었다. 현석문 자신도 1846년 체포되어 7월 29일 새남터에서 목을 베이고 베인 목이 장대에 매달림으로써 전도자의 일생을 마쳤다. 그는 평생을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았지만, 목숨을 바쳐 신앙을 지켰으며, 순교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기록으로 남겼다. 이것이 『기해일기』이다. 『기해일기』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다.

우리 나라 최초의 순교자는 양반 계급의 광암 이 벽 선생의 전도를 받고 교인이 된 중인 계급의 김범우이다. 광암 이 벽이 1784년 2월에 이승훈이 북경에서 가져온 많은 신앙 서적을 천계천 수표교 근처의 조용한 집에서 연구한 후, 유학자이며 양반인 이 벽이 행한 일 가운데 가장 주목받을만한 일은 반상 계급을 초월하여 중인 계급인 최창현, 최인길, 김범우, 그리고 김종교 등에게 전도한 일이다. 광암 이 벽은 이승훈과 함께 정약전과 정약용 두 형제를 설득하여 천주교에 입교시켰을 뿐 아니라, 같은 해인 1784년 9월에는 권철신 권일신 형제도 전도하여 이들과 함께 이승훈에게 세례를 받게 했다. 이 후 곧 이존창, 유항검, 윤지창 등 십여 명도 세례를 받고 수표교에 있는 이 벽의 집에서 정기적으로 집회를 가졌다. 그 다음 해인 1785년 봄에는 장소 관계로 중인 계급인 김범우의 집에서 집회를 열었다. 그러나 같은 해 3월에 우리 나라 최초의 교인들은 체포되어 포도청에

끌려갔다. 양반 계급이며 장래가 촉망되는 유학자들인 이 벽, 정약중, 이승훈과 같은 이들은 곧바로 훈방되었지만, 집회소를 제공한 역관인 김범우는 심하게 고문을 당하고, 2년 후에는 유배지에서 첫 순교자가 된다. 천주교 당국은 우리 나라 최초의 순교자 김범우의 집터와 그 일대를 매입하여 교회를 세웠다. 처음 이 교회를 세울 때에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다. 지붕 올릴 줄을 몰라 벽만 높이 쌓는다고 손가락질을 했다. 이 교회가 바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898년에 완성된 우리 나라 최초의 대성당인 명동성당이다.

헌신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충실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다. 조상들이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계약을 저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곤 했다. 그들은 언제나 야훼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방황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야훼 하나님보다는 바알 쪽이 훨씬 매력적이었던 같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볼 수도 없었고, 보이지도 않고, 우상도 없었다. 여신도 없었고, 그 흔해빠진 신화도 없었다. 예배 할 곳이라고는 단 한 곳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뿐이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두 세 개의 성소에서 예배를 드렸다. 광야시절에는 텐트로 된 회막에 법궤라는 나무상자가 모셔져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성전에는 뿔뿔한 남성들만이 제사장이란 이름으로 성전을 섬기고 있었다. 그들이 하는 일의 상당부분은 짐승을 잡는 일이었다. 그러나 바알의 종교에는 금송아지로 만든 우상이 있었고, 곳곳에 신전이 있었다. 신전에는 아리따운 여사제들이 많이 있었고, 예배는 이들 여사제들과의 성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런 정황에서 이스라엘의 일부 남성들이 바알에게 한 눈을 팔았던 것 같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과 맺은 부부의 서약을 저버리는 행위였다. 그들은 실제로 음행을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맺은 시내산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집트를 탈출하여 시내산 기슭에 머물 때에 자신들을 홍

해에서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약속을 했고, 오로지 야훼만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약속했던 것이다.

시내산에서 맺은 부부서약을 저버린 이스라엘 민족은 주전 722년에 나라의 절반이 망해버렸는가 하면, 나머지 절반도 700년간을 외세에 짓눌려 살아야 했고, 1,800년간 나라 없이 남의 나라에 얹혀 살아야 했다. 그나마 나라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한 신앙인들의 정절 때문이었다.

신약시대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황제와 그리스도 사이에서 많이 방황했다. 그 당시에 로마제국은 황제를 신으로 섬기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했다. 황제를 섬기면, 사회적인 신분과 경제 생활이 보장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택하여 신앙을 갖게 되면, 십자가를 지듯이 수치와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된다.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나무에 묶인 채로 불에 타죽기도 하고, 체육장에 끌려가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다. 숨어서 살아야 했고, 신분이 보장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신자들이 믿음을 저버렸다.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맺은 약속을 저버렸고, 성만찬을 통해서 결속을 다졌던 교회 공동체의 신의를 저버렸다. 이런 이들이게 성경은 첫 사랑을 회복하도록 권면하고 있고, 죽기까지 충성 할 것을 명하고 있다.

3. 헌신과 봉사

(민수기 8장 5-18절)

앞에서 ‘신앙과 헌신’이란 주제 하에 ‘헌신과 예배’ 그리고 ‘헌신과 신앙’에 관해서 설명하였다. 이번에는 ‘헌신과 봉사’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헌신은 봉사 행위를 말한다. 헌신과 제사가 사실상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성서는 봉사를 제사와 관련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다면, 봉사를 또한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배와 봉사는 각각 다른 형태의 제사라고 말할 수 있다. 예배가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라면, 봉사는 몸으로 드리는 제사이다. 따라서 예배와 봉사는 몸과 마음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이다.

민수기 8장 11절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요제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로 여호와를 봉사케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고, 민수기 8장 15절에 “네가 그들을 정결케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고 하였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바울은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libation/祭酒)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라고 하였다.

요제는 제물을 제단에 바쳤다가 다시 받는 행동, 또는 제물을 제단을 향해 높이 들었다가 다시 받는 행동을 취하는 제사를 말한다. 여기서 보면, ‘레위인을 요제로 바쳐 여호와를 봉사하게 한다’고 말한다.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헌신 즉 하나님께 몸을 바치는 것은 봉사를 의미한다. 봉사는 예배의 행위처럼 우리의 몸을 대신해서 노동과 시간을 바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몸과 시간을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몸을 바치는 행위이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을 피의 순교라고 한다면, 봉사는 피 없는 순교이다.

그런데 이 피 없는 순교의 행위 중에 하나가 동정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고행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평생 주를 위해서 동정을 지키면서 선교와 봉사 활동에 전념하는 것은 높이 평가받을 만한 헌신에 해당이 되겠지만 자신만을 위한 고행이나 수행의 경우는 거의 무가치한 희생이라고 생

각된다. 참고로 극단적인 동정 지키기나 고행의 경우를 소개하겠다. 먼저 잘못된 고행부터 살펴보자.

5세기경에 시메온이란 사람이 살았다. 이 사람은 23세에 동굴에 들어가 큰돌을 쇠사슬에 매달고 그것을 다시 자기 오른 쪽 발목에 묶고 40일간 생활했다. 발목 보호를 위해서 가죽으로 보호대를 만들어 착용했는데, 40일 후에 그것을 풀었을 때에 발목 보호대 속에서 20 마리의 통통하게 살이 오른 구더기가 발견되었다. 그런데 시메온은 그 구더기들을 회개의 일부분으로 간주하여 잡지 아니하고 키웠다고 한다.

그 후 시메온은 어느 여름철에 매일 아침마다 흙이 목에 찰만큼 흙 속에 파묻혔다가 저녁이면 흙을 파고 나오곤 했다.

33세 때에는 1.8미터 높이의 원주에서 고행을 시작해서 점차 높이 쌓아 올려 18미터 높이의 좁은 공간에서 생활을 했다. 그는 목욕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 그의 추종자들은 그의 몸에서 떨어지는 구더기들을 소중히 여겼다. 시메온은 끊임없이 몸에 상처를 내고, 딱지가 지면, 그것을 떼어내어 고름이 생기도록 해서 구더기들을 먹여 살렸다. 어느 날 몸에 있던 구더기 한 마리가 바닥에 떨어지자 그것을 집어들고 상처부위에 올려 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다. 배불리 먹으라.”고 했다. 이런 고행 현상은 초대교회가 창립된 직후부터 근 300년 동안 십여 차례에 걸쳐서 로마제국으로부터 받았던 극심한 박해가 끝난 콘스탄틴 황제 이후에 헌신의 또 다른 관행으로 유행처럼 번졌던 것이다. 시메온의 경우는 별난 고행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다.

우리 나라 초기 천주교회는 동정을 지키는 성처녀(聖處女)들의 수난 위에 그 한 기둥이 세워 졌다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어찌 보면 부질없고, 어찌 보면 눈물겨운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다.

시집 못 보내 안달하는 거센 유교 전통과 싸우며 처녀 이정희

는 3년 동안 거짓 앓은뱅이 노릇을 했고, 김(金)루리타는 혼담이 나돌 때마다 머리를 깎아 버리는 삭발로 저항했다. 여주에 살았던 정순매(鄭順每)는 어머니와 짜고 가짜 혼인식을 올리고 소박 맞은 양 행세하여 동정을 지켰다. 정약종의 딸 정(丁)엘리자베드는 이성(異性)에 대한 유혹을 느낄 때마다 고행용으로 회초리를 만들어 놓고 자신의 등짝을 핏발이 서도록 때리길 12년 동안 하다가 순교했다. 그 무엇보다 처절했던 동정 고행은 겉으로는 결혼을 하고서 속으로는 동정을 유지하는 동정 결혼이었다.

이(李)루도갈도는 순교자 가문의 유(柳)요하네와 결혼을 하게 되자, 첫날밤에 동정을 서약하고 4년 동안 오누이처럼 살다가 순교하였다. 이루도갈도는 이 동정 결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옥중 편지를 남기고 있다. “우리 부부는 서약대로 4년간을 오누이처럼 살아 왔다. 그 동안 조금만 어떻게 되었던들 모든 일이 헛될 뻔한 일이 족히 열 번쯤은 있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서로 맞붙들고 흐느끼면서 그 악마의 구렁텅이에서 빠져 나오곤 했던 것이다.”

권(權)테레시아는 전혀 이해가 없는 이교도와 결혼했는데 야수같이 달려드는 그 많은 밤들과 싸워가며 16년간 순결을 지키고 서소문 밖에서 순교를 당했다. “저와 같은 죄인에게 천주님은 순결을 지키는 커다란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라고 감사기도 후에 목이 잘렸다.

이렇게 무모한 고행이나 동정을 지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평생을 아프리카 흑인들의 선교와 의료 사업을 위해서 몸을 바친 알버트 슈바이처나 리빙스톤 같은 사람이나 평생을 인도에서 구제사업에 바치고 있는 테레사 수녀와 같은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이 치른 피 없는 희생은 고행이나 동정 지키기보다는 훨씬 값진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헌신이라는 것이 반드시 이런 큰 일들만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아주 작은 일, 사소한 일, 일상적인 일도

헌신에 포함된다.

필라델피아에 존이라는 13세의 소년이 있었다. 벽돌공장에서 노동하는 아이였다. 그런데 존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교회로 들어가는 길이었다. 비가 조금만 내려도 진창길이 되어 몹시 불편했다. 그러나 어른들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 자기들 집 같았으면 벌써 훌륭하게 벽돌이나 돌로 포장할 했을 것인데도 말이다. 어느 주일날 존은 길을 포장하기로 결심했다. 존은 많은 아이와 어른들이 벽돌로 포장된 길을 통해서 교회로 들어가는 비전을 보았다. 존은 7센트의 임금을 쪼개어 날마다 벽돌을 한 장씩 자기 공장에서 사서 가져와 교회 입구에 깔기 시작했다. 이 넓은 길을 존이 다 포장하려면 2년은 걸릴 참이었다. 그러나 기적은 1개월 이내에 일어났다. 존의 모습을 보고 이기적이며 형식적이었던 신앙생활을 반성한 교인들이 길뿐이 아니라 넓은 교회당을 헐고 신축하기로 결의했던 것이다. 이 소년이 백화점 왕으로 알려진 존 워너메이커이다. 미국과 전세계에 YMCA 건물을 수없이 지어 주었는데 서울 종로 2가에 있었던 벽돌건물도 존 워너메이커가 기증한 것이라고 한다.

겨우 열세 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진시황은 39세의 젊은 나이에 천하를 평정하여 중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통일 국가를 이룩하였다. 진시황이란 이름은 진나라의 초대 황제라는 뜻이다. 그런 그가 불로장생하기 위해서 『시경』과 『서경』 그리고 제자백가의 책을 모조리 불태웠고, 460여 명의 유학자들을 불잡아 구덩이를 파고 생매장했다. 또 어마어마한 시설의 시황릉과 아방궁을 짓고, 만리장성을 축조했다. 또 어린 소년 소녀 3천 명과 많은 보물을 실은 배들을 거느리게 하여 동해에 있다는 신선이 사는 섬에 가서 불로초와 불로약을 구해보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고, 겨우 49세밖에 살지 못하고 전국을 시찰하던 중에 병사하고 말았다. 옳은 일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평생을 자신의 안락과 쾌락만을 위해서 노력했던 진시황은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고, 자신도 오래 살지 못했으며, 진나라도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망하고 말았다.

조선왕조실록에 실린 왕들의 평균 수명이 겨우 44세에 불과하다고 한다. 왕들의 평균수명이 이렇게 짧은 것은 첫째가 운동부족, 둘째가 보약중독이었다. 손발을 쓸 일이 없었던 왕들은 몸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었고 몸에 조그만 이상이 있어도 보약을 썼기 때문에 보약중독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던 것이다.

노동과 봉사만큼 인간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없다. 열심히 일하며 봉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오래도록 건강하게 산다.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말하는 장기려 박사는 인술과 복음을 함께 전하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한평생 봉사하다가 85세에 소천하셨다.

장기려 박사는 집한채 없이 병원 꼭대기 층에서 생활하면서 떠돌이 환자들을 돌보았다. 걸인에게 10만원권 수표를 주기도 했고, 가난한 제자에게 며느리가 해온 혼수 이불을 주기도 했고, 돈 없어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환자를 뒷문으로 도망치도록 도와주기도 했다. 평생을 독실한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희생과 봉사의 삶을 살아온 장기려 박사는 춘원 이광수의 소설 『사랑』의 남주인공의 모델이 되기도 했고, 복讎 땅에 두고 온 다섯 남매와 아내를 못 잊어 45년간을 재혼하지 않고 혼자 살았다. 장기려 박사는 북한에 아내가 살아 있는데 어떻게 또 결혼 할 수 있느냐, 성경말씀에 따라 살아야 한다면서 외로운 생활을 했다고 한다. 그는 비문에 ‘주님을 섬기다 간 사람’으로 적히기를 소원하며 살았다. 그를 아는 사람들은 주기철 목사의 순교정신, 조만식 선생의 애국정신과 함께 장기려 박사의 박애정신은 기독교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웅변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다고들 말한다.

복음을 위하든, 남을 위하든, 봉사에는 희생이 따른다. 그리고 희생은 곧 헌신이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을 주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을 세우려 하심이라.”(엡 4:12)고 했고, 베드로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벧전 4:10)고 했다. 또 야고보는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유익이 없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다(약 2:14, 17). 마태는 예수께서 봉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마 7:23)고 명하신 사실을 주지시켜 주고 있다.

봉사는 헌신이다. 봉사는 제사이다. 예배가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라면, 봉사는 몸으로 드리는 제사이다. 봉사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이다. 봉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받으실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봉사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마 25:34).

4. 헌신과 사랑(1)

(빌립보서 2장 1-8절)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한다. 사랑은 기독교의 상표와 같은 것이다. 사랑 중에서도 아가페의 사랑이 기독교의 트레이드마크(trademark)이다. 아가페의 사랑은 헌신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먼저 사랑, 또는 내리 사랑을 말한다.

사랑에는 적어도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 사랑은 ‘만약에’ 사랑이다. 이 사랑은 조건부 사랑을 말한다. “내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면 당신을 위해 몸바쳐 헌신하겠습니다.” “혼수품이나 지참금을 많이 가져와야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학벌이 높고 재산이 많다면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이런 조건부적인

사랑이 아마 가장 흔한 사랑일 것이다. 조건 없이 먼저 주는 사랑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있는지를 보고 나서 또는 받고 나서 주겠다는 식의 사랑이다.

두 번째 사랑은 ‘때문에’ 사랑이다. 이 사랑은 자기의 사랑을 주고자 하는 사람의 인물, 직업, 학벌, 또는 재산 때문에 주는 사랑이다. “그가 멋지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녀가 미인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가 잘해 주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런 보답적인 사랑 역시 흔해 빠진 사랑이다. 조건 없이 먼저 주는 사랑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준다는 식의 사랑이다. 사람들은 주는데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려 하기보다는 받음으로써 상대방의 사랑을 확인하려 든다.

세 번째 사랑은 ‘불구하고’ 사랑이다. 이 사랑은 ‘만약에’ 식의 사랑이나 ‘때문에’ 식의 사랑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불구하고’의 사랑은 어떤 조건이나 보답으로 주는 사랑이 아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이다. 이 사랑은 인물, 직업, 학벌, 또는 재산에 관계없이 먼저 주는 사랑이다. 이 사랑이 헌신적인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먼저 사랑, 또는 내리 사랑이다. 이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끊임없는 배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구하고’ 식의 사랑이다.

그런데 이 조건 없는 사랑보다도 한 단계 더 높은 사랑이 있다. 이 사랑은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랑이다. 성경말씀에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 보다 더 큰사랑이 없다”(요 15:13)고 하셨다. 이 사랑 즉 아무 조건 없이 남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랑이 바로 헌신이다. 헌신이란 ‘몸을 바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조건 없이 목숨을 바친 분이 계신다. 우리의 끊임없는 배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이시다.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한다. 왜 그런가? 그분이 우리를 헌신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으시면서 까지 죽어야 마땅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셨다. 엄청난 아픔과 희생을 치르면서 저주받아야 마땅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셨다. 로마서 5장 8절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외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하나님의 삶의 방식에서 우리는 기독교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다. 헌신적인 사랑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다. 인간으로써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고귀한 사랑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 주셨다.

참 사랑은 헌신적인 사랑이다. 헌신 없는 사랑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참 사랑은 희생과 아픔과 수고를 동반한다. 하나님은 조건없이 우리의 죄와 배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의 짐을 외아들 예수에게 지우시고 우리가 매달려야 할 죽음의 형틀에 매달리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반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축복과 생명을 주셨고, 아무 죄 없는 외아들 예수에게는 저주와 버림을 당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저주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축복과 생명을 주시고, 외아들을 저주받아 죽게 하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의 몫을 자기가 취하는 대신 자기의 몫, 곧 축복과 생명을 인간에게 주셨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심으로 인간을 높이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신이다. 예수의 희생과 죽음 때문에 우리는 살고 새 소망을 얻었다.

빌립보서 2장 1-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인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의 방법을

가장 잘 요약해 주고 있다.

빌립보서 2장 6-7절은 예수의 포기에 대해서 8절은 예수의 낮추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무엇인가 소중하게 여기던 것을 대의 명분을 위해서 포기하는 것이며, 높은 신분을 버리고 보통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자기 낮춤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었던 예수는 자신의 신분과 자율성 그리고 특권을 모두 버리고 인간이 되었다. 예수는 또한 죄인과 창녀의 친구로써 자신을 동일시했다. 그 뿐만 아니라, 예수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포기하셨다. 예수께서 포기하셨던 것들을 정리해 보겠다.

첫째, 예수는 하나님으로서의 자기 신분을 버리셨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성서는 말한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시고, 오히려 종의 신분으로 자신을 비우셨다. 그는 세상에 수난의 종으로 내려 오셨다(마 20: 28). 그는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사랑을 십자가의 형틀에서 승화시켰다.

자신의 신분을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되셨다. 인간이 되신 예수는 선생으로서 신분도 포기한 채 그의 제자들에게 섬기는 종으로서의 모범을 보이셨다. 잡히시기 전 예수는 그의 제자들과 함께 저녁식사 자리를 마련하셨다. 이 때 예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겹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셨다.”고 성서는 말한다(요 13:4-5).

이는 겸손한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일이다. 예수는 겸손의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우리가 피차 겸손하기를 힘쓴다면, 서로를 존경할 수가 있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은 겸손에서 시작된다.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낮추는 일

은 몸을 바치는 일과 같기 때문에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빌립보서 2장 14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도 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자기 일을 돌아 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둘째, 예수는 자신의 자율성을 포기하셨다. 예수는 자신의 가진 선택권도 포기하셨다. 무슨 일이든지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면서도 겸손히 기도하시기를,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 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막 14:36) 라고 하셨다. 스스로 피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쓰디쓴 고난의 잔을 택하시고 도살자 앞에 어린양 같이 잠잠히 순종하셨다. 이사야서 53장 7-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 가는 어린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 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 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이는 오직 순종의 마음에서 나올 수 있는 일이다. 예수의 순종은 전 인류를 구원하기에 족한 은혜를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가져다 주셨다. 성서는 말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 5:8)고 하였다. 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롬 5:17)라고 하였다. 만일 우리가 예수의 순종의 마음을 본받아 우리가 서로 순종하기를 힘쓴다면, 우리는 보다 유쾌하고 화목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사랑은 순종에서 성장된다. 자기를 죽이고 남에게 순종하는 일은 몸을 바치는 일과 같기 때문에 헌신이다.

셋째, 예수는 그의 특권을 버리셨다. 예수는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인생고를 친히 체험하시기 위해서 사탄의 시험도 받으시고 죽음도 맛보셨다. 성서는 예수를 잠깐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히 2:9)고 하였고, “...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히 2:14-15) 주시려 함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신다.”(히 2:18)고 하셨다.

이는 예수의 협동과 참여의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다. 예수는 우리들에게 협동과 참여의 정신을 보여 주셨다. 무엇보다도 낮은 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였고, 그들의 어려움에 동참하셨다. 예수는 당대의 지도층과 친분을 맺기보다는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멸시 당하는 자들을 돌보셨다. 그들의 삶에 협동하셨고 그들의 고난에 참여하셨다. 심지어 인간들이 겪는 죽음의 고통에 까지 참여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사랑은 협동과 참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 자기의 특권을 포기하고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들고 멸시 당하는 자들의 편에서서 그들에게 협동하며 그들의 고난에 참여하는 일은 몸을 바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랑은 이와 같이 자신을 포기하고 남과 동등 됨을 스스로 취

하는 것이며,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남의 일에 참여하고 협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사랑은 헌신이 되는 것이다. 사랑은 헌신을 요구하고, 헌신은 사랑을 불러 드린다.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살았고, 먹고 입고 쓰는 일에 지극히 검소했으며, 가난한 이웃과 자선기관을 돕는 일에 후덕했으며, 지극히 평범한 이웃으로 살다가 1995년 10월에 8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 아그네스 플럼브란 할머니가 계셨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800억 원의 유산을 남기고 죽었다면 어떨까? 그것도 740억 원은 장애인과 빈곤 어린이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의과대학과 자선 및 의료기관에 기부했고, 나머지 60억 원은 그 동안 할머니를 보살펴준 이웃의 4가족에게 15억씩 나누어주었다. 할머니는 아침식사용 시리얼을 만드는 켈로그사의 주식을 아버지로 부터 물려받았던 것이다. 이 엄청난 재산에도 불구하고 할머니는 평생동안 이웃과 지극히 평범하게 살면서 신분도 버렸고, 특권도 버렸고, 재산도 버렸다. 아무도 그녀를 특별한 사람으로 보지 못했다. 그녀의 이웃에 대한 지극한 배려와 관심을 두고 헌신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녀의 이웃들도 마찬가지로 지이다. 의지할 곳 없는 이웃의 한 평범한 할머니에게 베풀었던 그들의 작은 희생적인 사랑이 값지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들은 그들의 선행 때문에 뜻하지 않은 큰돈을 소유하게 되었다.

에릭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란 책에서 행복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헌신을 촉구했다. 헌신은 노력과 수고가 따른다.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7-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이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최고의 표현이다. 성육신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본을 보이신 헌신적인 사랑의 표본이었다. 헌신적인 사랑은 자기를 포기하고 남과 동등 됨을 취하는 것이며, 겸손과 순종과 협동과 참여의 정신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요일 4:11).

5. 헌신과 사랑(2)

(데살로니가전서 1장 1-4절)

최초의 유럽교회인 빌립보에 이어서 두 번째로 교회가 세워진 곳은 그리스 북쪽 마게도니아 지역에 위치한 고대 도시 데살로니가였다. 바울과 실라와 스테반이 유대인들의 조직적인 박해를 받아 가면서 이곳에 교회를 세운 것은 주후 50년경이었다. 바울 일행은 이곳에 오래 머물지 못했다. 유대인들의 박해가 너무 심해 3주 이상을 견디지 못하고 도시를 떠나야 했다. 그러나 1-2년이 지난 후에는 바울이 두 개의 편지를 쓸 만큼 크게 성장하였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역사(work)’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언급하였다. ‘믿음의 역사’란 믿음에 따른 기적을 말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행동하는 믿음,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 헌신하는 믿음을 말한

다. ‘사랑의 수고(labor)’란 노력하는 사랑, 조율하는 사랑, 십자가를 지는 사랑, 땀흘리는 사랑을 말한다. ‘소망의 인내(steadfastness)’란 어떠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 포기하지 않는 소망, 좌절하지 않는 소망을 말한다. 바울은 여기에서 땀과 노동과 헌신으로 열매를 맺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칭찬하였다. 이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 하셨다.

‘사랑의 수고’에서 ‘수고’는 ‘노동’을 의미한다. 노동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 수고를 말한다. 땀흘려 하는 일을 노동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사랑의 수고’는 노동이 수반되는 헌신적인 사랑을 말한다.

노동이 따른 헌신적인 사랑의 대표적인 예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자기 희생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이다. 십자가는 가장 극악한 방법의 사형틀이라고 말한다.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들은 가장 고통스럽게 가장 서서히 죽어간다. 하나님은 이 고통을 아무 죄 없이 전적으로 인간들을 위한, 인간들 때문에 당한 것이며, 인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은 그분의 노동이 컸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출산의 고통을 겪는다. 모든 어머니들은 커다란 고통과 진한 노동 속에서 생명을 얻는다. 큰 고통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얻으면 뿌듯한 희열을 느낀다. 젖을 물리고 헌신적인 사랑을 아끼지 않는다. 이로써 우리는 노동과 사랑이 정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동이 크면 사랑도 커진다. 노동이 크면 열매도 많아진다. 애써 번 돈은 귀한 법이다. 쉽게 번 돈은 쉽게 낭비된다. 마찬가지로 어렵게 일군 사랑은 오래 지속된다. 그러나 쉽게 일군 사랑은 쉽게 식어버린다. 고통과 노동 속에서

사랑의 열매가 맺힌다. 기쁨과 행복의 열매는 산고의 노동이 있
은 후에 열린다.

남부 칠레의 늪지에는 리노데르마르라는 작은 개구리가 살고
있다고 한다. 산란기가 되면 이 작은 개구리의 암컷은 젤리에
쌓인 알을 낳는다. 그 순간 곁에 있던 수컷은 이 알들을 모두
삼켜버린다. 물론 그것을 먹이처럼 완전히 삼키는 것이 아니다.
수컷은 식도 부근에 있는 자신의 소리주머니 속에 그 알들을 소
중히 간직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알들이 소리주머니에서 성숙
할 때까지 자신을 희생한다. 자신의 존재 이유며 중요한 쾌락인
우는 것까지도 포기한다. 소리주머니 속에 있는 새끼들의 안전
을 위해서 먹는 것까지 포기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알들이 완
전히 성숙하기까지 입을 벌리지 않는다. 알들이 완전히 성장했
다고 판단되면 비로소 리노데르마르는 자신의 입을 벌려 마치
긴 하품을 하듯 새끼 개구리를 입에서 내 보낸다.

이렇게 무엇인가 살아있는 것, 생명 있는 것은 노동을 통해서
또는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랑은 죽어있는 것들에 속하
지 않는다. 사랑은 언제나 살아있는 것들에 속한다. 그러므로 사
랑의 열매도 노동과 수고에 의해서 결실 한다. 노동이 크면 사
랑도 커진다.

‘헌신과 사랑(1)’에서 하나님께서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헌신적인 사랑을 겸손한 마음, 순종의 마음, 참여와 협
동의 마음에서 또 포기와 동일시에서 찾아보았다. ‘헌신과 사랑
(1)’에 이어서 관심과 기도와 책임과 이해와 존중과 주는 것 등
에서 헌신의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 헌신적인 사랑은 관심과 배려에서 찾을 수 있다. 관심과
배려에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이다. 관심과 배려가 없는 사랑은
가짜이다.

개화기 때, 6조(六曹)에서의 점심식사는 정오부터 오후 4시까
지 계속되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판서나 참판과 같은 당상관(堂

上官)이 맨 처음 먹고 나면 그 상을 물려 정랑(正郎)이나 좌랑(佐郎)과 같은 당하관(堂下官)이 먹고, 다시 그 상이 물려져 아전이 먹고, 아전이 물려 종들이 먹었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그토록 길었다. 이를 ‘네 물림 상’이라 불렀는데, 윗사람들은 상물림을 배려해서 제대로 먹지를 못해서 얼굴이 메말라 수척해지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를 ‘양상수척’(讓床瘦瘠)이라고 한다. 사랑이 있는 곳에 관심과 배려가 있다.

둘째, 헌신적인 사랑은 기도에서 찾을 수 있다. 사랑하면 기도하게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간절한 사랑이 헌신적인 사랑이다.

오래 전 미국 어느 도시 시립병원 정문 앞에 생후 6개월 된 아기가 버려져 있었다. 그 아기는 소경에다 뇌성소아마비를 앓았고, 정신까지 박약한 아이였다. 우유를 빨아 마실 반사본능마저 없는 아기였다. 이 아기를 발견한 병원 당국은 당황해하다가 마침 은퇴한 간호원 메이 램케와 이 딱한 사정을 의논하게 되었다. 당시 52세로 신앙심이 깊었던 램케는 사정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그 아기를 맡아서 키우기로 결심하고 집으로 데려 왔다. 아기의 이름은 레슬리였다. 그때부터 램케는 아기의 뺨을 자기의 얼굴로 비벼주고, 팔, 다리, 손가락을 마사지해 주었으며, 하루에도 몇 번씩 이야기를 들려주고 자장가를 불러 주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나도록 식물인간이나 다름없는 레슬리는 단 한번의 움직임이나 한마디의 말은 물론 웃음이나 눈물도 보이지 않았다.

램케는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님, 제가 스스로 레슬리를 찾아 나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이 아이를 키우도록 선택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를 언제쯤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기도라기 보다는 항변에 가까운 호소를 하면서 레슬리에게 걸음마를 시켜 보기도하고 특수 요법으로 치료를 받도록 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다.

18년의 세월이 흘렀다. 램케는 여전히 레슬리를 위해서 기도했다. “사랑의 하나님! 성경의 기적을 믿습니다. 이 아이에게도 기적을 허락해 주십시오. 정신적 감옥을 깨뜨리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기적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램케는 레슬리가 엄지손가락으로 기타를 통기고 있는 것을 보았다. 18년만에 처음 보여준 이 작은 기적 앞에서 램케는 음악을 생각해 냈다. 음악이야말로 레슬리를 치료할 수 있는 마지막 도구라는 생각을 했다. 이 일이 있고나자, 램케는 집안을 온통 음악으로 가득 채웠다. 그리고 레슬리의 손가락을 집어주며 피아노 연습을 시켰다. 그러나 레슬리는 한번의 기적으로 만족하라는 듯 더 이상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1971년 겨울 새벽에 기적이 일어났다. 곤한 잠에 빠진 가족들은 누군가 차이코프스키의 피아노 협주곡 1번을 치는 소리에 잠을 깨었다. 순간 램케는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레슬리의 방으로 달려갔다. 레슬리가 미소를 머금은 채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었다. 램케는 소리쳤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레슬리를 잊지 않으셨군요.” 레슬리의 눈에서도 21년만에 진주 같은 이슬이 맺혔다. 노래까지 부르기 시작했다. 성량이 풍부했다. 이후 그는 뉴욕 텔레비전에 출연하여 피아노를 연주했는데 더듬대며 “음악은 사랑입니다.”라고 말했다. 매스컴은 이 신화를 메이 램케 부인의 “사랑과 기도의 기적”이라고 보도했다. 사랑이 있는 곳에 간절한 기도가 있다.

셋째, 헌신적인 사랑은 책임에서 찾을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적 존재로 지음 받았고, 톨스토이가 말한 대로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여기서 사랑은 책임이 수반되는 사랑, 약속이 지켜지는 사랑을 말한다. 약속을 지키고 책임을 이행하는 사랑이 헌신적인 사랑이다.

사랑과 책임은 정비례한다. 사랑이 있으면 책임도 있고, 사랑이 없으면 책임도 없다. 아담은 이브에게 책임을 느끼지 못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과기의 책임을 이브에게 떠넘겼다. 사랑이 없었다는 증거이다. 가인은 아벨에게 책임을 느끼지 못했다. 자신의 불행을 아벨의 탓으로 돌려 동생을 죽였다. 사랑이 없었다는 증거이다. 요나는 니느웨의 백성에게 책임을 느끼지 못했다. 요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에게 책임을 느끼지 못했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책임을 느끼지 못했다. 그들은 불쌍한 민중에게 가중한 율법의 멍에를 메도록 했다. 이 모든 이들이 책임을 느끼지 못한 것은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책임지지 않는 사랑은 가짜란 것을 알 수 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책임이 있다.

넷째, 헌신적인 사랑은 이해와 존중에서 찾을 수 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는 것은 가짜이다. 이해란 말을 영어로 ‘언더스탠드’(understand)라고 한다. ‘언더스탠드’란 아래에 선다는 뜻이다. 상대방의 입장과 처지를 알기 위해서 상대방 밑에 선다는 뜻이다. 자신을 낮추면 상대방이 커 보인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면 존중하게 된다.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이 헌신적인 사랑이다. 사랑은 이해를 심화시키고 이해는 사랑을 심화시킨다. 깊이 이해하면 깊이 사랑하게 되고, 깊이 사랑하면 깊이 이해하게 된다.

빌립보서 2장 24절은,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고 하였고, 로마서 12장 9-10절은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이해와 존중이 있다.

다섯째, 헌신적인 사랑은 주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사랑하면,

시간, 돈, 정성, 재능 할 것 없이 무엇이든지 주려고 한다. 아낌 없이 주는 것이 사랑이다. 무엇을 주느냐를 보고 얼마만큼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다. 주면서도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주어서 기쁜 것이 사랑의 생리이다. 주어서 풍성해지는 것이 사랑의 신비이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깝다는 생각이나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사랑하면 아깝다는 생각이나 억울하다는 생각이 일지 않는다. 받으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 자체가 큰 기쁨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면 할수록 가장 소중한 것조차 아낌없이 주려고 한다.

사랑은 한 자루의 초와 같다.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자신을 산화시키는 것과 같다. 사랑은 많은 열매를 맺히려고 땅 속에 묻힌 한 알의 밀알과 같다. 헌신적인 사랑은 관심과 배려와 기도와 책임과 이해와 존중과 주는데서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4-7절에서 하신 말씀이다.

헌신적인 사랑이 참사랑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헌신적으로 사랑하셨다. 이 헌신적인 사랑을 성서는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한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독점적인 사랑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본받아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 신앙은 삶의 방식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한다. 사랑과 행복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제10장 사랑과 신앙

1.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2. 사람은 무엇이 필요한가
3. 사람은 무엇을 해야하는가

제10장 사랑과 신앙

1.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요한일서 4장 7-10절)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짧은 민화 한편을 발표한 적이 있다. 이 단편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미하일 천사에게 한 여자의 영혼을 빼앗아오도록 명령하였다. 천사가 인간세계에 내려와 보니, 그 여인은 몹시 아파서 누워 있었다. 조금 전에 두 쌍둥이를 출산했기 때문이다. 갓난아기는 어머니 곁에서 배가 고파 보채고 있었으나 어머니는 아기에게 젖을 줄 기운도 없었다. 여인은 죽음의 천사의 모습을 보자 하나님이 자기 영혼을 거두시려고 보낸 천사인 줄 짐작하고 매우 슬프게 호느끼며 애원했다. “미하일 천사님, 남편은 몇 일전 숲 속에서 나무에 깔려 죽었고, 제게는 이 아이들을 키워 줄 형제 자매도 친척도 없습니다. 제발 제 영혼을 데려 가지 마시고 이 아이들을 제 손으로 키우게 해주십시오. 이 어린것들이 어떻게 부모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딱한 처지를 알아챈 천사는 한 아이를 안아 어머니의 젖에 물려주고 다른 한 아이를 어머니의 팔에 안겨 준 다음 하늘 나라로 돌아

갔다. 그리고 하나님 곁으로 날아가서 보고했다. “하나님, 저는 산모의 영혼을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나무에 깔려 죽고 부인은 쌍둥이를 낳아 병들어 있었는데 제게 영혼을 거두어 가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발 자기 손으로 아이들을 키우게 해 달라면서 어린아이는 부모 없이 살 수 없다고 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모의 영혼을 빼앗아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다시 지상으로 내려가 산모의 영혼을 거두어 오너라. 그리고 너를 세상으로 추방한다. 그 곳에서 세 가지 문제의 해답을 찾을 때까지 인간들과 함께 고생하며 살아라. 먼저,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알아보아라. 둘째,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를 알아보아라. 셋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알아보아라. 이 세 가지 질문의 해답을 얻게 되면 그 때 너는 다시 하늘 나라로 돌아 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미하일 천사는 지상에 버려진 불쌍한 신세가 되었고, 6년 동안 아주 가난한 구두 수선공 밑에서 구두를 수선하며 살게 되었다. 천사는 별거벗은 몸으로 세상에 쫓겨나 어느 교회 담 밑에서 얼어죽어 가고 있었다. 그 때에 그 곳을 지나가던 가난한 구두 수선공이 사랑을 베풀어주었다. 자신의 처지도 딱하였지만, 불쌍하게 죽어 가는 사람을 그대로 놔두고 지나쳐 갈 수가 없어서 입은 옷을 벗어 주었고, 그를 집으로 데려 왔다. 그러나 가난에 찌든 구두 수선공 부인은 당장 입을 것도 먹을 것도 없는 처지에 식솔이 늘었으니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다. 부인은 표독스럽고 불만에 가득한 험담을 한동안 늘어놓았다. 그러나 그녀는 그 청년에게 측은한 마음이 없지 않았다. 그래서 화를 풀고 옷가지를 챙겨다 주었고, 먹을 것을 마련해 주었다. 미하일 천사는 미소를 띄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첫째 질문의 답을 알아냈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미하일 천사는 구두 수선공 밑에서 열심히 일하였다. 주인보다도 더 숨쉴 있게 신발을 깎고 수선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마차를 요란하게 몰고 온 건장한 신사가 비싼 가죽을 내 보이며, 일년을 신어도 비뚤어지거나 닳지 않는 구두를 만들어 달라고 고압적으로 명령했다. 만일에 일년 안에 신발이 비뚤어지거나 닳아 떨어져 버린다면 혼쫓내겠다고 위협하였다. 그러나 미하일은 돈 있고 지위가 높다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오만을 부리는 부자의 등뒤에선 죽음의 천사를 보고 미소를 지을 수 있었다. 둘째 문제의 해답을 얻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는 내일 자기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 신사에게 필요했던 것은 튼튼한 구두가 아니라, 죽은 후에 신어야 할 슬리퍼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 부자는 잠시 후에 자신이 죽을 것을 몰랐던 것이다. 그래서 미하일은 산 자가 신을 튼튼한 구두 대신에 죽은 자가 신을 슬리퍼를 만들었다.

미하일 천사가 인간이 되어 구두 수선을 시작한지 6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아주머니가 두 쌍둥이 소녀를 데리고 신발을 맞추기 위해서 구둣방에 찾아오는 것을 보았다. 한 소녀는 다리를 절고 있었다. 그 아주머니는 자신이 데려온 두 소녀에게 예쁜 구두를 맞춤으로 주문하였다. 그리고 그 소녀들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그 소녀들은 6년 전 미하일이 살려 주고 싶어했던 산모의 딸이었다. 다리를 절게 된 소녀는 미하일이 어머니의 팔에 안겨준 아이였다. 어머니가 그 아이의 한 쪽 발을 깔고 죽었기 때문이다. 어머니를 잃은 두 쌍둥이 소녀는 이웃집 아주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사랑스럽게 자라고 있었다. 이웃집 아주머니는 이 두 소녀를 친딸처럼 키우고 있었다. 그 때 미하일 천사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지를 알게 되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을 알았다. 그 때 그는 다시 천사가 되어 하늘로 올라 갈 수가 있었다.

구두 수선공과 그의 부인은 깜짝 놀랐다. 그들은 자신들이 베

폰 작은사랑 때문에 6년 동안 천사를 모시고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리고 미하일이 만든 신발들은 모두 최고의 품질과 기술로 된 것들이었다. 그 동안 그들은 미하일 덕분에 어느 정도 저축도 할 수가 있었다. 자신들이 궁하고 어려웠을 때에 베풀었던 작은 사랑이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었던 것이다.

그렇다. 사람은 이런 저런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음으로써 살아간다. 이것이 미하일 천사가 인간이 되어 6년 동안 살면서 깨달은 것이다. 사람은 이런 저런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써 살아간다. 산모에게는 자기 아이들의 생명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불쌍한 쌍둥이 아이들은 이웃의 한 여인에 의해서 훌륭하게 양육되었다. 고아가 되어버린 쌍둥이 자매가 살아남게 된 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생계를 걱정했기 때문이 아니라, 타인인 한 여인에게 사랑의 마음이 있어 그 아이들을 가엾게 생각하고 사랑해 주었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것은 모두가 자신의 일을 걱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뿔뿔이 떨어져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인간 각자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려 주시지 않았고, 인간이 하나로 뭉쳐 사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지 못하도록 하셨다. 만일 사람들이 자신들을 걱정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인간들의 생각일 뿐이지, 정말은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으며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 속에 사는 사람을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사랑이다. 인간은 서로 사랑하도록 되어 있다. 바울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했다.

에릭 프롬은 『사랑의 기술』이란 책에서 사랑의 특성을 다섯

가지로 이야기했다. 첫째는 관심을 갖는 것이오, 둘째는 책임을 느끼는 것이오, 셋째는 존중하는 것이오, 넷째는 이해하는 것이오, 다섯째는 주는 것이라고 했다.

사랑하는 것은 관심을 가져 주는 것이다. 2차 대전 후 패전국 이탈리아의 시칠리아 섬에 산을 하나 두고 두 영아원이 이웃하고 있었다. 하나는 연합군과 결연 되어 있어서 시설도 좋고 음식도 좋았지만 다른 영아원은 비바람도 제대로 가리지 못할 뿐 아니라 분유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시설과 음식이 좋은 영아원 아이들의 사망률이 시설이 나쁘고 가난한 영아원보다 60%나 높았다고 한다. 그 이유는 보모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고 없과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비록 가난하고 시설은 형편이 없었지만, 자기 자식처럼 돌보는 보모의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들은 끈질긴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사랑하는 것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날씨가 험악한 날 밤에 도움을 청하는 전화가 걸려오자 의사는 가야할지 말아야 할지를 망설였다. 그러나 그는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강렬했기 때문에 억수같이 퍼붓는 빗속을 뚫고 도움을 요청한 가난한 노동자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 의사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그 노동자의 어린아이는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 로이드 조지라는 이 아이는 훗날 영국의 수상이 되었다.

사랑하는 것은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관포지교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관중은 춘추 시대 초기의 제나라 사람이었다. 젊은 시절부터 포숙아와 둘도 없는 친구였는데, 포숙아는 관중의 비범한 재주를 인정하여 언제나 좋은 이해자요, 또한 동정자가 되어 주었다. 훗날 관중은 포숙아를 두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젊은 시절에 가난하여 포군과 함께 장사를 했는데, 그 이득은 언제나 내가 더 많이 차지했다. 하지만 그는 나를 욕심쟁이라고 하지 않았다.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아는 까닭이었다. 나는 또

몇 번이나 벼슬자리에서 파면되었으나, 그는 나를 무능하다고 하지 않았다. 아직 내 운수가 트이지 않았음을 아는 까닭이었다. 싸움터에서도 몇 번이나 패배하여 도주하였지만, 그는 나를 비겁하다고 하지 않았다. 나에게 연로하신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아는 까닭이었다. 또한 내가 사로잡혀 왔을 때에도 그는 나를 몰염치하다고 하지 않았다. 내가 작은 일에 구애되지 않고 천하에 공명을 떨치지 못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줄을 아는 까닭이었다.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로되 나를 알아준 이는 포군이었다.”

사랑하는 것은 주는 것이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사랑에는 두 가지 욕망의 뜻이 있다고 말했다. 첫째는 주고 싶다는 욕망이요, 둘째는 빼앗고 싶다는 욕망이라고 했다. 또 사랑에는 조건 없는 헌신적인 사랑이 있는가하면 조건적인 사랑이 있다. 희생적인 사랑이 있는가 하면 이기적인 사랑이 있다. 우리가 베풀어야 할 사랑은 주는 사랑이요, 조건 없는 사랑이요, 헌신적인 사랑이다.

인간의 사랑은 대부분이 품앗이 사랑이요, 이기적인 사랑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 희생적으로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인하여 죽었어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 인간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셨다. 희생적으로 사랑하셨다. 먼저 사랑하셨다. 본문 말씀이 이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하나 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칼 바르트는 그의 이중 예정론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을, 축복과 생명을 예정하셨고, 자기 자신에게는 버림을, 저주와 죽음을 예정하셨다”고 적고 있다. 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총인가? 저주와 죽음을 당할 수 밖에 없는 인간에게 축복과 생명을 예정하시고 또 자기 자신에게는 우리 인간이 당해야 할 저주와 죽음을 예정하셨던 것이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하나님과의 사귀를 예정하시고, 자기 자신에게는 인간과의 사귀를 예정하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인간의 몫을 자기가 취하는 대신, 자기의 몫, 곧 축복과 생명을 인간에게 주기로 결정하셨다. 그는 자신을 낮추심으로서 인간을 높이기로 결정하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정신이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사랑이 베풀어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경험되어 진다. 사랑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정의가 있다. 그리고 사랑이 있는 곳에 진리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책 속에서만 찾으려고 한다. 그러나 진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행동에 있다. 많은 사람들이 투쟁으로 정의와 평화를 쟁취하려 한다. 그러나 정의와 평화는 투쟁 속에 있지 아니하고, 사랑의 행위 속에 있다. 정의와 평화의 나라는 싸움을 멈추고 사랑을 베푸는 곳에서만 이루어진다.

2. 사람은 무엇이 필요한가

(베드로전서 4장 8절)

톨스토이가 쓴 민화 가운데 「대자(代子)」라는 제목의 단편이

있다. 이 글은 가난한 집안의 어떤 소년이 대부(代父)를 통해서 인생을 배워 가는 교훈적인 내용이다. 여기서 대부란 천주교회나 동방정교회 등에서 세례식 때나 입교식 때에 세우는 믿음의 아버지를 말한다. 『대자』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사랑을 베푸는 사람에게 필요한 세 가지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한다.

대자는 나이 들어 숲 속에서 수도생활을 하고 있었다. 불에 타다 남은 세 개의 사과나무 막대기를 땅에 심고 짝이 나기를 기다리며 날마다 냇가에 내려가 입에 물을 머금어다가 이미 죽어버린 막대기에 물을 뿜어주며 신도들이 가져다주는 음식을 먹고살았다. 그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단 한 사람, 그를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사람 죽이는 재미로 사는 잔인무도한 강도였다. 이 강도는 대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을 하곤 했다.

대자가 이 강도를 변화시키는데 걸린 시간은 30년이었다. 대자가 강도를 처음 만나 마음 고생한지 9년, 그리고 타다 남은 사과나무 막대기 세 개를 땅에 심고 물을 머금어 뿜어 준지 10년만에 타다 남은 막대기 한 개에 짝이 돋았다.

처음에 대자는 강도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 않았다. 강도를 두려워한 나머지 신자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하나 근심 걱정도 많이 했다. 그러나 대자는 깨달은 것이 있어서 암자를 버리고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깊은 숲 속으로 가서 수도를 했다.

대자는 10년 수도 끝에 자신에 대한 걱정을 그치고 자기의 마음을 맑게 할 수 있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인생살이 문제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강도는 죄를 뉘우치고 회개해야 한다는 대자의 설교를 비로소 마음에 새기게 되었다. 강도의 타버리고 말라버린 마음에

변화의 싹이 돋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다시 십 년이 흘렀다. 또 하나의 타다 남은 사과나무 막대기에 싹이 나왔다. 대자는 20년 수도 끝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옳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아무리 무서운 강도라 할지라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자 강도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안에 고정시켰을 때에 굶힐 줄 모르던 강도의 고집이 꺾이기 시작한 것이다. 강도의 타버리고 말라버린 마음에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다시 십 년의 세월이 흘렀다. 마지막 남은 사과나무 막대기에 싹이 나왔다. 대자는 30년 수도 끝에 잔인무도한 강도를 가엾게 여겨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었다. 그러자 강도의 마음이 얼음 녹듯이 녹아 버렸다. 대자의 뜨거운 마음에 강도의 얼어붙은 마음이 녹아지게 된 것이다. 강도의 타버리고 말라버린 마음에 회개의 기적이 일어 난 것이다.

대자가 생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를 위협하는 강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에 타다 남은 막대기 같은 강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톨스토이는 『대자』를 통해서 피를 피로 갚고, 이를 이로 갚고, 눈을 눈으로 갚는 사람들은 피차 망한다는 교훈을 일깨워 주고 있고, 원수를 사랑으로 갚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사는 길임을 다음의 세 가지 교훈으로 일러주고 있다.

첫째, 순수하고 순결한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이다. 더러운 걸레로 거울을 닦게 되면, 거울이 어떻게 되겠는가? 아무리 닦아도 깨끗하게 닦을 수 없을 것이다. 닦으면 닦을 수록 거울은 더욱 더러워 질 것이다. 그러나 깨끗한 걸레로 거울을 닦는다면, 거울은 깨끗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근심 걱정을 그치고 자신의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할 때에 타인의 마음도 맑게 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마음이 맑은 사람

은 언제나 남을 맑은 마음으로 본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이 흐린 사람은 언제나 남을 흐리게 본다. 마음이 맑은 사람은 자신의 맑은 마음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바로 볼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자기 자신의 거울을 통해서 상대방의 더러움을 볼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이 ‘자신의 마음이 맑으면 타인의 마음을 맑게 할 수 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다 체포된 안이숙 씨가 평양형무소에 수감되었을 때의 일이다. 안이숙은 사형이 결정된 만주 여자의 괴성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만주 여자는 외간 남자와 눈이 맞아 남편을 토막 내어 죽이고, 그 시체를 압록강에 버린 죄로 사형이 확정된 여자였다. 그 여자는 취조를 받던 중에 아기를 빼앗기고는 미쳐서 괴성을 지르곤 했다. 안이숙은 간수에게 만주 여자를 자기 방으로 옮겨 줄 것을 부탁하여 허락이 되자 그녀를 지성으로 보살폈다. 안이숙은 만주어를 배워 만주 여자에게 “나는 당신을 좋아한다. 나는 당신을 참 사랑한다.”라는 말을 끊임없이 되풀이했다. 만주 여자는 점차 발작이 줄어들면서 제 정신으로 돌아왔고 안이숙에게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였다. 그리고서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자신에게 정해진 사형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였다. 사형 집행 일이 되자 그녀는 평화로운 자세로 형장에 끌려 나갔다.

둘째, 곧고 강직한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이다. 철골을 다루는 일군이 버팀목을 탄탄하게 고정하지 않으면, 철근을 휘 수 없는 것처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멈추고 자신의 생활을 하나님 안에 고정시킬 때에 완고하고 악한 고집도 꺾이고 만다. ‘버팀목이 튼튼하면 강철도 버팀목에 걸려 휘어진다.’ 마찬가지로, 신념과 믿음이 강한 사람 앞에서는 꺾이지 아니할 사람이 없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준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교수로 계신 유재신 목사의 『조건 없는 사랑』이란 책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체험담이 실려 있다.

6.25동란 당시 유재신 박사는 경기 중학에 다니고 있었다. 기숙사 벽장 속에 숨어 지내다가 배고픔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기숙사에서 나와 서울에 있는 병원식당에서 노동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그는 9.28수복 전에 퇴각하는 인민군 장교에게 발각되어 무진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인민군 포로가 되어 비참하게 북으로 끌려가고 있었다. 시월 초순이 되면서 날씨는 차가워지기 시작하였고, 북으로 갈수록 전투는 심해졌다. UN군의 폭격으로 인민군 부상자들이 늘어났다. 어느 마을을 지나고 있을 때에 한 인민군 부상자가 쓰러질 듯 앓아 있는 것이 눈에 띄었으나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으므로 모두들 지나쳐 갔다. 그 역시 지나치려는 순간, 낮이 익은 얼굴이었다. 얼마전 자기를 죽이려했던 인민군 장교였다. 살기 등등하게 고문하던 그 힘과 눈빛은 사라지고 한쪽 다리는 심하게 부상을 당하여 피로 범벅이 된 채 죽어 가고 있었다. 유재신 박사는 잠시 주저했다. “그냥 지나칠까?” “치료받으면 살 수 있을 텐데. . .”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저놈은 나를 죽이려 했던 놈인데. . . 내버려둔다면 죽을 것이 뻔한데. . .” 망설이던 유재신 박사는 결국 부상당한 원수를 등에 업고 걷기 시작했다. 자기 한 몸 가누기도 어려운 처지였다. 이미 천 리 길을 걸었던 터라 신발은 닳아 떨어져 나갔고 맨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더러는 딱지가 앓아 무척 아팠다. 등에 업혀 가던 인민군 장교가 말했다. “동무, 내가 동무를 죽이려 한 것을 잊었소.”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짐스럽게 나를 감당하려고 하오. 동료들도 버린 나를 원수를 삼아도 마땅할 나를 말시오.” “나는 사랑이 미움보다 강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같은 동포인 당신이 죽어 가는 것을 버리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나 또한 인간이기에 처음 당신이 미웠으나 지금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은 미움보다 강합니다.” 그 때 인민군 장교의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눈물이 빗줄기 되어 뺨을 적셨다. 그는 엉엉 소리 내어 울었다.

“동무, 나는 남한 사람들을 수없이 죽였소. 공산주의가 아닌 사람을 증오했소. 그러나 당신을 만난 다음 사랑이 무엇인지 처음으로 깨달았소.”라고 인민군 장교는 고백했다. 그는 결국 앰블런스를 만나 병원으로 실려 갈 수 있었다. 인민군 장교는 말했다. “동무, 이대로 동무 품에서 죽겠소. 차라리, 차라리, 병원에 가지 않겠소.”

셋째, 정열에 불타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교훈이다. ‘밑 불이 강해야 생나무를 태운다.’ 밑 불은 자신의 불이다. 자신의 불이 약하면, 남에게 불을 주지 못한다. 밑 불이 약한 사람이 선불리 남에게 불을 주려 하다가는 자신의 불마저 꺼뜨리고 만다. 자신의 밑불은 믿음의 불이요, 성령의 불이요, 남을 사랑하는 정열의 불이다. 이 불이 강하지 못하면, 미움과 증오와 유혹과 시험과 공격과 비방과 헐뜯고 소외와 갈등과 같은 생나무를 태울 수가 없다. 그것들에 오히려 먹히고 만다. 그러나 자기의 마음이 사랑의 불로 뜨겁게 달아올랐을 때에는 타인의 마음에 불을 던질 수 있다. 미움보다 사랑이 강할 때 미움을 태울 수 있다. 유혹보다 믿음이 강할 때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다.

이와 같이 마음이 맑으면 타인의 마음을 맑게 할 수 있다. 신념과 믿음이 강하면 타인의 강박한 마음도 훨 수 있다. 자신의 마음의 불이 강하면 타인의 마음에 불을 던질 수 있다. 걸레가 깨끗해야 깨끗하게 닦을 수 있다. 버팀목이 튼튼해야 철근을 훨 수 있다. 밑 불이 강해야 생나무를 태울 수 있다.

예수가 바로 이런 분이였다. 예수는 뜨거운 사랑의 불을 세상에 던지셨다. 이 불이 세상에 옮겨 붙었을 때에 이 불길을 진압할 자가 아무도 없었다.

아랍사람들의 복수에 대한 집념은 가공할 정도라고 한다. 누군가가 살해당하면 그 피살자의 친인척에 속한 남자들은 복수의 의무를 지니게 되며, 이 복수의무가 주어지는 혈연집단을 ‘카르사’라고 한다. 만약 복수하지 못하거나 복수에 소홀하면 그 카

므사의 명예는 형편없이 타락하여 그 카므사와는 교역도 결혼도 기피하기 때문에 카므사간의 싸움이 종족간의 전쟁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같은 혈연집단끼리 이동하며 사는 사막의 유목생활이기에 종족 안전에의 연대책임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으며, 그 피해에 대한 보복은 이미 구약성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구약성경에 ‘고엘 하담’이라는 용어가 있다. 이 말은 ‘피의 복수자’라는 뜻이다. 피의 복수자란 복수의 의무를 지닌 가장 가까운 근친을 말한다. 이 사람의 복수는 하나님께서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당시의 법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는 동해상해법이다. 가해자에게 동일한 해를 입히는 처벌법을 말한다. 따라서 성경은 과실 치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토록 했던 것이다.

그러나 예수의 혁명적인 교훈은 피를 피로 갚으라는 사막의 계율을 바꾸어 피를 용서로 갚으라는 사랑의 교훈을 십자가의 희생으로서 가르치셨다. 우리는 예수의 사랑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 불을 강한 밀 불로 키워야 한다. 그리고 이 불을 세상에 나누어주어야 한다.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간다.

3. 사람은 무엇을 해야하는가

(마태복음 25장 31-46절)

흑인 인권운동가 마르틴 루터 킹 목사는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겼다. “내가 죽거든 장례식을 검소하게 치러주십시오. 긴 찬사를 삼가해 주십시오. 내가 노벨상을 수상했다는 것을 말하지 마십시오. 나의 학벌도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어서도 듣기를 원하는 것은 ‘마르틴 루터 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다가 죽었

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먹이기 위해, 헐벗은 사람들에게 옷을 입히기 위해 열심히 살다가 죽었다. 그는 불쌍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다가 죽었다'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영화로 만들어져 큰 인기를 누렸던 퀴오바디스(Quo vadis)란 책에 다음과 같은 대화가 나온다. 주인공 비니키우스가 사도 바울에게 묻는다. “헬라는 역사에 길이 남을 미술을 남겼다. 그리고 로마는 세력과 법률을 우리에게 주었다. 당신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베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제국의 무서운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해와 인내와 사랑으로 신앙의 기반을 다져 나갔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전 유럽을 정복하고 말았다. 주후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한 이후 사랑의 복음은 온 세계를 향해서 퍼져 나갔다. 칼로 세계를 정복했던 영웅호걸들은 그들이 세운 나라의 멸망과 함께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졌지만, 사랑을 전했던 예수는 비록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아 십자가에 처형당했지만, 그의 나라와 그가 전한 사랑의 복음은 전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가?

“이 녀석이 어디로 갔을까?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데. 집 나간 지 벌써 4일째나 되었는데. 눈이 쌓이면 돌아오고 싶어도 오지 못할텐데. 여보, 내 잠시 나갔다 오겠소.” 페스탈로치는 아내인 안나에게 이렇게 말하고는 다 해진 옷을 차려 입고 눈보라 속으로 걸어나갔다. “혹시 이 근처에서 남자아이를 보지 못했습니까? 아이로스라고 합니다.” “아니오.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서 물어도 모두가 한결같이 모른다는 대답뿐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나무라기까지 했다. “아니, 또 도망쳤어요? 당신이 데리고 있는 아이들은 잠시라도 눈을 떼면 무엇이든 훔쳐가니 안심할 수가 없소. 빨리 붙잡아요.”

페스탈로치는 노이호프라는 마을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다.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자신의 집을 고아들을 위한 보금자리로 꾸몄다. 아이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같은 음식을 먹었다.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생활하면서 그들을 돌보았다.

1772년 페스탈로치가 빈민학교를 세우고 고아들을 모아 교육을 시작하자, 많은 마을 사람들이 반대를 했다. 마을 사람들은 까닭 없이 눈총을 주고 대 놓고 싫은 소리를 해댔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것은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때때로 남의 것을 훔치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다. 아이로스와 같이 집에서 도망치는 아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페스탈로치와 그의 아내는 실망하지 않았다. “사랑한다는 것은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언젠가는 스스로 깨닫겠지”라고 생각했다.

눈보라치는 이날도 페스탈로치는 도망친 아이로스를 찾아 나섰다. “아이로스는 어디로 갔을까? 무사해야 할텐데. 나쁜 짓일랑 하지 말아야 할텐데. 하나님, 아이로스를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제게도 용기를 주십시오.” 페스탈로치는 기도하며 걸었다. 페스탈로치는 작은 오두막에서 퐁퐁 얼어붙다시피 한 아이로스를 찾아냈다. 그를 집으로 데려와 눕히고 극진히 간호했다. 얼마 후 아이로스는 기운을 차렸다. “선생님,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로스는 훌쩍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아이로스, 아무 말 마라. 괜찮아, 추웠지?” 페스탈로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감사의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이것은 교육의 아버지 페스탈로치가 처음으로 빈민학교를 세웠을 때 일어났던 이야기이다. 1827년 81세로 일생을 마친 페스탈로치의 비석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한다. “노이호프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도왔고, 시탄스탄츠에서는 고아의 아버지였으며, 브르크도르프에서는 국민학교의 설립자였으며, 평

생을 남을 위해서 살았으나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갖지 아니한 위대한 교육자였다. 그의 이름에 거룩한 은혜가 있을 찌어 다.”

아프리카 지역의 흑인들을 돌보는 일에 평생을 바쳤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오직 사랑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사귄 수 있다.’고 말했다.

톨스토이의 민화 가운데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제목의 글이 있다. 이 글의 주인공은 반지하에 살고 있는 마르틴 아부제이치라는 이름을 가진 가난하지만 성실하고 신용 있고 신앙심이 깊은 구두수선공이다.

마르틴은 착한 사람이긴 했지만 매우 불운한 사람이기도 했다. 그가 아직 남의 밑에 있을 때에 부인은 죽었고, 하나밖에 없던 아들마저도 병들어 죽고 말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르틴은 믿음을 잃지 않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성경을 읽었다. 그는 성경 속에서 기쁨을 찾고 참 만족을 얻었다. 하루는 마르틴이 성경을 읽고 명상에 잠겼다가 그만 깜빡 잠이 들었다. “마르틴!” 문득 누군가가 등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 왔다. 마르틴은 놀라서 “저기 있는 사람이 누구까”라고 생각했다.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마르틴은 다시 엎드려 잠을 청했다. 그러나 이때 또 한번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 왔다. “마르틴, 마르틴아! 내일 도로를 보아라, 내가 갈 터이니.” 마르틴은 의자에서 일어나 눈을 비비기 시작했다. 마르틴은 꿈속에서 들었는지 깨어서 들었는지 갈피를 종잡을 수가 없었다.

이튿날 아침, 마르틴은 아직 날이 새기도 전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난로에 불을 지피고 국과 보리죽을 끓이고 물주전자를 준비하고 앞치마를 두르고 창가에 앉아 일을 시작했다. 마르틴은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으로 어젯밤의 일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창가에 앉은 마르틴은 일을 한다기보다는 창 너

머로 큰길을 내다보는 편이 더 많았다.

창 너머로 바라보니 스제빠니치라는 가난한 늙은 병사가 길에 쌓인 눈을 치우다가 삼을 벽에 기대 놓고 잠시 쉬고 있었다. 마르틴은 깊게 쌓인 눈을 치기에는 기력이 너무 쇠한 이 노인에게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대접하고 싶어졌다. 마침 난로 위에 놓인 주전자에 물이 끓고 있었다. 마르틴은 일감을 옆으로 치우고 나서 차를 준비한 다음 스제빠니치를 집안으로 불렀다. 스제빠니치는 추위에 온 몸이 쭈시고 손발이 시려 떨고 있었다. 마르틴은 스제빠니치에게 여러 잔의 차를 대접했다. 차를 마시는 중에 마르틴은 스제빠니치에게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가난하고 못 배운 불쌍한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듣는 스제빠니치의 양 볼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마르틴은 스제빠니치가 가고 난 다음에도 창 너머로 주님이 혹시 오시는가 하고 바라보곤 했다. 창 너머로 내다보니 허술한 여름 옷 차림새의 한 아줌마가 아기를 데리고 창 앞에서 떨고 있었다. 그녀는 바람을 등지고 벽과 마주 서서 아기가 춥지 않도록 감싸주려 하는 모양이었으나 감싸 줄 덮개 하나 없었다. 마르틴이 방 안에서 듣고 있으려니 여자가 우는 아기를 달래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마르틴은 일어나 밖으로 나가 아주머니를 집안으로 불렀다. 집안으로 들어온 아줌마는 아무 것도 먹지를 못해서 젖이 나오지 않아 아이가 운다고 일러주었다. 마르틴은 딱한 처지에 놓인 이 아줌마에게 빵과 수프를 대접했다. 아줌마가 식사를 하는 동안 마르틴은 아이를 안아 달랬다. 마르틴은 식사를 마친 아줌마에게 입을 옷가지와 돈도 주어서 보냈다.

여자가 가 버리자 마르틴은 수프를 먹고 설거지를 한 다음 다시 일감을 잡고 창가에 앉았다. 일을 하면서도 눈은 여전히 창 너머에 가 있었다. 문득 바라보니 창가에 할머니가 한 분 계셨다. 할머니는 사과가 담긴 바구니와 나무 부스러기가 든 자루를

가지고 있었다. 어깨가 아파서 다른 쪽 어깨에 바뀔 때려고 자루를 한길 위에 내려놓고 사과 바구니를 말뚝에 걸어 놓은 채 자루 속에 나무 부스러기를 추스른 다음 자루를 들어올리려는 참이었다. 그 때 다 헤진 모자를 쓴 사내아이가 불쑥 튀어나와 바구니 속에서 사과 한 개를 훔쳐 달아나려고 했다. 그러나 그 아이는 할머니에게 옷소매를 붙잡히고 말았다. 개구쟁이는 마구 발버둥치며 할머니의 손을 뿌리치려고 했으나 할머니는 두 손을 꼭 잡고 사내아이의 모자를 벗기더니 머리칼을 움켜잡았다. 사내아이는 마구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고 있었다. 마르틴은 바늘을 어디다 찔러 놓을 겨를도 없이 마룻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층계에 발이 걸려 안경도 떨어뜨렸다. 마르틴이 한길로 뛰어나갔을 때 할머니는 사내아이의 머리칼을 잡고 욕을 하면서 경찰서로 가자고 하는 참이었다. 사내아이는 죽을 힘을 다하여 발버둥치면서 훔치지 않았다고 악을 쓰고 있었다. 마르틴은 할머니를 달래어 사내아이를 용서하도록 부탁했다. 사내아이에게도 할머니께 용서를 빌도록 권면했다. 그리고 사내아이에게 사과를 사주었다. 마르틴이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의 교훈을 말해주자 할머니는 사내아이를 놓아주었고 마르틴에게 사과값 받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사내아이는 할머니와 가는 방향이 같았으므로 할머니의 짐을 들어주었고 서로 사이 좋게 길을 걸어갔다.

두 사람이 가버리자 마르틴은 집안으로 되돌아왔다. 안경을 주머니에 끼고 다시 일감을 잡고 일을 잘 마쳤다. 날이 어두워 등불을 켜고 일감을 치우고 정리한 다음에 벽장에서 성경을 꺼내어 어제 저녁에 읽던 곳을 펼쳐보았다. 성서를 펼치자 어젯저녁의 꿈이 생각났다. 꿈이 되살아나는 동시에 무엇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려왔다. 마르틴이 뒤를 돌아다보니 킁킁한 구석에 사람이 서 있었다. 사람은 사람인데 확실히 누구인지 알 수는 없었다. “마르틴, 마르틴, 너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지?”라고

그 사람이 말했다. “누구세요?”라고 마르틴이 물었다. “날 말이다. 아까 네가 만났던 노인은 나였어.” 목소리가 말했다. 그러자 어두운 한구석에서 스쥔빠니치가 앞으로 나오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형체도 그림자도 없이 사라졌다. “이들도 나였어.” 하고 목소리가 말했다. 그러자 어두운 한구석에서 아기를 안은 여자가 나타났다. 여자가 미소를 짓고 아기가 빙그레 웃었다고 생각하자 곧 사라졌다. “이들도 바로 나였어.” 하고 목소리가 말했다. 그러자 할머니와 사과를 가진 사내아이가 나와서 둘이 같이 빙그레 웃으며 마찬가지로 사라졌다.

마르틴은 몹시 기뻐다. 안경을 끼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마25:35-37).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25:40).

마르틴은 깨달았다. 꿈은 헛되지 않아 이날 어김없이 그리스도께서 마르틴에게 찾아오셨고 그는 예수를 대접했던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1-2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제11장 이상과 신앙

1. 성령과 환상과 꿈
2. 아브라함의 꿈과 믿음
3. 운명의 개척자 야곱
4. 하나님과 싸워 이긴 야곱
5. 역사는 하나님의 시험무대
6. 역사가 주는 교훈
7. 역사는 정신에 지배된다
8. 역사와 시간

제11장 이상과 신앙

1. 성령과 환상과 꿈 (사도행전 2장 17절)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한다.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베드로가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진실 되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을 만하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둘째, 이 말씀은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라.” 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고 뽑으신 모든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다(행 2:39).

셋째, 이 말씀은 성령이 뽑힌 자들에게 예언과 환상과 꿈을 주신다는 약속이다. 성령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과 비전과 꿈을 주신다. 성령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앞길을 내다볼 수 있는 영성을 주시고 비전과 꿈을 심어 주신다. 성령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과 비전과 꿈을 주실 뿐 아니라, 그들이 비전과 꿈을 성취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신다.

이와 같은 사실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잘 입증되고 있다. 교회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을 뽑아 부르신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 충만하게 하시고(행 9:17), 바울이 걸어야 할 새로운 길을 보여 주셨으며, 지속적으로 비전과 꿈을 심어 주셨다. 따라서 바울은 성령이 주시는 환상을 보고 목표를 세워 추진할 때에 최선을 다했다. 어떤 고난이나 시련에도 굴하지 않았고, 배고픔과 목마름과 매맞음과 감옥살이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결과 바울은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었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추앙 받고 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바울에게 수 십년 후의 번창할 기독교를 예언적으로 보여 주시고, 아시아 선교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따로 세워 선교사로 파송하셨다. 이 후로 바울은 키프로스 섬과 터키의 여러 지방들을 돌며 복음을 전했다. 이 과정에서 바울은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고, 수 차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춥고 배고프고 목마르며, 살해의 위협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일을 멈추지 않았다.

사도행전 16장 19절을 보면, 성령께서 바울에게 다른 환상을 보여 주셨다. 이 환상은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는 것이었다. 이 환상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바울의 꿈은 그다지 크지 못했다. 바울의 선교 대상지는 언제나 바울의 출생지인 다소에서 크게 멀지 아니한 터키 지역에 머물렀다. 이 때 성령께서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바울의 꿈을 유럽 쪽으로 확대시켜

주셨다.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이 갖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 마게도냐는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다. 바울이 꿈에 본 마게도냐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의 모습이었는지 모른다. 알렉산더 대왕은 20대의 나이에 단칼로서 당시의 서구문명세계를 정복한 사람이다.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보다 큰 꿈을 품었던 것 같다. 바울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고 끝내는 순교까지 당했지만 그의 꿈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크게 이루어졌다. 이와 같이 성령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실 뿐 아니라, 그 꿈을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끝이 없다. 죄로 인해서 벌을 받고 죽어야 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외아들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믿음 한가지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습니다. 죄의 병으로 죽어가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대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걸맞게 이제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를 변호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안위하게 하신다. 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 주시고, 비전과 꿈을 주시며, 이 꿈을 이루게 하신다. 얼마나 고마운 분이신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가 어떻게 꿈 없는 사람들처럼 살수가 있겠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큰 꿈을 품고 사는데,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꿈 없이 살수가 있겠는가?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은 세 가지이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에 속한 사람답게 우리 자신에게 열린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자신에게 열린 세계 선교의 미래를 보았던 것처럼,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고,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달마다 열 두 가지 종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는 생명나무가 있어 배고프지 않고, 생명수의 강이 흘러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의 열린 미래를 보았던 것처럼, 마르틴 루터 킹 목사가 흑백간의 차별과 편견이 사라지고 정의와 평화가 강처럼 흘러 넘치는 열린 미래를 보았던 것처럼, 빌 게이츠가 수억씩 하는 중대형 컴퓨터가 만들어지던 때에 저가의 소형 컴퓨터가 크게 보급될 열린 미래를 보았던 것처럼, 한글과컴퓨터사의 이찬진 사장이 20대의 나이에 한국어 워드프로세서의 열린 미래를 보았던 것처럼 성령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에게 열린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안을 떠야 한다.

둘째, 젊은이들은 비존을 가져야 한다. 약 90년 전 일본 삿포로 국제대학에서 식물학과 성경을 가르쳤던 미국인 윌리엄 클라크(William Clark) 교수는 일본을 떠나면서 행한 고별사에서 “Boys, be ambitious!”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고 한다. 이 말은 “소년들이여, 큰 뜻을 품어라!” 라는 뜻이다. 이 분의 가르침을 받고 큰 뜻을 품었던 일본인들 가운데는 우찌무라 간조를 비롯해서 일본 근대화에 앞장섰던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다고 한다.

다산 정약용은 일가 친척들이 천주교 신앙 때문에 순교 또는 유배를 당하는 쓰라린 아픔 속에서 집안의 몰락으로 의기소침한 아들 학유에게 주는 교훈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한 때의 시련으로 인해서 청운의 뜻을 꺾어서는 안 된다. 사나이의 가슴 속에는 항상 가을 매가 하늘로 치솟아 오를 것 같은 기상을 품고서 천지를 작게 보고 우주도 가볍게 요리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신라 진흥왕 때에 청소년들은 장래의 포부와 희망을 돌에 새

겨 신성한 성소에 묻고 하늘에 맹세하는 서석풍습이 보편화돼 있었다. 진흥왕 13년, 서기 552년에 쓰여지고, 1935년 경주 금강대 정상에서 발굴된 맹세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임신년 6월 14일에 두 사람은 더불어 적어서 하늘에 맹세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이후 나라에 충성하고 과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약속을 어기면 큰 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라가 불안하고 난세에 접어들더라도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또 작년(신미년) 7월 22일에 서약한대로 시상서예기전을 3년 안에 차례로 다 익힐 것을 거듭 다짐합니다.” 여기서 시(詩) 상서(尙書) 예기(禮記) 전(傳)은 신라시대의 교과목으로 초급부터 상급까지를 망라한 것이다. 이들 과정을 3년 안에 마치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초기 삼국시대 때의 신라는 고구려나 백제보다도 열세에 놓여 있었다. 백제는 일찍부터 불교를 받아들여(384년) 문화를 꽃피우고 있었고, 고구려는 북방 야만족들의 잦은 침략 때문에 군사강국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라는 군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어서 삼국을 통일하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이 때 진흥왕은 사람은 역사를 만들고 열은 사람을 만든다는 신념으로 화랑제도를 제정하여 신라의 젊은이들을 민족의 얼로 무장시켰다. 그 결과 백운(白雲), 김유신(金庾信), 사다함(斯多含), 김용엄(金庬廉), 관창(官昌)과 같은 화랑들은 이미 14-16세에 화랑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었고, 사다함은 대가야(大伽倻) 정벌 때 종군하여 큰공을 세우고 있으며, 관창은 어린 나이에 단신으로 계백 장군이 이끄는 백제군에 뛰어들어 목베임을 당함으로써 떨어진 신라 군인들의 사기를 높이고 있고, 김유신은 삼국을 통일하고 있다. 군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고구려와 백제에 뒤졌던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물리치고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저력은 신라의 청년들이 가슴에 품었던 꿈과 포부 때문이며, 화랑정신으로 무장한 민족의 얼 때문이었다.

자동차 왕으로 알려진 헨리 포드(1863-1947)는 농촌에서 태어나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 그렇지만 포드는 소년시절부터 “말이 끝지 않아도 되는 자동차를 만들겠다”는 커다란 꿈과 포부를 갖고 있었다. 16세 때에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이 세운 공장에 취직해서 기계공으로 일했던 포드는 어릴 적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동차 엔진 제작에 몰두했다. 그후 13년만에 8번의 실패를 극복하고 자동차 엔진 제작에 성공했고, 포드 회사가 만든 자동차가 한 때는 전 세계 자동차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명실상부한 자동차 왕이 되었다. 디트로이트에 있는 포드 박물관에 걸린 그의 초상화 밑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적혀 있다. “헨리 포드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전 서울대 총장 장이욱 박사의 동상이 서울 홍사단 본부 입구에 서 있다. 동상에는 장이욱 박사가 생전에 직접 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누군가 한 눈 뜨고 꿈꾸는 사람일 게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 이 말은 뜬눈으로는 현실을 보고, 감은 눈으로는 이상을 보라는 뜻이다. 생전에 장이욱 박사는 말하기를, “꿈을 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창조하는 것”이라고 했다.

셋째, 장년들도 꿈을 꾸어야 한다. 삶의 황혼기에 접어든 노인들 중에는 새로운 꿈을 꾸면서 큰 일을 해낸 분들이 적지 않다. 기아대책기구의 원경선 이사는 80세가 훨씬 넘는 나이에 불구하고 사회에 크게 공헌했다. 이 분은 남들이 퇴물이라고 생각할 나이인 64세 때에 큰 뜻을 세워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결심했다. 이런 결심이 있고 난 다음에 원경선 선생은 풀무원 원장과 장충고등학교 이사장이 되었고, 세계적인 인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환경문제를 다루었다. 브라질에서는 부시 대통령이 참석하는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호서대학교 강석규 총장도 80세가 훨씬 넘는 분이시다. 이 분도 64세 때에 남은 여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큰 뜻을 품고

대학교를 세웠다. 나이 38세에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하였고, 교수를 거쳐 중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하였으며, 은퇴 후에 호서대학교를 설립하시고 총장이 되었다. 이 분은 세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총장일 뿐 아니라, 한국 대학법인 협의회 부회장과 사립대총학장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다.

“인생은 꿈이올시다” 라는 시집을 낸 조병화 시인은 80세가 다된 노인이지만, 인하대 교수 및 부총장을 역임하셨고, 시인협회 회장, 문인협회 이사장, 예술원 원장을 역임하였다. 이 분은 조선일보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인생은 꿈이올시다. 항상 꿈을 좇으며 살아왔지요. 꿈은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요, 사랑은 그 집의 양식이지요. 일생 동안 그리움, 꿈, 사랑에 대한 갈망을 잃어본 적이 없어요.”라고 말했다.

성령은 우리에게 열린 밝은 미래를 보여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꿈이 없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소멸된 것이다. 만일에 우리에게 꿈이 없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신다. 만일에 우리에게 꿈이 없다면, 우리가 성령을 좇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꿈이 있고 비전이 있다. 그렇다고 성령께서 주시는 꿈이 반드시 거창한 것만은 아니다. 작지만 소박하고 순수한 꿈이 거창하지만 탐욕에서 비롯된 꿈보다 오히려 위대한 꿈이다.

2. 아브라함의 꿈과 믿음

(창세기 12장 1-9절)

마태복음 1장에 예수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다.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라

고 했고, 6절을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라고 기록되고 있다. 여기 이예수의 족보에 실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다윗, 솔로몬은 그 어느 누구도 만아들이 아니다. 대부분 둘째거나 말째이다. 이스라엘은 남자 중심의 가부장제가 뿌리 깊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정말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성경의 주제를 고난과 승리라고 말한다. 성경의 이야기를 풍부하게 장식하고 있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야곱에서 보듯이 형 때문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재산을 물려받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이들이 열등감을 극복하고 승리한 이야기는 성경의 주제를 더욱 빛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맥락에서 아브라함은 말째 심리를 극복한 위대한 승리자였다. 창세기 11장 26절을 보면,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맨 먼저 기록되었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장자는 아니다. 이삭은 이스마엘의 동생이지만 항상 먼저 기록되고 있고(창 25:9; 대상 1:28), 아론의 동생인 모세도 마찬가지이다.

또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는 말은 데라가 70세에 세 아들을 한꺼번에 낳았다는 뜻이 아니다. 데라는 나이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아브라함과 동년배였던 조카 롯은 큰 형님 하란의 아들이었고, 둘째 형님 나홀의 아내는 큰 형님 하란의 딸이었으며,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둘째 형님 나홀의 증손녀였을 정도로 형제간에 나이 차가 심한 말째였다. 말형 하란과 아브라함의 나이 차가 60세 정도 된다.

우리말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나홀의 형인 것처럼 번역되어 있지만(창 22:20,23; 24:15,27,48), 이것도 ‘형제’라는 말을 ‘동생’이라고 잘못 번역한 것이다. 형제라는 말이 동생이란 말로 잘못 번역된 것은 아브라함의 이름이 이들 삼 형제들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번역자들이 아브라함을 맏형으로 잘못 판단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맨 손으로 시작한 삶의 개척자였다. 아브라함은 재산이 그다지 많지 않았고, 배경도 없었고, 자식도 없었다. 말 그대로 맨 손으로 시작한 개척자였다. 아버지 데라는 만아들 하란이 죽자 나홀과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롯과 이들의 가족들을 데리고 유프라테스 강 하류지역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강 상류지역인 하란으로 강변의 목초지를 따라 서서히 이주해 올라갔다. 이들은 유목민이었다. 아버지 데라는 많지 않은 재산의 대부분을 둘째 나홀에게 넘겨주고 떠돌이 유목민의 삶을 하란에서 마쳤다. 가산을 이어받은 나홀은 비옥한 유프라테스강 상류지역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그대로 정착했다.

그러나 막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재산도 많지 않은데다가 아버지까지 돌아가신 상태에서 나홀의 영역을 벗어나 새로운 지역에서 삶을 개척하기 위해서 지중해 연안의 목초지를 따라 남하하기 시작했다. 이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75세였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 전에 이미 사라와 결혼했지만 75세가 되도록 아들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고대 근동사회의 가부장제에서 아들을 두지 못했다는 것은 가문의 수치요 저주받은 자의 상징일 수 있다. 이런 그가 나이 75세에 큰 민족을 이루어 국가를 세우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품고, 누가 들어도 실현될 것 같지 않은 그런 꿈을 꾸면서, 그에게 열린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단지 개척정신과 야훼신앙만으로 무장한 채 떠돌이생활을 시작했던 것이다. 이것은 대단한 결단이요 믿음의 행동이요 하나님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드린 순종의 행위요, 역경을 극복한 인간승리였다.

우리 나라 최남단의 섬 마라도는 제주도의 유배지로서 유배당한 사람들이 화전을 일구어 먹다 죽어가곤 했던 한 많은 무인도였다고 한다. 이 무인도에 뛰어들어 원시림을 개척하고 최초로 정착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의 성함이 김성오(金成五)이다. 이

분이 1880년 후반에 사람이 살 수 없다는 마라도에 들어가는 것은 10대인 소녀 때였다.

제주도 대정(大靜)곶에서 살았던 소녀는 아버지가 무덤 쓸 땅 한 평 남기지 못하고 죽자, 졸지에 소녀 가장이 된 김성오는 마라도에 가면 화전 일구어 먹을 땅도 있고 무덤 쓸 땅도 있다는 소문을 듣고 어린 두 동생과 아버지의 뼈 항아리를 들고 원시림들이 무성한 이 무인도를 찾아갔다. 100년전 어린 소녀에게 이만한 용기와 모험과 개척정신이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소녀가 들고 간 것은 잡곡 씨앗 몇 줌, 농기구 몇 자루, 물질 뜨개박 그리고 불을 일으키기 위한 부시가 고작이었다. 산불을 나서 화전을 일구는 동안 어린 동생들이 캐온 메마(山茱)로 허기를 달랬고, 뱀에 쫓겨다니기도 수없이 했다고 한다.

그런지 십여 년만에 처음으로 외지 사람이 찾아들었는데, 이들은 난파당해 거의 죽어가던 오키나와(류큐:琉球) 출신 아버지와 아들 두 어부였다. 어린 소녀 김성오의 두 달에 걸친 보살핌으로 살아 돌아간 이 오키나와의 아들 어부가 소 두 마리를 싣고 은혜를 갚으러 이 섬에 찾아온 것은 다시 십 년 세월이 흐른 다음이었다. 그러고서 퍼뜨린 후손이 1960년대에 이르러 90여 명이었다고 한다.

땅 한 평 없이 떠돌았고 후손이 없었던 아브라함과 김성오는 살아간 장소와 시간과 남녀의 성별은 달랐어도 자신들의 거친 삶을 성공으로 이끈 위대한 개척자들이었다는 점에서는 다른 점이 없다.

남극에는 천지가 온통 백색이 되어 방향 감각이 없어지는 기상현상이 있다고 한다. 이를 화이트아웃(whiteout)이라고 한다. 햇빛이 구름 위와 구름 아래의 눈 덮인 평지나 산에서 동시에 난반사를 하면 물체들의 그늘이 사라진다고 한다. 빛만 있고 그늘이 없어진다면 방향도 거리도 알 수 없고 또 크기도 모양도 가

늡할 수 없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집안에 있어야지 이동했다가는 사고를 당한다고 한다.

빛이 있어야 물체가 보이지만 빛만 있고 그늘이 없으면 물체가 보이지 않듯이, 인생도 그늘이 있어야 인물이 부각되고, 슬픔이 있어야 기쁨이 커지고, 실패가 있어야 성공이 돋보이고, 가난했어야 그 성공이 값진 법이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성공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아브라함에게는 그늘이 많았고, 시련도 많았고, 실패도 많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런 그늘 때문에 성공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는 사람 가운데 올해 나이 26세인 마크 앤드리슨이란 젊은이가 있다. 마크 앤드리슨은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라는 웹브라우저 하나로 백만장자가 된 '넷스케이프사'의 수석 부사장이다. 그는 주민이 1,50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시골 동네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농작물 씨앗 판매상이었고, 어머니는 공장 근로자였다. 그는 어린 시절 책을 사서 읽고 독학으로 컴퓨터에 관한 기초지식을 쌓았고, 베이직과 같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터득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청운의 꿈을 품고 일리노이 주립대에 입학한 앤드리슨은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던 1992년에 국립슈퍼컴퓨팅응용센터에서 시간당 5,500원 정도를 받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 때 앤드리슨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것이라는 열린 미래 세계를 보았고, 넷스케이프 개발에 착수하여 만 5년동안 그가 벌어들인 수입은 엄청난 액수에 이르고 있다.

아브라함은 꿈을 지닌 사람이었다. 그의 꿈은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었다.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였던 꿈이었다. 아브라함은 75세가 되도록 아들이 없었고, 무덤으로 쓸 땅 한 평이 없는 떠돌이였기 때문에 그의 꿈은 크다못해 허황된 것이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자신의 큰 이상과 꿈

은 결코 자신의 허황된 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롬 4:17) 보여주신 비전이라 믿었다. 그가 75세에 고향과 친인척을 떠나 새로운 삶을 개척코자 했던 것도 자신만의 결정이라고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드렸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 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창 12:2-3) 라는 강한 확신을 심어 주셨고, 낮에는 바닷가의 은빛 모래를 통해서 밤에는 찬란한 별들을 통해서 큰 환상을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은 그 꿈의 씨앗을 믿음으로 가슴에 심고 25년간 열심히 키웠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꿈의 씨앗은 25년 동안 싹이 돋지 않았다. 마치 그것은 싹을 피울 수 없는 씨앗 같았다. 25년 동안 아브라함의 꿈이 이루어진다는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이 기간 동안에 오히려 많은 난관에 부딪혀 시련을 면치 못했다. 기거하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고, 이집트에서는 부인을 빼앗길 뻔했고, 팔레스타인에서 유목에 성공한 후에는 물 부족으로 생사고락을 같이해온 조카 롯과 헤어져야 했고, 분가한 롯이 두 차례나 생명의 위협과 재산의 피해를 입자 아브라함이 도움을 줘야 했고,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얻었으나 그 일로 인해서 가정에 분란이 끊이지 않아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하는 시련을 맞보았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다. 그는 25년간이나 싹트지 않은 꿈의 씨앗으로 인한 좌절을 예배를 통해서 극복했다. 그는 25년간이나 변함없는 믿음의 눈으로 자신에게 열릴 미래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팔레스타인을 자기와 자기 후손에게 주리라는 확신을 갖고 제단을 쌓고 예배

하였다. 그는 백세가 다 되도록 자식이 없었고, 부인이 묻힌 굴 무덤맡고는 소유한 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75세 때에 품었던 꿈을 버리지 않았고, 25년을 한결같이 높은 곳에 올라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이 자기와 자기 자손의 것이 된다는 비전을 키웠고, 낮에는 바닷가의 은빛 모래를 보면서, 밤에는 찬란한 별들을 보면서 자기의 자손이 많아져 셀 수 없게 될 것이라는 비전을 키웠으며, 제단을 쌓고 예배함으로써 밀려드는 좌절과 의심을 극복했다. 이와 같이 끊임없는 예배는 아브라함에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었고, 결국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안겨 주었다. 꿈과 믿음, 이 두 가지가 바로 아브라함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

3. 운명의 개척자 야곱

(창세기 25장 19-34절)

야곱은 147년을 살면서 자신의 표현대로 “힘약한 세월”을 살았다. 그러나 야곱은 이스라엘 열두 부족의 족장이 되었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창 32:28)는 뜻의 ‘이스라엘’이란 이름도 얻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가 운명의 개척자요, 집념의 승부사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운명에 무릎꿇거나 운명에 맡겨 살지 아니하고 운명을 바꾼 집념의 개척자였다. 그래서 야곱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야곱은 태중에서 에서보다 먼저 나오려고 다투다가 에서가 먼저 나가자 그의 발꿈치를 붙잡고 따라 나왔다(25:22-26).

야곱이란 ‘발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 또는 ‘거짓말쟁이’를 뜻한다. 이름대로 야곱은 교활했고, 이기적이었으며, 결코 형에게 지지 않으려는 특유의 동생 콤플렉스를 갖고 있었다. 이런 약점

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주어진 운명을 바꾸는 집념의 개척자요 타고난 승부사였다. 자기운명에 체념하지 않았고, 자기에게 불리한 여건에 굴복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기에게 열린 미래 세계를 향해서 약진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 결과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냥꾼인 에서보다 강자가 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되리라는 약속을 받아낸다.

집념의 힘은 강하다. 운동선수의 자질 가운데 중요하게 꼽는 것 중의 하나가 승부욕이다. 이기고자 하는 집념이 없이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큰 선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96-97시즌 NBA농구시합 최종결승전이 유타 재즈를 누른 시카고 불스의 승리로 끝났지만, NBA농구시합을 보노라면, 선수들의 강한 승부욕, 공에 대한 집념, 치열한 몸싸움, 현란한 기술, 몇 초를 남겨놓고 갈리는 승부 등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도 삶의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강한 승부욕을 가져야 하리라 본다.

과학고 학생들의 평균 지능지수가 130이 넘는다고 한다. 이 말은 지능지수가 130 미만인 학생들도 끼어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지능지수가 140이상인 학생이 과학고 근처에도 못 가는 경우가 있다. 왜 그런가? 그 해답은 과학고 학생들의 노력을 엿보면 알 수 있다.

“천재란 99%의 땀과 1%의 땀띠로 만들어진단다. 그래서 더러운 놈이다. 또 천하에 재수 없는 놈이다.” 이 말은 공주사범대학의 육근철 교수가 과학고 교사로 재직했던 지난 89년부터 95년까지 7년간 은밀히 모은 학생들의 낙서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 낙서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다. 첫째, 영재는 결코 두뇌로 말 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이다. 영재가 피와 땀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럽고, 천하에 재수 없다는 것이다. 둘째, 육근철 교수에 의하면, 영재는 타고난 능력과 꿈으로 만들어지는 함수값이라고 한다. 꿈이 없으면 함수값이 제로가 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꿈을 갖는 것이 영재가 되는 길이요,

땀흘려 노력하게 만드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이다.

사마천이 쓴 『사기』에 와신상담(臥薪嘗膽)이란 말이 나온다. 오나라의 합려는 월나라의 윤상이 죽자 정권이 교체되는 틈을 타서 월나라를 공격하였다. 그러나 월나라의 새로운 왕 구천은 결사대를 조직하고 작전을 세워 오나라의 공격을 무찔러 버렸다. 패주하던 오나라의 합려는 손가락에 화살을 맞았고, 상처가 파상풍으로 악화되어 임종을 맞게 되었다. 그러자 합려는 태자 부차를 불러 원수를 갚도록 유언하고 죽었다. 그후로 부차는 복수를 다짐하면서 장작더미 위에서 자며 몸이 쭉실 때마다 아버지 합려의 죽음을 생각하였다. 그리고 사람을 문 앞에 세워두고 자기가 드나들 때마다, “부차야, 넌 네 아버지의 복수를 잊지 않고 있느냐?” 하고 말하도록 시켰다.

한편 구천은 부차가 복수심에 불타 군사훈련에 힘을 쏟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선제공격을 하였다. 그러나 부차는 구천의 생각을 미리 알고 정예 군대를 요소에 배치하였다가 월나라 군대가 쳐들어오자 일제히 습격하여 단숨에 무찔러 버렸다. 월나라의 구천은 남은 군사 5천명과 함께 회계산에서 포위 당하게 되자, 구천은 부차의 신하가 될 것을 맹세하고서 목숨을 보전하였다.

그러나 구천은 곁에 쓸개를 걸어 두고 음식을 먹을 때마다 쓸개의 쓴맛을 맛보면서 “회계산의 치욕을 잊지 말자”라고 다짐하였다. 구천은 이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밭에 나가 일했고 그의 처도 스스로 물레를 돌리며 옷감을 짰다. 생활도 백성이나 다름없이 했고 고기도 먹지 않았으며 수수한 옷만 입었다. 그리고 유능한 신하에게는 고개를 숙여 가르침을 받았고 외국에서 온 손님들을 정중히 예우하여 신하의 신뢰를 얻는데 힘썼고 민생을 안정시키는데 전념하면서 복수의 칼을 갈았다. 그 후 구천은 오나라의 부차를 무찔러 승리하였고, 패주한 부차는 자결을 하였다.

복수의 집념은 우리 기독교의 정신과는 매우 먼 것이며 옳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좋은 일에 강한 집념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로써 땀흘려 노력하게 만드는 동기를 부여한다.

둘째, 야곱은 에서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매입하였다(25:27-34). 장자의 명분이 돈으로 산다고 해서 매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에서도 별 생각 없이 팔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것이다. 그러나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있었다. 그의 장자권의 매입은 막내로 태어난 운명을 바꾸겠다는 의지와 더불어 신앙이 없는 에서에게 장자권을 넘길 수 없다는 강한 신념의 표시였다.

가부장 중심의 고대근동사회에서 장자의 명분은 대단히 큰 것이었다. 부권을 이어받을 뿐 아니라, 다른 형제들보다 갑절의 유산을 받도록 되어 있었고, 왕일 경우는 왕권을 이어받을 권리가 있었다(신 21:17; 대하 21:3).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장자에게 주어지는 신의 축복이었다. 야곱은 이 축복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타고난 운명을 한탄하면서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이 권리를 간절히 사모했다. 너무나 간절히 사모했던 나머지 팔죽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흥정하는 몰염치한 인간이 되었던 것이다.

이런 야곱의 행동은 야비하고 몰염치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야훼 신앙에 바탕을 둔 그의 승부욕과 근성에는 하나님도 두 손을 들어버렸다. 야곱은 지금 자기가 놓쳐서는 안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잡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사람이었고, 시련이나 역경이 닥친다해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도 두 손을 들어버리고 만다.

야곱의 끈질긴 승부사 기질은 토박하고 메마른 팔레스틴에서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생명력이었다. 오늘날에도 야곱의 후손들은 결코 척박한 환경을 탓하거나 운명을 탓하거나 주변국들

에게 지배받는 것을 순순히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게 했더라면, 오늘날 이스라엘은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다. 그들은 출애굽 후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도 오랫동안 주변국들로부터 침략을 받았으며, 주전 605년 이후 740년간을 주권을 빼앗긴 채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제국, 로마제국의 지배를 차례로 받았으며, 주후 135년부터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지구상에서 아예 사라져 버리는 비극을 겪어야 했고, 나라 없는 서름 속에서 무려 1,200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지지 않고 1,813년만에 나라를 재건하는 저력을 보였으며, 아랍연맹국들과 전쟁을 치르면서도 갈릴리 호수의 물과 지하수를 퍼 올려 스프링쿨러를 이용해서 사막 같은 불모지에 농사를 짓고 산업을 일으켜, 인구 5백 30만의 적은 인구로 국민 일인당 소득 15,000불이 넘는 요단강의 기적을 일궈냈다. 그들이 만일 야곱의 후손이 아니었다면, 일궈낼 수 없는 엄청난 기적들이다. 유대인들의 타고난 승부사 기질 앞에 세계인들이 기죽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야곱은 장자가 받을 축복을 속임수로 가로챘다(27:1-46). 물론 옳지 못한 일이다. 그러나 그는 이미 장자권을 매입한 사람이었다. 따라서 야곱은 그것을 기정사실화 하는데 있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았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의 족보에 실린 영광의 얼굴들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곱처럼 장자들은 아니었지만, 장자권을 차지한 사람들이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유다의 아들 베레스, 모세, 다윗, 솔로몬 등은 한결같이 맏아들이 아니었지만, 장자권을 차지한 영광의 얼굴들이다. 하나님은 결코 타고난 운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은 운명을 개척하는 자들을 사랑하신다. 장자이면서도 장자권을 차지하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범죄 하였거나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넷째,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부인으로 얻기 위해서 14년간 무임금 노동을 불사한 집념의 사나이였다(29:15-30). 우리 가운데 누가 자기 부인을 위해서 야곱처럼 할 수 있는가? 야곱은 예리한 여성의 직감으로도 능력 있는 사람이란 것이 평가되었다. 이미 총명한 리브가는 야곱의 신앙과 재능을 알아보았고, 라헬도 그를 믿고 7년을 기다렸다. 집념은 무서운 괴력을 가지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지는 1995년 말 송년호에서 지난 1천년간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몽골제국을 건설했던 징기스칸(1162-1227)을 선정하고, “징기스칸은 태평양에서 동유럽, 시베리아에서 페르시아만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함으로써 동서문화의 연결을 촉진시킨 인물”이라고 높이 평가받았다.

칭기즈칸의 이름은 태무진이다. 1162년 몽골에서 태어나 아홉 살 때 아버지를 잃고 거친 황야에서 “친구라고는 제 그림자밖에 없고, 채찍이라고는 꼬리만 남은” 외롭고 고달픈 사춘기를 보냈다. 곤경을 수없이 겪으면서도 소년가장 태무진은 도둑들이 훔쳐간 여덟 마리 거세마를 밤낮없이 엿새를 쫓아가 되찾아 나흘 밤낮을 쉬지 않고 돌아왔고, 스물 한 살 경에는 아내를 납치해간 강적을 공격하여 “그들의 처자가 끝장나도록, 그들의 겨레가 결판나도록” 약탈하고 아내를 찾아올 만큼 용기와 집념이 강한 젊은이로 자라났다. 이런 용맹성 때문이었는지 태무진에게는 그를 대신해 죽을 준비가 돼 있는 ‘누쿠르’라 일컫는 평생동지가 73명이나 됐다고 한다.

태무진은 잡혀갔던 아내가 적의 장사 ‘칠게르’의 아이를 낳자 ‘귀한 손님’이란 뜻의 ‘조치’라 이름짓고 자기 큰아들로 기르며 사랑했다. 태무진은 ‘조치’의 출생과 관련해서 자기 부인에게 단 한번도 싫은 내색을 하거나 차별하지 않았다. 이런 큰마음 때문에 그 어지러운 세상에서 태무진을 배신하는 친구가 없었다.

마흔 세 살 때인 1,205년까지 수십 차례의 대소 전투와 대항하지 않는 자를 온전하게 내버려두는 관용책을 통해서 몽골과

주변의 유목민을 완전히 평정한 태무진은 마흔 네 살 때인 1,206년 오농강변에서 몽골고원의 모든 유목민들에 의해 대몽골국의 칭기즈칸으로 추대됐다. 훗날라는 이름의 유목민들이 주전 209년 처음으로 통일국가를 수립한지 1,415년, 마지막 통일국가였던 위구르(745~840) 패망 이후 366년만에 용기와 집념이 강한 사나이로 인해서 몽골고원에 통일국가가 다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최근 조선일보에 경북 칠곡군 왜관읍 삼청리에 사시는 88세의 이공현 할아버지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고생만 하다 나이 들어 거동 못하는 할머니를 차에 태워 다니며 여생을 편하게 해드리려던 집념이 그로 하여금 95년 7월 학과시험 합격에 이어 19개월만에 2종 보통 기능시험에서 80점을 받고 국내 최고령자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는 영광을 안겨 주었다.

그런가 하면 69세 때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89세에 미국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할머니에 관한 기사도 있었다. 36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하버드 대학의 최고령 졸업생이된 이 학생은 손자 손녀가 20명, 증손이 18명에 달하는 올해(1997년) 89세 된 메리 파사노 할머니이다. 이 할머니는 졸업식날 손자뻘 되는 급우들 앞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주제로 연설도 했다.

파사노 할머니는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중학교 2학년을 끝으로 학교를 떠나 면직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공장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하여 조그만 식당을 차린 할머니는 자녀 5명중 4명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의류공장에서 일했다.

2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면서 할머니는 못 다한 공부의 한을 풀기로 작정하고 69세의 나이로 고등학교에 입학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할머니는 하버드 대학내 단과대학인 평생교육대학(Extension School) 학위과정에 등록했다. 샌드위치 배달점을 운영하면서 야간 대학에 다녔던 할머니는 보청기를 껴고 르네상

스 미술사, 유럽사, 스페인과 그리스 문학 등을 공부했으며, 평균 성적은 B학점이었다. 할머니가 학사 학위를 따는데 걸린 시간은 무려 17년이였다.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꿈이 있는 사람에게는 소원하는 일을 이루고자하는 집념이 생긴다. 만일에 꿈이 있고 신앙이 있다면 그 꿈은 이루어질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야곱의 고난은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이었고, 야곱의 성공은 이스라엘 민족의 성공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의 민족성은 야곱을 닮아 있다.

4. 하나님과 싸워 이긴 야곱

(창 32:21-32)

야곱은 147년의 “힘약한 세월”을 살면서 ‘발꿈치를 잡은 자,’ ‘사기꾼,’ 또는 ‘거짓말쟁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아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이 되었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란 뜻의 ‘이스라엘’이란 이름도 얻었다.

야곱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야곱이 어떻게 역경을 이기고 크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 인간으로써 어떻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이름을 얻을 수 있었을까? 이 물음에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적절한 해답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야곱의 성격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야곱의 이기심과 교활함과 몰염치는 야곱을 운명의 개척자와 집념의 승부사로 만들었다. 함석헌 선생은 『뜻으로 본 한국역사』란 책에서 “역사는 단순히 발생하는 것, 되어지는 것만이 아니다. 그보다도 이루어 서는 것, 건설되는 것, 만들어내는 것이다.”고 했는데 야곱이야말로 역사를 만들어간 투지 있는 신앙인 이었다. 물론 어

떠한 경우에라도 야곱의 이기심과 교활함과 몰염치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야곱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 그의 이기적이고 교활하고 몰염치한 성격이 야훼신앙 때문에 다듬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함석헌 선생은 말하기를, “이기심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이기심이 강한 민족일수록 크게 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불어 쟁겨 일직선을 이룰 필요가 있다. 이기심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뿐이다.”고 했다. 이는 마치 기둥에 매인 개가 끈이 허락하는 범위를 벗어날 수 없듯이 야곱의 이기심과 교활함과 몰염치도 야훼신앙의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이기심의 투지와 야훼신앙의 견제가 야곱을 운명의 개척자와 집념의 승부사로 만드는 힘이었다.

두 번째로 야곱의 영성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중국의 여숙간은 “옳음을 밝히는 것은 부패한 선비도 가능하지만, 때를 밝히는 것은 뚫린 선비가 아니면 불가능하고, 때를 아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대세를 아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여숙간의 말처럼 야곱은 옳고 그름의 차원을 넘어서 때를 알고, 대세를 파악한 사람이었다. 야곱은 자기 주변에서 벌어지는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혀 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의 물줄기에 자신의 온몸을 던진 운명의 개척자요, 집념의 승부사요, 믿음의 사람이었다. 야곱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후, 이를 숨겨 두고 기쁨으로 돌아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사람이었다. 야곱은 마치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난 후,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산 사람이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축복이 아버지 이삭을 거쳐 이제 자기 대에 이른 것을 알았고, 그 축복이 신앙 없는 에서를 피해 자기에게로 향해 오는 대세를 파악한 사람이었다.

한편, 에서는 옳고 그름을 알고 활달하고 용맹스런 성격의 소

유자였지만, 경박하여 무슨 일에든지 심사숙고하지 아니하며, 가치 있고 무가치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으며, 시기와 대세를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것도 바로 때와 기운을 파악하지 못한 때문이었다.

세 번째로 야곱의 삶과 생활환경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야곱은 자신의 147년 생애를 “힘악한 세월”이라고 표현했다. 아버지를 속이고 부모형제와 생이별을 했어야 했고, 20년 세월의 남의집살이를 했고, 물과 풀을 찾아 정처없이 살아온 떠돌이 나그네의 삶이었다.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서 “힘악한 세월”은 내성적이고 모성적이며 온화한 성격의 야곱이 무사안일에 안주하여 낙천적이고 온화하며 심각성이 없이 살아가게 내버려두지 아니하였고, 이기적이고 교활하고 몰염치한 성격을 걸러내게 하였으며, 고난이 주는 의미를 깊이 해석하며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말하자면 쓰디쓴 고난이 야곱에게 성공을 위한 약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야곱의 고난의 세월은 단순히 야곱 자신만의 역사가 아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였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역사였으며, 우리 자신의 생애이기도 한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정학적 위치나 고난의 역사는 우리 민족의 지정학적 위치나 고난의 역사와 매우 닮아있다.

이스라엘은 서쪽의 지중해와 동쪽의 아라비아 사막을 끼고 있고, 남북 대륙으로 이어지는 길목에 놓여 있어서 남진이나 북진 또는 서진을 시도하는 제국들의 잦은 침략과 지배를 벗어나지 못한데다가 차지하고 있는 땅의 대부분이 농사가 어려운 불모지요, 하늘에서 뿌려주는 비에 의존하는 데다 그나마 한여름의 기온은 높고 비가 오지 않으며, 11월에 시작해서 3월까지 내리는 강우량이라야 겨우 500mm 안팎에 지나지 않는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어서 힘을 키워 세계로 뻗어 나갈만한 여력이 없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힘악한 세월”을 보낸 고난의 역사였

다. 성경이 고난을 주제로 쓰여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나라도 아시아 대륙과 일본열도 사이에 끼여 있어서 지나다니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다. 서쪽의 중국과 북쪽의 만주와 동쪽의 일본사이에 끼여 있어서 동진이나 남진 또는 서진을 시도하는 나라들의 잦은 침략과 지배를 벗어나지 못한데다가 차지하고 있는 땅의 8할 정도가 산악지역이어서 농사할 땅이 많지 않았고, 기후가 온화하여 그 기질이 온순하고 착했던 터라 힘을 키워 세계로 뻗어나갈 여력이 없었다. 우리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들이 모두 방어전이었지 침략전이 아니었던 점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함석헌 선생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고난의 역사! 한국 역사의 밑에 숨어 흐르는 바닥 가락은 고난이다.”고 했던 것이다.

에서와 야곱을 놓고 볼 때도 이스라엘과 한국은 많이 닮아 있다. 에서는 성격이 활달하고 용맹한 사냥꾼이어서 만주와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북풍한설을 쫓며 씩씩한 기상을 길러온 북쪽의 부성적이고 공격적인 민족성에 비교될 수 있겠고, 야곱은 성격이 내성적이며 모성적이고 신앙적이어서 온화한 기후를 가진 남쪽의 평화로운 민족성에 비교될 수가 있다. 이 두 민족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다는 점에서도 닮아 있고, 야훼신앙의 열성적인 면에서도 닮아 있고,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난 민족이란 점에서도 닮아 있다. 야곱의 민족과 우리 민족은 가시 없는 장미가 없듯이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간 민족이며, 환경에 굴복되지 아니하고, 살아남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살았노라 는 의식을 가진 민족이다.

에서가 남자답고 용맹스럽고 호탕한 장군의 기질을 갖고서도 모성적이고 나약하고 내성적인 야곱을 이기지 못한 것은 그에게 진지함이 없었고, 철학이 없었고, 신학이 없었고, 이상이 없었고, 꿈이 없었기 때문이다. 에서가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은 그에게 가치 있는 것은 물질세계뿐이었고, 정신세계가 없었

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도 고구려의 후예답게 용맹을 떨치던 북쪽사람들이 모든 축복을 남쪽의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있는 이유도 그들이 참가치를 유물사상인 물질에 두었기 때문이요, 정신을 무시했기 때문이다. 한편 야곱이 이기적이고 교활하고 몰염치한 성격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던 것은 운명을 바꾸겠다는 정신과 신앙 때문이었다. 야곱은 참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다 두었고, 민족과 나라를 세우겠다는 원대한 이상을 품었으며, 물질보다 정신을 우위에 두는 사상가요 철학자요 신학자였기 때문이다. 기상이 죽고, 계획이 원대하지 못하고, 이상이 크지 못한 개인이나 민족은 복을 받을 수 없다.

창세기 32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야곱이 얼마나 끈질긴 인물이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된다. 아무리 짓밟아도 되살아나는 민들레처럼, 꺾어도 쉽게 부러지지 않는 무궁화처럼, 야곱은 삶의 의지가 강한 인물이었다.

아프리카 서남단에 위치한 나미비아의 나미브 사막에는 밤이슬과 안개 속에서 소량의 수분을 섭취하면서도 무려 2,000년을 사는 선인장이 있다고 한다. 지금도 1,500년 된 1m쯤 크기의 웰위치아 미라빌리스(Welwitschia Mirabilis)라는 선인장이 사막인데도 철조망 안에 보호받고 있다고 한다. 이 식물은 축 쳐진 채 죽은 듯 시들어 있다가 아침이면 조금 살아나고, 비가 오면 물 만난 고기처럼 싱싱하게 살아난다고 한다. 몇 년씩 비 한 방울 안 와도 옆에 맺히는 이슬과 아침나절 안개 속에서 수분을 섭취하며, 땅 속의 영양분을 빨아먹으며, 근근히 목숨을 이어간다고 한다. 그 애절한 사연도 모르고 거친 사막바람이 몰아쳐 잎을 부서뜨리고 시들게 만들지만 뱀가죽처럼 잎 끝을 돌돌 말아 표면적을 줄인 채 환난을 이겨낸다고 한다. 이 선인장과 같은 민족이 있다면 바로 야곱의 민족이요, 우리 민족일 것이다.

야곱이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를 속여 형의 받을 축복을 가로챈 이후 에서를 피하여 외삼촌 집에서 20여 년의 남의집살이를

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 야곱이 아내를 넷이나 얻고 아들을 열한 명이나 두며, 수많은 가축을 이끄는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 없이” 열심히 일한 결과와 비상한 재주 때문이었다고 볼 수도 있었으나 야곱은 그렇게 생각지 않았다. 야곱은 자신이 쌓은 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돌렸다. 그가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으나 두 떼의 짐승을 이루게 하신 분은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재산증식의 과정에서 라반의 의심을 받았던 야곱이 오욕과 야망의 세월에 종지부를 찍고 새출발을 위해서 라반의 집을 떠나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향할 때에 에서라는 또 다른 장벽에 부딪치게 되었다. 여기서도 야곱은 인간적인 피를 동원하였다. 야곱은 우선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어 신에게 사용하는 최대 경칭어인 ‘주’라는 칭호로 형을 부르고 자신은 ‘종’이라고 비하시켜 최대의 경의를 표하면서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창 32:5)라는 전갈을 띄웠다. 그런데 뜻밖에도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다가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작전을 바꾸어 선물 공세를 펼치는 한편, 짐승을 두 떼로 나누어 거리를 두고 행하게 하여 최대한의 피해를 줄이고자 안전장치를 강구하였다. 그는 또 여종과 그 자녀들, 그 다음에 레아와 그 자녀들, 그리고 라헬과 요셉을 그 다음에 두어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는 전략까지 만들어 놓았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자기 몫의 재산을 불릴 때에 비상한 피를 부렸듯이 모은 재산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도 간사한 피를 부렸다.

그런 다음 그는 강가에 혼자 남았다. 생사의 문제를 결단하는 잠 못 이루는 밤이었다. 20여 년이나 피하던 형을 이제 외나무다리에서 만날 처지가 되었다. 이제는 예전처럼 어머니나 아내의 도움을 바랄 수 없게 되었다. 예전 아버지와의 대결에서는 어머니가 도와주었고, 외삼촌과의 대결에서는 아내가 도와주었

지만, 이제 압복강 가에서 자신의 과거를 청산하는 양심의 문제에 있어서만 큼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그가 아끼는 재물이나 사랑하는 가족들도 그를 도와 줄 수 없게 되었다.

성경은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했다고 적고 있다. 야곱은 자기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존재와 밤새껏 겨룬 것이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창 32:26) 라는 야곱의 집념은 물에 빠진 이가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사람을 놀라게 하는 초인적인 것이었다.

피가 많은 야곱은 에서나 라반을 능가해 왔으나 이제는 그가 하나님과 겨루어야 했다. 이때에 그는 질문을 받았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야곱은 자기가 ‘속이는 자’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압복강 가에서 만난 적수가 야곱에게 이름을 물어온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 20여 년 전 이삭이 야곱에게 “나의 아들이, 네가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에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에서입니다.”라고 거짓 대답을 했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진정으로 누구인지를 고백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속이는 자 야곱입니다”라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결과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누명을 벗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초인적인 존재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지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다. 인간이 감히 신의 얼굴을 보았다는 뜻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인간이 신의 얼굴을 보고도 살아 남았다는 점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가 다리를 절었다는 것은 신과 겨룬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다. 이스라엘로 새롭게 태어난 야곱은 이제 막 떠오른 해를 가득히 받으며 에서의 장벽을 두려움 없이 맞부딪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자연인 야곱의 이름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이다. 여기서 또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야곱의 자궁을 막기 위해서 환도뼈를 꺾어 발을 절게 했다는 점이다. 이는 바울의 신앙고백처럼, 인간의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다(고후 12:9).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의 공통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환도뼈가 부러진 야곱처럼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은 고난의 민족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민족들이다.

5. 역사는 하나님의 시험무대 (빌립보서 2장 12-14절)

역사는 하나님의 시대경륜의 장이요, 시험무대이다.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시험(test)되어진 시대(dispensation)의 연속이다. 인간이 이 시험에 합격하면 큰 뜻을 이루게 되고, 이 시험에 불합격하면 고난을 겪게 된다. 따라서 개인이든지 민족이든지 역사에 담긴 정신이나 의미를 읽고 풀어내어 가고 서는 문제를 결정짓는 개인이나 민족이 위대하게 된다.

역사는 신호등과 같은 것이다. 운전자가 파랑불에 가고, 빨강불에 서고, 노랑불에 정지를 준비하듯이, 안전한가, 위험한가, 가야하는가, 멈추어야 하는가를 잘 결정해야지 사고를 당하는 않는 것처럼, 역사의 신호등을 잘 보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풀어낼 줄 알아야 역사의식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에는 이런 역사의식을 갖춘 사람들이 매 시대마다 나타났는데, 그들이 바로 예언자들이다. 이들 예언자들의 활동은 이스라엘의 국운이 쇠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국운이 쇠하기 이전에는 주로 이스라엘 민족이 당하는 고난이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에서 비롯되었다고 진단하고 회개할 것

을 재촉하였고, 국운이 쇠한 이후에는 주로 좌절감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민족에게 재기와 재건의 이상과 꿈을 심어주었다.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를 기록한 신명기 사가는 주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했을 때에 흥하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알신이나 우상을 숭배했을 때에 쇠하였다고 가르쳤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같은 예언자들은 나라를 빼앗긴 절망한 민족에게 메시아 사상에 기초해서 꿈과 이상을 품도록 가르쳤다.

고구려가 광개토왕과 장수왕 때의 영토를 지켜내지 못하고 국운이 쇠한 것처럼, 이스라엘도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토를 지켜내지 못하고 분열됨으로써 잇따라 등장한 강력한 제국들 앞에 힘없이 주저앉고 말았다. 북왕국이 앗수리아 제국에 망해버렸고, 남왕국도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제국, 로마제국에게 차례로 주권을 빼앗긴 채 740년간 지배를 받았고, 주후 135년 이후로 1948년까지 1,813년 동안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고, 그 기간에 1,200백만 명이 학살당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도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손에서 총을 놓지 못하는 생존의 위협 속에서도 요단강의 기적을 일궈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꿈이 바로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땅을 차지하며, 다윗이 세웠던 왕국을 기필코 재건하여 세계를 지배하는 메시아 왕국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꿈이 없는 민족이나 개인은 망하고 만다. 그러나 꿈이 있는 민족과 개인은 민들레와 같이 짓밟혀도 죽지 아니하고 무궁화처럼 꺾여도 부러지지 않는다.

우리 나라에도 5천년 역사 가운데 역사의식을 갖춘 사람들이 매 시대마다 없지 않았지만 그 역할이나 끼친 영향이 매우 미미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들이 잘려버린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 큰 나무로 자라며, 죽음의 골짜기에 쌓인 해골들이 생기를 받아 되살아나며, 유배생활을 끝내고 본국에

돌아가는 꿈을 꾸거나 환상을 보는 자들이었는데 비해서 우리 민족의 선각자들은 이 점에 있어서 매우 부족했으며, 설상가상으로 불교와 유교는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함으로써 국가를 파탄지경에 빠뜨리곤 했다. 함석헌 선생은 불교나 유교가 공헌한 바가 없지 아니하나 “절은 음사의 소굴이 되고, 나라의 힘이 빠지는 곳이 되어 버렸다.”고 했고, “유교는 도리어 나라의 발전을 질식시키는 가시덤불이 되고, 민족의 생명을 좀먹는 모진 벌레가 되고, 사람의 정신을 마비시켜 자기를 팔고 종살이하게 하는 독한 약이 되고 말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유교도 불교도 다 씨알의 종교는 될 수 없었다. 그것은 완전히 씨알을 떠나 특권층의 것이 되어버렸고, 그 특권층과 함께 썩었으므로 도저히 씨알의 가슴을 흔들 힘이 없었다.”고 했다.

한국은 아시아 대륙과 일본열도 사이에 끼여 있어서 지나다니는 길목이 되는 중간적 위치에 놓여 있어 문물과 문화의 수입이 빠른 좋은 점이 있는 반면, 남의 나라의 공격을 받아 억눌리고 짓밟히는 처지에 놓이는 나쁜 점도 있다. 그러나 서쪽으로 중국, 북쪽으로 만주, 동쪽으로 일본에 쌓여 있는 한국은 잘만했으면 이들 주변국들을 호령하는 중심 나라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이없게도 이들 주변국가들에 의해서 짓밟히는 수난의 민족이 되고 말았다. 이는 마치 한 처녀가 꽃바구니를 손에 들고 큰길가에 앉아 신랑 되실 왕이 오기를 고대하다가 꽃은 행인들에게 다 빼앗기고 분수를 모른 채 왕후를 꿈꾼다고 비웃음을 당하며 쓸데없는 기대에 애간장을 태우다 지쳐버린 것과 같다 (타고르의 기탄잘리).

아브라함이 갈데아 우르를 떠났듯이 동명성왕이라 불리는 주몽이 졸본을 떠나 고구려를 세웠으며, 중국 낙랑군의 400년 통치에 종지부를 찍고 만주를 휘어잡는 높은 기상을 날렸으나, 삼국시대이후 점차 기상이 죽고 계획이 없고, 이상이 크지 못해 큰 뜻을 펼치지 못하고, 넓은 별 만주를 넘겨주고 국토의 8할이

산인 반도에 갇혀 뺨어나가지 못하고 외세에 짓밟히고 빼앗기고 쪼개진 채 모진 수난을 겪었으며, 중국송배와 사대주의가 팽배하여 큰 뜻을 품어 밖으로 뺨어 나가볼 생각을 못했고, 오히려 기상이 높고 뜻이 큰 공신들을 토벌하여 국가를 약화시켜 위태롭게 했던 일이 역사 속에 비일비재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넓은 별 만주를 차지하고 위세를 떨칠 수 있는 기회들을 자주 열어주셨지만, 우리 민족은 그 때마다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고 실패를 거듭했던 것이다. 그 이유는 우리 민족에게 꿈과 이상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잇따라 일어난 앗수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제국과 같은 강력한 힘앞에 쓰러진 이스라엘과는 달리 만주로 뺨어나갈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침략자들을 막을 수 있었던 여건을 갖춘 나라였다. 그러나 그렇게 해보려는 꿈도 의지도 없었고, 오히려 그와 같은 기상과 의지를 품었던 사람들을 처단하는 어리석음을 보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6-70년대에 우리 민족이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잘살아 보자’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국 근대화 사업,’ ‘민족 중흥,’ ‘국민 총화’라는 일치된 꿈이 있었고, ‘새마을 운동’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 때에도 불법 군사 독재라든지 유신과 같은 가시가 있었고, 독약이 없지 않았지만, 그 때 우리에게 이순신이 있었고,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띄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교육헌장이 있었고, 대의를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칠 수 있다는 희생정신이 있었다. 그런데 80년대 불법 군사 쿠데타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민중에게 꿈과 이상을 심어주지 못했고 예서처럼 정신보다는 물질에 가치를 두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업은 물론 대통령까지도 땅장사 돈장사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동원함으로써 오늘의 총체적 부실을 야기했고, 한국호는 침몰해 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사는 길은 꿈을 갖는 것이다. 이상을 품는 것이다. 높은 기상을 갖는

것이다. 바른 신앙인이 되는 것이다. 도덕과 윤리를 되살리는 것이다.

금년(1997년)이 6.25발발 47주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는 지금 꿈과 이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박현이란 사람은 『한반도가 작아지게 된 역사적 사건 21가지』란 책을 시중에 내놨다. 이 책도 한반도가 작아지게 된 가장 큰 이유를 기상이 죽고, 준비가 없고, 꿈과 이상이 없고, 중국을 크게 보는 사대주의 사상에 두고 있다. 한반도가 두 쪽으로 갈라진 이유도 마찬가지이다. 높은 이상을 품고 갈라진 조국을 하나로 통일시키겠다는 생각은 커녕 남침에 대비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한 비극이었다.

함석헌 선생은 6.25의 발생은 역사가 주는 교훈을 소홀히 취급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6.25는 임진왜란 때와 마찬가지로 예상치 못한 가운데서 발생했고, 북침하겠다는 기상이나 의지는 고사하고, 북의 남침에 대비할 기력조차 갖지 못했다.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많이 혼나고서도 여전히 제정신을 차리지 못했던 것이다.

역사는 하나님의 시험무대이다. 그래서 함석헌 선생은 “38선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시험하려고 낸 시험문제다”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8.15해방 직후에 38선이란 남북 분단의 아픔을 주신 것은 자유와 통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고 스스로 그 선을 넘어 보라는 것이었다. 그만큼 학대를 받고 천대를 받았으면 자유가 얼마나 귀한 줄을 알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일제 36년 동안 자유가 귀하다는 것을 배웠으면 통일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알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뭉치지 못하는데서 고난이 온 것이요, 고난은 뭉치라고 가르친 교훈인데, 그것을 깨닫고 제대로 시행하는지 알아보자는 것이 38선이었던 것이다. 38선은 물과 같은 것이라 잘릴 수 없는 것인데, 남과 북이 뽕뽕 얼어붙어 있으니 잘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금년(1997년) 12월 18일에 제 15대 대통령 선거가 있다. 금년

에 뽑히는 대통령은 통일시대의 대통령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뽑혀야 할 대통령은 남과 북의 얼어붙은 것을 녹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대통령은 다시 한번 해 낼 수 있다는 꿈과 이상을 심어주고 민족을 단결시킬 수 있는 이념을 심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일찍이 우리 민족은 꿈이 없고 이상이 없고 기상이 죽어 하나님 주신 기회들을 놓치고 큰 일을 해내지 못했다. 그러다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조국 근대화 사업을 일으켜 보자,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민족 중흥을 일으켜 보자” 했던 것이 성공을 거두어 조금 잘 살게 되었다. 그러자, 부패한 정권들이 들어서서 평화담이니 택지 개발이니 율곡사업이니 고속전철사업이니 하면서 땅장사 돈장사에 매달리는 동안 국민은 꿈과 이상을 잃어 버렸고, 사치와 낭비와 허세가 민족의 구심점이 되는 이념을 대신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기술개발이나 재투자에 힘쓰지 아니하고,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정치인들에게 떡값 주고 유통업이다 땅투기다 하면서 혼이 빠져있다가 개방이다 UR이다 하니까 하나 둘씩 쓰러지기 시작하는데 삼풍백화점 붕괴되듯 하고, 성수대교 무너지듯 하고, 구포 열차 전복되듯 하고, 아시아나 비행기 추락하듯 하고, 서해훼리호 침몰하듯 하고, 대구 가스 폭발하듯 하고 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대통령은 대통령 병에 걸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해낼 수 있다. 다시 한번 허리끈을 조여보자, 패배감과 좌절감을 던고 일어서보자”는 꿈과 이상을 심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국민에게 혼을 불어넣고 열을 심어 주고 기를 넣어 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필요하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통일시대를 바라보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배고파 죽으나 싸우다 죽으나 매한가지다. 그러니 한판 붙자.”고 덤비는 북한으로부터 제 2의 6.25를 막아낼 수 있는 역사의식을 가진 대통령, 역사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운 미래지향적인 대통령이 필요하다.

역사는 하나님의 시험무대이다. 이 시험을 통과하는 자만이 살아 남을 수 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하였다. 꿈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다.

6. 역사가 주는 교훈 (마태복음 6장 33절)

신학자 윌리엄 바클리(William Barclay)의 저술 가운데 “고대 세계에 나타난 교육 이념”이란 글이 있다. 이 글 속에 두 개의 상반되는 교육 이념이 소개되고 있는데 하나는 스파르타 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유대인 교육이다.

스파르타의 교육은 용감하고 준법정신이 강하며, 애국심이 왕성한 군인적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교육의 중점은 무술에 있었고, 지식을 키우는 문학이나 예술에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읽기와 쓰기 학습은 최소한으로 제한시켰다.

스파르타에서는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건강상태를 점검해서 허약하거나 기형인 아이들은 동굴에 내다 버리고, 건강한 아이만을 키우도록 했다. 나이 일곱 살이 되면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동교육소에 입소시켜 감독관아래서 엄격한 지도를 받게 하였고, 열두 살 때부터 군사훈련을 실시하여 서른 살이 될 때까지 병영생활을 시켰다. 교육내용을 보면, 고통과 결핍을 견디는 용맹심, 인내심, 애국심, 복종심과 강한 체력을 갖춘 군인을 양성하기 위해 달리기, 땀땀기, 검술, 씨름, 승마, 투창, 수영, 수렵을 가르쳤고, 이밖에 무용 및 종교적인 의식을 음악과 함께 가르쳤다. 그런데 무용도 체육과 마찬가지로 자기를 방어하고, 적을 공격하

는 기술과 관련시켜 가르쳤다. 이들의 훈련과정에는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기 위한 도둑질과 매복했다가 지나가는 농노를 살해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스파르타 교육이 얼마나 혹독했는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유대인 교육도 스파르타 교육에 전혀 뒤지지 않는 매우 엄격한 것이었다. 주전 100여년 전에 실시되었던 학교 입학식은 이렇게 진행되었다. 대상은 다섯 살에서 일곱 살된 사내아이들이다. 아이들은 새벽 미명에 일어나 목욕을 한다. 그리고 나서 금술이 붙은 예복을 착용한다. 반드시 아버지의 손에, 아버지가 없는 경우에는 친척 가운데 지혜 있는 사람의 손에 이끌리어 회당으로 간다. 회당 앞에 놓인 두루말이 앞에 아버지와 아들은 무릎을 꿇고 앉는다. 아버지를 따라 십계명이 기록된 출애굽기 20장 2-26절을 반복해서 외운다. 이 계명은 먼 옛날 조상들이 극적으로 이집트를 탈출한 후에 시내산 기슭에서 하나님과 조상들 사이에 맺은 서약의 내용이다. 이 계명을 외우고 나면 하잔(Hazzan)이라 불리는 교사의 집으로 간다. 하잔은 문간에서 사내아이를 포옹하며 입을 맞춘다. 방안으로 인도된 어린이가 무릎을 꿇고 앉으면 신명기 33장 4절이 쓰여진 돌판을 아이 앞에 갖다 놓는다. 여기에는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라고 새겨 있다. 이어서 아이는 하잔을 따라 성경 암송을 반복한다. 하잔은 그 위에 꿀을 바르고, 어린이는 엮드려 그 꿀을 핥아먹는다. 에스겔의 신앙 경험을 상징하는 행위이다. 에스겔 3장 3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말이로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고 하였다. 이어서 아이는 성경 말씀이 새겨진 케이크를 먹는다. 그리고 나서 마음을 열고, 좋은 기억력을 달라고 천사에게 기도한다.

스파르타 교육은 과연 효력이 있어서 27년간을 끌던 펠로폰네

소스 전쟁을 주전 404년에 종식시키고 그리스의 패권을 장악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스파르타의 억압적인 행동은 여러 도시 국가들의 반감을 사기에 이르렀고, 불과 33년만인 주전 371년에 작은 도시국가인 테베와의 전투에서 패한 후 점차 국운이 쇠하여져 역사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강인한 체력과 전술을 바탕으로 한 스파르타의 군사력도 아무 쓸모없이 역사의 심판 앞에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다.

그러나 가장 나약하게 보이는 유대인 교육, 가정에서, 학교에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외우게 했던 이 하찮은 교육을 받아온 유대인들은 나라가 분열되고, 북왕국이 주전 722년에 앗수리아 제국에 망하고, 남왕국이 주전 605년에 바벨론 제국에 침공을 받은 이후, 페르시아 제국, 헬라제국, 로마제국에게 차례로 주권을 빼앗긴 채 740년간 지배를 받았고, 주후 135년 이후로는 1948년 5월 14일 국가가 재건되기까지 무려 1,813년 동안 나라 없이 세계로 흩어졌으며, 이 기간에 무려 1,200백만 명이 학살당하는 비극을 겪었으면서도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민족으로 살아남아 있다. 힘이 강한 자가 먼저 망하고, 약한 자가 끈질지게 역사의 맥을 이어 살아간다는 역사의 교훈은 실로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이 두 교육 사이에는 역사관의 큰 차이가 있다. 스파르타 교육은 적자생존의 원리에서 역사를 읽었고, 유대인 교육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서 역사를 읽었다. 또 이 두 교육 사이에는 가치관의 큰 차이가 있다. 스파르타 교육은 물질과 권력에다 가치를 두었고, 유대인 교육은 신앙과 정신에다 가치를 두었다.

스파르타 교육을 받고 자란 스파르타인들은 그들이 이 역사 속에서 영원히 존재할 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냉철한 지성이 없는 무력, 따뜻한 가슴이 없는 근력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며, 열빠진 것인가를 알았어야 했다. 정신이 없는 무력, 혼이 빠진 힘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며, 인류에게 파멸을 몰고 오

는 것인가를 알았어야 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물질에 가치를 두고 정신을 무시하는 처사, 유물론을 주장하고 유신론을 무시하는 처사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돈과 권세와 명예에다 가치를 두고 청빈과 봉사와 신앙을 무시하는 처사가 얼마나 사회를 좀먹는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진화론을 주장하고 재창조와 새출발의 정신인 창조론을 무시하는 처사가 얼마나 위험천만인가를 알아야 한다.

힘이 세고 야성적이며 활과 칼로 무장한 에서가 장자권을 가 법계 생각하고 팔죽 한 그릇에 가치를 두었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힘없고 여성적이지만 신앙과 정신으로 무장한 야곱이 결국 활과 칼로 무장한 에서를 어떻게 물리쳤는가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비록 나이 어린 미소년에 불과했지만, 신앙과 정신으로 무장한 다윗은,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골리앗의 장대한 골격과 큰칼과 방패만을 보고 무서워 떨 때에, 전혀 그를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의 앞에 나아갔으며, 칼이나 활이 아닌 강바닥에서 주운 돌 몇 개만으로 그를 쳐서 쓰러뜨렸다. 이 사건은 지성이 무력을, 정신이 물질을 이긴다는 것을 가르치는 중대한 교훈이다.

신앙과 정신을 무시한 채, 물질에만 가치를 두었던 공산국가들이 70여년만에 모두 무너져버렸고, 공산국 최후의 보루로 남아 있는 북한마저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던 물질이 부족해서 생산이 멈추었고, 배고파 굶주리는 비극을 초래하였고, 그들이 무시하는 신앙과 지성과 자유에다 가치를 두고 있는 민주국가들에 구걸하는 처지가 되었다. 북한은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져버린 스파르타에서 역사적인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무력이 결코 민중을 얻을 수 없고, 양식을 얻을 수 없고, 세계를 손에 넣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머지않아 북한은 에서처럼 모든 축복을 남한에 빼앗길 것이며, 골리앗처럼 쓰

러지고 말 것이며, 스파르타처럼 망하고 말 것이란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스파르타식 무력의 힘이란 것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인가를 WBA헤비급 전 챔피언이었던 타이슨의 삶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지난 86년 20세 약관의 나이로 세계프로복싱 사상 최연소로 세계 헤비급 챔피언에 올라 KO승을 26번이나 연속으로 따냈고, 1회 때에 KO승을 20번이나 거두는 등 ‘금세기 최고의 핵주먹’을 휘두르며 세계복싱계를 지배했던 타이슨은 엄청난 부와 명예에도 불구하고, 지난 91년 7월 미스블랙 아메리카에 참가 중이던 18세의 소녀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3년간 감옥살이를 했는가하면, 가석방 중에도 호랑이를 키우는 등 방자한 생활을 일삼아왔다. 그러던 그가 97년 6월 29일에 벌어진 WBA헤비급타이틀전에서 3라운드 막판에 현 챔피언 에반더 홀리필드의 귀를 두 번이나 물어뜯는 야수 같은 만행을 보인 끝에 실격패 당하고 말았다. 지성과 정신이 빠진 무력, 열과 혼이 빠져버린 무력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한판이었다. 비록 타이슨이 이슬람교에 귀의했다고는 하지만, 그가 보여준 일련의 행동들은 조지 포먼이나 에반더 홀리필드에게서 발견되는 삶의 진지함이나 신앙과는 매우 먼 거리에 있는 것들이었다.

요즘 북한이 남한을 향해서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마치 타이슨이 홀리필드에게 일전을 불사르겠다고 덤비다가 여의치 않자 귀를 물어뜯는 만행을 보이는 것과 같은 험박과 공갈을 일삼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알아야 할 것이다. 그들이 의존하는 강한 군사력이나 무신론적 유물론이 결코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어린이들이 즐겨 보는 만화 영화에 잘 묘사되어 있듯이 혼이 없고, 정신이 없고, 지성이 없는 로봇의 파괴력은 대단히 무섭다. 또 그것을 만들고 부리는 높은 두뇌는 가졌으나 생명에 대한 경

외심과 신에 대한 신앙심이 없는 자들의 만행과 폭력이 대단하게 묘사된다. 그러면서도 한결같이 정의와 불의의 싸움은 정의 쪽의 승리로 끝을 맺는다. 단순히 만화의 세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역사가 이를 잘 증명해 준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의의 편이었다는 것을 역사가 입증해 준다.

최근 몇 년간 우리 나라에 매우 수치스러운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총체적 부실이라고 말할 만큼 굵직한 사건 사고들이 줄지어 발생되고 있고, 정신이 사라지고 성공주의 물량주의가 판을 치는 난장판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입는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성수대교 붕괴 하나만으로 입은 사회 경제적 손실이 1조원에 육박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 돈이면 성수대교와 같은 다리를 12개나 더 놓을 수 있는 돈이다. 당초 4조원쯤으로 발표됐던 고속전철공사비가 20조원으로 경증뛰는 바람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4차선 고속도로를 4개 또는 지금과 같은 경부선 철도를 4개나 더 놓을 수 있는 돈을 낭비하게 되었다. 최근 국가 경제를 송두리째 엎어버린 한보철강은 6조원 가량의 엄청난 부실유자와 막대한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수익전망이 캄캄한 비효율적인 공장으로 판명되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2조원을 더 쏟아 부어야 하는 엄청난 피해를 국민에게 입히고 있다. 한보의 부도는 심각한 금융 불안을 가져와 중소기업들은 물론, 내로라 하던 대기업들조차 연이어 부도를 내고 쓰러져 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서 우리 나라 전체 무역수지적자는 2백억 달러를 훨씬 웃돌고 있는 실정이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한 마디로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물질에다 가치를 두고 있는데서 비롯된 모순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군사력 증강이 자국을 구원치 못하고, 물질에 눈이 어두워 정신을 팔아버린 국가나 기업들에게 부는 고사하고 파멸을 가져다주고 있으니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기독교 정신을 팔아버리고 세속주의, 물량주의, 성공주의로 치닫던 교회들 역시 하나 둘씩

고사를 면치 못하고 있으니 이 또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정신을 잃어버릴 때 망하고 만다. 기업가는 기업정신, 군인은 군인정신, 신앙인은 참다운 신앙, 정치가는 정치윤리를 지녀야 한다. 물질에 얽매어 정신을 잃어버릴 때에 그 사회와 단체는 망하고 만다. 물질에 얽매어 신앙을 잃어버릴 때에 그 교회와 신앙인은 타락하고 만다. 역사는 우리에게 물질이 정신보다 우위에 놓일 때, 물질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물질을 잃게된다고 가르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참다운 신앙, 올바른 정신, 시들지 않는 꿈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승리를 따 낼 수 있으며, 비로소 세계를 향해 뻗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7. 역사는 정신에 지배된다

(누가복음 12장 16-21절)

그리스 신화에 미다스(Midas)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미다스는 브루기아의 왕으로써 황금을 어찌나 좋아했던지 손으로 만지는 것은 모두 황금이 되게 해달라고 술의 신 디오니소스에게 빌었다. 그런데 그만 소원이 성취되고 말았다. 그 바람에 미다스는 혼쫓났다.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되는 것은 좋은데, 사랑하는 딸의 손을 잡자 딸까지도 황금으로 변했고, 사과를 먹으려고 손을 대자 사과마저도 황금으로 변하는 바람에 쫓쫓 굶게 되었다는 것이다.

인간이 최대의 가치를 두고 탐하는 물질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을 함정에 빠지게 한다는 교훈이 담긴 이야기이다.

누가복음 12장 16-20절에 어리석은 부자에 관한 예수의 비유가 소개되고 있다. “어떤 부자가 기름진 농토를 가지고 있었는데 풍년이 들었다. 거두어들인 곡식은 곡간을 가득 채우고도 남아 더 넣어 둘 데가 없었다. 그는 어떻게 할까 궁리하다가 속으로 이렇게 말하였다.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야겠군. 그러면 충분히 쌓아 둘 수 있겠지. 그리고 내 영혼에게 이렇게 말하리라. 나는 물건을 몇 해 동안 쓰고도 남을 만큼 쌓아 두었다. 이제 편안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기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밤에 내가 네 영혼을 찾아가리라. 그러고 나면 네가 모은 재산이 다 누구의 차지이 되겠느냐?’

재물에다 최대의 가치를 두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안주하려는 사람은 결코 역사의 주인이 될 수 없고 오히려 실패자가 되고 만다는 교훈이다.

기원전 336년에 그리스 본토 도시국가의 왕들은 페르시아 원정을 앞두고 고린도에 모여 군사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20세에 불과한 젊은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더가 원정군 총사령관으로 뽑혔다. 그러자 내노라하는 정치가, 장군, 철학자들이 고린도에 몰려와 축하인사를 하였다. 그러나 총사령관이 기다리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 알렉산더는 당시 시노페 출신의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고린도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다. 그는 디오게네스가 축하 인사하러 와줄 것을 은근히 기대하였다. 그러나 디오게네스는 오지 않았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몸소 이 철학자를 찾아갔다. 디오게네스는 나무통 속에서 초라하게 살았는데, 일광욕을 즐기던 디오게네스는 알렉산더를 보자 일어나 앉았다. 알렉산더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넨 후에 물었다. “뭐 도와드릴 일이 없겠습니까?” 디오게네스가 대답했다. “예, 있습니다. 사령관께서 햇살을 가리고 계시니, 조금만 비켜 서 주십시오.”

알렉산더는 그리스 원정군 총사령관을 본 체도 하지 않는 철학자의 배포에 질려 다음 질문을 내놓지도 못하고 자리를 떠야 했다. 동행했던 장군들이 디오게네스의 통명스러움을 비웃었지만, 알렉산더는 오히려 “내가 만일 오늘의 알렉산더가 아니었다면 디오게네스가 되고 싶다.”라고 중얼거렸다.

디오게네스는 거칠게 먹고 험하게 입고 산 사람으로 유명하다. 형편이 어려워 고기를 사먹을 수 없었던 그는 값싼 야채를 구해 깨끗이 씻어 먹고는 했다. 그가 시냇가에서 푸성귀를 씻고 있는 것을 본 한 유복한 친구가 지나가다가 안타깝다는 듯이 충고를 했다. “고개 수그리는 법을 조금만 알아도 호의호식할 수 있을 텐데, 자네 왜 그 모양인가?” 유복한 친구를 돌아다보면서 디오게네스가 말했다. “거칠게 먹고 험하게 입고 사는 법을 조금만 알아도 고개를 수그리지 않아도 될 텐데 자네는 왜 그 모양인가?”

무기력한 거지나 다름없지만 디오게네스는 사기 충천한 그리스 원정군 총사령관 알렉산더를 지배했던 것이다. 디오게네스의 정신이 알렉산더의 무력을 지배한 것이다. 디오게네스의 청빈함과 초탈함이 물질과 명예와 권세에 끌려 다니는 아류들을 지배한 것이다.

페르시아 원정을 앞두고 알렉산더는 델포이(Delphi)로 올라갔다. 델포이는 예언의 신 아폴론의 신전이 있는 곳이다. 신전의 문 상인방에는 “그노티 세아우톤” 즉 “너 자신을 알라”(Know thyself)는 유명한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알렉산더는 아폴론 신이 그 신전에 맡겨놓았다는 뜻을 받아보고 싶었다. 그러나 그가 신전에 이른 날은 공교롭게도 액일 이었다. 그런데도 그는 부하를 신전에 들여보내 여사제(제니 혹은 뤼티아)에게 총사령관이 타선, 곧 신이 맡겨놓은 뜻을 받으러 왔다는 사실을 알리게 했다. 잠시 후 부하가 나와 이런 말을 전했다. “여사제는 신전의 법에 따라 액일 에는 신이 맡겨 놓은 뜻을 전해줄 수 없다고 한

다.” 알렉산더는 부하를 다시 들여보내 우격다짐으로 여사제를 끌어내게 했다. 끌려나온 여사제는 사령관 앞에서도 탁선을 전할 수 없다고 버티었다. 알렉산더는 여사제를 끌고 신전으로 들어가 다리가 세 개인 걸상에 앉혔다. 델포이 신전 중앙에는 연기가 솟아오르는 조그만 구멍이 있었는데, 여사제가 연기 구멍 위에 이 세 다리 의자(Tripous)를 올려놓고, 그 위에 앉아서 연기를 들이마신 후에 예언을 했기 때문이다. 여사제는 알렉산더의 열성에 감복했다는 듯이 이렇게 중얼거렸다. “참으로 질 줄 모르는 사람이군요.” 탁선을 받은 것이 아니라 만들어낸 셈이 된 알렉산더가 응수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받고 싶어하던 신의 뜻이요.”

세계 정복의 꿈을 가졌던 알렉산더의 정신력이 얼마나 강했는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다. 역사는 꿈꾸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지배된다. 역사는 물질이 아닌 정신에 의해서 지배된다.

알렉산더의 원정군은, 역사가에 따라 주장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략 3만 5천명의 보병과, 3천 5백 명 정도의 기병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알렉산더는 변변치 못한 군자금으로 원정에 나서면서도 왕실 재산을 군자금에 보탬 생각은 하지 않고 참모의 가족들에게 고루 나누어주고는 손을 털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귀족 출신의 참모 페르디카스(Perdiccas)가 알렉산더에게 물었다. “아니, 전하께서는 빈털터리가 되지지 않았습니까?” 알렉산더가 대답했다. “천만에, 아직도 내게는 희망이 있소.” “그렇다면 저도 재산대신에 그 희망이라는 것을 좀 나누어 받겠습니다.” 페르디카스는 왕이 하사한 재산을 반납했다. 그러자 왕은 페르디카스가 반납한 돈을 더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마저 나누어주고는 다시 손을 털었다.

후일 페르디카스는 알렉산더가 죽은 후 대 헬라제국의 섭정이 되었다. 그가 나누어 받은 희망의 열매가 어찌 어리석은 사람들이 받은 한 상자의 돈과 같다고 할 수 있겠는가? 알렉산더와 페

르디카스는 눈에 보이는 작은 재물에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꿈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면서 보다 큰 성공에다 가치를 두었던 것이다.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것, 그의 이름을 역사에 깊이 새겨 수천 년이 흘러도 지울 수 없게 만든 것, 그것은 바로 현실에 안주하지 아니하고, 큰 꿈과 기상을 품고 미래를 내다 본 정신에 있었다.

소인과 대인이 어떻게 다르냐는 질문을 받은 맹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작은 것을 따르는 자를 소인이라고 하고, 큰 것을 따르는 자를 대인이라고 한다.” 영웅이 무엇이나는 질문을 받은 미국의 신화학자 조셉 캠벨은 이렇게 대답했다. “삶을 자기보다 큰 것에 바친 사람이지요.” 이렇게 대인이나 영웅은 자기보다 큰 것에 자신을 바침으로써 한 시대의 주인공이 된 사람들이다.

영웅을 헬라어로 ‘헤로스’(heros)라고 한다. 이 말은 반신반인(demigod)을 뜻한다. 헤라클레스, 디오니소스, 테세우스와 같은 영웅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자기보다 큰 것에 자신을 바침으로써 마침내 자기 시대의 주인공들이 되었고, 인간의 한계인 죽음까지도 뛰어넘어 부활 승천하여 영원한 존재인 신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이다. 그리스 신화에는 제우스와 같은 불멸의 존재가 있는가하면, 이들 영웅처럼 영원한 존재가 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영웅들의 삶은 한 귀퉁이가 모자란 채로 태어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고난과 역경의 삶이 영웅이 되는 필요조건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타고난 한계와 고난의 세월을 경험하지 아니한 영웅의 이름을 신화는 별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비단 그리스의 신화에서만 그런 것은 아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의 생애가 그렇고, 예수와 바울의 생애가 그렇다. 이들은 모두가 타고난 한계와 고난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삶을 자기보다 큰 것에 바친 위대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아무리 역사에 기리 남을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삶의 가치를 정신과 신앙에 두지 아니하고, 물질과 명예와 권세에 두었던 사람들의 업적은 오래가지 못했다. 칼과 창으로 세운 헬라제국이 채 300년을 넘기지 못하고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지고 말았고, 300년 가깝게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제국도 역사에 그 흔적만을 남긴 채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물질보다는 정신을, 명예보다는 하나님께 복종하기를 원했던 예수의 나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막 12:30). 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막 12:31)고 가르쳤던 예수의 나라, 매를 맞고 십자가에 매달렸던 예수의 나라는 그 엄청난 박해와 고난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인한 나라로 2천년 가깝게 역사를 지배하며 역사 위에 우뚝 서 있다. 물질보다 더 강한 것은 정신이다. 정신보다 더 강한 것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눈에 보이는 당장의 이익에 꿈을 버리고, 이상을 버리고, 미래를 버린 사람의 결국은 그가 비록 당장은 재산을 모아 잘살지는 몰라도 그의 삶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희망이 없는 삶이요, 미래가 없는 삶이요, 존재가치가 없는 삶이다.

유대인 라비 가운데 요한나 벤 자카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요한나는 유대민족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큰 위기에 직면하여 좌절하고 있을 때에 유대주의를 발전시켜 크게 보급한 라비이다.

주후 68-70년 사이에 유대인 열심당원들이 로마군에 대항하여 독립전쟁을 일으켰을 당시 요한나는 온건파에 속해 있었다. 그런데 강경파였던 열심당원들이 군사적으로 크게 열세한데도 불구하고 로마군에 대항하자, 요한나는 민족의 장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유대민족이 역사에 길이 살아 남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는지를 깊이 묵상하였다. 마침내 그는 로마군의 총사령관을 만나기로 작정하고 강경파들의 감시망을

뚫고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갈 길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들이 죽은 자의 시체를 부정하게 여겨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지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피병을 앓기 시작했다. 요한나는 유명한 라비였으므로 그가 병을 앓는다는 소문과 결국 죽었다는 소문이 온 성에 퍼지게 되었다.

요한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안에는 묘지가 없었으므로 그를 성밖에 묻을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열심당원들에게 강경하게 요청하였다. 열심당원들은 요한나의 관에다 칼을 찌르려고 했지만, 라비의 시신에 칼을 대는 것은 그를 모독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제자들의 항변에 부딪쳐 성문통과를 허락하고 말았다. 성안을 빠져 나온 요한나는 성곽을 포위하고 있는 로마군의 총사령관 베스파시아누스를 만날 수 있었다. 요한나는 베스파시아누스를 처음 본 순간 그가 네로를 이어 차기 황제가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에게 황제의 예를 표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중요한 부탁을 했다. “방 한 칸이라도 좋으니, 10명 정도의 라비들이 들어갈 수 있는 학교를 하나 만들어 주되, 이 학교만은 절대로 파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요한나는 조만간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 점령당하여 대량파괴와 학살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다. 그렇게 되면, 성전이 훼손되어 다시는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은 세계를 떠도는 나그네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만 있다면 유대전통을 변함없이 전승시킬 수 있으리라 확신했던 것이다. 로마의 사령관은 요한나의 예언대로 68년에 황제로 등극되었고, 요한나의 요청대로 지중해 서안에 위치한 읍바 근처 야브네에 세워진 요한나의 학교를 파괴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비록 국가는 망해버렸고 성전은 파괴되었지만, 그 때 그 학교에 남아 있던 라비들은 살상을 면하여 유대 지식과 유대 전통을 지키고 가르칠 수 있었다. 그 결과 팔레스틴을 지배했던 강한 나라들은 하나 둘씩 역사에서 사라졌지

만, 가장 힘없는 나라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 어렵고 지루한 역경과 시련을 딛고 굳세게 살아남아 결국 1948년에 국가를 재건하는 강인한 신앙과 정신력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꿈 있는 한 사람의 라비가 가르친 민족정신과 신앙이 역사에 이어지면서 보이는 나라가 없이도 수천 년을 견딜 수 있었다. 탈무드를 요약하여 출판한 마빈 토케이어는 유대인의 저력을 ‘학문에의 집착,’ ‘권위에의 도전,’ ‘불굴의 정신,’ 그리고 ‘자기 확립’이라고 분석하면서, 국토 없는 떠돌이 민족으로서의 설움 속에서 수천 년을 보내는 동안 유대인들로 하여금 굳건한 인고의 정신으로 그 역경을 헤쳐나가게 한 유대인 특유의 근본사상은 바로 성경과 탈무드의 연구에서 비롯되었다고 했다. 유대인들은 매년 유월절이면, 고난과 가난의 상징인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기도하기를, “금년에는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먹지만,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먹게 되기를 희망한다.”라고 하였다. 이 꿈이 바로 오늘의 유대인이 있게 한 저력이다. 역사는 정신에 지배된다.

8. 역사와 시간

(전 3:1-14)

시간에는 두 가지가 있다. 흘러가는 시간도 있고, 의미 있는 시간도 있다. 흘러가는 시간을 헬라어로 ‘크로노스’(chronos)라 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kairos)라 한다.

‘크로노스’는 연대기적인 시간을 말한다. 그래서 연대기를 말할 때 영어로 ‘크라너클’(chronicle) 또는 ‘크러날러지’(chronology)라고 한다. 이는 천문학적으로 해가 뜨고 지면서 결정되는 시간이며,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결정되는 시간이다. 매일 한 번씩 어김없이 낮과 밤이 찾아오고, 매년 한 번씩 봄여름 가을

겨울이 찾아오는 시간이다. 생물학적으로는 동식물이 낳고 늙고 병들고 죽는 시간이다. 철새들이 철 따라 이동하고, 연어가 태어난 곳으로 되돌아와 알을 낳고 죽어 가는 시간이다. 이 속에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들이 웃고 울며, 분내고 기뻐하며, 번민하고 수고하며 살아간다.

‘카이로스’는 특정한 시간 또는 정한 시간을 말한다. 시간은 비록 흘러가는 것이지만, 시간에 특별한 의미가 있을 때에 이 의미 있는 시간을 ‘카이로스’라 부른다. 그래서 ‘카이로스’는 어떤 일이 수행되기 위한 시간 또는 특정한 시간을 가리킨다. 계획이 세워지고 그 계획이 실행되는 시간을 가리킨다. 특히 하나님의 활동이 전개되고 그분의 계획이 실현되는 시간을 가리킨다.

역사에도 두 가지가 있다. 조사(survey)나 탐구(research)에 의한 순수 역사가 있고, 해석이나 뜻으로 본 풀이역사가 있다. 순수역사를 독일어로 ‘히스토리에’(Historie)라 하고, 풀이역사를 ‘게쉬크테’(Geschichte)라 한다.

역사는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에 속한다. 흘러간 시간 속에서 발생했던 일들을 한 곳에 모아 적으면 역사가 된다. 개인의 역사를 모아 적으면 전기나 자서전이 되고, 신앙체험을 모아 적으면 간증집이 된다. 간증집은 ‘게쉬크테’로, 전기는 ‘히스토리에’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러나 전기라고 해서 반드시 ‘히스토리에’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적은 글이지만 ‘히스토리에’이기보다는 ‘게쉬크테’이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예수의 생애’라 하지 않고 복음서라 했다.

복음서란 말이 갖는 뉘앙스는 전기보다는 신앙서 또는 신학서에 가깝다. 그것은 복음서의 기록 목적이 단순히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복음서를 읽는 이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 했기 때문이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보다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복음서가 예수
의 생애를 조사 탐구해서 있는 그대로 적은 글이라면 ‘히스토리
에’라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복음서는 예수의 생애의 대부분을
생략한 채 죽기 전 일년 또는 삼 년 동안 예수께서 가르치셨던
말씀들과 베푸셨던 선행들 가운데서 일부만 골라서 전하고 있
고, 그렇게 한 가장 큰 목적이 그것을 읽고 예수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 함이었다. 이 점을
요한은 복음서 20장 31절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
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
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복음서의 생명이 여기에 있다. 복음서가 만일 예수의 생애를
적는 데 그치고 만 ‘히스토리에’였다면, 예수의 삶은 이 천년 전
지구 한 모퉁이에서 생겨진 아주 흔한 일로 끝나고 말았을 것이
다. 그러나 복음서는 예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코
자 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밝힌 ‘게쉬크테’였기 때문에 그
분의 삶을 살아 숨쉬게 했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
에게 희망과 용기와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었다.

역사가 비록 과거에 속한 것이긴 하지만, 그 역사를 풀이하고,
뜻을 부여하고, 의미를 밝히게 되면 죽었거나 정체된 과거의 역
사조차도 살아서 움직이는 오늘의 역사, 우리의 역사, 곧 나의
역사가 된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순수역사인 ‘히스토리에’에 관
심하기 보다는 뜻으로 본 역사인 ‘게쉬크테’에 더 관심 하게 된
다. 만일 역사가가 자기 나름의 ‘관점’이나 ‘이해’를 가지고 역
사를 기술한다면, 그가 기술한 역사는 객관성이나 순수성 또는
정확성에 대한 의심과 비판을 받게 되겠지만, 그 역사는 산 역
사, 의미 있는 역사, 생기 있는 역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일 기록되는 역사들이 역사가의 관점이나 이해에 따라 된다
면, 같은 시간에 일어난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기록하는 사람

들에 따라서 사건의 개요나 줄거리는 서로 같겠지만, 그 사건이 갖는 또는 그 사건이 주는 의미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이런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공관복음서이다. 공관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말한다. 이들 세 복음서들은 예수의 생애를 기록한 책이나 다름없는데 그 구조나 보도 내용에 있어서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도한 예수에 관한 기록들을 보면, 같은 시간에 일어난 같은 사건이라도, 그들이 독자들에게 전하고자한 뜻이나 의미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역사적인 사실로 발생한 예수에 관한 사건 보도에 있어서는 일치되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전하고자한 교훈은 달랐던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의 글들을 읽게될 독자들이 처한 정황들이 제각기 달랐기 때문이다. 마태복음의 독자들은 예배용 자료나 교육용 자료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의 설교나 담화에다 보도의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예수를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보다 말씀의 권위가 훨씬 뛰어난 분으로 소개하였다. 마가복음의 독자들은 네로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능력 많으신 예수를 바로 볼 수 있는 신앙문서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의 능력 행하심과 고난을 받으셨지만 능히 이기시고 승리하신 일에도 보도의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예수를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였다. 누가복음의 독자들은 로마인이나 헬라인들로부터 이단시 취급되고 배척을 당하고 있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의 기도생활, 성령충만 하심, 예루살렘으로의 여행, 배척 당하신 일들에다 보도의 초점을 맞추었다. 그리고 예수를 신자들이 본받아야 신앙의 모범으로 소개하였다. 이렇게 해서 지나간 예수의 말씀과 삶이 오늘 여기에 살고 있는 신앙인들의 다양한 삶 속에서 살아 활동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되게 하였다. 예수의 말씀과 삶이 복음서 저자들에 의해서

신앙 고백되어지고, 신학적으로 해석되어 졌을 때에 예수의 말씀과 삶은 과거의 시간 속에 흘러가 버리거나 무덤에 갇혀 버리지 아니하고, 시간이 지나고 장소가 다르고 시대가 달랐어도 예수의 말씀과 삶은 언제나 신앙인들의 공동체와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게 되었던 것이다.

인류의 역사는 단순한 ‘히스토리에’가 아니다. 우연히 발생한 사건들에 의해서 흘러가 버린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묻혀 버리는 것이 아니다. 역사는 ‘게쉬크테’이다. 역사적 사건들은 필연에 의해서 발생한 것들이다. 역사적 사건들은 의미 있는 ‘카이로스’의 시간 속에서 되어진 것들이다.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아래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그래서 역사나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버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을 단순한 ‘히스토리에’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들이 되게 해서 안 된다. 흘러가 버리는 시간 속에 묻히게 해서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 각자의 삶에 담긴 깊은 뜻을 풀어내야 한다. 풍성한 의미를 밝혀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단순한 ‘히스토리에’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가 밝히 드러나는 ‘게쉬크테’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뛰어들어 순간 순간 자기의 시간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흘러 가버리는 물을 가두어 다목적으로 활용하듯 흘러가는 시간을 자기 시간 곧 자기와 관련된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시간은 물처럼 흘러가 버린다. 전도서 저자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고 했듯이, 시간은 현재에 머물지 않고 순간 순간 과거가 되어버린다. 그리고 이 흘러가 버린 시간들 속에 있었던 일들을 풀이 없이 기록한 것을 ‘히스토리에’라 한다. 그런데 ‘히스토리에’는 물처럼 흘러가 버린 지나간 시간들 속에 있었던 일들이고, 또 대부분 나와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상관없이 발생한 것들이기 때문에 실존적으로 나와 특별한 상관관계를 맺

지 못한다.

그러나 오래 전에 있었던 사건이라 할지라도 또 그것이 한국 땅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사건이 의미 있는 시간 속에서 특별한 뜻을 가지고 일어난 일이라면 또 그 사건의 의미가 올바르게 풀이되어 전해졌다면, 그 사건은 나와 특별한 상관 관계를 갖게 된다. 또 그 사건은 나의 시간 곧 나와 관련된 시간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재현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예수의 죽음은 이 천년 팔레스타인에서 있었던 일이지만, 그 사건이 갖는 특별한 의미와 뜻이 분명하게 밝혀졌고 또 나에게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은 흘러가 버린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사건이 된다. 이제 그 사건은 나의 결단을 통해서 나의 시간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재현되어질 귀중한 사건이 된 것이다. 따라서 예수의 삶과 죽음은 먼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나의 삶과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결단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크고 특별한 뜻이 있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나의 삶과 시간 속에서 그 사건이 부활될 수 없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잊혀질 사건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삶에 있어서 인간의 단호한 결단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꿈이 없는 사람에게는 내일이 없고, 이상이 없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썩 내려가는 삶의 역사는 의미 있는 역사일 수 없고,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시간들은 결정적인 시간이 될 수 없다.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을 잡아 우리 자신에게 결정적인 시간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의미 있는 역사를 썩 내려가야 한다.

우리 신앙인들이 불신자들과 특별히 다른 점이 있다. 그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지금, 여기에’ 살고 있으면서도 먼 과거의 있었던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맞이할 수 있고, 이 천년 전에 있었던 예수의 부활 사건을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일어난 사건으로 체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먼 미래의 사건인 천국의 복을 지금, 여기에서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신앙인들은 꿈을 현실화 시켜나가는 사람들이다. 기독교의 역사관의 특징은 희망에 있다. 기독교 종말관의 특징은 새소망에 있다. 신앙인들은 고난과 역경 속에 살면서도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과 승리와 행복을 자기 시간 속에 끌어들이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새 시대에 대한 꿈과 희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희망의 역사이다. 새 시대에 대한 꿈의 역사이다.

성경은 대부분 신앙인들의 삶의 역사이다. 픽션이나 꾸며진 이야기가 아니다. 삶의 현장에서 기록된 진솔한 역사이다.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 살아간 수난의 역사이다. 그러나 그들의 역사는 희망의 역사이다. 꿈의 역사이다. 그들이 그 엄청난 시련 속에서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변함없는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꿈 있는 자만이 역사를 의미 있게 만들 수 있고, 시간을 특별하게 만들 수 있다.

제12장 영성과 신앙

1. 영성이 깊은 사람
2. 예수의 기도생활
3. 풍랑 만난 제자들을 돌보신 예수
4. 말씀의 하나님
5. 창조적 언어

제12장 영성과 신앙

1. 영성이 깊은 사람

(이사야 59장 9-15절)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앞일을 미리 내다보고 판단하는 지혜와 통찰력이 필요하다. 사업가는 경제흐름을 읽을 수 있는 사업안목이 필요하고, 정치인은 역사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정치안목이 필요하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인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파악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한데 이를 영성이라고 말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윤리의식이다. 기업가에게는 기업윤리가 필요하고, 정치인에게는 정치윤리가 필요하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앙윤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사업가라면 경제흐름을 읽을 수 있는 안목과 기업윤리가 필요하다. 이것을 고루 갖춘 사람이 빌 게이츠라고 생각된다.

올해로 41세인 빌 게이츠는 포브스지가 연속 3년째 미국 최고의 부자로 꼽을 만큼 재산이 20조원에 이르고 있고, 6년째 짓고 있는 저택에 들어간 돈만 해도 320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런 큰 성공의 비결을 묻는 사람들에게 빌 게이츠는 통찰력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수억씩 하는 중대형 컴퓨터만 만들어

지던 때에 저가의 소형 컴퓨터가 일반화 될 것을 예상했고, 컴퓨터 사용을 쉽게 해줄 수 있고, 어떤 컴퓨터 회사 제품에 사용해도 문제없이 돌아가는 호환성을 가진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면, 컴퓨터 보급을 확산시킬 뿐 아니라, 자사 제품의 소프트웨어 시장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엄청난 이익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운 좋게도 자기 생각이 맞아 떨어졌다는 것이다. 반면에 소형 컴퓨터 산업에 초석을 마련하고도 소형 탁상용 컴퓨터가 한 때의 유행이라고 생각했던 디지털 이퀴프먼트사의 켄 올슨은 망했고, 우수한 문서편집용 워드프로세서를 개발하고서도 컴퓨터와의 호환성을 갖춘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생각지 못한 왕 안은 일찍이 이 산업에 눈을 뜬 청년 빌 게이츠에게 성공의 기회를 빼앗기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빌 게이츠의 인간됨을 사업가로서의 안목으로만 평가할 수 없다. 돈 되는 것이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사람들의 가치 척도로 보면 돈 번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인간으로써의 성공은 재물이나 명성만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자신과 남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할 수 있고, 작은 일이지만 자신이 하는 일로 국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걸맞게 빌 게이츠는 기업가로서의 윤리를 갖추고 있다. 그의 인간 됨은 자기가 번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서 빛나 보인다. 그는 “컴퓨터 산업은 단순히 돈벌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개인과 사회를 진보시키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10년 뒤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시켜 자선사업에만 전념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에도 1,700억 규모의 기금으로 재단을 설립하는가하면, 몇몇 대학에 기부한 돈만도 6백억 원에 달하고 있다.

기업인의 안목과 윤리를 갖춘 우리 나라 기업인으로서는 유한양행의 창업자 유일한(1895-1971) 박사를 내 세울 수 있을 것이다.

유일한은 1904년 9세 때에 미국으로 건너가 아르바이트를 하며 고학으로 헤스팅스 고등학교와 미시간 대학을 졸업하고 제너럴 일렉트릭사(General Electric Co.)에 회계사로 입사했다.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운동이 전해지자, 필라델피아에서 ‘한인자유대회(韓人自由大會)’에 참석한 후, 제너럴 일렉트릭사를 그만두고 대학시절의 미국인 친구와 합작으로 1922년에 숙주나물 식품회사를 창립하여 성공하였다.

그 후 사업을 목적으로 귀국한 유일한은 일제치하에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많은데 치료약이 없다는 점에 착안하여 유한양행을 설립했다. 그는 1936년 우리 나라 최초로 종업원 지주제를 실시했고, 1962년 주식공개로 통해서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했다. 또 가족관계가 아닌 회사간부사원에게 사장직을 물려줌으로써 전문경영인 시대를 여는 선구자의 역할을 했고, ‘유한 교육 신탁관리위원회’와 같은 공익재단을 설립하여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시켜 교육장학사업 및 사회사업을 실시했다. 유한 중고등학교와 전문대가 이렇게 해서 생겨났다.

정치인이라면 정치흐름을 읽을 수 있는 안목과 정치윤리가 필요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윤곡이다.

이윤곡은 난세에 국난을 예견하고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을 뿐 아니라, 관직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러나 무능한 왕 선조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다가 7년간 임진왜란(1592-98)을 겪었다.

최근에 발생한 노동법 국회처리 과정이나 한보사건을 볼 때, 정치인들과 기업인들의 긴 안목과 윤리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아쉬운 때인 것 같다.

이번 주제는 ‘영성’이다. 앞에서 소개한 기업가나 정치가의 긴 안목이나 윤리의식이 ‘영성’과 맥을 같이 하면서도 기독교 영성과 다른 점은 기독교 영성이 깊은 종교성을 요구한다는 점에 있다. 그런데 기독교 영성에 관해서 사람들은 제 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영성을 열성적인 신앙생활

과 동일시한다. 또 어떤 사람은 영성을 방언과 같은 신령한 은사와 동일시한다. 또 어떤 사람은 영성을 의식화와 동일시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신앙적 영성은 발달해 있는데 비해서 의식화되지 못한 면이 많고, 의식화된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와 명상과 같은 신앙적 영성이 부족한 것 같다.

앞에서 빌 게이츠와 유일한 박사와 같은 기업인이나 율곡 이이와 같은 학자의 긴 안목과 윤리를 살펴보았지만, 그들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 그 사람들을 일컬어 '영성이 깊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영성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또는 신앙적인 관계에서 설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이 남보다 일찍이 노동법과 근로기준법을 깨우쳤고, 평화시장의 봉제공장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한 채 밤낮 없이 혹사만 당하다가 피를 토하고 죽어 가는 어린 소녀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식화된 청년이라 할지라도 그를 일컬어 '영성이 깊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 반대로 어떤 사람이 아무리 많은 기도와 방언을 말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유한일 박사나 전태일 청년이나 장기려 박사와 같은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이 없다면, 그를 일컬어 결코 '영성이 깊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영성이 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관해서 이사야서 58-5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영성이 깊은 사람은 하나님과 빈번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다. 인간은 예배행위 즉 기도와 찬양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육체와 영혼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인간은 타고난 이성과 감성과 의지와 사회성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헤아릴 수 있고,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그런데 교제는 상대적이지 일방적인 것이 아니다. 우정이나 사랑은 쌍방간에 이루어지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의 예배는 받지 않고 있다. 이사야 58장 3-5절을 보면, “주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께서 알아 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생을 하겠습니까?”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말하자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굶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께서 너희를 기쁘게 받으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경우 아무리 많은 기도와 방언을 말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을 일컬어 ‘영성이 깊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영성이 깊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가지가 선한 사마리아인 처럼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 주는 것이다.

이사야 58장 6-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 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끊어 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들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양식을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 주는 것, 너의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하시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응답하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뼈마디에 원기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셋째, 영성이 깊은 사람은 자기 자신과 대중사회의 영적 상태를 알고 회개하는 사람이다. 이사야 59장을 보면, 죄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멀어졌고,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으며, 죄 때문에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59장 9-15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탄식하면서 죄를 고백한다.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며, 밝음을 바라나, 암흑 속을 걸을 뿐이다. 우리는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답을 더듬고, 눈먼 사람처럼 더듬고 다닌다. 대낮에도 우리가 밤길을 걸을 때처럼 넘어지니, 몸이 건강하다고 하나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다. 우리 모두가 꿈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지만 공평이 없고, 구원을 바라지만 그 구원이 우리에게서 멀다.”

“주님, 주께 지은 우리의 죄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발뺌할 수 없으며,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을 부정하였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물러가서, 포박한 말과 거역하는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마음에 품었고, 또 실제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평이 뒤로 물러나고 공의가 멀어졌으며, 성실이 땅바닥에 떨어졌고, 정직이 발붙이지 못합니다. 성실이 사라지니, 악에서 떠난 자가 오히려 약탈을 당합니다.”

넷째, 영성이 깊은 사람은 인간의 역사 속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의 은총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큰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다.

영성이 깊었던 이사야, 에스겔, 또는 계시록의 저자는 절대적 명의 극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다. 이사야는 잘린 후에 죽어버린 그루터기에서 싹이 돋는 환상을 보았으며, 에스겔은 죽음의 골짜기에서 해골과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았다. 계시록의 저자는 대로마제국의 탄압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대항하여 이길 자가 없다’는 것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원이다’는 확신을 버리지 않았다.

영성이 깊은 사람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행하는 사람이다. 영성이 깊은 사람은 자기 자신과 대중사회의 영적 상태를 알고 회개하는 사람이며,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다.

2. 예수의 기도생활

(누가복음 3장 21-22절)

여기서는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누가가 소개하는 ‘예수의 기도생활’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체험하신 일, 기도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떠한 일이 있을 때에 기도하셨는가를 알아보겠다.

신약성경에 ‘기도하다’라는 동사와 ‘기도’라는 명사가 합쳐서 90회가 사용되고 있다. 이 가운데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47회가 소개되고 있다. 전체의 52%를 상회하는 많은 숫자이다. 이 만큼 누가는 다른 어떤 성서 저자들보다도 기도생활에 관한 자신의 깊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누가는 교회의 목회자로

써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기도생활을 소개함으로써 기도생활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을 가르치고자 했다.

첫째,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누가는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와 헤르몬 산에서 체험하셨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도 기도할 때에 엄청난 사건들을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세 가지 사건이 발생했다. 첫째, 하늘 문이 열렸다. 둘째, 비둘기 같이 온유한 성령이 강림하셨다. 셋째, 너는 내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인침의 음성을 들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입은 옷에서 광채가 빛나는 영의 세계를 체험하셨다(눅 9:28-29). 이미 죽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율법과 예언에 대해서 신령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예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많으신 분이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보다 착하고 정직해서도 아니다. 예수께서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축복의 창고를 열 수 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거룩한 인침을 받을 수 있다. ‘기도를 통해서’ 신령한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사 43:1-2)는 축복의 말씀이 ‘기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체험되어질 수 있다.

둘째, 예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였는가? 누가는 기도에 관한

예수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의 기도하는 마음의 자세를 암시해 주고 있다.

먼저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의 비유에서 예수는 ‘강청(强請)의 기도’를 강조하셨다. 예수께서는 여행 중에 있는 손님을 맞이한 한 사람이 대접할 것이 없어서 자신의 친구를 찾아가 떡 세 덩이를 빌리려 할 때에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 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하셨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는 언제나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의 비유에서 예수는 ‘끈질긴 기도’를 강조하셨다. 원수 갚아 줄 것을 끈질기게 간청하는 한 과부의 소청을 들어주는 불의한 재판관을 비유로 들어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는 언제나 끈질기게 매달리는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의 비유에서 예수는 ‘겸손의 기도’를 강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죄인 세리의 기도는 들으셨어도,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셨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에는 언제나

겸손하고 순종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겸손의 기도를 들으시며, 아무리 훌륭한 신앙생활을 한다할지라도 교만한 자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이와 같은 기도들은 모두가 믿음의 기도들이다. 강청의 기도: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 없이는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끈질긴 기도: 끈질기게 매달리는 기도가 없이는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겸손의 기도: 겸손하고 순종하는 기도가 없이는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막 11:23) 고 말씀하셨다.

셋째, 예수는 언제 기도하셨는가? 예수는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으로 준비기도 하셨고(4:1), 문둥병자를 고치신 후에 한적한 곳으로 피하셔서 명성의 유혹으로부터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하셨다(5:16). 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 산에 올라 가셔서 밤이 맞도록 철야기도 하셨고(6:12),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시기 전에 즉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밝히시기 전에 홀로 기도하셨다(9:18). 예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도 장소를 택하여 기도하셨다(11:1). 예수는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중보 기도하셨다(22:32). 예수는 죽음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그러나 자신의 목숨이나 욕망을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 26:39) 라고 기도하셨다. 이렇게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성서는 말하고 있다.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는 실로 위대한 중보의 기도가 아닐 수 없다. 마지막으로 예수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기도를 올렸다. 임종 전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겸손히 부탁하셨던 것이다.

아랍사람들의 복수에 대한 집념은 가공할 정도라고 한다. 누군가가 살해당하면 그 피살자의 친인척에 속한 남자들은 복수의 의무를 지니게 되며, 이 복수의무가 주어지는 혈연집단을 ‘카르사’라고 한다. 만약 복수하지 못하거나 복수에 소홀하면 그 카르사의 명예는 형편없이 타락하여 그 카르사와는 교역도 결혼도 기피하기 때문에 카르사간의 싸움이 종족간의 전쟁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한다. 같은 혈연집단끼리 이동하며 사는 사막의 유목생활이기에 종족안전에의 연대책임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으며, 그 피해에 대한 보복은 이미 구약성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씀은 곧 보복정의를 말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의 혁명적인 교훈은 피를 피로 갚으라는 사막의 계율을 바꾸어 피를 용서로 갚으라는 사랑의 교훈을 십자가의 희생으로서 또는 십자가상에서의 기도로서 친히 가르치셨다. 그리고 예수의 이 용서의 기도는 누가복음이 기록된 실제적인 상황에서 볼 때, 그 당시 성도들이 박해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혹은 사자굴에서, 혹은 투기장에서 엄청난 고통 속에서 죽어가던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었던 기도였으며, 스테반처럼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품에 안겼던 것이다.

영국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당시, 특히 천주교도였던 메리 여왕에 의해서 300여명의 목회자들이 화형에 처해졌다. 천주교로 개종하기를 거부했던 몇 분의 주교들이 1555년 2월에 옥스퍼드에서 화형에 처해졌다. 불길이 이들을 덮치기 시작할 때에 라티머(Latimer) 주교는 리들리(Ridley) 주교에게 다음과 같은 말로 위로를 하였다. “리들리 주교님,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불기둥이 되어 세계를 밝힐 것입니다.” 또 훌륭한 개혁가

였던 토마스 크랜머(Thomas Cranmer)는 회유를 견디지 못해서 압제자의 요구에 서명하고 취소하기를 일곱 번이나 거듭하다가 결국 1556년 3월에 화형에 처해지게 되었다. 화염이 그를 덮치기 시작할 때에 크랜머는 서명을 거듭했던 손이 제일 먼저 죽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오른 손을 불길 속에 넣었다.

예수는 공생애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으나 이를 기도로 극복하셨고,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유언 가운데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다. 기도하는 길만이 살길이다. 기도만이 해결의 방법이다. 기도 할 때에 은혜 받을 수 있고, 기도 할 때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으며, 기도 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두려워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3. 말씀의 하나님

(히브리서 1장 1-2절)

성서에 나타난 유대교나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많은 종교들과 다른 점이 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으로 듣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다른 문화권의 종교들에는 신화도 있고, 여신도 있고, 우상이나 형상이 있어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도 보고, 엎드려 절도하고, 제사도 드릴 수가 있다. 그러나 성서 속에 나타난 유대교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들이 없다는 점이다. 하나님은 모습이 없다.

보이지도 않는다. 볼 수도 없다. 이런 점이 종종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히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신앙적인 갈등과 혼란을 가져다주는 요인이 되는 것 같다.

기독교는 눈으로 보는 감각적인 종교가 아니라 말씀의 종교이다. 성서 속에 나타난 유대교와 기독교의 하나님은 다른 많은 종교들과 달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 볼 수 있는 나무나 돌로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서를 통해서 또는 주의 종들의 설교를 통해서 또는 고요한 마음의 음성으로 말씀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1장 1절과 2절에서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적고 있다. 성서에 나타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으며, 말씀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

다른 문화권의 종교들이 사람이 만들어 낸 신화와 여신과 우상이나 형상을 가진 눈으로 보는 종교인데 반해서, 성서 속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들의 유대교나 기독교는 귀로 듣는 종교였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이런 점을 보면 성서시대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거나 볼 수가 없었던 것 같다.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현실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나무나 돌로 새긴 우상을 만들거나 금과 은을 입힌 송아지와 같은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 거기에 절도하고 빌기도 한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유혹을 많이 받았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마음속에 들려 오는 하나님의 음성

시간과 정성을 기울이지 않는다. 눈으로 보는 것에 훨씬 많은 유혹을 받는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금과 은으로 된 물질의 우상 앞에 노예가 되거나 대중문화에 쉽게 굴복되고 만다.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택했습니다』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은 대중문화에 침투한 사탄의 마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책의 설명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지금 사탄의 마법인 대중문화의 덫에 걸려 있어 하나님의 모습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능력이 많고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도 설 자리를 잃게 된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직면한 문제가 산더미처럼 크게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요즘 청소년들이 아주 사소한 일을 극복하지 못하고 정신이상을 가져온다든지 쉽게 자살을 택하는 이유도 사탄의 마법에 걸려 있거나 내면세계가 공허하기 때문이다. 평소에 하나님과 핫라인이 설치되어 있어서 통화훈련이 되지 못한 사람, 또 평소에 하나님과의 접촉을 전혀 시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모습이 보이고, 어둡고 암담한 자신의 현실만이 짙더미처럼 크게 부각되어서 해결의 의지를 상실하고 만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이런 의혹과 회의에 자주 빠지는 신앙인은 자신의 하나님이 눈으로 보는 하나님인지, 마음의 귀로 듣는 하나님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 진다.

성서를 위대한 신앙인들의 생생한 삶의 고백이라고 말한다. 그들이 위대한 것은 그들의 신앙이 언제나 극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 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악조건 속에서도 믿음의 싹을 내고 꽃을 피웠기 때문이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라는 말을 전 현대 그룹 회장 정주영씨가 했는데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바로 이런 신념 속에서 승리한 사람들이다.

신구약 성경말씀을 구성하는 중요한 사건들은 모두가 고난과

구원, 시련과 극복, 십자가와 부활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집트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생활과 탈출, 그리고 가나안 입성에 관한 이야기, 바벨론제국에 의한 유대왕국의 멸망과 재건, 그리고 포로 됨과 해방에 얽힌 이야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수난과 부활사건은 성서 66권을 구성하는 세 개의 기둥들이다. 이들 사건은 모두가 절망과 파멸과 수치와 죽음의 극한 상황에 관한 내용들이다. 노예생활과 포로생활 그리고 십자가의 못 박힘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보이는 것은 잔인한 압제자, 이집트 제국의 군대와 삶의 터전을 철저히 파괴하며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한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약탈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바벨론 제국의 군대와 무력한 인민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는 잔악한 로마제국의 군대만이 보이는 암담한 현실이었다.

인간들의 전쟁은 자기 부족이나 민족 공동체가 믿는 신과 신의 전쟁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신이 참 신이요 다른 신들보다 더 강한 신으로 믿어졌다. 점령국의 신은 피점령국의 신보다 강하고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쓰러짐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쓰러진 것과 다름이 없었다. 노예로서의 삶과 전쟁포로, 더욱이 성전까지 무너지고 약탈당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점령국의 태양신이나 마르뚝이나 바알과 같은 이방나라의 신들만이 크게 보이게 마련이다. 이런 상황이 되면 신앙인의 좌절과 절망은 더욱 커진다. 자기가 믿었던 신이 자신을 도울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망감속에서도 믿음의 조상들은 끝까지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그들의 고난과 수치스런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믿음으로 해석하고 고백했다. 여기에 이들 신앙인의 위대함이 있다. 그들은 강대한 제국의 신들의 우상 앞에서도, 그들

보다 훨씬 앞선 찬란한 문화와 문명의 발달 앞에서도, 노예와 포로와 속국민의 비애와 통한 속에서도, 고문과 투옥과 죽음 앞에서도 변치 않는 신앙심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구원의 섭리를 믿었다. 그 결과 어린 소년 다윗이 구척 장신의 거구 골리앗을 무너뜨리듯 역사의 현장 속에서 그들은 기적을 창출해 내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상에 나타났던 강대국들의 신은 다 그들 나라들과 함께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졌지만, 아주 작은 약소국인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는 지금 전 세계의 대다수 인구가 믿고 있는 신으로, 유대교, 기독교, 천주교, 또 이슬람교의 하나님으로 섬김을 받고 있다.

성경은 절망적이고 소망 없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 결국 그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를 거둔 믿음의 조상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그들의 신앙고백은 실로 우리들에게 감동적인 은혜를 준다. 그들은 성서 여기 저기에서 하나님은 절망한 이들에게 말씀의 소리로 찾아오신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 몇 가지 사례들을 성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사람을 죽인 후 이집트에서 도망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란 세월을 갈등과 절망 속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이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모세는 호렙산의 떨기나무에 불꽃은 있으나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았다. 신기하고 놀라왔다. 그것은 기적이었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을 본 것은 아니다. 모세는 불꽃 가운데서 들려 오는 세미한 소리를 들었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출 3:1-6).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모세는 새로운 힘과 비존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노예생활에서 그들을 구출해 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의 야훼종교 말살정책과 바알숭배 정책에 외롭게 대항한 북 이스라엘 왕국의 선지자였다. 그는 비가 내리지 아니 하는 삼 년 육 개월 동안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으로 근근히 목숨을 이어갔고, 과부의 집에 남은 한 움큼의

가루와 몇 방울의 기름으로 연명했다.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냄으로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고,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신과 아세라신의 선지자 850인을 상대로 외로운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도 했다. 그러나 엘리야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보이지 아니 하고, 오히려 죽음의 위협 앞에서 생존에 쫓기는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때, 허탈과 좌절감에 빠져 로렘나무 아래서 단식하며 스스로 죽기를 자청했다. 그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광야로 몰아 호렘산으로 가게 하였고, 그곳에서 비로소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을 본 것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강풍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지진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난 후에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부르셨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왕상 19: 11-14).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엘리야는 새 힘과 용기를 얻고 다시금 일어섰다.

욥은 재산과 가족을 다 잃고, 몸에 난 악창으로 잣더미에 나앉아 기와로 자신의 몸을 긁고 있었다. 사랑하는 아내도 그를 배신했다. 그의 친구들도 “아니 뎌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며 욥의 숨겨진 죄악을 추궁하며 그의 불행의 원인을 캐고자 했다. 이 때 욥은 몹시 참담함을 느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회의로 가득 찼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냥꾼에게 쫓기는 짐승처럼 함정으로 몰아간다고 원망했다(욥 10:16). 욥은 그가 하나님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앞에 다가서서 왜 악한 자가 세상에서 잘 살며 불의와 부정함이 세상에서 승리를 거두는지를 물어 보려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 하시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 편으로 돌이키시나 뵈올 수 없구나”(욥 23:8-9) 라며 탄식했다. 이 때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 욥에게 나타나셨다. 물론 욥이 하나님을 본 것은 아니다. 욥은 폭풍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욥 38:1-3).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욥은 새 힘과 용기를 얻어 새로운 출발을 했고 전에 가진 재산의 두 배를 모으는 거부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는 못한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 분을 만나 볼 수가 있고, 믿음의 귀로 그 분의 정다운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우리가 그 분을 보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 분은 멀리 계시지 않다. 그 분은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계신다. 단지 그 분은 우리 뒤에 계실 뿐이다. 그 분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은 그 분과 사귄 수가 있고, 그 분의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성서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들처럼 성공적인 삶을 살수가 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홀로 어려움을 겪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그 분은 불꽃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인도해 주신다. ‘발자국’이란 저자 미상의 영문으로 된 시가 있다. 그 내용이 다음과 같다.

어느 날 나는 한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 걷고 있었고, 나의 생애에 대한 장면들이 하늘을 가로질러 번뜩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매 장면마다, 나는 모래 위에 새겨진 두 사람의 발자국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나의 생애에 대한 마지막 장면들이 나의 앞에 번뜩이었을 때, 나는 모래 위에 새겨진 발자국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지나온 생애의 발자취에서 여러 차례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또 그와 같은 일이 나의 생애에 몹시 지

치고 슬픈 때에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일이 나를 몹시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점에 대해서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일단 결심하면, 끝까지 나와 함께 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생애에 가장 힘들었던 때에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할 그 때에, 왜 당신은 저를 떠나야 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자녀여, 나는 너를 사랑하며, 너의 시련과 고난의 때에 결단코 너를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네가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을 본 그 때에 나는 너를 안아서 운반하였노라.”

4. 창조적 언어

(창세기 1장 1-5절)

인구 5백 30만 명, 국민 일인당 소득 15,000불, 인터넷에서 뽑아본 최근 이스라엘 민족의 경제 상황이다. 1948년 5월 14일 건국 이래 아랍연맹국들의 생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호수의 물과 지하수를 펴 올려 스프링쿨러를 이용해서 사막 같은 불모지에 농사 짓고 산업발전에 힘쓴 결과 48년만에 일궈낸 요단강의 기적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창조적 언어’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의 신앙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스라엘 민족은 불우한 민족이었다. 이집트에서 최소 250년에서 최장 430년간 노예 상태로 있다가 탈출하여 불모지나 다름없는 팔레스틴 중부 산악지역에 정착했다. 팔레스틴 정착이후에도 주변 강대국들의 침략은 끊이지 않았다. 기원전 10세기경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번영을 누렸으나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남과 북으로 갈리었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기원전 722년에 앗수리아 제국에 의해서 패망했다. 남쪽 유다 왕국도 기원전 605

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처음 침략을 받은 후 짧게는 70년, 길게는 173년간의 유배 생활을 했다. 그 이후로는 페르시아 제국, 헬라제국, 로마제국의 침략을 차례로 받아 주권을 빼앗겼다. 기원 후 135년에 자기 영토에서 쫓겨난 이스라엘 민족은 1948년 5월 14일 새로 국가를 건국할 때까지 1,813년간 나라 없이 남의 나라에서 흩어져 살았다.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무려 1,200만 명 이상 학살당하는 큰 시련을 겪기도 했다. 지금도 그들은 아랍연맹국들의 위협 속에서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역사의 위대한 민족으로 남아 기적을 만들어 내고 있고, 세계 도처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서 큰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유대인들이 믿었던 신은 다른 문화권의 종교들이 갖고 있었던 신화도 없고, 여신도 없고, 우상이나 형상이 없어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 보고, 엮드려 절할 수가 없었다. 유대인들이 그들의 신을 볼 수 없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신을 보게되면 살아남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전국에는 단 하나의 성전만이 예루살렘에 있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두 세 개의 제단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 이전 야영시절에는 텐트로 만든 성전에 법궤라는 나무상자가 모셔져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성전에는 뿔뿔한 남성들만이 제사장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 그들이 하는 일의 대부분은 짐승을 잡는 일이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까 종교적인 매력이 있을 리가 없었다.

한편,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믿었던 바알의 종교는 매우 매력적이었다. 바알의 종교에는 금송아지로 만든 우상이 있었고, 곳곳에 신전이 있었다. 신전에는 아리따운 여사제들이 많이 있었고, 예배는 이들 여사제들과의 성적인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일부 유대인들이 유혹에 넘어 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변 국가들의 강한 종교적 유혹에도 불구하고

하고, 강대한 제국들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제국들의 찬란한 문화와 문명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노예와 포로와 피압박민의 비애와 통한에도 불구하고, 고문과 투옥과 죽음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창조주 야훼 신앙을 유지해 왔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탄압했던 강대국들은 그들의 신과 함께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졌지만, 지극히 작은 약소국인 이스라엘과 하나님 야훼는 그 엄청난 시련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뒀안길로 사라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계 인구의 상당수가 믿고 있는 하나님, 즉 유대교의 하나님, 기독교의 하나님, 천주교의 하나님, 또 이슬람교의 하나님으로 섬김을 받고 있다. 이 엄청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창세기 1장 1-5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흑암을 빛으로, 혼돈을 질서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이 우주가 흑암과 무질서와 죽음의 상태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후에는 빛과 질서와 생명의 상태로 바뀌었다. 흑암과 혼돈과 무생명의 상태는 창조적인 언어와 삶의 태도를 갖기 이전의 상태였다. 그런데 창조적인 언어와 삶의 태도가 있고 난 후에는 흑암이 빛으로, 무질서가 질서로, 생명 없음이 생명 있음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어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이었다. “어둠을 몰아낼 수 있을까? 무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을까? 생명 없음을 생명 있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라고 머뭇거리거나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주저 없이 말씀하셨다. “빛이 있으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취라.” 그러자 모든 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흑암과 혼돈과 죽음이 가득한 곳

이다. 따라서 우리는 어둡고 무질서한 죽음의 상태를 종종 경험하게 된다. 때로는 어둠과 빛 사이에서, 혼돈과 질서 사이에서, 죽음과 생명 사이에서 방황도 한다. 그 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가? 어둠의 현실을 빛으로, 무질서의 현실을 질서로, 생명 없음의 현실을 생명 있음의 현실로 바꿀 능력은 갖고 있는가? 부정과 피동적 언어의 습관을 긍정과 능동적 언어로 바꾸어 줄 정신적 지주는 있는가?

인간이 이룩한 과학 문명은 어둠과 혼돈과 죽음의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와이 호놀룰루 섬에 가면 와이키키를 비롯한 여러 해변에서 파도타기를 하는 젊은이들을 많이 볼 수 있다. 그들 중에는 아무도 파도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적당한 파도가 밀려오기를 바란다. 그리고 파도가 좋을수록 보드를 이용해서 멋진 폼의 파도타기를 해 보이곤 한다. 파도는 보드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에게 무서움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움을 가져다준다. 시카고를 끼고 있는 미시간 호수에 떠있는 백색의 요트들은 한마디로 장관이다. 요트놀이를 하는 사람들 역시 적당한 바람을 기다린다. 불어오는 바람을 이용하면 멋진 요트 타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바람과 파도를 무서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창조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사람들 또는 창조적 언어능력을 소유했던 사람들에게 의해서 흑암을 밝히는 전등이 발명되고, 정치, 경제, 사회적 혼돈을 바로 잡을 학문이 나오고, 질병을 극복하는 의학이 발달되었다. 이제 선배들의 배턴을 받아 힘차게 달려가야 할 사람들은 당신과 나, 우리 모두이다. 우리가 바로 문제를 던고 발전을 향해 일어서야 할 미래의 창조자들이다. 미래가 우리들의 손안에 있기 때문이다.

미래를 짚어준 사람들에게는 창조적 언어능력의 정신적 지주가 필요하다. 흑암과 혼돈과 죽음의 현실을 극복하고 빛과 질서와 생명의 현실로 바꾸어 갈 창조적 언어 능력을 키워줄 정신적

지주가 필요하다. 유대인들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그 문제를 던지고 일어설 원천을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찾았다. 그들의 하나님은 문제를 발전으로, 시련을 성장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어둠을 빛으로, 혼돈을 질서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창조주였다. 그들의 하나님은 시련 후에 영광이 있게 하시는 분이였다. 그들의 하나님은 죽음 후에 부활이 있게 하시는 분이였다. 이 하나님을 정신적인 지주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엄청난 시련에도 불구하고 역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다.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다. 당신의 창조적 언어능력의 원천은 무엇인가? 당신의 창조적 언어능력의 정신적 지주는 누구인가? 이 지주가 있고 없음에 따라 삶의 태도는 달라진다.

먼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했다.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이었다. 이집트 탈출에 성공하여 안전지대인 바란 광야란 곳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앞서 먼저 첩보원을 보내어 그 곳을 정탐케 하였다. 첩보원으로 선발 된 사람들은 열두 부족을 대표하는 족장들이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숨어 들어가 그 곳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 군대와 무기는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진지는 얼마나 강한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열두 명의 첩보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낱낱이 살피고 조사하여 정보를 수집했다. 그 곳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었다. 성읍은 견고하였고, 군인들은 훈련이 잘되어 있었으며, 체구가 큰 거인들이었다. 첩보원들이 보기에 자신들은 그들에 비교하면 메뚜기 같아 보였다.

이것이 가나안 땅의 현실이었다. 살기에는 분명 좋은 땅이었고, 욕심부려 볼만한 땅이었고, 차지하고 싶은 땅이었지만, 넘어야 할 장벽이 너무 컸다. 땅의 현실로만 보아서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도저히 게임이 불가능한, 흑암과 혼돈과 죽음의 상황이었다.

오래 전 두 사람의 회사원이 아프리카로 출장을 갔다. 신발 수출이 가능한지 시장 조사를 위해서 간 것이다. 가서 보니, 기가 막혔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모두가 신발 없이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이곳 저곳을 얼마간 조사해 본 후에 각각 본사로 텔렉스를 보냈다. 한 사람은 이렇게 보고했다. “신발 수출 불가능. 가능성 0%. 전원 맨발임.”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보고했다. “황금시장. 가능성 100%. 전원 맨발임.”

가나안을 정탐했던 열두 명의 첩보원들의 언어도 이와 같이 둘로 나뉘었다. 열 명은 가나안 땅의 현실을 보고 나서 그만 간이 콩알만해졌다. 매뚜기 콤플렉스에 걸렸다. 그 결과 그들의 보고에는 창조적 언어가 빠져 있었고, 온통 부정적인 말뿐이었다. 그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가 질리고 온 몸에서 기운이 빠졌다. 그들은 크게 좌절하고 낙심했다. 그래서 그들은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그들에게서 창조적 언어를 찾아 볼 수가 없었다. 오히려 창조적 언어 능력의 소유자들을 둘로 치려고 했다. 가나안 땅의 현실을 바라보고 또 그들과 자신들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진영은 부정적 언어의 정치마당으로 변하고 말았다.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시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민 14:24)라고 했다. 이 부정적 언어가 씨가 되어 그들은 현실의 장벽에 압사되고 말았고, 미래를 소유하지 못했다. 약 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소유하지 못한 채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 모두 죽어서 그곳에 묻히고 말았다.

그러나 다른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현실과 부정적인 장벽에도 불구하고 창조적 언어를 잃지 않았다. 그들은 전혀 다른 시각으로 가나안 땅을 관찰하고 판단했다. 그 결과 그들의 보고에는 자신에 찬 말로 가득 찼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민 14:7-9)고 힘차게 말했다.

이 두 사람의 말을 경청하고 따라 주는 사람은 없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이란 두 사람은 그들의 창조적 언어와 믿음 때문에 미래를 소유했다.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 미래의 주역이 되었다. 그들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창조적 언어 능력의 정신적 지주가 있었기 때문이다. 흑암을 빛으로, 혼돈을 질서로, 없음을 있음으로 바꿀 수 있는 창조적 언어 능력의 정신적 지주가 강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복해야 할 드넓은 이 세계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당신의 뇌리에 각인 되어 있는가? 밥인가? 아니면, 반대로 당신이 이 세계의 밥인가? 용기 있는 태도와 창조적 언어가 필요하다. 만일 당신의 용기 있는 태도에 창조적 언어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서 뒤를 받쳐 주신다면, 당신은 능히 흑암을 빛으로, 혼돈을 질서로, 없음을 있음으로 창조해 내게 될 것이다. 용기 있는 태도와 창조적 언어를 가지고 세계에 도전해 보라. 당신 앞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다.